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하워드 더블유 헌터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하워드 더블유 헌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발행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총서로 출간된 책들

-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물품 번호 36481 320)
-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35554 320)
-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존 테일러(35969 320)
-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36315 320)
-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로렌조 스노우(36787 320)
-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35744 320)
-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히버 제이 그랜트(35970 320)
-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지 앨버트 스미스(36786 320)
-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데이비드 오 맥케이(36492 320)
-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36907 320)
-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해롤드 비 리(35892 320)
-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유 킴볼(36500 320)
-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에즈라 테프트 벤슨(08860 320)
-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하워드 더블유 헌터(08861 320)

이 책들은 여러분 지역에 있는 배부과 또는 store.lds.org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LDS.org와 복음 자료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 책에 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Curriculum Developmen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이메일: cur-development@ldschurch.org

보내실 때에는 여러분의 성명, 주소, 와드 및 스테이크 명칭을 적으시고, 반드시 책 제목을 적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책의 장점 또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관한 의견과 제안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2015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영어 승인: 3/11

번역 승인: 3/11

Teachings of Presidents of the Church: Howard W. Hunter의 번역

Korean

08861 320



목차

소개.....	v
역사적 사건 요약.....	ix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생애와 성역.....	1
1 예수 그리스도—희망과 기쁨으로 가는 우리의 유일한 길.....	37
2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49
3 역경—우리의 영원한 진보를 위한 하나님 계획의 일부.....	61
4 높은 곳에서 오는 도움.....	75
5 회복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	87
6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	99
7 살아 계신 선지자를 통해 계속되는 계시.....	111
8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함.....	121
9 십일조의 법.....	133
10 경전-가장 유익한 공부.....	143
11 진정한 위대함.....	155
12 돌아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십시오.....	169
13 성전-우리가 교회 회원임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상징.....	177
14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을 서두름.....	187
15 주님의 만찬인 성찬.....	197
16 “결혼-영원한 동반자 관계”.....	207
17 가족을 지키고 보호하십시오.....	219
18 우리는 정직함을 믿는다.....	233
19 하나님에 대한 헌신.....	243
20 구주의 사랑의 길을 걸음.....	255
21 신앙과 간증.....	267
22 복음을 가르침.....	279
23 “봉사함이 ... 못지 아니하였나니”.....	291
24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름.....	305
시각 자료 목록.....	315
색인.....	317



Howard W. Hunter



소개

제 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총서를 마련했다. 이 총서에 포함되는 책들이 출간될 때마다 여러분 가정에 소장하는 복음 참고 서적들도 늘 것이다. 이 총서에 포함된 책들은 개인 학습과 일요일 공과에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이 책들은 또한 여러분이 다른 공과나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 교리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책에는 1994년 6월 5일부터 1995년 3월 3일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으로 봉사한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

개인 학습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신의 영감을 구한다. 각 장 마지막에 나오는 질문들은 헌터 회장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이해하며,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 제언들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 공부할 때 성신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하는 생각과 느낌을 적는다.
- 기억하고 싶은 문구들에 밑줄을 긋는다. 그 문구들을 암기하거나 경전의 관련 성구 옆에 적어 둘 수도 있다.
-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각 장이나 문구를 두 번 이상 읽는다.
-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본다. 헌터 회장의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복음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내가 이 가르침에서 무엇을 배우기를 바라실까?
- 이 책에 실린 가르침이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근심을 해결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자문해 본다.
- 배운 것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눈다.

이 책으로 가르치기

이 책은 가정과 교회에서 사용하도록 마련되었다. 다음 제언은 여러분이 이 책을 가르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가르칠 준비를 한다

가르칠 준비를 하면서 성신의 인도를 구한다. 헌터 회장의 가르침을 자신감 있게 이해하기 위해 해당 장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한다. 그의 말씀에서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때 여러분은 더 강력한 가르침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교리와 성약 11:21 참조)

대부분의 장에는 한 모임에서 토론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느끼는 가르침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택한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미리 그 장을 공부해서 잘 준비된 상태로 토론에 참여하고 서로 교화하도록 권유한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준비할 때 각 장 끝에 있는 “학습 및 교수 제언”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다. 그곳에서 질문들과 성구, 학습을 위한 도움말, 또는 교사를 위한 도움말을 찾을 수 있다. 질문들과 성구들은 그 장에 있는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다. 학습을 위한 도움말과 교사를 위한 도움말은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

공과를 소개한다

공과를 소개할 때, 참여자들의 마음과 생각이 영으로 감동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한다. 다음 제언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활용할 수도 있다.

- 각 장 처음에 나오는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생애에서” 편을 읽거나 살펴본 다음 토론한다.
- 각 장에 나오는 인용문, 사진, 또는 성구를 토론한다.
- 찬송가를 함께 부른다.
- 주제와 관련된 개인 경험담을 짧막하게 나눈다.

헌터 회장의 가르침을 토론하도록 격려한다.

이 책을 가르칠 때에는 서로 생각을 나누고, 질문하고, 간증하고, 가르치도록 권유한다. 그들은 활발하게 참여함으로써 배움을 얻고, 또 더욱더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모든 가르침을 다루려 애쓰기보다는 바람직한 토론이 계속 이어지게 한다. 헌터 회장의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토론을 이끈다.

각 장 끝에 있는 질문들은 토론을 장려하는 데 귀중한 자원이 된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관련된 질문을 직접 만들어도 좋다. 토론을 장려하기 위한 몇 가지 다른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 참여자들에게 그 장을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배운 것을 나눠 달라고 한다. 몇몇 사람에게 미리 연락해 배운 내용을 나눌 준비를 해 오도록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각 장 끝에 나오는 선정된 질문들을 개인 및 소그룹에 지정해 준다. 질문과 관련된 가르침을 그 장에서 찾아보도록 참여자들에게 부탁한다. 그런 다음 그들의 생각과 통찰을 나눠 달라고 권유한다.
- 그 장에서 헌터 회장의 가르침 중 일부를 함께 읽는다. 참여자들에게 그러한 가르침과 관련된 예를 경전과 자신의 경험에서 나누어 달라고 요청한다.
- 참여자들에게 한 편을 선택해서 조용히 읽어 보라고 한다. 같은 편을 선택한 사람 두세 명을 같은 조로 지명해 배운 내용을 토론하도록 권유한다.

적용하고 나누도록 격려한다

헌터 회장의 가르침은 개인적으로 그것을 생활에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음 제언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활용할 수도 있다.

- 참여자들에게 가정과 교회에서, 또 다른 곳에서 책임을 수행할 때, 헌터 회장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질문한다. 예를 들면, 그들이 남편이나 아내, 부모, 아들, 딸, 또는 가정 복음 교사나 방문 교사로서 헌터 회장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보고 토론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 참여자들에게 배운 것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경험을 나누어 달라고 권유한다.
- 참여자들에게 헌터 회장의 몇몇 가르침을 가족 및 친구들과 나눠 보라고 격려한다.

토론 마무리

공과를 짧게 요약하거나 한두 사람에게 공과를 요약해 달라고 부탁한다. 토론한 가르침에 대해 간증한다. 다른 사람에게 간증을 나누어 달라고 권유해도 좋다.

출처 자료에 대한 정보

이 책에 실린 가르침은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의 설교와 기사에서 직접 인용되었다. 인쇄된 출처에서 가져온 인용문은 읽기 편하도록 편집이나 인쇄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원문에 사용된 구두법, 철자법, 대문자 사용, 문단 설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인용문이 인쇄된 출처에 최대한 충실했기 때문에 본문에는 미미하나마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신회를 지칭하는 대명사의 경우, 어떤 인용문에는 소문자로, 또 어떤 곳은 대문자로 표기되어 있다.(영문에 해당하는 내용임-옮긴이)

헌터 회장은 종종 남녀 모두를 지칭할 때 *men*(남자들), *man*(남자), 또는 *mankind*(인류)와 같은 용어를 사용했다. 또한 *he*(그), *his*(그의), *him*(그를) 같은 대명사를 성별에 관계없이 사용하기도 했다. 그 시대에는 이런 표현이 관행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가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남녀 모두를 일컫는 것이다.



역사적 사건 요약

다음 연대표는 이 책에 실린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 헌터 회장의 일대기를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다.

- | | |
|---------------|---|
| 1907년 11월 14일 | 아이다호 보이시에서 존 윌리엄 (윌) 헌터와 벨레 마리 라스무센 헌터 사이에서 태어남. |
| 1920년 4월 4일 | 보이시에서 침례받고 확인됨. |
| 1923년 5월 | 독수리 소년단원 상을 받음. 보이시에서 두 번째 독수리 소년단원이 됨. |
| 1927년 1월과 2월 | 그가 결성한 밴드인 헌터스 크루네이더스와 함께 아시아행 유람선에서 두 달 간 음악을 선사함. |
| 1928년 3월 | 캘리포니아 남부로 이주함. |
| 1928년 4월 | 캘리포니아에서 은행에서 일하기 시작함. |
| 1931년 6월 10일 | 슬트레이크 성전에서 클라라 메이 (클레어) 제프와 결혼함. |
| 1932년 1월 | 대공황 때문에 은행이 강제 폐업됨에 따라 직장을 잃고, 여러 직장을 전전하기 시작함. |
| 1934년 1월 |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홍수 통제국의 토지 소유권 부서에서 일하기 시작함. |
| 1934년 3월 20일 | 아들 하워드 윌리엄 (빌리) 헌터 이세가 태어남. |
| 1934년 10월 11일 | 아들 하워드 윌리엄 (빌리) 헌터 이세가 사망함. |

- 1935년 9월 로스앤젤레스 소재 사우스웨스턴 대학교 법학 대학원(현 사우스웨스턴 법학 대학원)에 입학함.
- 1936년 5월 4일 아들 존 제이콥 헌터가 태어남.
- 1938년 6월 29일 아들 리처드 앨런 헌터가 태어남.
- 1939년 6월 8일 법학 대학원을 3등으로 졸업함.
- 1940년 4월 변호사로 개업함. 처음에는 시간제로 일하다가 1945년 경에 전임으로 일하기 시작함. 1959년에 사도로 부름받을 때까지 변호사업을 계속함.
- 1940년 9월~1946년 11월 캘리포니아 엘세레노 와드의 감독으로 봉사함.
- 1950년 2월~1959년 11월 캘리포니아 패서디나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함.
- 1953년 11월 14일 그의 46세 생일에 애리조나 메사 성전에서 부모에게 인봉됨.
- 1959년 10월 9일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에게서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 부름받음.
- 1959년 10월 15일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에게서 사도로 성임받고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 성별됨.
- 1964년~1972년 교회 계보 협회 회장으로 봉사함.
- 1965년~1976년 하와이 라이에의 폴리네시아 문화 센터 회장으로 봉사함.
- 1970년~1972년 교회 역사가로 봉사함.
- 1974년~1979년 예루살렘에 올슨 하이드 기념 공원의 기획, 기금 조성 및 건축을 감독함.

- 1975년 11월 멕시코시티에서 5개 스테이크를 한 주말에 15개 스테이크로 조직하는 일을 이끔.
- 1979년~1989년 브리검 영 대학교 근동 연구 예루살렘 센터의 기획과 건축을 감독함.
- 1979년 10월 24일 예루살렘에서 올슨 하이드 기념 공원의 헌납식을 진행함.
- 1983년 10월 9일 클레어 헌터가 10년 이상의 투병 끝에 사망함.
- 1985년 11월 10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매리온 지 롬니의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로 성별됨.
- 1988년 6월 2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매리온 지 롬니가 작고한 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성별됨.
- 1989년 5월 16일 브리검 영 대학교 근동 연구 예루살렘 센터를 헌납함.
- 1990년 4월 12일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이니스 버니스 이건 스탠튼과 결혼함.
- 1994년 6월 5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4대 회장으로 성별됨.
- 1994년 10월 1일 연차 대회에서 교회 회장으로 지지받음.
- 1994년 10월 9일 플로리다 올랜도 성전을 헌납함.
- 1994년 12월 11일 교회의 2,000번째 스테이크(멕시코 멕시코시티 콘트레라스 스테이크) 신설을 감리함.
- 1995년 1월 8일 유타 바운티폴 성전을 헌납함.
- 1995년 3월 3일 유타 솔트레이크시티 자택에서 87세를 일기로 서거함.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생애와 성역

하워드 더블유 헌터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으로 성임된 다음 날인 1994년 6월 6일에 이 두 가지를 권고했다. 그는 부드러운 권유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모범에 더 주의를 기울여 생활하고 그분이 보여 주신 사랑과 소망과 동정심을 본보기로 삼아 따라 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 친절하고, 더 공손하며, 더 겸손하게 대하고, 더 인내심을 갖고 더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¹

사람들에게 구주의 모범을 따르도록 권고하는 것은 수십 년 동안 헌터 회장의 가르침에서 핵심이었다. 그는 몇 해 전에 이렇게 말했다.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과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회복된 복음에 중심을 두고 있다면, 영원토록 그 어느 것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구주와 그분의 가르침에 중심을 두고 있지 않다면 그 어떤 성공을 거두더라도 절대 옳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²

헌터 회장의 두 번째 권고는 성전 축복을 더 온전히 향유하라는 것이었다.

“주님의 성전을 자신이 회원이라는 것을 잘 보여 주는 위대한 상징의 장소요, 가장 거룩한 성약을 맺을 수 있는 하늘과 같은 성스러운 곳으로 만드시기를 교회 회원들에게 권고드립니다. 진심으로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되기를 염원합니다. ... 성전까지의 거리가 멀어 곧바로 또는 자주 사용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성인 회원들이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며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시길 바랍니다.

성전에 자주 참석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백성이 됩시다. 시간과 재정과 개인 사정이 허락하는 한 자주 성전에 갑시다. 돌아가신 친족들을 위해서



어린아이였을 때의 하워드 더블유 헌터

뿐만 아니라 성전 예배를 통해 개인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즉 거룩하고 성결한 성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신성함과 안전을 누리기 위해 성전으로 갑시다. 성전은 아름다운 장소요, 계시의 장소이며, 평화의 장소입니다. 성전은 주님의 집입니다. 성전은 주님께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은 우리에게도 거룩한 곳이어야 합니다.”³

헌터 회장은 교회 회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이 두 권고를 계속해서 강조했다. 교회 회장으로 봉사한 시간이 9개월에 불과했지만, 그의 이 두 권고는 전 세계의 교회 회원들에게 더 그리스도처럼 되고 더 큰 헌신으로 성전 축복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시작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조상은 1800년대 중반에 4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가입했다. 어머니쪽의 조상들은 덴마크와 노르웨이 출신이었다. 그들은 고국을 떠나 유타 마운트 플레전트의 초기 정착민이 되었다. 이 용감한 개척자들의 후예인 넬리 라스무센은 장차 선지자가 될 아들을 낳았다.

아버지 쪽으로는 스코틀랜드와 뉴잉글랜드에 깊은 뿌리를 지닌 조상들이 있었다. 교회에 가입한 조상들은 큰 희생을 치렀지만 몇 년 후에 대부분이 교회를 떠났다. 1879년에 태어난 존 윌리엄 (월) 헌터는 헌터 가문이 교회와 더 이상 관련없이 지낸 3세대였다. 그러나 월 헌터는 장차 선지자가 될 아들을 낳았다.

월 헌터가 여덟 살이었을 때, 그의 가족은 아이다호 주, 보이시로 이주했다. 약 16년 후에, 월은 넬리 라스무센이 이모 부부와 함께 지내기 위해 보이시로 왔을 때 그녀를 만났다. 월은 곧 넬리에게 구애하기 시작했고 2년 뒤에 구혼했다. 넬리는 얼마간 망설였으나 월이 끈질기게 구혼하자, 결국 그의 구혼을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유타 마운트 플레전트에서 결혼하고 다시 보이시로 돌아와 가정을 꾸렸다. 그들의 첫째 자녀인 하워드 윌리엄 헌터가 1907년 11월 14일에 보이시에서 태어났다. 그들의 유일한 다른 자녀인 딸 도로시는 1909년에 태어났다.

생애의 기초를 세움

하워드가 태어날 무렵 교회는 보이시에 작은 지부 하나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지부의 활동적인 회원이었고 복음 안에서 자녀들을 키웠다. 하워드는 모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는 언제나 충실하셨습니다. … 초등학교와 [청녀] 회장으로 봉사하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때로는 교회 시작 시간 전에 교회에 가고, 교회가 끝난 후에도 어머니가 일을 끝마칠 때까지 남아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⁴ 하워드의 부친은 교회 회원이 아니었지만, 가족이 교회에 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으며, 가끔 가족들과 함께 성찬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넬리 헌터는 자녀들을 교회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외에도, 자녀들이 가정에서 강한 종교적 기초를 세울 수 있게 도와 주었다. 하워드는 이렇게 회상했다.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신 분이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무릎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 어린 시절 저는 어머니의 무릎에서 간증을 얻었습니다.”⁵

보이시 지부는 1913년, 하워드가 6세 생일을 맞이하기 며칠 전에 와드로 승격되었다. 2년 후에 하워드가 여덟 살이 되었을 때, 그는 침례받기를 고대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침례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가슴이 설렐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았다. 하워드는 이렇게 회상했다. “아버지는 … 제가 어떤 인생 길을 가고 싶은지 알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비록 침례받을 시간이 오고 그 축복을 받지 못한 채 시간은 지나가 버렸지만, 저는 침례받고 싶었습니다.”⁶

침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워드는 12세가 되었을 때 집사에 성임되지 못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제 친구들은 모두 집사에 성임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의 공식적인 회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들 중 많은 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⁷ 하워드는 특히 그가 성찬을 전달할 수 없다는 것에 마음 아파했다. “저는 성찬식에서 다른 소년들과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찬을 전달할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의자에서 반쯤 누운 자세로 있곤 했습니다. 굉장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⁸

하워드는 다시 아버지에게 사정했다. 이번에는 열 살 된 동생 도로시와 함께 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침례를 허락해 주시도록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은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결국 아버지께서 승낙하셨을 때 우리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⁹ 하워드



헌터스 크루네이터스와 함께 찍은 사진. 가운데에 하워드 더블유 헌터가 있음. 1927년

가 열두 살이 된 지 거의 5개월 후에 그와 도로시는 공공 수영장에서 침례 받았다. 곧이어 그는 집사에 성임되었고 처음으로 성찬을 전달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두렵기도 했지만, 그 특권을 가진 것이 무척 기쁩니다.”¹⁰ 그외 다른 임무로 그는 오르간 파이프를 펌프질하고 추운 일요일 아침에 예배당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교회 회원이 되고 신권을 소유하면서 갖게 되는 책임을 배움에 따라 저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¹¹

청남으로서 그는 와드 보이스카우트에 입단했으며, 최고의 영예인 독수리 소년단원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그 목표에 가까워졌을 때, 그는 선의의 경쟁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기억했다. “보이시에서 첫 번째 독수리 소년단원이 되기 위해 우리 둘이 경쟁했습니다.”¹² 다른 청남이 먼저 요건들을 완료했지만, 하워드는 두 번째 단원이 되는 것에 만족해하는 것 같았다.¹³

하워드는 일찍부터 근면을 배웠다. 그는 미망인들과 이웃들을 도왔으며, 신문을 팔았고, 삼촌의 목장에서 일했다. 나이가 더 들면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했고, 전보를 배달했으며, 약국, 신문사, 호텔, 백화점, 화방에서 일했다.

도로시 헌터는 오빠가 “야망”과 “똑똑한 머리”를 가졌다고 말했다.¹⁴ 그는 이런 특성에 금상첨화처럼 동정심과 관대함의 자질도 겸비했다. 남을 돌보는 오빠의 성품을 회상하면서 도로시는 이렇게 말했다. “오빠는 언제나 착한 일을 하고 남들을 친절하게 대하려고 했습니다. 정말 훌륭했던 오빠는 늘 저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에게도 잘하고요.”¹⁵

하워드는 동물들에게도 동정심을 보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길잃은 고양이를 볼 때마다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으로 데려와 안식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¹⁶ 한번은 하워드의 집 근처에서 이웃 꼬마들이 새끼 고양이를 관개용 개울에 집어 던지며 괴롭히고 있었다. 새끼가 물에서 기어나오면 그 꼬마들은 다시 집어 던졌다. 지나가다 이를 본 하워드가 그 새끼 고양이를 구해 주었다. 도로시는 이렇게 회상했다. “새끼는 반쯤 죽어 있는 상태로 그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빠는 고양이 새끼를 집에 데리고 왔지요.”¹⁷

“살아나지 못할 거야”라고 어머니는 말했다.

그러나 하워드는 이렇게 주장했다. “엄마, 그래도 노력은 해 봐야지요.”¹⁸

도로시는 이렇게 말했다. “새끼를 담요에 싸서 따스한 난로 가까이 두고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 고양이는 살아났으며, 그 후로 그들은 그 고양이를 여러 해 동안 키웠다.

하워드는 1923년 보이시 제2와드가 조직되기 직전에 교사에 성임되었다. 새로 조직된 와드를 위한 예배 장소가 필요했고 와드가 더 커질 것을 예상해, 지역 교회 지도자들은 스테이크 태버나클을 짓자고 제안했다. 이 건물의 건축을 위해 보이시의 성도들은 미화 20,000달러를 헌금할 것을 요청받았다.¹⁹ 한 모임에서 지도자들은 헌금을 요청했고, 어린 하워드 더블유 헌터가 제일 먼저 손을 들어 약속했다. 그가 약속한 금액은 25달러였는데, 그 액수는 1923년에는 큰 돈이었고, 15세 소년에게는 특히 더 큰 돈이었다. 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약속한 금액을 모두 바칠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저축했습니다.”²⁰ 태버나클은 1925년에 완공되었고,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이 그 해 12월에 헌납했다.²¹

어렸을 때부터 하워드는 음악적 재능을 보였고, 10대 시절에는 몇 가지 악기 다루는 법을 배웠다. 16세에 그는 자신의 악단을 만들고 헌터스 크루



아들 존과 리처드와 함께 있는 하워드와 클레어 헌터

네이더스라고 이름지었다. 이 악단은 보이시 지역에서 열리는 무도회와 연회 등 여러 행사에서 자주 공연했다.

하워드가 19세가 되었을 때, 그는 아시아로 가는 유람선에서 연주하는 계약을 맺었다. 1927년 첫 두 달 동안 하워드의 5인조 밴드는 유람선이 태평양을 건너 일본, 중국, 필리핀의 여러 도시에 들르는 동안 만찬과 무도회에서 연주했다. 유람선 여행은 하워드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과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와 깨우침을 얻는 경험이 되었다. 번 돈의 대부분을 관광과 기념품 구입에 썼지만,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생각하면 그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²²

큰 결정의 시간

하워드가 유람선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그가 없는 동안 아버지가 침례 받았다는 기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일요일에 하워드와 아버지는 처음으로 함께 신권회에 참석했다. 배려심 많은 감독은 월 헌터에게 침례 받으라는 권유를 해 왔었고, 하워드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가 교회에 대해 큰 관심을 갖도록 이끄신 분은 [가정] 복음 교사였습니다.”²³

유람선 여행에서 돌아온 후 하워드는 장래가 불확실했다. 그는 음악 활동과 자영업, 기타 직업으로 바빴지만, 이것들 중 아무것도 장래성 있는 좋은 직업이 못되었다. 1928년 3월 그가 구상한 새로운 사업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그는 캘리포니아 남부에 있는 친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본래



패서디나 스테이크 지도자들, 1950년 왼쪽부터: 스테이크 회장단 제1보좌, 데이큰 케이 브로드헤드; 회장, 하워드 더블유 헌터; 제2보좌, 에이 케이 베리; 서기, 엠론 잭 존스.

는 한두 주만 머물 계획이었지만, 그는 곧 거기에 남아 그의 표현대로 “기회가 있는 직장”을 찾아보기로 결심했다.²⁴ 캘리포니아에서 그는 직장 뿐만 아니라 아내도 얻었고, 교회에서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들과 30년 이상 살게 될 집도 얻었다.

캘리포니아에서 하워드가 처음 한 일은 신발 파는 것과 감귤류 과일 포장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었다. 공장에서는 45 또는 50톤 가량의 오렌지를 철도 차량에 실을 때도 있었다. 그는 익살스럽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오렌지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루는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레몬을 색상별로 분류해야 했는데, 그는 색맹이었기 때문에 노란색과 초록색을 구별할 수가 없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저는 그날 업무가 끝나기 전에 미쳐 버리고 말 것 같았습니다.”²⁵

감귤류 공장에서 2주간 일한 뒤, 하워드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 은행에 지원했고, 곧바로 고용이 되어 빠르게 승진하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저녁 때는 여러 밴드와 함께 연주하며 음악 활동을 계속했다. 1928년 9월, 하워드가 캘리포니아로 이사한 지 6개월가량 되었을 때, 부모님과 여동생도 그곳으로 이사와 온 가족이 다시 함께하게 되었다.

청소년 시절에 하워드는 교회에 참석했지만 복음을 깊이 있게 공부하지는 않았다. 캘리포니아에서 그는 복음 공부에 주의를 더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처음으로 복음에 대해 눈을 뜬 것은 아담스 와드에서 피터 에이 클레이튼 형제님이 복음을 가르쳤던 주일학교에서였습

니다. 그는 풍부한 지식과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과를 공부했고, 그분이 과외로 주는 읽기 숙제를 했으며 주어진 주제에 대해 말하는 것에 참여했습니다. ... 저는 이 기간을 제 인생에서 복음 진리가 펼쳐지기 시작한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전에도 복음에 대한 간증은 늘 갖고 있었지만, 이때 갑자기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²⁶ 그 주일 학교에서 했던 경험은 하워드가 복음 공부를 평생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워드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다른 청년 성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다. 그들은 함께 교회에 참석했고, 어떤 일요일에는 두세 개 워드에 참석하며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그 활동들 중 하나가 헌터 회장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캘리포니아에 도착한 지 몇 달 후에 그는 친구 몇 명과 함께 교회 무도회에 참석한 후 해변을 거닐러 바다로 갔다. 그날 저녁 하워드는 그의 친구 중 한 명과 데이트 중이던 클라라 메이 (클레어) 제프를 만났다. 하워드와 클레어는 곧 서로에게 매력을 느꼈고, 서로에 대한 호감은 사랑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들은 1928년에 몇 번 데이트를 했으며, 그다음 해에는 더 진지한 관계가 되었다. 하워드는 후에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밝은 갈색 머리의 아름다운 아가씨였습니다. 세계 가장 큰 인상을 준 것은 그녀가 가진 간증의 깊이였다고 생각합니다.”²⁷ 1931년 어느 봄날 저녁, 만난 지 거의 3년 만에 하워드는 클레어를 태평양이 보이는 곳으로 데려갔다. 거기서 그는 구혼을 했고, 그녀는 그 구혼을 받아들였다. 하워드는 이렇게 회상했다.

“우리는 팔로스 버디스로 차를 몰고 가서 보름달 밝은 빛 아래 태평양에서 몰려오는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것을 볼 수 있는 절벽에 주차했습니다. 우리는 장래를 의논했고, 저는 그녀의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많은 결정을 내렸고, 우리 삶에 관해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²⁸

그 결심들 때문에, 하워드는 결혼식 나흘 전에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했다. 그날 밤 그의 밴드가 공연을 끝낸 뒤, 그는 악기를 집어 넣고 다시는 직업적인 연주를 하지 않았다. 무도회와 연회에서 연주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화려했고, 수입도 좋았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그 생활 방식은 그가 생각하는 가족 생활과는 맞지 않는다고 느꼈다. 그는 후에 이렇게 말했다. “제가 좋아했던 일을 그만 뒤 허전했지만 그 결정에 대해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²⁹ 그의 아들 리처드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아버지의 그런 놀라운 절제력에 대해 종종 생각했습니다.(저는 그것을 확고한 결심이

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깊이 사랑했던 어떤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³⁰

결혼 초기의 어려움과 축복

하워드와 클레어는 1931년 6월 10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하고 캘리포니아 남부로 돌아와 함께 삶을 시작했다. 대공황으로 미국의 경제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고, 1932년 1월에 하워드가 일하고 있던 은행이 강제 폐업되었다. 이후 2년 동안 그는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근근이 살았다. 그와 클레어는 최대한 오랫동안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로 결심했지만, 1년 후에 잠시 동안 함께 살자는 클레어 부모님의 권유를 받아들였다.

1934년 3월 20일에 하워드와 클레어의 첫 아이가 태어났다. 아들이었다. 그들은 그 아들을 하워드 윌리엄 헌터 이세로 이름짓고 빌리라고 불렀다. 그 해 여름 그들은 빌리가 힘이 없어 보이는 것을 알아차렸다. 의사들은 빈혈이라고 진단했고, 하워드는 그의 피를 두 번이나 수혈해 주었지만, 빌리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검사를 더 한 뒤에야 내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의사들은 수술을 권했다. 하워드는 이렇게 회상했다. “저는 침대가 있는 수술실로 인도되어 빌리가 수술을 받는 동안 빌리 옆에서 그에게 피를 주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의사들은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³¹ 7개월 된 빌리는 3일 후에 그의 침대 옆에 앉아 있는 부모를 뒤로한 채 숨지고 말았다. 하워드는 이렇게 기록했다. “우리는 그날 밤 깊은 슬픔으로 망연자실하여 병원을 나왔습니다.”³²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³³

빌리가 태어나기 두 달 전에 하워드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홍수 통제국에 일자리를 얻었다. 거기서 법률 서류들과 법정 기록들을 접하게 되면서 그는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노력과 결심이 필요했다. 학사 학위도 없었던 하워드는 법학 대학원 입학 허가를 얻기까지 많은 과목을 이수해야 했다. 계속 일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밤에 공부했다. 법학 대학원에 다닐 때에도 그는 계속 온종일 일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학교에 가야 했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³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은 제게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³⁵ 하워드는 그 벅찬 일과를 5년 동안 계속했고 결국 1939년에 반에서 3등으로 졸업했다.



1965년, 십이사도 정원회. 앞은 사람, 왼쪽부터: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의자 팔걸이에 걸쳐 앉아 있음), 조셉 필딩 스미스(정원회 회장), 리그랜드 리차즈, 서 있는 사람, 왼쪽부터: 고든 비 힝클리, 델버트 엘 스타플리, 토마스 에스 몬슨, 스펜서 더블유 김볼, 해롤드 비 리, 매리온 지 롬니, 리처드 엘 에반스, 하워드 더블유 헌터.

하워드가 법학 대학원에 다니는 동안, 두 아들이 더 태어났다. 1936년에 존이 태어났고 1938년에는 리처드가 태어났다. 하워드가 홍수 통제국에서 일한 덕분에, 이 가족은 작은 집을 살 수 있었다.

엘세레노 와드의 감독

법학 대학원을 졸업한 지 일년 후인 1940년에 하워드는 캘리포니아에 새로 조직된 엘세레노 와드의 감독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이 부름을 받았을 때 놀란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항상 감독은 나이 든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서른둘밖에 안 된 제가 어떻게 와드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스테이크 회장단은 그의 능력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하다”고 대답하며 그를 안심시켜 주었다, 하워드는 그 임무가 벽치게 느껴졌지만 이렇게 약속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³⁶ 그는 큰 결심과 영감과 동정심을 갖고 6년 이상 감독으로 봉사하면서 그 약속을 지켰다.

또다시 하워드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힘을 소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지만, 자기의 봉사가 많은 축복을 가져왔다고 느꼈다. 그는 이렇게 말

했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노력과 시간을 요하는 책임들이 벽차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큰 축복이었습니다.”³⁷

새로운 와드에 즉각 필요한 것은 예배 볼 장소를 찾는 것이었다. 감독단은 한 건물의 방 몇 개를 임차했고, 와드 회원들은 집회소 건축을 위해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교회 건물의 건축은 제2차 세계 대전의 발발로 곤연기되었으나, 와드 회원들은 앞을 내다보고 계속해서 기금을 모았다. 기금 마련의 한 방편으로 그들은 피클 공장에서 양파를 다듬었고, 이것을 “양파 프로젝트”라고 불렀다. 양파 냄새가 몸에 배자, 헌터 감독은 다음과 같은 재담을 했다. “양파 자르기를 한참 하고 온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찬식에서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³⁸

그 밖에도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사우어크라우트(소금에 절인 독일식 양배추 요리) 공장에서 양배추를 썰고, 아침 식사용 시리얼을 포장했으며, 잉여분을 판매했다. 헌터 감독은 이렇게 회상했다. “우리가 함께 일한 그 시간들은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회원들이 감독단을 도와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금을 모았습니다. 우리 와드는 행복한 대가족 같았습니다.”³⁹ 많은 인내와 희생을 치른 후에 와드 집회소를 갖는 목표는 하워드가 감독에서 해임되고 거의 4년이 지난 후인 1950년에 마침내 실현되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감독으로 봉사하는 것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다. 와드의 많은 남성 회원들이 군에 입대했기 때문에 집에 남편과 아버지가 없는 가족들이 많았다. 남자 회원들 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교회 부름을 채우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워드는 감독으로 봉사하면서 와드의 보이스카우트 단장으로 봉사하기도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는 방치할 수 없는 훌륭한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소년들과 약 2년 동안 함께 일했고, 그들은 크게 발전했습니다.”⁴⁰

하워드는 1946년 11월 10일에 감독에서 해임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봉사할 수 있었던 이 특권과 그때 배운 것들에 대해 항상 감사할 것입니다.” 그 경험은 비록 “여러 면에서 힘들었[지만] 그와 클레어는 “그것이 [그들] 가족에게 가르쳐 준 가치에 감사”했다.⁴¹ 헌터 감독의 봉사에 감사를 표하면서, 한 와드 회원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리 작은 와드의 회원들을 단결된 노력을 통해 하나로 모았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와드 회원들은 모두 함께 일했고, 함께 기도했으며, 함께 놀았고, 함께 예배드렸습니다.”⁴²

하워드는 1946년에 해임되었지만, 엘세레노 와드 회원들과의 특별한 유대는 지속되었다. 아들 리처드는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들과 계속 연락했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의 상황이 어떤지 아셨습니다. 아버지는 옛 와드의 회원이 살았던 지역으로 갈 때마다 그들과 연락을 취하곤 하셨습니다. 그 와드 회원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평생 동안 지속되었습니다.”⁴³

가정을 돌보며 경력을 쌓음

하워드와 부인 클레어는 아들들에게 가치와 책임, 복음의 중요성을 가르친, 사랑 넘치는 부모였다. 교회가 월요일 저녁을 가정의 밤으로 지정하기 훨씬 전에 헌터 가족은 그날 밤을, 가르치기, 옛날이야기하기, 게임하기, 함께 다른 곳에 가기 등을 하는 시간으로 정해 놓았다. 가족 여행을 할 때 그들은 가끔 성전에 들러 존과 리처드가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침례 의식을 할 수 있게 해 주었다. 하워드와 아들들은 또한 모형 기차 조립하기, 캠핑, 기타 야외 활동을 함께 하는 것을 즐겼다.

존과 리처드가 태어났을 때 하워드는 하루종일 일하면서 법학 대학원에 다녔으며, 그들이 각각 네 살과 두 살로 매우 어렸을 때, 감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클레어의 헌신이 각별히 더 필요했다. 클레어는 기꺼이 헌신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저의 바람과 가장 큰 소망은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가정 주부가 되고, 정말로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아들들이 교회와 가깝게 생활하도록 열심히 노력했어요. 아들들과 저는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냈어요.”⁴⁴ 하워드는 아내가 아들들을 키우면서 끼친 영향과 치른 희생에 대해 자주 칭찬했다.

가정을 돌보고 교회 지도자 부름에서 봉사하면서 하워드는 또한 변호사업을 번창시켰다. 주로 사업자 및 기업 고객을 상대하면서 그는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크게 존경받는 변호사가 되었다. 그는 20여 개가 넘는 회사에서 이사회 임원으로 봉사하도록 선임되었다.

업계에서 그는 정직성과 정확한 사고, 명확한 의사 소통 능력과 공정성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되었다. 그는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관심을 갖고 도와줄 시간을 내는” “사람을 위한 변호사”⁴⁵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하워드가 “자신이 받을 보수보다 사람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돕는 것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고 말했다.⁴⁶

캘리포니아 패서디나 스테이크 회장

1950년 2월, 십이사도 정원회의 해롤드 비 리 장로와 스티븐 엘 리차즈 장로가 캘리포니아로 와 급속히 성장하는 패서디나 스테이크를 분리했다. 그들은 하워드를 포함해 스테이크 내 여러 형제들을 접견했다. 주님께서 누가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기를 원하실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려한 뒤, 거의 자정이 가까울 무렵 그들은 하워드를 불러 그 부름을 주었다. 리차즈 장로와 리 장로는 그에게 잘 자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로 보좌들을 추천하라고 말했다. 하워드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지만 한 숨도 못 잤습니다. 그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부름이었습니다. 클레어와 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⁴⁷

헌터 회장과 그의 보좌들은 지지받은 후 스테이크의 필요 사항들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스테이크 회장단의 최우선 순위는 회원들이 영적인 힘을 기르도록 돕는 것이었다. 우려되는 점은 가족들이 분열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너무 많은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이 그 부분적인 이유였다. 지도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의논한 뒤, 그들은 가정의 밤을 강조하고 월요일 밤을 가족을 위한 시간으로 정해 놓고 지켜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월요일 밤에는 스테이크 내의 모든 교회 건물들을 닫았고, “그 신성한 저녁을 방해하지 못하게 아무런 모임도 갖지 않았다”고 헌터 회장은 설명했다.⁴⁸

봉사 초기에 헌터 회장과 캘리포니아 남부의 다른 스테이크 회장들은 스티븐 엘 리차즈 장로와 함께 고등학생들을 위한 세미나리 프로그램에 대해 토의했다. 헌터 회장은 이렇게 회상했다. “[리차즈 장로님은] 법적으로 종교 교육 시간을 주지 않는 지역에서 새벽반 세미나리를 시범적으로 시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⁴⁹ 헌터 회장은 그 제안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위원회의 의장으로 임명되었다. 검토를 마친 후 위원회는 새벽반 세미나리를 시작할 수 있는 세 개 고등학교를 추천했다. 청소년이었던 헌터 회장의 아들 리처드는 이 시범 새벽반 세미나리에 참여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새벽 6시에 수업을 하다니 다들 정신 나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가 학교 생활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교회 친구들이 함께 모여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⁵⁰ 이 프로그램은 곧 다른 학생들에게로 확장되었고, 그것은 교회 청소년을 위한 새벽반 세미나리의 효시가 되었다.



브리검 영 대학교 근동 연구 예루살렘 센터

1951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제일회장단은 캘리포니아 남부의 스테이크 회장들과 모임을 하면서 로스앤젤레스에 성전을 건축하고자 한다는 그들의 소망을 발표했다. 가까이에 성전이 생기게 된다는 전망은 큰 기쁨을 준 동시에 큰 희생이 요구되었다. 교회 회원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 백만 달러를 보조하도록 요청받았다. 헌터 회장은 캘리포니아로 돌아오자마자 스테이크 및 와드 지도자들과 모임을 갖고 “사람들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 후하게 헌금함으로써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말했다.⁵¹ 6개월 안에 캘리포니아 남부 회원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 160만 달러를 약속했고, 이 성전은 1956년에 헌납되었다.

성전과 기타 교회 건축 헌금 이외에도, 회원들은 자원해서 노동력을 제공했다. 집회소들을 지을 때 헌터 회장은 많은 시간을 삼질, 망치질, 또는 페인트 칠을 하며 도왔다. 게다가 회원들은 가금류 농장, 감귤류 농장, 또는 통조림 공장 등 여러 교회 복지 프로젝트에 자원해서 노동력을 제공했다. 8년 동안 헌터 회장은 이 프로젝트에서 12개 스테이크의 참여를 협의 조정하는 임무를 맡았고, 본인도 자주 직접 일을 도왔다. 한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하지 않을 일을 그 누구에게도 하라고 시키거나 임무를 준 적이 없었습니다.”⁵² 여러 해가 지난 후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 된 헌터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제가 참여했던 복지 프로젝트가 재미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나무에 올라가 레몬을 따고, 과일 껍질을 깎으며, 보일러를 작동시켰고, 상자들을 날랐으며, 트럭에서 물건을 내렸고, 통조림 공장을 청소하는 등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노래하며 친목을 다진 것이었습니다.”⁵³

1953년 11월에 헌터 회장 부부와 패서디나 스테이크의 다른 회원들은 애리조나 메사 성전으로 가 성전 의식을 받았다. 11월 14일은 헌터 회장의 46세 생일이었는데, 성전 회장은 그날 의식이 시작되기 전에 그에게 성전 예배실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후에 이 경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회중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얀 옷을 입고 그 예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성전 축복을 받기를 갈망하신 것을 알았지만 아버지가 성전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는 감정에 복받쳐 말씀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어스 회장님 [성전 회장]이 제 옆으로 와 회중에게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날 아침 성전에 와서 성전 회장님에게 당신들이 거기에 온 것을 제게 말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은 그것을 제 깜짝 생일 선물로 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결코 잊지 못할 생일이었습니다. 그날 제 부모님은 엔다우먼트를 받으셨으며, 저는 그분들의 인봉의 증인이 되는 특권을 가졌고, 곧이어 제가 그분들에게 인봉되었기 때문입니다.”⁵⁴

약 3년 후에 새로 헌납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성전에서 도로시가 그녀의 부모님에게 인봉되었을 때 헌터 회장 가족의 영원한 유대가 완성되었다.

스테이크 회장으로서는 헌터 회장은 사랑으로 인도했다. 스테이크 부름에서 봉사한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그분은 우리가 인정받고 있고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 그는 사람들이 부름을 받을 때 책임을 느끼게 했으며, 그의 의견이나 권고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온전한 지지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⁵⁵ 그의 보좌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성취한 일을 칭찬해 줌으로써 그들이 큰 기대에 미칠 수 있게 이끌었습니다.”⁵⁶ 헌터 회장이 자기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선생이라고 말한 한 스테이크 회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분은 다른 사람들을 높은 우선 순위에 두고, 그



헌납 전 브리검 영 대학교 근동 연구 예루살렘 센터에 있는 헌터 회장

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이해하며, 그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그들을 사랑했습니다.”⁵⁷

1959년 가을까지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은 패서디나 스테이크를 9년 넘게 감리하면서,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수천 명의 후기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는 봉사를 했다. 그의 성역은 곧 전 세계의 교회 회원들의 삶을 축복하기 위해 확장될 참이었다.

십이사도 정원회

“너는 ... 나의 이름을 증거할지며 땅 끝까지 나의 말을 보낼지니라.”(교리와 성약 112:4)

1959년 10월 9일에 솔트레이크에서 열린 연차 대회 모임들 사이에 하워드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이 그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즉시 교회 사무실 건물로 갔다. 그곳에서 맥케이 회장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 주고 이렇게 말했다. “헌터 회장님, ...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은 그분의 특별한 증인들 중 한 명이 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형제님은 내일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지지받을 것입니다.”⁵⁸ 그 경험에 관해, 하워드는 이렇게 기록했다.

“그때 내가 느낀 느낌을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선지자인 이 훌륭한 다정하고 친절하신 분앞에 앉았을 때 그렇게 온전히 겸손해지는 것을 느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이것이 제 인생에 가져올 기쁨이 얼마나 클지, 형제님들과의 훌륭한 교류, 그리고 이후부터 주님의 종으로서의 나의 인생과 시간이 헌납될 것이며, 내가 이후부터 교회와 전 세계에 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그는 팔로 저를 감싸고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며 제일 회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가 저를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 저는 [그분에게] 기쁘게 저의 시간과 인생과 제가 소유한 모든 것을 이 봉사에 바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⁵⁹

하워드는 맥케이 회장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호텔 방으로 가서 아들 존과 며느리와 손주를 보러 프로보로 간 클레어에게 전화를 걸었다. 처음에 헌터 회장은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그가 마침내 클레어에게 부름에 대해 말했을 때, 그들은 둘 다 기쁨과 감사로 목이 메었다.

다음 날 연차 대회 토요일 오전 모임에서 하워드 더블유 헌터는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 지지되었다. 그는 그 당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세상의 무게 중심이 제 어깨에 옮겨지는 …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몹시 불안하고 과연 이 자리가 제가 앉아도 되는 자리인가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⁶⁰

맥케이 회장은 헌터 장로에게 대회의 일요일 오후 모임에서 말씀하라고 요청했다.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해 간단히 말하고 간증을 전한 후,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해 사과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복음에 대한 감사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기쁨으로 저처럼 가슴이 뛰는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과 친구들 앞에서 제가 말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맥케이 회장님, … 저는 회장님께서 제게 주신 부름을 주저없이 받아들이며 제 인생과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이 봉사에 기꺼이 바칠 것입니다. 이 서약에 헌터 자매도 저와 함께 동참합니다.”⁶¹

헌터 장로는 1959년 10월 15일에 사도로 성임되었다. 51세에 그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최연소 회원이 되었다. 당시 십이사도의 평균 연령은 66세였다.



하워드와 클레어 헌터

다음 18개월 동안 헌터 장로는 캘리포니아와 유타 사이를 정기적으로 오가면서 그의 법률 사무실을 정리하고 이사할 준비를 했다. 그의 고객들 중 한 명은 그가 그렇게 성공적인 변호사업을 떠나다니 그를 데려가기 위해서 “교회가 아주 매력적인 제안을 한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것에 대해 헌터 장로는 일지에 이렇게 적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교회 사람들이 봉사하라는 부름에 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결심을 이행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 나는 변호사업을 정말 좋아했지만 제게 온 이 부름은 경력을 쌓고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것입니다.”⁶²

헌터 장로의 사도 성역은 35년 이상 지속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그는 세상의 거의 모든 나라를 방문해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성취했다.(교리와 성약 107:23 참조)

유타 계보 협회

“주의 거룩한 성전[에서] ... 우리의 죽은 자의 기록이 실려 있는, 받으시기에 온전히 합당한 책을 바치자.”(교리와 성약 128:24)

1964년에 제일회장단은 헌터 장로를 당시 유타 계보 협회로 알려진 교회의 계보 협회 회장으로 임명했다. 그 조직은 교회 가족 역사부의 전신이

었다. 이 조직의 목적은 전 세계에서 계보 정보를 수집하여 보존하고 공유하는 것이었다. 헌터 장로는 이 협회를 8년 동안 감리했다. 그는 그 기간 동안 가족 역사 사업을 촉진시키고 질적으로 향상시키며 확장시키는 가운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큰 변화를 이룩했다.

1969년까지 이 조직은 “300쪽짜리 책 300만 부에 해당하는 67만 롤 이상의 마이크로필름을” 모았다. 또한 “600만 개의 완성된 가족 그룹 기록과 3,600만 명의 카드 파일 색인, 9만 부 이상의 책”을 모았다.⁶³ 매주마다 전 세계에서 오는 약 1,000롤의 마이크로필름이 추가되고 있었다. 그 기록들을 처리하고 또한 조사와 성전 사업에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은 엄청난 작업이었다. 헌터 장로의 지도력 아래 계보 협회는 최신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일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한 작가는 이 협회가 “혁신적인 기록 관리로 우수한 전문 조직들 가운데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고” 언급했다.⁶⁴

헌터 장로는 1972년에 계보 협회 회장에서 해임되었다. 그의 노력이 미친 영향을 요약하면서,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그분은 인생의 상당 부분을 그 일에 헌신해 기초를 놓고 방향을 정립했습니다.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그 혜택을 수확하고 있습니다.”⁶⁵

폴리네시아 문화 센터

“너희, 먼 곳에 있는 백성들이여, 들으라, 바다의 섬들 위에
있는 너희여, 함께 귀를 기울이라.”(교리와 성약 1:1)

1965년에 제일회장단은 헌터 장로를 하와이 라이에에 소재한 폴리네시아 문화 센터 회장 및 이사회 의장으로 임명했다. 그 당시 이 센터는 개설한 지 15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관광객 방문 수는 낮았고 사람들은 그 센터의 목적과 프로그램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었다. 헌터 장로는 임명된 지 일주일 후에 라이에로 가서 센터의 강점과 보완할 점을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헌터 장로의 지도력 아래 폴리네시아 문화 센터는 하와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가 되어, 1971년에는 약 1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다. 헌터 장로는 또한 센터의 대대적인 확장과 프로그램들을 감독했다. 또 중요한 점은, 헌터 회장의 말에 따르면, 이 센터가 고용을 창출한 것이었다.

“남태평양 출신의 수천 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일자리가 없었다면] 이들 대부분은 그들의 섬을 떠나 학교에 다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⁶⁶

헌터 장로는 폴리네시아 문화 센터를 12년 동안 감리한 후 1976년에 이직에서 해임되었다. 회장으로 그가 한 봉사는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의 말씀을 성취시켰다. 1955년에 맥케이 회장은 라이에의 이 작은 마을이 “선교 사업에 증대한 역할을 하게 될 [잠재력이 있으며], 이 마을과 이 마을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 찾아 올 수천도 아니고 수만도 아닌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⁶⁷

교회 역사가

“주께서 임명하신 주의 서기의 임무는 시온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 관한 역사와 교회의 일반 기록을 작성하는 것이요”(교리와 성약 85:1).

1970년 1월에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이 서거했고, 조셉 필딩 스미스가 새로운 교회 회장으로 성별되었다. 조셉 필딩 스미스는 49년 동안 교회 역사가로 봉사하고 있었지만, 그가 교회 회장이 되자 헌터 장로가 그의 뒤를 이어 이 임무에 부름받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스미스 회장님이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역사가로 봉사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직책을 맡는다는 것을 상상하기가 힘들었습니다.”⁶⁸

헌터 장로는 늘 그랬듯이 열의를 갖고 이 새로운 책임에 접근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계시를 통해 주님께서 주신 이 임무는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수집하고 기록하는 일도 힘들고 그 자료들을 교회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일도 힘듭니다.”⁶⁹ *Church News*는 교회 역사가가 “회의록, 성전 기록, 모든 성입, 축복사의 축복, 그리고 ... 교회 역사 사료를 관장한다”고 보도했다.⁷⁰

1972년에는 십이사도들이 사도의 성역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도록 그들의 행정 업무가 경감되었다. 이 변화의 일부로 헌터 장로는 교회 역사가에서 해임되었으나 교회 역사부 고문의 역할은 유지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이로써 제가 지휘는 하지만, 운영 업무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⁷¹ 그는 1978년까지 고문 역할을 계속했다.



하워드와 이니스 헌터

성지에서의 봉사

하워드 더블유 헌터는 1958년과 1960년에 가족과 함께 성지를 여행하면서 성지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갖게 되었다. 사도로서 봉사하는 동안 그는 이곳을 스무 번 이상 방문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구주께서 걸으시고 가르치셨던 곳에 있고 싶어 하는 그의 갈망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⁷²

종교적 갈등을 절실하게 인식한 헌터 장로는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유대인과 아랍인 모두가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들 둘 다 약속의 자녀들이며, 우리 교회는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각에 대해 사랑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적은 사랑과 단합과 가장 높은 반차의 형제애를 가져오는 것입니다.”⁷³

1972년에서 1989년 사이에 헌터 장로는 예루살렘에서 두 개의 특별 프로젝트, 즉 올슨 하이드 기념 공원과 브리검 영 대학교 근동 연구 예루살렘 센터를 건설하는 주요 임무를 수행했다. 교회 역사 초기인 1841년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올슨 하이드 장로는 예루살렘 동쪽의 감람산에서 헌납 기도를 드렸다. 1972년에 제일회장단은 헌터 장로에게 예루살렘에 올슨 하이드 기념관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 물색을 시작하라고 요청했다. 1975년에 예

루살렘 시는 감람산에 건축될 올슨 하이드 기념 공원을 위한 길을 열어 주었다.

이후 몇 년 동안 헌터 장로는 예루살렘을 여러 차례 방문해 기념관을 위한 계약들을 협상하고 그 설계와 건축을 감독했다. 이 프로젝트는 1979년에 완공되었고 같은 해에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이 헌납했다. 헌납식을 진행한 헌터 장로는 다음과 같이 그의 믿음을 표현했다. 이 기념관은 “교회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⁷⁴

올슨 하이드 기념 공원이 완공되기 전에 헌터 장로는 브리검 영 대학교 해외 연구 프로그램을 위한 센터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물색하고 있었다. 이 센터는 예루살렘 지부 회원들을 위한 모임 장소 역할도 할 예정이었다. 이 프로젝트를 감독하는 것은 헌터 장로의 성역에서 가장 복잡하고 민감한 임무들 중 하나였다.

교회 지도자들이 부지를 선정했으나 대지 임차 및 건물 설계 도면의 승인을 얻는 데만 거의 5년이나 걸렸고 헌터 회장은 이것을 “끝이 없는 일”이라고 묘사했다.⁷⁵ 수많은 토론과 협상 끝에 이스라엘 정부는 이 센터의 건립을 승인했다.

1988년 5월에 이 건축은 대부분 완성되었고 대지 임차에 서명할 준비가 되었다. 그때 하워드 더블유 헌터는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로서 봉사하고 있었다. 그는 전해에 심각한 허리 수술을 받아 걸을 수가 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대지 임차에 서명했다. 그가 그곳에 있는 동안 BYU 학생들과 예루살렘 지부 회원들은 그들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작은 연회를 열었다. 지부 역사에는 연회가 시작될 때의 이 가슴 뭉클한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 “허리 수술에서 아직도 회복 중인 헌터 회장이 [브리검 영 대학교 총장인 제프리 알] 홀런드 총장이 미는 휠체어를 타고 주 출입구로 들어왔을 때 합창단은 ‘거룩한 성’을 부르면서 그들을 맞이했다.”⁷⁶ 눈물이 헌터 회장의 뺨으로 흘러내렸다.

1989년 5월에 헌터 회장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서 그 센터를 헌납했다. 이 헌납식은 예루살렘 센터를 희망에서 현실로 만들기 위해 그와 다른 여러 사람들이 10여 년간 들인 헌신적인 노력에 종지부를 찍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님은 … 이것이 단지 꿈에 불과했을 때부터 이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감독한 사랑 넘치는 망대의 파수꾼이셨습니다.”⁷⁷ 헌납 기도에서 헌터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제일회장단 보좌들과 함께 한 헌터 회장: 고든 비 헝클리 회장(왼쪽)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오른쪽)

“이 건물은 ...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게서 배우고자 하며 우리 구주요 구속주인 당신 아들의 발자취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건물은 모든 면에서 아름다우며 이 건물이 대표하는 아름다움을 전형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당신 아들과 딸들의 유익과 학문을 위해 당신께 이 집을 지어 드리는 특권에 감사드립니다.”⁷⁸

키져 가는 교회

“무릇 시온은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더해져야 하며, 그 경계가 넓어져야 하고, 그 스테이크가 강화되어야 하나니”(교리와 성약 82:14).

하워드 더블유 헌터가 1959년에 사도로 부름받을 당시, 교회 회원 수는 약 160만 명 정도였다. 이후 몇 십 년간 그는 교회의 전례없는 세계적인 성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수백 번의 주말을 그는 회원들을 강화하고 새로운 지도자들을 부르기 위해 스테이크들을 방문하며 보냈다. 그는

또한 여러 국가의 정부 관료들을 만나 선교 사업을 위한 문을 여는 데 힘썼다.

1975년에 교회 회원수는 360만 명으로 증가되었고 특히 남미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다. 그해 후반에 헌터 장로와 십이사도 보조인 제이 토머스 파이안스 장로는 멕시코시티의 5개 스테이크를 분리하라는 임무를 받았다. 이 지역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스테이크 회장이 준비한 정보를 검토한 후, 헌터 장로는 그 5개 스테이크에서 15개 스테이크를 조직했으며 그 모든 것이 한 주말에 이루어졌다.⁷⁹ 자신의 전형적인 절제된 표현으로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교회에서 한 주에 그렇게 많은 조직을 신설한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피곤했습니다.”⁸⁰

클레어, 헌신적인 동반자

1959년 십이사도 정원회로 부름받았을 때, 헌터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제 아내는 다정하고 사랑이 많은 동반자입니다.”⁸¹ 여러 해 동안 클레어는 헌터 장로가 사도로서 출장다닐 때 대부분 동반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클레어가 통가의 어린이들에게 보이는 사랑을 지켜보았을 때에 대해 이렇게 회상했다. “그분은 그 사랑스런 통가 어린이들을 팔에 안고 한 명씩 무릎에 앉히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그들이 그 귀중한 어린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특권인지 설명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영혼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⁸²

1974년에 한 인터뷰에서, 헌터 장로는 클레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결혼 생활 내내 아내는 사랑과 배려와 독려로 항상 제 옆을 지켰습니다. … 항상 저를 크게 지지해 주었습니다.”⁸³

그 인터뷰를 할 당시 클레어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극심한 두통과 간헐적인 기억 상실과 방향 감각 상실을 경험했다. 나중에는 몇 차례의 약한 뇌졸중을 겪었으며 이것은 그녀가 말하거나 손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주었다. 그녀가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헌터 장로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서 그의 책임을 다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녀를 돌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낮에 클레어와 함께 있어 줄 사람을 구했고, 밤에는 자기가 그녀를 돌보았다. 이때 헌터 장로 역시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 1980년에는 심장 마비가 오기도 했다.

클레어는 1981년에 뇌출혈을 겪었고 1982년에도 또 한 차례의 뇌출혈을 겪었다. 두 번째 뇌출혈로 그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의사들은 그녀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녀를 의료 편의 시설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인생의 마지막 18개월을 그 시설에서 보냈다. 그 기간 동안 헌터 회장은 교회 임무로 출장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녀를 최소한 하루에 한 번 매일같이 방문했다. 클레어가 비록 대부분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는 아내에게 자기의 사랑에 대해 계속해서 말했고 그녀를 편안하게 해 주었다. 한 손자는 이렇게 말했다. “할아버지는 항상 서둘러서 할머니를 보러 가셨고 할머니 옆에서 할머니를 돌보셨습니다.”⁸⁴ 어머니를 돌보는 아버지를 회상하며, 아들 리처드 헌터는 이렇게 기록했다.

“어머니는 말년에 최고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간병인으로 역할을 전환했을 때 모든 가족이 큰 놀람과 존경으로 바라보았습니다. ... 어머니가 전문 요양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의사가 아버지께 경고했을 때 아버지가 느낀 심적 부담감을 기억합니다. 어머니가 집에 있었으면, 아버지의 신체적 능력의 제한 때문에 어머니를 돌보려다가 본인이 먼저 돌아가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돌봐 주는 사람 없이 혼자 남게 되셨을 것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헌신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가족은 언제나 가슴이 뭉클해집니다.”⁸⁵

클레어는 1983년 10월 9일에 작고했다. 클레어가 10년 이상을 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헌터 장로의 보살핌을 지켜본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의 대화에서 묻어나는 애정은 애잔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그렇게 헌신적인 남편을 본 적이 없습니다.”⁸⁶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이 1985년 11월에 서거하자, 에즈라 태프트 벤슨이 그 뒤를 이어 교회 회장이 되었다. 그리고 정원회의 선임 회원이었던 매리온 지 롬니가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 되었다. 그러나 롬니 회장의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 선임자인 헌터 장로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대리로 성별되었다. 그는 롬니 회장이 작고하고 나서 약 2주 후인 1988년 6월에 십이사도 회장이 되었다.

헌터 회장은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 대리 또는 회장으로 8년 반을 봉사했다. 그 기간 동안 십이사도의 전 세계적인 성역은 계속해서 확장되었고, 교회 회원 수는 590만 명에서 870만 명으로 증가되었으며, 149개국에 와드나 지부를 갖게 되었다. 1988년에 헌터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교회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때입니다. 이제는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을 따라잡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뛰어야 합니다.”⁸⁷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 세계에 교회를 세우는 책임을 완수하는 가운데 헌터 회장은 모범으로 인도했다. 십이사도 회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그는 미국 전역과 25개국 이상을 방문했다.

헌터 회장은 건강상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진했다. 1986년에 그는 심장 수술을 받았고 1987년에는 허리 수술을 받았다. 그는 허리가 완치되었지만, 신경 손상과 기타 합병증으로 걸을 수가 없었다. 그 해 10월에 그는 휠체어에 앉아서 연차 대회 말씀을 전달했다. 그는 이렇게 시작했다. “제가 몇 마디 말씀을 드리는 동안 앉아 있어야만 하는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휠체어에 앉아서 말씀드려야 하는 것은 저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르는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자리에 앉아서 대회의 말씀을 듣고 계시니까 저도 여러분처럼 앉아서 말씀을 드리렵니다.”⁸⁸

다리를 다시 사용해야겠다는 결심으로 헌터 회장은 힘겨운 물리 치료를 받았다. 1988년 4월에 열린 다음 연차 대회에서 그는 천천히 보행기를 붙잡고 연단으로 걸어나왔다. 12월에 그는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가 만나는 주례 성전 모임에 보행기를 이용해 참석했다. 이것은 일 년 만에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지 않고 참석한 모임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평의회실로 들어갔을 때, 형제님들은 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이것은 제가 성전에서 처음으로 들은 박수 소리였습니다. … 대부분의 의사들은 제가 다시는 서거나 걸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⁸⁹

1990년 4월에 십이사도 정원회 모임이 끝나갈 때 헌터 회장은 이렇게 질문했다. “의제 이외에 다른 안건을 얘기하실 분이 계십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없자 그는 이렇게 발표했다. “좋습니다.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제가 오늘 오후에 결혼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십이사도 중 한 명은 그 발표에 너무 놀라 “모두가 제대로 들은 것인지 의심스러워 했다”고 말했다. 헌터 회장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이니스스탠튼은 켈

리포니아 시절에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녀와 얼마 동안 만났고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⁹⁰ 이니스는 헌터 회장이 감독이었을 때 엘세레노 와드의 회원이었다. 그들은 이니스가 유타로 이주해 교회 본부에서 접수담당자로 일하게 되었을 때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1990년 4월 12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주례로 결혼했다.

클레어가 사망한 지 약 7년이 흐른 뒤였다. 이니스는 헌터 회장이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과 교회 회장으로 봉사하는 동안에 그에게 큰 위안과 힘이 되어 주었다. 헌터 회장은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 전 세계로 여행할 때 그녀를 동반했다.

1993년 2월 7일에 헌터 회장은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열리는 노변의 모임에 참석했다. 약 17,000여 명이 그 모임에 참석했다. 그가 막 말씀을 시작했을 때 한 남자가 연단으로 달려 나왔고 한 손에는 서류 가방을 다른 손에는 검은색 물체를 들고 있었다. “끔찍마!” 그 남자가 외쳤다. 그는 자기가 폭탄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주는 성명서를 헌터 회장이 읽지 않으면 폭발시키겠다고 협박했다. 헌터 회장은 거부했고 그 남자가 그를 협박하는 시간 내내 의연하게 단상에서 있었다. 공포와 소란이 건물 전체에 퍼지자, 청중은 “우리 인도하실 선지자 주신”을 부르기 시작했다. 긴장감이 감돈 지 몇 분이 지난 후 두 명의 경호원들이 그를 붙잡았고, 안전을 위해 헌터 회장을 바닥에 엎드리게 했다. 다시 평정을 되찾을 때 그는 잠시 마음을 가라앉힌 후 말씀을 계속했다. “인생의 여정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가로놓여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이렇게 덧붙였다. “직접 보신 바와 같이 말입니다.”⁹¹

과거 20년 동안 헌터 회장은 나빠지는 건강과 클레어의 죽음, 자신의 건강 문제로 인한 수 차례의 입원, 큰 고통과 신체적 장애 등 수많은 시련을 견뎌 냈다. 그 기간 동안 그의 가르침은 종종 역경에 중점을 두었고 시련의 시기에 화평과 도움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했다. 한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가르쳤다.

“교회의 선지자와 사도들은 ... 개인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 또한 몇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여러분도 의심의 여지없이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이나 나중에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정화시키며, 가르치고 축복할 때, 그 경험들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더 감사하게 만들며, 더 사랑이 많고, 다른 사

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그들을 더 배려할 수 있게 만드는 주님의 손에 들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⁹²

그러한 가르침들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안이 되었다.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의 영감어린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헌터 회장처럼 구주를 향하게 되었다.

교회 회장

“헌터 회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사랑이 많고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중 한 분입니다. 그의 영성은 너무나 심오하여 헤아릴 길이 없을 정도입니다. 오랫동안 주님의 특별한 증인으로 봉사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 온 헌터 회장의 영성은 연마되고 연마되어 최상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 영성이 그 자신의 원천입니다.”(제임스 이 파우스트)⁹³

1994년 5월 30일에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이 오랫동안 투병한 끝에 서거했다. 6일 후에 십이사도 정원회는 솔트레이크 성전에 모여 제일회장단을 재조직했다. 선임 사도인 하워드 더블유 헌터가 교회 회장으로 성별되었다. 그는 벤슨 회장의 보좌로 봉사해 왔던 고든 비 힝클리과 토마스 에스 몬슨을 그의 보좌로 불렀다.

다음 날 기자 회견에서 헌터 회장은 교회 회장으로서 처음으로 공식 연설을 했다. 그는 이렇게 시작했다. “우리의 친구이자 형제인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님의 사망으로 우리 마음은 매우 슬픉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제게 온 새로운 책임 때문에 그분을 잃은 상실감을 특히 더 느낍니다. 저는 많은 눈물을 흘렸으며 진지한 기도를 통해 제가 받은 이 높고 거룩한 부름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습니다.

요 며칠간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인간의 일이 아니라는 것과,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그분이 말과 행위로 이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저의 변치 않는 간증이었습니다. 제 생명과 힘과 영혼의 모든 것을 바쳐 그분께 온전히 봉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⁹⁴

헌터 회장은 교회 회원들에게 사랑을 표한 후 두 가지를 권유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도의 모범을 따르는 데 더욱 부지런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전 축복을 더 온전히 향유하라는 것이었다.(1~3쪽 참조) 그는 또한 마음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유했다. “우리는 여러분의 곁에 서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드리겠습니다. 돌아오십시오.”⁹⁵

약해지는 건강에도 불구하고 헌터 회장은 성도들을 만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결심했다. 회장이 된 지 2주 후에 그는 회장으로서는 첫 번째 주요 연설을 했다. 신임 선교부 회장들에게 말씀했고, 그리고 나서 2,200명이 넘는 선교사들에게 말씀했다. 그 달 말에는 일리노이 주 카테지와 나부로 가서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의 순교 150주년을 기념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어딜 가든 사람들이 그의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는 수천 명과 악수를 했고, 어린이들이 모여 그의 눈을 바라보며 그의 손을 잡으려 할 때 더 환하게 미소 지으며 그들과 악수했습니다.”⁹⁶

1994년 10월 1일, 연차 대회 토요일 오전 모임에서 교회 회원들은 하워드 더블유 헌터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과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공식적으로 지지했다. 개회 말씀에서 헌터 회장은 교회 회원들에게 구주의 모범을 따르고 “주님의 성전을 회원의 위대한 상징으로 바라” 보라는 권유를 거듭했다.⁹⁷ 그는 그다음 주에 플로리다 올랜도 성전을 헌납하기 위해 플로리다로 갔을 때도 다시 성전을 강조했다. 그는 이렇게 가르쳤다. “주님께서 계시하신 복음 계획은 성전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생명과 구원의 계획에 필요한 의식들이 그곳에서 집행되기 때문입니다.”⁹⁸

11월에 헌터 회장은 계보 협회 100주년을 기념하는 위성 방송에서 말했다. 이 행사는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그가 이 조직을 1964년부터 1972년까지 감리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주님께서 성전과 가족 역사 사업의 진척을 위해 주의 깊게 행하신 일을 놀라움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했다. “들려드리고 싶은 최우선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서둘러 행해야 합니다.”⁹⁹

헌터 회장은 그해 말까지 열심히 일을 계속했다. 제일회장단 성탄절 영적 모임에서 그는 구주에 대해 간증한 다음 그분의 모범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구주께서는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데 바치셨습니다. … 그분은 대가를 바라고 주지 않으셨습니다. 값 없이 사랑으로 주셨으며, 그분의 선물은 값을 따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장남에게는 눈을 주시고, 귀머거리에게는 귀를 주시고, 앓은뱅이에게는 다리를 주었고, 불결한 곳에는

청결을, 병약한 자에게는 건강을, 그리고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의 선물은 짓밟히는 자에게는 자유와, 어둠 속의 빛이 되었으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가, 절망하는 자에게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과 봉사와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부활과 구원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베풀어 주신 것처럼 베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을 내어 주는 것이 거룩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구주께서 주신 모든 것을 기억하며 주어야 합니다.”¹⁰⁰

말씀의 일부로 그는 또한 그가 사도로 부름받은 해에 잡지에 게재된 말씀을 인용했다.

“이 성탄절에 다툼을 화해하십시오. 잊혀진 친구를 찾아 나섭시오. 의심을 버리고 신뢰를 가지십시오. 편지를 쓰십시오. 부드럽게 대답하십시오. 청소년을 격려하십시오. 생각과 행동으로 충성심을 보이십시오. 약속을 지키십시오. 원망하는 마음을 없애십시오. 적을 용서하십시오. 사과하십시오.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시 검토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친절하십시오. 부드럽게 대하십시오. 좀더 웃으십시오.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낮은 자를 환대하십시오. 어린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십시오. 세상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맛보십시오. 사랑을 말하고 다시 말하십시오.”¹⁰¹

그다음 주에 헌터 회장은 멕시코시티로 가서 교회의 2,000번째 스테이크를 조직했다. 19년 전 멕시코시티에서 그는 한 주말에 5개 스테이크에서 15개 스테이크를 분리 조직했던 적이 있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2,000번째 스테이크의 탄생을 “교회 역사상 중요한 사건”이라고 묘사했다.¹⁰²

어느 날 밤, 헌터 회장의 아들 리처드는 조셉 스미스 기념관에 있었고 한 안내원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녀가 휠체어 초보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다가가서 제 아버지도 똑같은 휠체어를 갖고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그녀의 교회 선지자도 똑같은 휠체어를 갖고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분이 할 수 있다면 자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아버지가 그들처럼 똑같이 고난을 겪는 것과 그 고통의 짐을 지고 견디는 것을 그들이 보았고, 그것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¹⁰³

1995년 새해에 헌터 회장은 유타 바운티폴 성전을 헌납했다. 그는 여섯 번의 헌납식 모임을 감리한 후 너무 지친 나머지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며칠 후 그가 퇴원한 뒤, 교회는 그가 전립선 암에 걸렸으며 암세포가 빠르게 전이되었다는 발표를 했다. 헌터 회장은 생의 마지막 6주간 자택에서 보좌들과 계속 만나 교회 업무를 처리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는 나오지 않았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분이 [그 성전을] 헌납할 기회를 가진 것에 감사합니다. 특히 처음에 교회 회원들에게 ‘주님의 성전을 회원의 상징으로 바라’ 보라고 간곡히 부탁하신 것을 생각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¹⁰⁴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은 1995년 3월 3일에 87세를 일기로 서거했다. 그의 임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매우 조용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한 그의 마지막 말은 “감사합니다”였다.¹⁰⁵ 단 9개월 동안 교회 회장이었지만, 그가 끼친 영향은 실로 컸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전 세계의 교회 회원들은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인 그에게 특별한 유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그에게서 구주의 성품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좀더 그리스도와 같이 생활하고 성전을 우리 예배의 중심으로 만들라는 그의 선지자적 메시지에 크게 반응했습니다.”¹⁰⁶

헌터 회장의 장례식에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조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숲의 거대한 나무가 쓰러져 빈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크고 조용한 힘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가 겪은 고통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그 고통은 길었고, 컸으며, 깊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고통을 견디는 힘을 키웠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오래 사신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의 고통은 고통을 겪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었고 그들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자신들의 짐의 무게를 이해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특별한 사랑으로 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인 친절과 사려 깊음과 예의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졌습니다. 그 모두가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한 주님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소리 높여 강하고 현명한 의견을 낼 줄도 알았습니다. ...

헌터 형제님은 친절하고 온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말씀은 강하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 그는 법조계에서 일했습니다. 문제를 제시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는 조리있게 다양한 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가 말할 때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의 제안들이 가장 많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자신의 주장을 철회할 줄도 아는 융통성을 지녔습니다. ...

지금까지 40년 동안 거룩한 사도 직분을 갖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을 선포하고 교회의 사업을 전진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주님께 봉사하는 참되고 능력있는 성직자로서 전 세계를 두루 방문했습니다. ...

...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인 하워드 더블유 헌터는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간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큰 확신을 가지고 인류의 구속주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간증의 음성을 높였습니다. 그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이후 헌터 회장 본인 이전까지 그를 계승한 모든 선지자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가 한 일들을 크게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¹⁰⁷

주

1. Jay M. Todd, "President Howard W. Hunter: Fourteenth President of the Church," *Ensign*, July 1994, 4.
2. Howard W. Hunter, "Fear Not, Little Flock"(address given at Brigham Young University, Mar. 14, 1989), 2; speeches.byu.edu.
3. Todd, "President Howard W. Hunter," 5.
4. J M. Heslop, "He Found Pleasure in Work," *Church News*, Nov. 16, 1974, 4.
5. Heslop, "He Found Pleasure in Work," 4, 12.
6. Heslop, "He Found Pleasure in Work," 4.
7. "친구가 친구에게: 켈린 릭스가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신 하워드 더블유 헌터 장로와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성도의 벗*, 1991년 5월호, 60쪽.
8. Gerry Avant, "Elder Hunter—Packed Away Musician's Career for Marriage," *Church News*, May 19, 1985, 4.
9. "친구가 친구에게", 60쪽.
10. Heslop, "He Found Pleasure in Work," 4.
11. "친구가 친구에게", 60쪽.
12. Avant, "Elder Hunter," 4.
13. "Eagle Scout Qualifies," *Idaho Statesman*, May 12, 1923 참조; Eleanor Knowles, *Howard W. Hunter*(1994), 41쪽에서 인용.
14. Don L. Searle, "President Howard W. Hunter: Acting President of the Quorum of the Twelve Apostles," *Ensign*, Apr. 1986, 22.

15. 제임스 이 파우스트, “독수리의 자취”, *성도의 빛*, 1994년 9월호, 5쪽.
16. Knowles, *Howard W. Hunter*, 22.
17. 제임스 이 파우스트, “독수리의 자취”, 5, 7쪽
18. Knowles, *Howard W. Hunter*, 22.
19. Historical Sketch of the Boise Stake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1924), 6,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20. Knowles, *Howard W. Hunter*, 41.
21. 보이시 태버네클은 1992년에 보이시 학군에 의해 철거되었다. 보이시 학군은 그 몇 해 전에 이 건물을 교회로부터 매입했었다. (“Preservationists Protest Demolition Work on Tabernacle in Boise,” *Deseret News*, Sept. 9, 1992, B3 참조)
22. Knowles, *Howard W. Hunter*, 55.
23. Heslop, “He Found Pleasure in Work,” 4; see also Knowles, *Howard W. Hunter*, 57.
24. Knowles, *Howard W. Hunter*, 64.
25. Knowles, *Howard W. Hunter*, 65.
26. Knowles, *Howard W. Hunter*, 71.
27. Gerry Avant, “She Made Home a Happy Place,” *Church News*, Nov. 16, 1974, 5.
28. Knowles, *Howard W. Hunter*, 79-80.
29. Knowles, *Howard W. Hunter*, 81.
30. 리처드 에이 헌터의 출판되지 않은 원고. 이 책은 헌터 회장의 아들 리처드의 말을 몇 군데 인용했다. 이 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가 정보와 의견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헌터 회장의 아들 존은 2007년에 작고했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자문을 구할 수 없었다.
31. Knowles, *Howard W. Hunter*, 87.
32. Knowles, *Howard W. Hunter*, 88.
33. Heslop, “He Found Pleasure in Work,” 4.
34. Knowles, *Howard W. Hunter*, 91.
35. Knowles, *Howard W. Hunter*, 90.
36. Knowles, *Howard W. Hunter*, 94 참조.
37. Heslop, “He Found Pleasure in Work,” 4.
38. Knowles, *Howard W. Hunter*, 97.
39. Knowles, *Howard W. Hunter*, 98.
40. Knowles, *Howard W. Hunter*, 98.
41. Knowles, *Howard W. Hunter*, 100-101.
42. Charles C. Pulsipher, “My Most Influential Teacher,” *Church News*, Jan. 10, 1981, 2.
43. 리처드 에이 헌터의 출판되지 않은 원고.
44. Doyle L. Green, “Howard William Hunter: Apostle from California,” *Improvement Era*, Jan. 1960, 37.
45. Cree-L Kofford, in Knowles, *Howard W. Hunter*, 120.
46. John S. Welch, in Knowles, *Howard W. Hunter*, 119.
47. Knowles, *Howard W. Hunter*, 123.
48. Knowles, *Howard W. Hunter*, 125.
49. Knowles, *Howard W. Hunter*, 131.
50. 리처드 에이 헌터의 출판되지 않은 원고.
51. Knowles, *Howard W. Hunter*, 127.
52. Charles C. Pulsipher, “My Most Influential Teacher,” 2.
53. Howard W. Hunter, “Welfare and the Relief Society,” *Relief Society Magazine*, Apr. 1962, 238.
54. Knowles, *Howard W. Hunter*, 135. 자신의 조부에 대해 리처드 에이 헌터는 이렇게 기록했다. “내가 아는 할아버지는 충실한 교회 회원이었다. 그분은 항상 좋은 일을 하고 계셨다. 누구나 그분을 모범적인 모델으로 인정했다. 그분의 이웃과 와드 회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한 친절하고 사려깊은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했다. 그분은 교회에서 사랑받는 분이셨다.”(출판되지 않은 원고)
55. Knowles, *Howard W. Hunter*, 137.
56. Knowles, *Howard W. Hunter*, 139.
57. Betty C. McEwan, “My Most Influential Teacher,” *Church News*, June 21, 1980, 2.
58. Knowles, *Howard W. Hunter*, 144.
59. Knowles, *Howard W. Hunter*, 144.
60. Knowles, *Howard W. Hunter*, 145-46.
61. Conference Report, Oct. 1959, 121.
62. Knowles, *Howard W. Hunter*, 151.
63. Douglas D. Palmer, “The World Conference on Records,” *Improvement Era*, July 1969, 7.

64. Jay M. Todd, "Elder Howard W. Hunter, Church Historian," *Improvement Era*, Apr. 1970, 27.
65. Knowles, *Howard W. Hunter*, 194.
66. Knowles, *Howard W. Hunter*, 208.
67. Knowles, *Howard W. Hunter*, 205.
68. Todd, "Elder Howard W. Hunter, Church Historian," 27.
69. Todd, "Elder Howard W. Hunter, Church Historian," 27.
70. "New Church Historian Called," *Church News*, Feb. 14, 1970, 3.
71. Knowles, *Howard W. Hunter*, 197.
72. James E. Faust, "Howard W. Hunter: Man of God," *Ensign*, Apr. 1995, 27.
73. Howard W. Hunter, "All Are Alike unto God," *Ensign*, June 1979, 74.
74. Knowles, *Howard W. Hunter*, 215.
75. Knowles, *Howard W. Hunter*, 218.
76. Knowles, *Howard W. Hunter*, 222; 약자는 풀어 씀.
77. Gerry Avant, "He Wanted to Visit the Holy Land 'Just One More Time,'" *Church News*, Mar. 11, 1995, 9.
78. Francis M. Gibbons, *Howard W. Hunter: Man of Thought and Independence, Prophet of God*(2011), 119.
79. "Growth in Mexican Cities Explodes into 16 Stakes," *Church News*, Nov. 22, 1975, 3 참조.
80. Knowles, *Howard W. Hunter*, 202.
81. Conference Report, Oct. 1959, 121.
82. Knowles, *Howard W. Hunter*, 168-69.
83. Avant, "She Made Home a Happy Place," 5.
84. Searle, "President Howard W. Hunter," 25.
85. 리처드 에이 헌터의 출판되지 않은 원고.
86. James E. Faust, in "President Howard W. Hunter: The Lord's 'Good and Faithful Servant,'" *Ensign*, Apr. 1995, 15.
87. Dell Van Orden, "Exciting Time in Church History," *Church News*, June 25, 1988, 6.
88. 하워드 더블유 헌터, "문을 여는 것과 닫는 것", *성도의 빛*, 1988년 1월호, 62쪽.
89. Knowles, *Howard W. Hunter*, 284.
90. Knowles, *Howard W. Hunter*, 291.
91. Knowles, *Howard W. Hunter*, 305-6.
92. Howard W. Hunter, "An Anchor to the Souls of Men," *Ensign*, Oct. 1993, 71.
93. 제임스 이 파우스트, "독수리의 자취", 7쪽.
94. Todd, "President Howard W. Hunter," 4.
95. 하워드 더블유 헌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성도의 빛*, 1995년 1월호, 7쪽 참조.
96. Gordon B. Hinckley, "A Prophet Polished and Refined," *Ensign*, Apr. 1995, 34.
97. 하워드 더블유 헌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성도의 빛*, 1995년 1월호, 8쪽.
98. Gerry Avant, "Temple Is Dedicated in Sunshine State," *Church News*, Oct. 15, 1994, 3.
99. Howard W. Hunter, "We Have a Work to Do," *Ensign*, Mar. 1995, 64.
100. Howard W. Hunter, "The Gifts of Christmas," *Ensign*, Dec. 2002, 18.
101. Howard W. Hunter, "The Gifts of Christmas," 18-19; "What We Think Christmas Is," *McCall's*, Dec. 1959, 82-83에서 각색.
102. Gordon B. Hinckley, "A Prophet Polished and Refined," 34.
103. 리처드 에이 헌터의 출판되지 않은 원고.
104. Gordon B. Hinckley, "A Prophet Polished and Refined," 34.
105. Dell Van Orden, "14th President of the Church Dies at Age 87; He Touched Millions of Lives across the World," *Church News*, Mar. 11, 1995, 3.
106. James E. Faust, "Howard W. Hunter: Man of God," 26.
107. Gordon B. Hinckley, "A Prophet Polished and Refined," 33-35.



“우리는 얼마나 자주 구주를 생각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깊이,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과 경배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생을 생각해 봅니까? 그분은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심에 놓여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희망과 기쁨으로 가는 우리의 유일한 길

“우리의 삶과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회복된 복음에 중심을 두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잘못될 수 없습니다.”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생애에서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의 가르침에서 두드러진 주제 하나는 참된 평화와 치유, 행복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려 노력할 때만 찾아온다는 것이다. 헌터 회장은 “그리스도의 길은 올바른 길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망과 기쁨을 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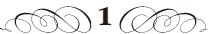
또한 헌터 회장은 구주의 신성한 사명에 대해 간증할 때 담대했다. 그는 이렇게 밝혔다. “저는 성임받은 사도이자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하나님께 아들이라는 것을 엄숙하게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간증한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희망으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녀들이 규정된 예배 양식을 따르던 오랜 세기 동안 오시기를 기도했던 분이십니다. …

저는 성신의 권능으로 간증합니다. 저는 마치 제 손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실재하심을 압니다. 또한 신앙의 귀로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제 간증이 참됨을 확인해 주실 것을 압니다.”²

예수께서 성역을 베푸셨던 곳을 가보고 싶었던 헌터 회장은 20번도 넘게 성지를 방문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그분에게 예루살렘은 마치 자석과 같았습니다. … 구주께서 걸으셨고 가르치셨던 곳에 있고자 하는 그분의 소망은 만족하기 어려운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분은 모든 풍경과 소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특히 갈릴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한 곳을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전에 갔던 것처럼 동산 무덤으

로 한 번만 더 가 봅시다.’ 그분은 마치 구주와 자신 사이에 놓인 휘장을 꿰뚫어보는 것처럼 거기에 앉아 명상하시곤 했습니다.”³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가르침



**우리는 현재 알고 있는 이상으로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하고,
현재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 더 자주 그분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들은 이 찬송가를 경건하게 부릅니다.

예수님 생각하오니
내 마음 기쁘네
당신과 함께 거하면
더욱더 기쁘리 ...

... 우리는 얼마나 자주 구주를 생각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깊이,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과 경배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생애를 생각해 봅니까? 주님이 우리 삶에서 얼마만큼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하루 동안, 일하는 일주일 동안, 또는 쏠살같이 지나가는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생각합니까? 아마 우리 중에는 충분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가 더 기쁜 마음을 갖게 되면, 틀림없이 인생은 더 평화로워질 수 있으며, 결혼 생활과 가족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고, 이웃과 모든 나라가 더 안전하고 더 친절하며 더 건설적으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자신의 생각을 더욱더 주님께 기울이지 않는다면, 사랑으로 가득 찬 주님의 모습을 뵈고 그 면전에 거할 수 있는 더 큰 기쁨과 더 큰 상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에서 매일마다 그리고 매 계절마다 ... 오래 전 예루살렘으로 영광스럽게 입성하신 후에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마태복음 22:42).



“우리 모두가 조금 더 현신적이고 절제하는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분의 이름을 사랑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밝히며, 그 사실에 대한 실재성이 우리 영혼을 더 자주 일깨워야 합니다.⁴

우리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이상으로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하고, 현재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 더 자주 그분을 기억해야 하며, 우리가 지금 섬기는 것보다 더 담대하게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생으로 솟아오르는 물을 마시고 또 생명의 떡을 먹게 될 것입니다.⁵

2

예수님은 소망과 영원한 기쁨의 유일하고도 참된 근원이다.

오 회개한 자의 소망
 온유한 자의 벗
 타락한 자에 친절코
 선하시나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기인한 희망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든 희망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더 큰 기쁨을 갈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욕구이자 영원입

니다. 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소망은 모든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며, 기쁨은 모든 “온유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회개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회개는 우리의 교만과 무관심을 버릴 것을, 특히 죄를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2000년 전에 라모나이 왕의 부친이 알았던 것처럼, 이것은 바로 참된 희망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값입니다. 그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 내게 당신을 알려 주시겠나이까? 당신을 알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으며,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기 위하여, 나의 모든 죄를 버리겠나이다”(엘마서 22:18). 우리가 주님을 알고 따르기 위해 모든 죄를 기꺼이 버리려 한다면 우리 또한 영생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온유한 자란 어떠한 자입니까? 세상에는 위협을 가해 이기려 하고 최구가 되려고 고군분투하는 일들이 너무 만연하고 있어, 좀 더 온유하게 되는 것을 가르치는 책을 사려고 줄을 서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 곧 참으로 놀라운 기업을 상속받게 될 것이며, 위협하지 않고도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중이 아닌 지금, 곧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길은 올바른 길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희망과 기쁨을 주는 유일한 길임을 알게 되길 간구합니다.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부드러움이 잔인함보다 낫고, 친절이 억압보다 위대하며, 부드러운 음성은 분노를 가라앉힌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리고 가능한 한 곧 우리는 좀 더 그분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

예수만이 우리 기쁨
우리 상 되시니
영원히 영광 당신께
있사옵나이다

바로 이것이 …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 드리는 저의 개인적인 기도이며, 그들을 향한 저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기쁨의 유일하고도 참된 근원이시며, 우리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평안이 그분 안에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 영원하는 영광, 그리고 사람들과 나라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유일한 상, “우리의 영광”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분은 현세와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소중한 상이십니다. 다른 상들은 어떤 것이든 결국 무익합니다. 다른 위대함도 어떤 것이든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져 가고 산산이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결국 ...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 우리가 모두 좀 더 헌신적이고 절제하는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분의 이름을 사랑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먼저 축복하고 섬겨 그들도 그와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⁶

3

온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구주와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적극적이고 충실한 신앙이다.

성경을 믿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입니까? 그분의 속죄 희생과 부활을 믿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 자신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고 교회도 시대에 뒤떨어진 곳임을 감히 밝힙니다. 주님께서는 믿으려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영생에 관한 원리와 교훈을 아주 단순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이런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분의 메시지에는 영원한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⁷

이전의 모든 세대와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세대에서도처럼 이 시대에도 온 세상에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믿는 적극적이고 충실한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한 가르침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실히 따르는 사람들이 복음의 진실성을 증명하며 의롭고 선한 생활에서 비롯되는 힘과 평화를 모범으로 보여 주어야 하는 더 큰 이유가 됩니다. ...

우리는 기분이 상하고, 오해받거나 부당하고 불친절한 대접을 받을 때, 또는 무고하게 죄인으로 비난받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거나 승진에서 밀리거나 거짓 고소를 당하거나 우리의 동기가 부당하게 비난받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 맞서 싸워야 합니까? 훨씬 더 큰 군대를 보내 응수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서는 과거의 신앙으로 되돌아갑니까? ...



구주께서는 우리 인생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놀라운 생애와 가르침을 통해 늘 확실한 약속이 따르는 많은 권고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학식 있는 자와 무지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 건강한 자나 병든 자 모두를 희망으로 가득 채워 주는 권능과 위엄으로 가르치셨습니다.⁸

예수 그리스도와 속죄에 대해 개인적인 간증을 쌓으려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 공부하고 그분이 실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간증을 갖는 것이 우리 각자가 추구해야 할 일입니다. 그분의 사명, 또 그분이 이룩한 속죄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더 들게 될 것입니다.⁹

4

우리가 구주를 믿는 신앙을 행사할 때, 그분은 우리 인생의 거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인생에서 갑작스럽게 폭풍우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중 몇 가지는 ...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사납고 무서우며 파괴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 개인으로서, 가족으로서, 사회로서, 국가로서, 심지어는 교회로서 우리는 갑작스럽게 돌풍을 만나게 되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마가복음 4:38] 하고 말하며 주님께 여러 가지 방법을 간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폭풍우가 지난 후 잠잠해지면 언제나 다음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마가복음 4:40].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나오는 주님의 조용한 꾸짖음은 큰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며 받들어 온 이 위대하신 여호와와는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창세기 1:6)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창세기 1:9)고 말씀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른 땅 위로 지나갈 수 있도록 홍해를 가르신 분이기도 하십니다.(출애굽기 14:21~22 참조) 그분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몇 가지 자연의 힘에 명령하실 수 있었다는 것에 굳이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생애의 거친 물결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을 통해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

우리는 모두 생애에서 역경을 겪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은 사납고, 손상을 입힐 수 있고,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를 위해 구원의 힘을 갖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약화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근심 걱정에도 대해서도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은 단지 우리가 폭풍우가 부는 순간만이 아니라 전 생애를 경험하는 동안, 즉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한복음 16:33).¹⁰

삶의 중심을 구주께 둘 때 우리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걱정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간혹 좌절한다는 것을 알 만큼 여러분의 생활이 분주하고 바쁘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종종 걱정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압니다. ...

오늘 여러분께 전하려는 메시지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입니다. 인생의 위대한 축복들 속에서 기뻐하십시오. 복음에 따른 삶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 큰 전율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시기에도 인생은 멋진 것이며, 그 여정을 가는 도중에 곳곳마다 행복과 기쁨, 평안이 있으며, 길의 맨 끝에서 그것들은 영원할 것입니다.

물론 걱정이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어떤 것은 매우 심각하기도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용어로 신앙과 소망, 사랑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풍성한 생활”이 바로 우리 후기 성도의 삶이기에 우리는 자신의 실망과 걱정은 최소화하면서 축복과 기회를 강조하려 노력합니다. 경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찾으라. 항상 기도하라. 또 믿으라. 그리하면 ... 너희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리라.”(교리와 성약 90:24) 그 약속을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

이것 하나는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과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회복된 복음에 중심을 두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잘못될 수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 삶이 구주와 그분의 가르침에 중심을 두지 않는다면, 어떠한 성공도 영원히 잘될 수는 없습니다. ...

우리 모두는 때때로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픔과 질병은 필멸의 세상에서 지게 되는 짐 가운데 일부입니다. 신앙을 갖고 긍정적 태도를 지니십시오. 신권의 권능은 실재하며, 인생에서 우리가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인생에는 좋은 일이 정말 많습니다. 부활하면 부상이나 질병이 없으리라는 지식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일들이 일부 유혹의 형태로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교육이나 직업, 또는 금전이나 결혼과 관련된 어려운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짐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에게 필요한 힘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 문자 그대로 시작과

끝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우리 인생에서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

우리를 위에서 짓누르는 멍에가 죄라고 해도, 저의 메시지는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의 무게를 다 아십니다. 우리 짐이 죄나 유혹이 아니라 질병이나 빈곤, 거부당함이라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

그분은 우리 죄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겪으셨습니다. 이사야가 “질고를 아는 자”(이사야 53:3; 모사이야서 14:3)라 칭한 그분은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다 아십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통으로 생긴 그 무게를 온전히 짊어지겠다고 하셨었기 때문입니다. ...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많은 종류의 걱정과 어려움이 있고 또 있게 되겠지만 기쁜 마음으로, 또 충만한 신앙으로 인생을 받아들이십시오. 경전을 정기적으로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영의 음성과 선지자들에게 순종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십시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은 커다란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영광스러운 날에 여러분의 모든 걱정은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리버티 감옥의 좁은 방에서 조셉 스미스는 고통을 겪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적어 보냈습니다.

우리의 능력 안에 놓여 있는 모든 일을 기쁘게 행하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최대한의 확신을 가지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며, 그의 팔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라노라.[교리와 성약 123:17; 강조체 추가]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말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선을 행하라. 땅과 지옥이 연합하여 너희를 대적하게 하라. 이는 만일 너희가 나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을진대, 그들이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라. ...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무서워 말라.

내 옆구리를 찌른 상처와 또한 내 손과 발에 있는 못 자국을 보라. 충실하라. 내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는 천국을 상속받으리라.[교리와 성약 6:34~37]¹¹

학습 및 교수 제언

질문

- 1편에 있는 헌터 회장의 질문들에 어떻게 답할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중심에 둘 수 있겠는가? 가정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그리스도에 대해 더 잘 알게 될 수 있는가?
-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 평안을 받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버릴 것이 요구”되는가?(2편 참조) 구주에게서 오는 소망과 평안, 기쁨을 느꼈던 적은 언제인가?
- 왜 “온 세상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 나사렛 예수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믿는 적극적이고 충실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가?(3편 참조) “기분이 상하고, 오해받으며, 부당하거나 불친절한 대접을 받았을 때, 누군가 우리에게 죄를” 지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가?
- 두려움과 신앙에 대한 헌터 회장의 가르침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4편 참조)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신앙은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여러분이 구주를 믿는 신앙을 행사할 때 구주께서 여러분 인생의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던 때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
- 5편에 있는 헌터 회장의 권고는 설령 우리가 슬픔과 실망, 병치레를 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 인생을 받아들이[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영원한 관점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 여러분이 더 풍성한 생활을 하도록 구주께서는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관련 성구

마태복음 11:28~30; 요한복음 14:6; 니파이후서 31:19~21; 앨마서 5:14~16; 7:10~14; 23:6; 힐라만서 3:35; 5:9~12; 교리와 성약 50:40~46; 93:1

학습을 위한 도움말

“여러분은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에 관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가슴에 와 닿는 느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2004], 18쪽) 여러분이 받는 느낌, 설령 그것이 현재 읽는 말씀과 관련이 없더라도 그것을 기록하는 것을 고려해 본다. 바로 그 생각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 주시려는 것일 수도 있다.

주

1. “예수님 생각하오니”, *성도의 벗*, 1993년 7월호, 65쪽.
2. “사도의 그리스도 증거”, *성도의 벗*, 1984년 8월호, 24~25쪽.
3. James E. Faust, “Howard W. Hunter: Man of God,” *Ensign*, Apr. 1995, 27.
4. “예수님 생각하오니”, 63~64쪽.
5.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성도의 벗*, 1994년 7월호, 64쪽; 또한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권유하심”, *성도의 벗*, 1994년 10월호, 6쪽 참조.
6. “예수님 생각하오니”, 64~65쪽.
7. Eleanor Knowles, *Howard W. Hunter*(1994), 318.
8. “평화의 항구에서 비치는 불빛”, *성도의 벗*, 1993년 1월호, 18~19쪽.
9.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ed. ClydeJ. Williams(1997), 30.
10. “주여 큰 폭풍우 일고”, *성도의 벗*, 1985년 1월호, 34~36쪽.
11. “Fear Not, Little Flock”(address given at Brigham Young University, Mar. 14, 1989), 1-2, 4-5: speeches.byu.edu.



우리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하고]”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그분에게서 [결코] 눈길을 돌[려서는]” 안 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은 오직 조건 없이 순종할 때, 즉 평강의 왕, 평안을 부여할 권능이 있는 분께 순종할 때에만 올 수 있습니다.”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생애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의 한 지인은 그를 “위대한 내적 평안에서 오는 비범한 인내심을 지닌” 사람이라고 묘사했다.¹ 헌터 회장은 내적 평안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며 이런 평안은 하나님께 마음을 돌릴 때만, 즉 그분을 신뢰하고 신앙을 행사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려 노력할 때만 받을 수 있음을 가르쳤다. 그런 평안은 헌터 회장이 힘들었던 많은 시기를 헤쳐 나오는 데 큰 힘이 되었다.

1975년도 후반, 헌터 회장의 아내 클레어는 의사에게 뇌수술을 권고받았다. 헌터 회장은 그 수술이 클레어에게 과연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줄 것인가를 고민했다. 수술이 아내의 허약한 몸을 더 혹사시키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성전에 다녀오고, 가족들과 상의하면서 그 수술이 클레어의 병세를 호전시키기 위한 최선의 희망이라고 이내 느꼈다. 그는 수술 당일에 자신의 기분을 이렇게 묘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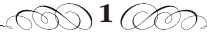
“나는 아내와 함께 수술실 입구 문으로 갔고 아내에게 입맞춤을 했다. 아내는 그 문을 지나 안으로 실려갔다. 시간이 흘렀고, 나는 상황을 궁금해 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 갑자기 깊은 근심이 평안한 느낌으로 바뀌었다. 나는 올바른 결정을 내렸고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알았다.”²

1989년에 헌터 회장은 어려운 시기에 평안을 느낀 또 다른 경험을 했다. 그가 브리검 영 대학교 근동 연구 예루살렘 센터를 헌납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을 때였다. 교회가 예루살렘에 근거지를 마련하려는 시도를 여러 그룹이 반대했으며 폭력으로 위협했던 적도 있었다. 헌납식 연사 중에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도 있었는데, 나중에 그는 이 일에 대해 이렇게 전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방 뒤쪽에서 어떤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군복 차림의 남자들이 방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헌터 회장님에게 쪽지를 전달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어떤 지시 사항이 있는지 여쭙 보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폭과 위협이 있었답니다. 형제님은 두려우십니까?’ 저는 ‘아닙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회장님은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저 다 전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³ 헌납식은 아무 탈 없이 진행되었고, 폭탄 같은 것은 없었다.

이와 같은 여러 상황에서 헌터 회장은 구주께서 주시는 평안에 대한 약속을 신뢰했으며, 자주 이 성구를 인용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27)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의 근원이다.

선지자 이사야는 700년도 더 전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큰 찬사가 표현된 칭호들을 사용했습니다. ... 그런 칭호들 가운데서 현재 우리 세상의 관심을 끄는 것 한 가지는 바로 “평강의 왕”(이사야 9:6)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7절) 전쟁으로 지치고 죄에 시달린 세상에 참으로 크나큰 희망이 아닙니까!⁴

세상이 갈구하는 평화는 적대 행위를 일시적으로 중지한 시기를 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평안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만 오고 다른 방법으로는 오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사야의 기록에 있는 한 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 니이다”(이사야 26:3). 이사야가 언급한 이런 완벽한 평안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옵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은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십이사도와 마지막 만찬을 드셨을 때, 그분은 사도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떡을 떼고 잔을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난 뒤에 그들에게 얼마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다른 것 중에서도 그분은 자

신의 임박한 죽음에 대해, 또 그들 각 사람에게 남기는 선물에 대해 말씀 하셨습니다. 주님은 모아놓은 물품이나 재산, 부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입 던 옷가지 외의 다른 소유물은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이 없으며, 이 옷가지마저도 다음 날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병사들이 나눠 가졌고 겔옷은 제비 뽑기를 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분의 선물은 이런 단순하지만 심오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7).

그분은 유대 방식으로 인사와 축복을 남겼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런 인사와 선물이 그들에게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말과 같이 공허한 소망도 아니고, 정중한 의식도 아니었지만, 평강의 장본인이자 평강의 왕으로서 그분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몇 시간 내에 어려움에 빠지게 될 운명이었지만, 그들은 그분의 평안으로 두려움을 이겨내고 굳게 남을 수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을 그 저녁 시간에 마치는 기도를 하기 전에 그들에게 주신 그분의 마지막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한복음 16:33).⁵

2

복음 원리에 따라 생활할 때 우리는 평안을 키워 나갈 수 있다.

우주에서 그러한 인도의 손길을 가진 유일한 분, 세상을 향한 확실한 참빛이자 꺼지지 않는 등대가 되는 유일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과 생명이시며 모든경의 한 선지자가 묘사한 것처럼 “결코 어두워질 수 없는 무궁한 빛”(모사이야서 16:9)이십니다.

개인으로서나 가족 또는 지역 사회나 국가로서 안전한 평화의 바닷가를 찾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불빛입니다. 그분은 바로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요한복음 14:6)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

일례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업신여겨 이용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영문 흠정역 마태복음 5:44).

이 하나의 권고가 여러분의 이웃과 가족에게, 또 여러분과 자녀가 속한 지역 사회에서, 그리고 위대한 지구촌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에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가르침이 중대한 도전을 제시하지만 세상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전쟁과 가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되는 비참한 과업보다는 그것이 훨씬 더 받아들이기 쉬운 도전일 것임을 압니다.⁶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들을 도우려 노력할 때, 우리를 불의하게 이용했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생활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서 영을 지니고 서로 단합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⁷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가까운 이웃이든 먼 곳에 사는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평화를 알게 될 유일한 길을 제시해 줍니다. … 우리에게는 더 평화한 가족과 이웃과 지역 사회를 기초로 형성되는, 더 평화로운 세상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평화를 얻고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며 우리의 친구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393쪽] … 우리는 우정의 손을 내밀 필요가 있으며, 더욱더 친절하고 부드러우며,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더디게 노할 필요가 있습니다.⁸

하나님은 강요와 경직된 대면이 아니라 설득과 인내와 오래 참으심으로 행하십니다. 그분은 부드럽게 권유하시고 감미롭게 이끌어내십니다.⁹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또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사람들, 그분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평화의 약속같은 것은 없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지도자들의 퇴폐와 타락을 이야기한 뒤에 이런 말로 권고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이사야 57:20~21) …

구주께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보호받지 못하고 내적인 혼란과 불화를 겪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평안과 상반됩니다. 평안은 오직 조건 없이 순종할 때, 즉 평강의 왕, 평안을 부여할 권능이 있는 분께 순종할 때에만 올 수 있습니다.¹⁰

신문의 머리글에 자주 드러나는 세상의 어려움은 그리스도 복음의 단순한 원리에 따라 생활할 때 오는 평안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구주의 속죄 희생을 믿는 신앙과 구주께서 주시는 영속적인 삶에 대한 조용한 확신이 있다면, 떠들썩한 소수자들이 우리 평안을 깨뜨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어수선한 세상에서 그런 신앙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임이니라”(누가복음 11:9~10).¹¹

저는 이 세상에서 평안을, 또한 다가올 세상에서 영생을 찾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음 두 가지 영원한 진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1) 첫째, 예수는 그리스도이자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아들이며, 죄와 무덤에서 인류를 구속하겠다는 명확한 목적을 위해 지상으로 오신 분이며, 그분은 살아 계시어서 우리를 아버지의 면전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2) 둘째, 조셉 스미스는 범법으로 인류가 잃어버렸던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 이 후기에 주님께서 일으키신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두 가지 근본적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생활한다면, 이 세상에는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¹²

여러분이 유혹을 물리치고 ... 깨끗하고 도덕적인 생각과 행동, 올바르고 정직한 거래, 학업에서의 성실성과 양심, 금식과 기도, 그리고 예배로 수확의 법칙에 따라 생활하고 매일 노력을 다하겠다고 결심한다면, 자유와 내적 평안, 또 번영을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¹³

이타적인 봉사로 가득한 삶은 또한 이해력을 넘어서는 평안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 이런 평안은 오직 복음 원리에 따라 생활할 때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평강의 왕께서 만드신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은 이런 원리들입니다.¹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많은 것들에는 수천 가지 죄와 유혹을 통해 ... 개인들의 평안을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생활이



“이타적인 봉사로 가득한 삶은 또한 이해력을 넘어서는 평안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 앞에 확립해 주신 완벽한 모범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노력이 좌절되고, 개인의 생활이 평화롭고 평온하며, 가족들이 서로 가까워지고 염려해 주며, 와드와 스테이크 또 지부와 지방부가 그리스도의 더 큰 몸을 이뤄 모든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고 모든 아픔을 진정시키고,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니파이가 호소했듯이 온

세상이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갈]” 때까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니파이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것이 길이니 … 달리 주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니파이후서 31:20~21)¹⁵

3

구주는 우리가 주변의 불안에 관계없이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다.

예수님은 슬픔과 고통과 번민과 운명의 시달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짊어지셨던 무거운 짐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데 선지자 이사야는 그분을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라고 묘사했습니다.(이사야 53:3) 주님의 배는 거의 전 생애 동안 요동쳤으며, 적어도 사람의 눈에는 그 배가 갈보리 해안의 절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필멸의 눈으로 생을 바라보라는 권고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어떤 일이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영적인 관점으로 보고 압니다.

아무리 폭풍우가 사납게 휘몰아쳐도 구주의 입술과 마음에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전 세계에서 각자의 나라들에, 나아가 때때로 교회가 당면하는 시달림 속에서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떠한 방해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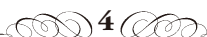
사람이 아름답고 평화스러운 것에 둘러싸여 생활하면서도 내적인 불화와 불일치 때문에 끊임없는 불안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와는 반대로, 전쟁이 가져온 극심한 파괴와 피 흘림 속에서도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차분하게 평안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친구나 세상의 방법에서 도움을 찾으려 한다면, 동요와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선다면, 불안한 영혼을 위한 평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요한복음 16:33)라고 말씀하시며 이런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이사도와 온 인류에게 이런 선물도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4:27)

우리가 그분의 커다란 선물과 다음과 같은 다른 권유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갈등의 세상에서 지금이라도 이런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마태복음 11:28~29).

이런 평안은 세상적인 소란에서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지식은 고통스러운 마음에 위안을 가져다줍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그리고 다가올 영원의 세상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줄 것입니다.¹⁷

혼란하고 세속적으로 분주히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단순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단순한 진리에 담겨 있는 기본을 공부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어렵פות한 추측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은 역동적이고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참되게 받아들이면 의미 있는 종교적 경험을 하게 해 줍니다. 물론이라는 종교가 주는 큰 강점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믿음을 일상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소란과 혼란을 평안과 평온함으로 대체합니다.¹⁸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할 때 우리는 평안을 파괴하는 요소들을 이겨 낼 수 있다.

우리를 검사하고 우리를 시험하며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이겨 내신 그리스도에 대한 위대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자주 이용하던 여행 길 중 하나였던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밤이 어두워지고 주변 날씨가 거칠어지며 여행길이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파도는 맹렬했고 바람이 세졌습니다. 이 육신을 지닌 연약한 인간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예수님은 홀로 해변에 남아 계셨기 때문에 자연을 진정시키고 그들을 구해 줄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늘 그러셨듯이 주님은 항상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사랑하고 돌보셨습니다. 아주 큰 곤경에 빠져 있던 순간에 그들은 어둠 속에서 걸음을 펴며 그들을 향해 물위를 걸어오는 어떤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물 위를 걸어오는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인생의 어둠 속에서 바다가 그렇게 크고 우리 작은 배는 그렇게 작아 보일 때 우리가 자주 경험하듯, 폭풍우와 어둠 속에 있던 그들에게도 궁극적이고 위안을 주는 평안의 음성이 찾아와 이렇게 단순한 선언을 전했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대답을 베드로에게 해주셨습니다.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킨 채로 성난 파도 위를 걸어가는 동안에는 바람에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물방울이 옷에 튀었을지라도 모든 것이 안전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흔들려 주님께에서 눈을 떼고 성난 파도와 자기 밑에 있는 어두운 소용돌이로 시선을 돌리자, 곧바로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대부분의 우리처럼 그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물론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손을 뻗어 물에 빠진 제자를 건져 주시며 부드럽게 나무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다음에 그들은 안전하게 배로 돌아와 잠잠해진 바람과 파도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곧 그들의 안식처, 우리 모두가 언젠가 도달하기를 바라는, 안전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 선원들과 제자들은 모두 깊이 경탄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오늘 제가 밝히는 것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Farrar, *The Life of Christ*, pp. 310-13에서 각색; 마태복음 14:22~33 참조)

저는 개인으로서, 가족으로서, 지역 사회와 국가로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킨다면, “불신앙의 세찬 파도를” 이기고 확신에 차 걸으며 “의심의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남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할 그분에게서 눈을 돌린다면, 그러기가 쉽고 또 세상은 그렇게 하도록 크게 유혹하기에, 우리가 우리를 돕고 또 구할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주위에 있는 끔찍하고 파괴적인 요소들이 지닌 힘과 맹렬함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기필코 다툼과 슬픔과 절망의 바다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물이 밀려와 우리를 익사시키려 위협하고 깊은 물이 흔들리는 우리 신앙의 배를 삼킬 것 같은 때에 우리가 폭풍우와 어둠 가운데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마태복음 14:27)는 세상의 구주의 부드러운 음성을 항상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¹⁹

학습 및 교수 제언

질문

- 헌터 회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평안의 근원이라고 가르친다.(1편 참조) 여러분이 이런 진리를 알게 되는 데 어떤 경험이 도움이 되었는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평안을 가져다주는가?(2편 참조) 복음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어떻게 평안을 지니는 데 도움이 되는가? 평안을 지니는 데 구주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3편에 있는 헌터 회장의 가르침을 복습한다. 여러분은 구주께 나아감으로써 여러분의 집에서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구주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어떻게 경험해 보았는가?
- 물 위를 걷는 베드로에 대한 헌터 회장의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4편 참조) 어려운 시기에 평안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여러분이 어려운 시기에 “담대하라” 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주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관련 성구

시편 46:10; 85:8; 이사야 32:17; 마가복음 4:36~40; 로마서 8:6; 갈라디아서 5:22~23; 빌립보서 4:9; 모사이야서 4:3; 교리와 성약 19:23; 59:23; 88:125

교사를 위한 도움말

반원들에게 본 장에서 토론하고 싶은 편을 하나 선택하라고 하고, 같은 편을 선택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로 편성해 준다. 각 조에게 본 장 끝에 있는 관련 질문을 토론해 보라고 한다.

주

1. Eleanor Knowles, *Howard W. Hunter*(1994), 185.
2. Knowles, *Howard W. Hunter*, 266.
3. Boyd K. Packer, "President *Howard W. Hunter*—He Endured to the End," *Ensign*, Apr. 1995, 29.
4. "The Gifts of Christmas," *Ensign*, Dec. 2002, 16.
5. Conference Report, Oct. 1966, 15-16.
6. "평화의 항구에서 비치는 불빛", *성도의 벗*, 1993년 1월호, 18쪽.
7.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ed. Clyde J. Williams(1997), 40.
8. "제일 좋은 길", *성도의 벗*, 1992년 7월호, 61, 63쪽.
9. "선택의 금실", *성도의 벗*, 1990년 1월호, 22쪽.
10. Conference Report, Oct. 1966, 16.
11. Conference Report, Oct. 1969, 113.
12.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172-73.
13.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73-74.
14. "The Gifts of Christmas," 19.
15. Conference Report, Apr. 1976, 157.
16. "주여 큰 폭풍우 일고", *성도의 벗*, 1985년 1월호, 36쪽.
17. Conference Report, Oct. 1966, 16-17.
18. Conference Report, Oct. 1970, 131-32.
19. "평화의 항구에서 비치는 불빛", 19쪽.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구주께서는 베테스다 못에 있던 사람에게 하셨던 다음 권유를 우리 각자에게도 하신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요한복음 5:6)



역경—우리의 영원한 진보를 위한 하나님 계획의 일부

“[필멸의 세상에 있는 어려움들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순화하고 가르치고 축복할 때, 그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놓인 강력한 도구가 되어 우리가 더 나은 사람들이 되게 해 줍니다.”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생애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하던 시절인 1980년 4월 연차 대회에서 하워드 더블유 헌터 장로는 사모아의 롱보트 대회를 많은 관중과 함께 관람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이렇게 말씀했다. “흥분한 관중들은 들어오는 [보트들]을 먼저 보려고 시선을 바다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보트가 시야에 들어 오자 관중들은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각 배에서 오십 명의 힘센 장정들이 나란히 앉아 리듬에 맞추어 노를 저으니 배가 파도를 헤치고 물거품을 일으키면서 쏜살같이 들어왔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보트와 노 젓는 사람들이 결승선을 향해 들어오자 그 모습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 힘센 장정들이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었지만, 오십 명을 태운 보트의 무게 때문에 물의 저항력이 생겨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관중들의 환호성은 첫째 배가 결승선을 넘어서자 절정에 달했습니다.”

경주가 끝난 후에 헌터 장로는 배가 정박한 곳으로 걸어가서 한 선수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선수는 롱보트의 뱃머리는 “보트의 속력을 떨어뜨리는 저항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되도록 물을 가를 수 있는 모양으로 건조되었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또 물의 저항을 이용해서 노를 저으면 보트가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항을 이용해서 진행 방향을 반대로, 또는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¹

헌터 장로는 사모아에서 있었던 보트 경주를 이용해서 역경의 목적에 관한 말씀을 전했다. 사도로서 성역을 베푸는 동안 그는 역경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하며 권고와 희망, 격려를 전해 주었다. 그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과 기타 어려움을 겪어 낸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말씀을 했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고를 덜어 주시고 짐을 가볍게 해 주실 권능을 갖고 계심을” 확고한 신념을 갖고 간증했다.²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가르침

1

역경은 우리의 영원한 진보를 위한 하나님 계획의 일부이다.

저는 삶이, 모든 사람의 삶이 오르내림의 기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기쁨과 슬픔을 봅니다. 많은 사람이 계획을 바꾸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또 축복처럼 보이거나 또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많은 축복을 봅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인내와 신앙을 향상시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러한 것들을 가끔씩 경험한 적이 있으며, 그리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

자신의 능력으로 다스릴 수 없는 고통과 실망과 상황에 대해 잘 아셨던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님은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뇌를 몰아내고 계속해서 평안하면서도 무사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슬픔과 재난의 문들을 닫아 버린다면, 우리의 훌륭한 친구와 은인들도 제외시키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인내와 오래 참음과 자제심을 배울 때, 그 사람은 고난을 통해 성도가 됩니다.”[*Faith Precedes the Miracle*(1972), 98]

그 말씀에서 김볼 회장님은 인생에서 겪는 어떤 특정 경험에 대해 문을 닫는 것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 우리의 삶에서 문은 정기적으로 닫힙니다. 어떤 경우에는 문이 닫힐 때 커다란 아픔과 마음의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문이 닫힐 때 우리 인생의 다른 곳에서 소망과 축복이 임하며 또 다른 문이 열린다고 진정으로 믿는데 이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 [매리온 지 롬니 회장님은] 몇 년 전에 … 가장 충실하고 신앙심이 강한 사람을 위시해 모든 사람이, 조셉 스미스의 말을 빌리자면 “사람들이 시온 산에 오르고 하늘에서 승영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겪어야”[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230쪽; Conference Report, Oct. 1969, 57 참조]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삶에서 역경과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롬니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고난이 오기를 고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모든 고난을 피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입고 태어나기로 되었을 때, 이곳에서 역경과 시련 가운데 시험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현재도 알고 있습니다. …

[더욱이] 당신의 자녀를 시험하고 [정화시키는] 아버지의 계획에서는 구주도 열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당하신 고통은 온 인류의 고통을 한데 합친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고통에 떨며 피를 흘리고 쓴 잔을 물리치려 하셨던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셨고 사람의 자녀들을 위한 나의 준비를 마쳤느니라.’(교리와 성약 19:18~19)”(Conference Report, Oct. 1969, p. 57)

우리 모두는 “사람의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준비를”[교리와 성약 19:19] 마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준비는 우리의 것과는 아주 다르지만, 우리가 마쳐야 할 준비, 우리가 열어야 할 문이 있습니다. 그렇듯 중요한 준비를 마치기 위해 때로는 고통, 기대하지 않던 삶의 변화, 그리고 “아이가 참으로 그 아버지에게 복종함같이”[모사이야서 3:19]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신성한 준비를 마치고 승영의 문을 여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지도 모릅니다.³

우리는 저항을 받고 살아야 하는 숙명적인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걷는 영원한 진보를 위한 계획에 속합니다. 유혹, 아픔, 고통, 슬픔이 없다면 선함, 미덕, 평온을 인식하거나 기쁨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 우리의 발전을 막는 바로 그 저항력이 한편으로는 이겨 낼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⁴

2

필멸의 세상에 있는 환난은 우리의 성장과 경험을 위한 것이다.

[필멸의 세상에 있는 어려움들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순화하고 가르치고 축복할 때, 그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놓인 강력한 도구가 되어 우리가 더 나은 사람들이 되게 하고, 더 감사하게 하고, 더 사랑스럽고, 어려운 시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게 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는 개별적으로, 또 공통적으로 어려운 시기들이 있지만 고대나 현대를 막론하고 가장 혹심한 시기에서도 그런 문제들과 예언들은 의로운 사람들을 축복하고 덜 의로운 사람들이 회개를 향해 나아가도록 돕기 위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경전에는 그분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16)라는 구절이 있습니다.⁵

물문경의 위대한 축복사 리하이는, 고난과 적대 속에서 광야를 여행할 때 태어난 아들 야곱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을 했습니다. 야곱의 생애는 그가 기대했던 삶이나 이상적인 인생 여정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역경과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리하이는 그러한 고난이 아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니파이후서 2:2 참조)

그런 다음 리하이는 고전이 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음이 꼭 필요함이라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 의로움이 이루어질 수 없으리니, 간악함도 그러하며, 거룩함이나 비참함이나, 선이나 악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니라.”(니파이후서 2:11)

저는 삶의 고통과 절망에 대한 이러한 해석으로 지난 몇 년간 위로를 받아왔습니다. 저는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을 위시해 위대한 사람들이 그러한 역경에 처해 의와 악, 거룩함과 비참함, 선한 것과 나쁜 것을 더욱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더 큰 위안을 얻습니다. 어둡고 습기 찬 리버티 감옥 안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우리가 환난과 시련을 헤쳐 나가도록 부름을 받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장하고 경험을 얻게 되며, 그것은 다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교리와 성약 122:5~8 참조)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립니다. 감옥에 있는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모든 입구와 출구를 적절히 판단할 수 있을 만큼 현명하거나 경험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리버티 감옥에 갇힌 조셉 스미스에게 주님께서는 역경이 우리에게
경험과 유익을 주는 것이 될 수 있다고 계시하셨다.

께서 준비하신 집에는 특정 복도와 난간, 특별한 카펫이나 커튼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그 집을 거쳐 가도록 그분이 마련하신 것입니다. ...

우리 생애에서 여러 시기에, 때로는 반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심을 깨달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이사야 55:8)

빛나간 자녀 때문에 가정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거나 재정적인 곤란과 감정적인 긴장으로 가정과 행복이 위협당하고 있더라도, 또는 생명 혹은 건강을 잃게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험을 받지 않습니다.[고린도전서 10:13; 열마서 13:28; 34:39 참조] 우리가 거쳐야 하는 우회하는 길과 절망이 ... 주님께 이르는 험착하고 좁은 길일 수 있습니다.⁶

 3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도 낙관적이고 자신감을 가질 이유가 충분히 있다.

필멸의 생애는 몇 가지 어려움이 늘 있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고, 살아야 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염세주의에 빠지거나 절망할 이유나 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두 번의 세계 대전과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을 포함해서 여러 전쟁을 지켜봐 왔습니다. 경제 대공황도 헤쳐 나왔고, 신혼 가정을 이끌면서도 법과 대학원에 다녔습니다. 주식 시장과 세계 경제가 정신 없이 돌아가는 것도 보았고, 소수의 독재자와 압제자들의 만행도 보았는데, 그러한 모든 것은 그 과정에서 세계 곳곳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 여러분 시대에만 일어난 것이라거나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일어난 일들보다 더 나쁜 일들은 없거나 앞으로 도무지 개선될 것 같지 않다는 믿음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일들이 악화되어 왔다면 앞으로는 늘 더 좋아질 테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런 일들은 항상 그렇게 돌아갑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생활하고 복음을 사랑하며 복음이 우리 삶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할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

일부 사람들의 말과는 반대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낙관적이고 자신감을 가질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시간이 시작된 이래로 모든 세대는 극복할 일들과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⁷

 4

우리가 구주께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 짐을 털어 주고 우리 부담을 가볍게 하실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태복음 11:28~30). ...

하나님의 아들께서 몸소 제시하신 이 놀라운 도움의 손길은 그 당시의 갈릴리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쉬운 멍에를

메고 가벼운 짐을 지라는 부름은 한 세대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민족과 도시와 국가 및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호소입니다.

이 어려움이 가득한 시기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에 대한 이 확실한 해결책을 인식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곳에 개인적인 평화와 보호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곳에 온 세대의 죄를 사해 주는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고를 덜어 주시고 짐을 가볍게 해 주실 권능을 갖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무거운 짐을 벗고 짐을 얻어야 합니다.

물론 이 약속에는 의무도 따릅니다. 주님께서서는 “나의 멍에를 메[라]”고 당부하십니다. 고대의 성경시대에 멍에는 밭을 일구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도구였습니다. 이 멍에를 두 마리의 소에 함께 메어 주면, 한 마리가 감당해야 할 힘이 두 마리에게 똑같이 배분되기 때문에 쟁기나 짐마차를 끄는 데 그만큼 힘을 덜 들여도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겹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짐이라도, 두 사람이 함께 멍에를 메면 둘 다 똑같이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주님의 멍에를 메기 위해서는 어렵고도 성실한 노력이 요구되지만, 진실로 개심한 사람들에게는 이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왜 삶의 짐을 혼자 짊어지려 하며 쉽사리 걸려 넘어질 세상적인 도움만으로 그 짐을 옮기려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멍에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과 나란히 설 때 오는 권능과 평화를 통해, 이곳 필멸의 세상에 있는 개간되지 않은 딱딱한 땅에서 어려움을 이겨 내고 과업을 견뎌 낼 도움과 균형,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해도 모두에게 삶의 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권고를 따르지 않아 오는 세상의 죄에서 기인한 슬픔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삶의 역경을 모두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짐을 지고 멍에를 메어야 한다면, 내 것을 지고 메지 않겠느냐? 내가 약속하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마태복음 11:28~30 참조)⁸



“모든 세대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으로 충만해지라는 권유, 아니 명을 받습니다.”

5

후기 성도들은 마지막 날의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경전에는 온 세상이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가 올 것이라고 나옵니다. 아쉽게도 우리 경륜의 시대에는 불의가 아주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고 그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형벌이 닥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에 그 불의를 끝내시겠지만, 우리가 할 일은 충분히, 또 충실하게 생활하고 세상의 고통에 대해, 또 세상에 종말이 오는 시기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복음을 지니고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비추는 불빛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닌 아름다움, 그리고 노소를 막론하고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이라면 늘 받게 되는 기쁨과 행복을 발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는 큰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마태복음 24:21 참조)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교리와 성약 45:26 참조) 또 온 땅이 동요하게(교리와 성약 45:26 참조) 될 것임을 압니다. 모든 경륜의 시대에는 그 시대만의 위협천만한 시기가 있었지만 우리 시대는 진짜 위협이

있게 될 것입니다.(디모데후서 3:1 참조) 악인들이 번영하겠지만(디모데후서 3:13 참조) 악인들이 번영했던 때가 이미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재앙이 닥치고 간악함이 넘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45:27 참조)

불가피하게 이런 류의 예언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두려움이 생기며, 그것은 젊은 세대에 국한된 두려움은 아닙니다. 노소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그런 두려움을 다 느낍니다.

그러나 충실한 후기 성도들에게 그런 두려움은 불필요한 것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느낌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고대 이스라엘에게 위대하신 여호와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신명기 31:6, 8)

현대 이스라엘에 속한 훌륭한 세대인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선을 행하라. 땅과 지옥이 연합하여 너희를 대적하게 하라. 이는 만일 너희가 나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을진대, 그들이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라. …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무서워 말라.”(교리와 성약 6:34, 36)

이런 권고는 우리 현대 경전에 연이어 나옵니다. 우리를 안심시키는 이 훌륭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어린아이들아, 이는 너희가 나의 것임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며, 너희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 있음이니라.”(교리와 성약 50:41) “진실로 내가 너희, 나의 친구들에게 이르노니, 두려워 말라. 너희 마음에 위로를 얻으라. 참으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교리와 성약 98:1)

이런 훌륭한 권고가 주어진 것을 비추어 볼 때, 저는 우리가 조금 더 기뻐하고, 조금 덜 절망하며, 우리가 가진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많은 것에 감사하고, 갖지 못한 것에 대해, 또는 이 세대 내지 어떤 세

대나 시련의 시기에 으레 느끼는 불안에 대해서는 조금 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큰 희망과 흥분의 시기

후기 성도들에게 지금 이 시간은 큰 희망과 설렘을 느끼는 때이자 회복에서 가장 위대한 시대 중 하나이며, 그리하여 이 시대는 모든 경륜의 시대에서 가장 위대한 시기 중 하나입니다. 우리 경륜의 시대가 모든 경륜의 시대 중에서도 가장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과 희망을 품을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이 보이는 커다란 기본 덕성에 속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지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에서 가장 우선하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권능이 있으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사업은 우리의 생활에서나 세상에서나 멈추지도, 좌절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백성을 늘 보호하시고 보살피 주시리라는 사실을 주님의 종인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우리는 모든 세대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은 분명한 희망과 약속과 재확신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당신의 성도를 지킬 권능이 있으시며, 자신의 백성을 위한 평안과 방어, 안전의 장소를 항상 준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을 때, 우리 자신과 온 인류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옛적에 (곤란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선지자 이더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더 나은 세상, 곧 참으로 하나님 우편의 처소를 바랄 것이요, 이 소망은 신앙에서 비롯하여, 사람의 영혼에 닿아 되어, 그들로 확실히 하고 굳건하며, 늘 선행이 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라 하였더라.”(이더서 12:4)

모든 세대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으로 충만해 지라는 권유, 아니 명을 받습니다.(니파이후서 31:20 참조)

두려움을 쫓아내려 노력함

… 우리 신앙과 소망이 그리스도에게, 그분의 가르침에, 계명에, 약속에 고정되어 있다면, 참으로 눈에 띄는, 진정으로 기적과 같은 것들을 의지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흥해를 가르고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할]”(찬송가, 1985, 16장) 곳으로 현대의 이스라엘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두려움, 즉 힘

든 시기에 사람들에게 엄습하는 이 두려움은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 사탄이 무기고에 비치하여 사용하는 주된 무기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악에 대항하는 싸움에서 인생의 고난을 헤치고 나갈 힘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은 그들의 영향력으로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도록 항상 애씁니다. 모든 시대와 시기에 사람은 두려움에 직면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후손으로서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두려움을 쫓아내려 애써야 합니다.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일을 잘 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사업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후기 성도들은 신성하게 지명받아 성취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두려움과 걱정을 이겨 내야만 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한 사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을 정복하는 열쇠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너희가 준비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38:30) 이 신성한 메시지는 오늘날 모든 스테이크와 와드에 다시금 필요합니다.”(Elder John A. Widtsoe, Conference Report, Apr. 1942, p. 33)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를 맡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이겨 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의로운 율법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에 예라고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 생활에서 두려움이 떠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의롭게 생활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로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움의 정도를 잘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시대와 시기에 모든 후기 성도의 생활에서 특징이 되어야 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후기에 생활하는 특권과 명예, 책임

자신의 생애에서 엄청난 어려움들에 직면했음은 물론이고 자신의 승리를 위해 궁극적인 값을 치렀던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한 말씀 중에 제가 읽었던 가장 훌륭한 것 하나를 들려드리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는 승리를 거뒀으며, 행복하고 굳세고 낙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알았던 사람들은 가장 어둡던 시기에도 그에게서 힘과 용기를 느꼈습니다. 그는 낙담하거나 오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우리 시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과거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이 특별히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시대]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즐거운 마

음으로 기대하며 고대해 왔습니다. 그들은 천국의 예감과 즐거운 예감으로 고취되어 우리가 사는 이날을 노래하고 글로 쓰고 예언했습니다. ... 우리는 하나님께서 후기의 영광을 가져오도록 택하신 은총을 입은 백성입니다. 후기의 영광을 보고 그것에 참여하며 그것을 앞으로 밀고 나가는 것을 돕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186 쪽)

그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 얼마나 큰 명예입니까! 그 얼마나 큰 책임입니까! 그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는 현재와 영원에서 기뻐하고 우리 삶의 우수함과 우리가 받은 약속들에 대해 감사드려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⁹

학습 및 교수 제언

질문

- 역경이 영원한 진보를 위한 하나님 계획의 일부임을 아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1편 참조) 역경이 왜 필멸의 세상에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가?
- 2편에서 역경의 몇 가지 목적에 대한 헌터 회장의 가르침을 복습한다. 역경이 어떻게 우리의 유익이 될 수 있는지를 목격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역경을 볼 수 있게 되는가?
- 헌터 회장이 가르치듯이 왜 어려운 시기에도 행복하고 낙관적이 되어야 하는가?(3편 참조) 그런 시기에도 어떻게 낙관적인 생각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는가? 가장 극심한 역경의 시기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우리의 짐을 구주께 지워 우리의 부담을 가볍게 하라는 그분의 권유를 어떤 방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4편 참조) 그분의 멍에를 우리가 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어려운 시기에 구주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 헌터 회장은 마지막 날의 환난에 대한 두려운 느낌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친다.(5편 참조) 두려운 마음을 품고서 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해로운가? 두려움보다는 희망과 신앙을 품고서 생활하기 위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관련 성구

요한복음 14:27; 16:33; 히브리서 4:14~16; 5:8~9; 니파이전서 1:20; 엘마서 36:3; 교리와 성약 58:2~4; 101:4~5; 121:7~8; 122:7~9

학습을 위한 도움말

“연구하는 데 가장 좋은 시간으로는 한 밤의 휴식 [후에] … 아침 시간을 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 하루의 일을 끝내고 걱정거리를 한 옆으로 치워 놓은 한밤의 조용한 시간에 읽기를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 하루 중 어떤 시간을 정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읽을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 놓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하워드 더블유 헌터, “경전 읽기”, *성도의 벗*, 1980년 3월호, 94~95쪽)

주

1. “단련받는 백성”, *성도의 벗*, 1980년 11월호, 35쪽.
2.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성도의 벗*, 1991년 1월호, 91~92쪽.
3. “문을 여는 것과 닫는 것”, *성도의 벗*, 1988년 1월호, 62~63쪽.
4. “단련받는 백성”, 36~38쪽.
5. “An Anchor to the Souls of Men,” *Ensign*, Oct. 1993, 71.
6. “문을 여는 것과 닫는 것”, 64쪽.
7. “An Anchor to the Souls of Men,” 70.
8. “내게로 오라”, 19~20쪽.
9. “An Anchor to the Souls of Men,” 71-73.



“주님께서는 …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겸손하게 주님께 와서 도움을 구한다면 우리는 ‘강하게 되[며], 높은 곳에서 오는 복을 받게[될]’(교리와 성약 1:28)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오는 도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거룩한 도움과 영적인 인도에 대한 약속보다 더 큰 위안을 주는 약속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생애에서

하워드 더블유 헌터는 소년 시절에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는 저에게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종종 지상의 아름다움과, 농장이나 강에서 보이스카웃 대원들과 함께 했던 그 훌륭한 시간에 대해 감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또한 저는 원하는 것이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제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¹

생애 내내 헌터 회장은 신성한 도움을 받는 근원으로 기도를 이용했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이같이 가르쳤다. 예를 들어 그가 감독으로 봉사할 때 그 워드에서 한 남자가 다른 남자를 향해 나쁜 감정을 표시했다. 헌터 회장의 다음과 같은 권고에는 기도를 통해 오는 도움에 대한 간증이 잘 나타나 있다.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집에 가서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2주 후에 같은 시간에 저와 만나 다음에 해야 할 일을 결정하기로 합시다.’”

그 사람은 이 권고를 따른 후에 돌아와서 상대방에 관해 겸손하게 이렇게 말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기꺼이 돕고 싶습니까?” 헌터 회장이 물었다.

“물론 그렇습니다.”라고 그 사람이 말했다.

“모든 악의와 반감이 사라졌습니다.” 헌터 회장은 이렇게 회상했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²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가르침

1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우리들은 모두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특별하고 시급한 방법으로 하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런 상황에 압도되거나, 다른 사람들의 권고로 혼란스럽게 되어, 영적인 인도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 즉 옳은 길을 찾고 옳은 일을 해야겠다는 절실한 필요성을 느낍니다. 후일의 경륜의 시대에 주신 경전의 서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와 같은 도움이 필요할 때 겸손하게 주님께 와서 도움을 구한다면 우리는 “강하게 되[고], 높은 곳에서 오는 복을 받[으며], 시시로 지식을 받게”(교리와 성약 1:28)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도움을 구하고, 그것을 믿으며 몰몬경에서 베나민 왕이 말한 바와 같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다면]”(모사이야서 3:19) 우리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거룩한 도움과 영적인 인도에 대한 약속보다 더 큰 위안을 주는 약속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자유로이 주어지는 은사, 즉 태어나서부터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입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도움을 받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음이라.”(교리와 성약 78:18) “나는 네게 나의 영을 나누어 주리니, 그것은 네 마음을 밝혀 주며 네 영혼을 기쁨으로 채워 주리라.”(교리와 성약 11:13)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시며,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인생에서 문제에 당면하고 삶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를 받고 영적인 기쁨을 발견할 수 있기를 … 간구합니다.³

2

조셉 스미스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높은 곳에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 경전과 기도를 이용할 수 있다.

소년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혼란에 빠지고 곤경에 처했을 때,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자 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뉴욕 주 팔마이

라 인근 지역에는 조셉이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동안 “종교 문제에 대한 이례적인 동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실로 온 지방을 떠들썩하게 하였으며 “큰 무리가” 서로 당을 지어 종교 단체를 형성하였고 많은 무리들이 흥분하여 “소란과 분열을” 조성했다고 적었습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5]

이제 막 열네 살이 된 소년이 기울인, 진리를 찾고자 했던 노력은 스미스의 식구들이 당시 각기 다른 종파를 선호했기에 더욱 어려움과 혼동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러한 배경과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저는 그 어린 소년이 갖고 있었던 놀라운 생각과 느낌을 여러분이 고려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커다란 동요의 시기에 내 마음은 진지한 묵상에 잠기는 한편 심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러나 비록 나의 감정이 깊고 종종 강렬하기까지 하였고, 비록 사정이 허락할 때마다 자주 그들의 집회에 참석하였으나, 여전히 나 자신은 이 모든 종파에서 떨어져 있었다. … 다른 종파들 사이에 혼란과 다툼이 너무 컸으므로 어리고 세상사에 미숙한 나로서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어떤 확실한 결론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했다.

내 마음은 때때로 크게 흥분되었으며, 부르짖음과 소란은 매우 크고 그칠 새가 없었다. …

이러한 언쟁과 의견의 혼돈 속에서 나는 종종,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모든 교파 중에 누가 옳은가? 아니면 그들 모두가 다 그릇된 것인가? 만일 그들 중 어느 하나가 옳다면, 그것은 어느 것이며, 나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 하고 자문해 보았다.

내가 이들 종교적 열성자들의 논쟁으로 야기된 극심한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루는 야고보서 일 장 오 절을 읽고 있었다. 그곳에는 다음과 같이 씌어 있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경전의 어느 구절도, 이때 이 구절이 내 마음에 임한 것보다 더 힘차게 사람의 마음에 임한 적은 결단코 없었다. 그 구절은 마치 큰 힘을 지니고 내 마음의 느낌 속으로 속속들이 파고드는 것 같았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나는 거듭거듭 이 구절에 대해 깊이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

지 나는 몰랐고, 또 내가 그때 가지고 있던 것 이상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전에는 나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조셉 스미스—역사 1:8~12]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후에 일어난 일은 인류 역사의 진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로 결정한 어린 조셉은 집 근처의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드린 진지한 기도의 응답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조셉을 방문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겸손히 간증드리는데 그 위대한 시현은 어느 교회에 속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조셉의 질문에 대한 응답은 물론이고, 우리의 경륜의 시대가 갖고 있는 더 많은 문제에 대한 대답을 전해 주었습니다.

… 비록 회복의 처음 순간이 경전에서 가장 신성한 이야기 중 하나이지는 않지만, 제가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세상 경험이 부족한 어린 소년이 영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였던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에 열네 살 된, 아니 어느 연령에 있든 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몰려오는 수많은 압력, 특히 영생과 같은 중요한 주제에 대해 고민할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침착하게 그것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 몇이나 부모들이 서로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데서 오는 정서적인 갈등을 견디어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나이가 열네 살이든 십 살이든 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말한 바 “하나님의 깊은 것”(고린도전서 2:10)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경전을 탐구하려 하겠습니까?

이 소년이 진실한 마음으로 경전을 탐구하고 하나님께 개인적인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 …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두 가지, 즉 경전과 기도는 모든 사람에게 공히 적용될 수 있는 힘의 근원이라 하겠습니다. 분명 그는 분분한 견해로 혼란을 겪었지만 옳은 일을 하고 올바른 길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높은 곳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그랬던 것과 같이 여러분이나 저도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셉 스미스가 매우 특별한 영이며, 특별한 경우였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까? 적어도 열네 살 이상 된 사람으로서 우리도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열도록 선택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결정을 내려야 하며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주제와 관련된 주장들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혼란들을 가려내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지혜를 구한 조셉 스미스의 모범을 따를 수 있다.

합니다. 세상은 그런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며, 때때로 그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의 나이와 나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의 영성이 둔해졌다고 느낍니다. 시련이 극심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우리를 혼란과 근심 속에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느낌은 상대적으로 젊고 경험이 덜한 사람들에게는 정당화되기도 하지만 우리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알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아들과 딸이며 우리 인생의 교훈이 어떠한지 주님의 이런 약속은 여전히 참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야고보서 1:5).⁴

3

기도는 영적인 지식과 인도를 받는 한 가지 방법이다.

세상의 학문과 지혜와 모든 현세적인 것은 세상적이고 현세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는 만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를 맡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영적인 지식은 영적인 근원에서 나오는 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린도전서 2:14).

영적인 지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행하며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전에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과 전에 듣지 못했던 것, 곧 바울의 말과 같이 “하나님이 ... 예비하신 모든 것”(고린도전서 2:9)을 보고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받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수 있음을 믿고 이에 대해 세상에 증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시대나 구약시대처럼 지금도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⁵

4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

현대는 마치 거룩한 것에 대한 헌신이나 경건이 비합리적이거나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의적인 “현대”인들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한 순간, 막중한 책임, 큰 근심, 비통한 슬픔 등 우리를 만족과 안정된 일상 생활에서 불안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은 사람이 본래 갖고 있던 충동을 겉으로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합니다.

기도가 단지 위급한 때에만 부르짖는 돌발적인 외침이라면 그 기도는 완전히 이기적인 것이며, 하나님을 우리가 긴급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수리공이나 봉사 기구로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가장 높으신 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다른 도움이 끊기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에만 가장 높으신 분을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요소 중에서 기적적인 성공과 인간 영혼에 대해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기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경건하고 겸손하고 헌신적인 대화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시편 5:1~3).

아마도 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시편 저자가 말한 것처럼, 고통 중에서뿐만 아니라 기쁨 가운데서도, 궁핍한 중에서뿐만 아니라 풍족한 중에서도 “바라느”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좋은 것을 주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분으로 끊임없이 바라보고 인정해야 합니다. ...

우리 사회에는 기도와 경건과 예배의 정신이 사라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 현명하고 흥미롭고 명석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 일생을 보면 가치 치명적이라고 할 만한 부족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약을 의롭게 바치지 않습니다.[교리와 성약 59:11 참조] 그들의 대화는 생기 넘치지만 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말은 재치가 있지만 지혜롭지는 않습니다. 장소가 사무실이든, 경기장이든, 또는 실험실이든 자신의 제한된 능력을 보여 주다가 결국은 위에서부터 오는 무한한 능력을 모독해야겠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품위를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때때로 교회 내에도 경건성이 결여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시간, 마음을 정화시키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순간에 너무 시끄럽게 찾아와 너무 불경스럽게 모임에 들어오거나 모임에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건이란 천국의 분위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영혼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항상 기억하며 그분의 세상과 그분의 사업에 더 큰 관심을 가짐으로써 그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⁶

5

우리는 시간을 내서 명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지식을 받는 능력을 키운다.

영성을 키우고 우리 자신을 지고한 신의 영향에 맞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리며 부단한 노력이 자주 필요합니다.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에만 이루어집니다. ...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영혼의 소리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 우리가 영적으로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간과 인내심에 대해 가장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정신과, 하늘로부터 지혜로운 자에게 전하여 준 그 빛에 기울이는 주의와 부지런함에 비례하여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간은 완전히 근접할수록 시야가 더욱 분명해지고 기쁨이 더욱 커지며 마침내 자신의 삶에서 악을 극복하고 죄에 대한 모든 욕망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인들처럼 인간을 지으신이의 권능과 영광에 휩싸이는 믿음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이끌려 올라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순식간에 이러한 경지에 도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211쪽]⁷

우리는 시간을 내서 영적인 것에 대해 우리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영적 능력의 발전은 권세가 부여된다고 따라오지 않습니다. 염원과 노력, 개

인적인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 금식과 기도, 경전 탐구, 경험, 명상, 의로운 생활에 대한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런 훈계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내가 구하면, 계시 위에 계시를, 지식 위에 지식을 받을 것이요, 그리하여 여러 비밀과 평화로운 것들을 알게 되리니-기쁨을 가져다주는 것, 영생을 가져다주는 것을 알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42:61)

“너희가 받게 될 줄로 믿는 신앙으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사람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나타내는 성신을 갖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18:18)

“영원한 엄숙함이 너희 생각에 머물러 있게 하라.”(교리와 성약 43:34)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쌓아 두라. 그리하면 바로 그 시각에 모든 사람에게 할당되는 분량이 너희에게 주어지리라.”(교리와 성약 84:85)

“부지런히 찾으라. 항상 기도하라. 또 믿으라. 그리하면 만일 너희가 올바르게 걸으며 너희가 서로 성약을 맺은 그 성약을 기억할진대, 너희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리라.”(교리와 성약 90:24)

“하나님께서서는 자기 성령으로써,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신의 은사로써 … 지식을 너희에게 주시리니”(교리와 성약 121:26).

이런 성구들은 우리가 자신을 준비한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에 관한 것들입니다.

시간을 내서 영적인 것들에 대해 명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⁸

6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한 번에 한 단계씩 영적으로 발전하도록 도우실 것이다.

우리가 영성을 얻기 위해 노력할 때 곤란을 겪는 이유 중에는 해야 할 일은 많고 정작 한 일은 별로 없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완전은 우리 모두 아직 다다르지 못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시작하며, 하나님의 것을 추구할

때 찾을 수 있는 행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런 충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즉 선을 행함에 지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위대한 일의 기초를 놓고 있음이라. 그리고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

보라, 주는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나니, 기꺼이 하고자 하며 순종하는 자는 이 마지막 날에 시온의 땅의 좋은 것을 먹으리라.” (교리와 성약 64:33~34)

주께서 “기꺼이 하고자 하며 순종하는 자는 이 마지막 날에 시온의 땅의 좋은 것을 먹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늘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온전한 이들이 이 마지막 날에 시온의 땅의 좋은 것을 먹으리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중에서 낙담해 미루부터 포기할 사람이 몇몇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시작해야 할 장소는 바로 이곳입니다. 출발해야 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는 걸음의 폭을 넓혀야 하나 한 걸음씩 또박또박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완전케 이르게 됩니다.

우리 중에서 필멸의 생애에 있는 동안 영적인 성장의 정점 또는 완전함에 이르렀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고 또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런 영적인 성장을 영원히 이루기 위한 신성한 계획입니다. 그것은 윤리 규범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이상적인 사회적 질서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향상과 결심에 관해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권과 지속시켜 주는 힘, 그리고 성령과 더불어 그분의 구원하는 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주님의 복음에 대한 순종을 지니고, 한 발 한 발씩 진보해 나아가며, 힘을 구하고, 우리의 태도를 개선시켜 나가면, 우리는 선한 목자의 울타리 안에 성공적으로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양과 훈련, 노력과 힘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립보서 4:13).

현대의 계시는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선을 행하도록 인도하는 영-참으로 공의롭게 행하도록, 겸손히 견도록, 의롭게 판단하도록 인도하는 그 영을 신뢰하라. 이것이 나의 영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는 네게 나의 영을 나누어 주리니, 그것은 네 마음을 밝혀주며 네 영혼을 기쁨으로 채워 주리라.

그리고 그때 너는 알게 되리니, 또는 이로써 너는 알게 되리니, 곧 의로운 것에 속한 것으로 내가 받을 줄을 내 안에서 믿는 신앙으로써 내게 원하는 것이면 너는 무엇이든지 다 받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11:12~14)⁹

학습 및 교수 제언

질문

- 1편을 읽은 후에, 여러분이 하늘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때를 되돌아본다. 필요한 때에 신성한 도움이 있으리라는 약속이 여러분 생활을 어떻게 축복해 주었는가?
- 2편에서, 우리가 혼란에 직면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것을 조셉 스미스의 모범에서 배울 수 있는가? 조셉과 같은 영적인 민감성을 어떻게 더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
- 영적인 지식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헌터 회장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해 본다.(3편 참조) 영적인 지식을 얻는 우리의 바람과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영적인 지식이 여러분을 도와주었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하나님을 “우리가 긴급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수리공이나 봉사 기구”로 보는 것에 대한 위험은 무엇인가?(4편 참조) 기도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축복이 되어 왔는가?
- 5편에서 헌터 회장은 영성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가르친다. 영적인 힘을 키우려는 노력이 왜 필요한가? 이 편에서 헌터 회장이 인용한 성구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 영적인 성장에 대해 6편에 있는 헌터 회장의 가르침을 복습한다. 영적인 성장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단계별 과정이었는가? 영적인 성장에서 뒤떨어져 있다고 느낀다면, 이 편에 있는 헌터 회장의 가르침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관련 성구

시편 25:5; 잠언 3:6; 니파이후서 32:8~9; 앨마서 5:46; 34:17~27; 37:36~37; 교리와 성약 8:2~3; 88:63; 112:10; 조셉 스미스—역사 1:13~17

교사를 위한 도움말

반원들에게 이 장을 보면서 자신에게 중요한 문장 또는 단락을 찾아보라고 권유한다. 그 문장과 단락을 다른 반원들과 나누고, 그것들이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다.

주

1. 켈렌 리스, “친구가 친구에게: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신 하워드 더블유 헌터 장로와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성도의 벗*, 1991년 5월호 60쪽.
2.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ed. Clyde J. Williams(1997), 39-40.
3. “높은 곳으로부터의 축복”, *성도의 벗*, 1989년 1월호, 64, 67쪽.
4. “높은 곳으로부터의 축복”, 64~66쪽.
5. “대회가 열릴 때면”, *성도의 벗*, 1982년 4월호, 18쪽.
6.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성도의 벗*, 1978년 2월호, 77~80쪽.
7. “영성을 키움”, *성도의 벗*, 1979년 10월호, 36~37쪽.
8.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36-37.
9. “영성을 키움”, 37~38쪽.



회복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

“이 후기에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으로서 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해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생애에서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친가 쪽 고조 할머니인 낸시 노웰은 1830년대 중반에 미시건 주 라피어로 이주했다. 그리고 1842년,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 선교사가 라피어를 찾았다. 낸시는 선교사의 메시지에 귀 기울였으며, 그에 대해 기도했고, 선교사가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간증을 얻었다. 그녀는 교회에 대해 더 알아보고자 나부로 갔고, 일지에 그 경험을 이렇게 기록했다.

“여기 와서 속지 않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물론 설교자[조셉 스미스]가 하는 말을 들었다. 설교 주제는 그리스도의 재림이었다. 나는 그 사람이 진리를 말한다는 간증, 조셉 스미스가 위대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부름받고 성임된 참된 선지자라는 간증을 얻었다. 왜냐하면 그가 가져온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진리였기 때문이었다. 나는 침례를 달라고 요청했다.”¹

고조 할머니인 낸시 노웰처럼 하워드 더블유 헌터 역시 조셉 스미스의 선지자적 사명에 대한 굳건한 간증이 있었다. 교회 회장이 되고 3주 후에 그는 나부로 가서 조셉과 하이럼 스미스의 순교 150주년을 기념했다. 헌터 회장은 나부 성전 부지에서 열린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선지자 조셉이 문을 연 이 사업에 대한 책임감으로 말미암아, 세계 주어진 시대와 시기에 모든 일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셉은 분명히 자신의 시대와 시기에 충실하고 진실했습니다! ... 이 후기에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으로서 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해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실재성에 대한 그의 간증에 제 간증을 더합니다.”²



“조셉 스미스는 위대한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감받은 종이였으며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날 늦은 시각에 카테지 감옥 밖에서 열린 모임에서 헌터 회장은 이렇게 간증했다. “이 자리에서 목숨을 바친 조셉 스미스는 주님의 충만한 복음과 그분의 신권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 쓰인 주님의 도구였습니다.”³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가르침

1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을 시작하기 위해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다.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차례 세상에 주어졌으나 그때마다 불순종이 일어나 잃어버려졌습니다. 1820년에 그 적막은 깨졌고, 주님께서 다시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활하신 분이며, 아버지와 별개로 존재하신다는, 자신의 분명한 지식을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조셉은 자신의 믿음, 혹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 또는 추측이 아니라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게 된 지식이었습니다.⁴

하나님은 … 자신을 [조셉 스미스에게] 실제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더욱이 아버지와 아들은 자신들이 각각 독립된 객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보여 주셨습니다. 진실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소년 선지자에게 전해진 거룩한 소개 말씀으로 재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조셉 스미스—역사 1:17]⁵

소년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주장했을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 시대에 아테네에 있던 학식있고 능력있는 이들이 그들을 가르치던 한 비범한 사람에게 등을 돌린 것처럼 조셉을 조롱하고 등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전의 그 경험을 살펴보면, 사람이 죽은 뒤에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그 위대한 학문의 도시에서 알았던 사람은 바울이 유일했습니다. 그는 아테네에서 엄격한 의식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유일하고 참되며 살아 계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분명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사도행전 17:19~20, 22~23 참조]⁶

구주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과 함께 지상에 오셨을 때, 구주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마태복음 13:55). 조셉이 자기가 시현을 봤고 아버지와

아들을 보았다고 밝혔을 때, 이웃 사람들과 성직자들, 마을 사람들의 마음과 입에서도 “이는 그 농부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스도는 박해를 받고 죽음에 이르셨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분이 참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 목수의 아들에게 그랬듯이, 이 농부의 아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⁷

조셉 스미스는 위대한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감받은 종이었으며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그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보았다는 것을 굳건히 주장했으며 자신이 받은 거룩한 계시를 성취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

저는 … 아버지와 아들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시대에 이 위대한 후기의 사업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이 교회 … 역사상 여러 면에서 가장 큰 기적인 이 소년 선지자가, 하나님의 손길과 세상의 구주의 지휘 하에 약하고 단순한 것이 나와 능력 있고 강한 것들을 쳐부순다는 살아 있는 증거가 됨을 간증드립니다.⁸

2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자신의 교회를 다시 세우셨다.

1830년 4월 6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한 소수의 남녀가 피터 휘트머 [일세]의 집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조직했습니다. … 그들 중에는 자신이 특별한 학식이나 뛰어난 지도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결한 사람들이자 존경할 만한 시민이었지만, 가까운 이웃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

이 겸손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젊은 조셉 스미스 이세의 아주 놀라운 주장 때문에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또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조셉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현을 포함하여 중요한 계시를 많이 받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한 계시의 결과로, 그리스도께서 고대 미대륙 주민에게 행하신 일을 다룬 기록인 몰몬경이 조셉 스미스를 통해 이미 출판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주님께서 이 스물네 살밖에 안 된 젊은이에게 신약 시대에 존재했던 교회, 즉 교회의 모퉁잇돌이며 영원한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불릴 교회를 원래대로 회복하라는 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 세대에 걸쳐서뿐만 아니라 …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칠 위대한 교회 역사의 첫 장면이 보잘것없지만 아주 의미심장하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잘것없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시 조직되었고 그 교회의 교리가 거룩한 계시로 다시 확인되었다는 주장은, 구주께서 친히 유대의 좁은 길과 갈릴리 언덕을 걸으셨던 시대 이래로 세상에 전해진 가장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⁹

[조셉 스미스가 받았던] 그 거룩한 계시의 일부는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를 재건하여 구주께서 성역을 베푸시던 때에 존재했던 것과 같이 이 현대에 회복시키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신약전서에 기록된 대로 교회의 반차를 따를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과 계시에 따라 조직[되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138쪽]고 말했습니다. …

1830년 4월 6일, 침례를 통해 교회의 회원이 된 사람들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실재성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성이 교회를 세우는 영원한 기초가 된다고 믿었습니다.¹⁰

[조셉 스미스]를 통해서, 그리고 연이은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앞으로 결코 없어지지 않을 신권과 복음이 충만하게 지상에 회복되었습니다.[교리와 성약 65:2 참조] 그리스도의 교회가, 즉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세워졌으며, 이 교회는 경전에도 나오듯 굴러 퍼져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울 운명을 받았습니다.[다니엘 2:35 참조]¹¹

3

조셉 스미스는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였다.

선지자 조셉이 세상에 태어남으로써,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수 십세기 전에 했던 다음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한 선견자를 주 나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리니, 그가 내 허리의 열매들에게 뛰어난 선견자가 되리라 … 그의 이름은 나를 따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의 부친의 이름을 따를 것이며”(니파이후서 3:6, 15).

이 예언은 조셉 스미스 이세가 애굽에 노예로 끌려갔던 옛적의 요셉(영어로서는 모두 Joseph[조셉]으로 같은 단어임-옮긴이), 그리고 부친인 조셉 스미스 일세와 같은 이름으로 불림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

미스로 알려진 그는 또한 “선견자 조셉”으로도 불립니다. 그는 자주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불립니다.

“선지자”와 “선견자”, “계시자”라는 용어는 자주 서로 바뀌어 쓰이기도 하며,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세 용어는 각기 다르며, 서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존 에이 윗소 [장로님]은 선지자를 교사, 즉 진리를 해설하는 사람으로 정의했습니다. 선지자는 주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해 주신 진리를 가르치며, 영감에 따라 그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선지자”는 주님께 계시와 지시를 받는 사람을 지칭하는 데 흔히 사용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미래의 사건과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은 선지자가 지닌 많은 역할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선지자는 주님의 대변자입니다.

선견자란 보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눈을 통해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보는 은사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조셉은 고대의 선견자 모세와 흡사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았는데, 그는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도다. 그러나 이는 나의 육에 속한 눈으로가 아니요, 나의 영적인 눈으로 보았음이니, 이는 나의 육에 속한 눈으로는 볼 수 없었음이라. 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나는 말라 죽을 수 밖에 없었을 것임이로다. 그러나 그의 영광이 내 위에 있었고 나는 그의 얼굴을 보았나니, 이는 내가 그의 앞에서 변형되었음이라.”(모세서 1:11)

영적으로 보는 것이 문자 그대로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 시현은 공상이나 상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실제로 보이지만,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닐 뿐입니다. 우리 각자는 육의 눈에 상응하는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먼저 창조되었고, 그 뒤에 우리 영을 감싸는 것으로 우리의 육신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첫째 지체에서 우리가 보고 걸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육의 눈이 있는 육신을 받지 못했을 때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의 시각을 통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인 시각이 있지만, 주님의 영으로 그것이 일깨워지지 않는 한, 그런 시각을 사용할 특권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생애는 “계시로 인도되었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지상에 보내진 사람들은 성신의 권능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보고 주시할 수 있습니다. 선견자는 지난 일과 앞으로 올 일을 보고 알며, 그들을 통해 모든 일이 밝혀집니다.(모사이야서 8:15~17 참조) 정리하자면, 선견자는 보고, 성신의 권능으로 영향을 받아 열린 영적인 눈을 갖고서 주님의 빛 가운데 걷는 사람입니다. 모세, 사무엘, 이사야, 에스겔,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선견자였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영광을 가까이에서 보고 다른 필멸의 인간에게는 없는 권능을 소유할 특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시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 또는 과거에 알려졌다가 기억에서 지워진 것들을 알려 줍니다. 계시는 항상 진리를 다루며, 그것은 늘 신성한 승인과

함께 옵니다. 계시는 여러 방법으로 오는데, 그것은 계시자가 신성한 계시의 영과 진리의 영에 맞게, 또는 조화를 이루는 생활을 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전제로 하며, 그래야만 신성한 계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선지자는 신성한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이며, 모든 의미에서 선견자가 됩니다. [조셉 스미스의] 영적인 시각은 성신을 통해 놀라운 수준까지 일깨워지고 승화되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러 숲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와 아들을 본 것도 그 은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그의 생애와 업적을 따라가 보면, 그가 자신의 힘으로 해 나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주님께 의지했으며, 그리하여 주님의 도움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의 생애는 계시로 인도되었습니다.¹²

4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조셉 스미스에 대한 찬송가,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찬송가, 18장)을 부를 때 우리는 조셉을 찬양할 만한 것들을 많이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뿐 아니라 하늘에서 온 다른 인격체들과 대화하는 그의 능력을 들어 조셉을 찬양합니다. 아주 많은 이들이 방문했고, 열쇠를 주었으며, 후기에 일으켜 세워진 “뛰어난 선견자”를 가르쳤습니다.(니파이후서 3:6~7) 1834년에 그의 부친인 스미스 일세는 젊은 조셉을 축복하면서, 고대 애굽에 있던 요셉이 이 마지막 날의 선견자를 보았다고 선언했습니다. 고대의 요셉은 선지자 조셉의 업적으로 자신의 수많은 후손이 축복받게 될 것을 깨닫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또한 수백 쪽에 달하는, 계시된 경전을 번역하고 받은 그 근면함과 능력을 들어 조셉을 찬양합니다. 그는 계시가 넘쳐 나오는 통로였습니다. 조셉은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경이로운 경전 기록을 많이 전해 준 인물로서 추정됩니다.

우리는 견디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잘 견디어내[는]”(교리와 성약 121:8) 그의 능력에 대해 조셉을 찬양합니다. 일찍이 소년 시절에 그는 다리에 고통스러운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이 없었다면 나중에 그는 오히려 주에서 미주리 주까지 가는 시온 진영의 강행군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행군하는 동안 조셉은 “대부분의 시간을 걸으면서 보냈[습니다.] 그의 발은 온통 물집으로 뒤덮였으며, 피가 나고 쓰라렸[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87쪽] 그와 비슷한 것으로, 우리는 어린 친자녀와

입양 자녀를 합해 여섯을 잃고서 비통한 상실감을 견뎌 낸 것에 대해 조셉과 어머니를 찬양합니다. 한 아이라도 그렇게 잃어 본 적이 있는 부모는 충분히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리버티 감옥에서 겪은 길고도 모진 박탈감을 포함하여 박해를 견디는 능력에 대해 조셉을 찬양합니다. 당시에 너무도 많은 사람에게 모든 일은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주님께서서는 “땅 끝이 네 이름을 물을 것이요”(교리와 성약 122:1)라는 말로 투옥된 조셉에게 재차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조셉 스미스와 회복된 복음에 대한 문이 날로 증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셉은 고대 사람들과 “동등한 시련을 겪[을]”[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30쪽]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오래 전에 성취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가 어떻게 “뭇 선지자 중에 면류관”(찬송가, 18장)을 썼는지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쓰라리고 반복되는 배신과 실망을 견디어 낸 조셉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조셉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여름 아침처럼 고요”하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이]”(교리와 성약 135:4) 카테지로 갔습니다. 그는 카테지로 갈 때 비통해하지 않았습다. 그는 카테지로 갈 때 불평하지 않았습다. 잘 견디어 내는 그의 능력이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조셉은 자신이 어떤 길에 들어섰는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어린 조셉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조셉 스미스—역사 1:17]고 말하셨던 이후로 그가 귀 기울여 들었던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이었습니다.¹³

5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생애와 사명은 우리가 영생으로 이어지는 길로 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저는 이 사람에 대해, 그의 가르침과 그가 받은 계시,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 남긴 것과 그를 통해 복음이 지상에 회복된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낍니다. 저는 집 근처 숲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늘에서 온 방문자들을 받아들인 이 소년의 단순하고도 감미로운 이야기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는 그 어떤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셉의 생애와 업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록 뒤에 숨겨진 신비스러운 것을 발견하려고 샅샅이 뒤졌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 거기에는 그저 단순한 신앙, 즉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대해 훈련을 받아야 했던 어린 소년의 신앙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젊은이는 학문적 성취나 교육 없이, 앞으로 겪어야 하는 일에 대해 주님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지성과 마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조셉을 교육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훈련하고 계발하며 조셉과 같이 단순한 신앙을 갖고, 단순한 지침을 기꺼이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르게 하셨을 법한 길을 따르고, 우리에게 배우게 하셨을 교훈을 배울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에 반대되는 모든 것에서 정화될 것입니다. 그것은 조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셉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 되었는데, 이는 그가 자신의 영혼과 정신을 이미 깨끗하게 했고 주님과 가까이 생활했으며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 그 내용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조셉은 자신의 영적인 눈을 통해 지나간 일과 앞에 놓인 일을 볼 수 있었으며, 우리에게는 그가 본 것이 참되다는 증거가 이미 있습니다. …

저는 제가 교회 회원인 것에 감사하며, 또한 이 교회의 신성함에 대한 제 간증은 한 단순한 이야기, 즉 나무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에서 온 방문자들을 맞았던 소년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 방문자들은 한 하나님이 아니라 별개의 두 인격체, 즉 아버지와 아들로, 지상에 다시 드러내어진 신화의 인격체들이었습니다. 제 신앙과 간증은 이 단순한 이야기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데, 이는 그것이 참되지 않다면, 물론이즘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참됨을 간증하며, 그리고 그것이 참되다면 그것은 온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선지자를 추모하고 그의 생애를 다시 살펴보면, 이 후기에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뛰어난 선견자인 조셉에 대해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로 우리 삶에 임하게 된 것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슴에 지니고, 승영과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할 그 길로 우리 발걸음을 향하게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¹⁴

학습 및 교수 제언

질문

-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에 대한 헌터 회장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해 본다.(1편 참조) 첫번째 시현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후기 성도들이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간증을 갖는 것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 교회의 조직에 대한 헌터 회장의 가르침을 복습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꼈는가?(2편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를 통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라는 칭호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왜 도움이 되는가?(3편 참조)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을 통해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 4편에서 헌터 회장은 우리가 조셉 스미스를 찬양하는 몇 가지 이유를 다룬다. 그러한 가르침은 선지자 조셉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어떻게 넓혀 주는가? 조셉 스미스의 모범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 조셉 스미스의 신앙, 영적인 교육, 순종에 대한 헌터 회장의 가르침을 복습한다.(5편 참조)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에 대해 어떻게 감사를 표할 수 있는가?

관련 성구

조셉 스미스 역, 창세기 50:25~33; 다니엘 2:44; 에베소서 2:19~22; 4:11~14; 교리와 성약 1:17~32; 5:9~10; 122:1~2; 135편; 조셉 스미스—역사

학습을 위한 도움말

“복음을 이해하는 데서 오는 기쁨을 느낄 때, 여러분은 배우는 것을 적용하고 싶어질 것이다.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과 일치하는 생활을 하도록 노력한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신앙, 지식 및 간증은 강화된다.”(나의 복음을 전파하라[2004], 19쪽)

주

1. Eleanor Knowles, *Howard W. Hunter*(1994), 7: 또한 6쪽 참조.
2. "The Temple of Nauvoo," *Ensign*, Sept. 1994, 63-64.
3. "Come to the God of All Truth," *Ensign*, Sept. 1994, 73.
4. Conference Report, Oct. 1963, 100-101.
5. "1830년 4월 6일", *성도의 벗*, 1991년 7월호, 63쪽.
6. "1830년 4월 6일", 62쪽.
7.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ed. Clyde J. Williams(1997), 228.
8. "1830년 4월 6일", 63~64쪽.
9. "1830년 4월 6일", 62쪽.
10. "1830년 4월 6일", 63쪽.
11. Conference Report, Oct. 1963, 101.
12. "Joseph Smith the Seer," *The Annual Joseph Smith Memorial Sermons*, 2 vols.(1966), 2:193-94.
13. "The Temple of Nauvoo," 63-64.
14. "Joseph Smith the Seer," 2:197-98.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

“우리는 구주의 속죄 희생과 부활 때문에 필멸의 죽음에서 일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생애에서

1934년 3월 20일에 하워드 헌터와 클레어 헌터의 첫째 아이가 태어났다. 두 사람은 아들의 이름을 하워드 윌리엄 헌터 이세라고 짓고 빌리라고 불렀다. 여름 동안 그들은 빌리가 무기력해 보이는 것을 느꼈다. 의사들은 빈혈증 진단을 내렸으며, 수혈을 위해 하워드가 두 번 헌혈을 했지만 빌리의 상태는 차도가 없었다. 그러나 추가 검사를 해 보니 창자에 큰 문제가 있어서 빌리에게 출혈이 일어났던 것이다. 의사들이 수술을 했고, 하워드가 아들 옆에 누워 피를 수혈해 주었지만 결과는 희망적이지 않았다. 삼일 후인 1934년 10월 11일에 어린 빌리는 부모가 옆에 앉아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하워드는 이렇게 적었다. “우리는 밤중에 병원을 떠나면서 슬픔에 사로잡혀 망연자실했다.”¹

빌리의 사망과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의 사망을 경험하면서 헌터 회장은 구주의 속죄와 부활에 대한 간증에서 지탱할 힘을 얻었다. 그는 이렇게 간증했다. “[속죄가] 실재하며 구원의 신성한 계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속죄로 인해 온다고 믿습니다. 속죄가 없다면 창조의 전체 계획이 헛될 것입니다. … 이런 속죄 희생이 없다면 현세적인 죽음이 끝이 될 것이고 부활도 없고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는 목적도 없을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희망도 없을 것입니다.”²

부활절 전후로 열리는 4월 연차 대회에서 헌터 회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종종 말씀했다. 1983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이 부활절에 저는 구주의 부활의 실재를 간증하는 저의 사명이 지닌 중요성을 강력하게 느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늘에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보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늘에 계



구주의 빈 무덤은 “온 세상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누가복음 24:6)라고 알려 줍니다.”

신 아버지께서는, 육으로 난 독생자이자, 영의 자녀 중 맏아들을 보내시어, 지상에서 우리의 본보기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게 하시고, 그 뒤에는 세상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어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메시지입니다. 사망이 있고 난 뒤에는 생이 있게 될 것입니다. 구주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계명에 순종하면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 살 수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절 아침에, 기독교계의 모든 생각이 잠시 동안이나마 예수의 부활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이 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위대한 구원의 계획에 감사를 표해야 하겠습니까.”³

하워드 터블유 헌터의 가르침



속죄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신 지고한 사랑의 행동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타락한 상태가 된 후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 예입하신 임무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에게 속죄 희생을 치르게 하신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또 그것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속죄를 실행하도록 하기 위한 지고한 사랑의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겐세마네 동산에 여러 차례 가 보았습니다. 구주의 고난과 고뇌,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그에게 온 인류의 고통과 죄를 직접 짊어지도록 하셨을 때 경험하신 고뇌를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류를 위한 그분의 커다란 희생에 대해 생각하면서 제 영혼은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해골의 장소, 즉 골고다 언덕 아래에 서서, 필멸의 세상에서 구주를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그분과 온 인류의 불멸을 가져다주었던 십자가에서 당하신 굴욕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다시 제 영혼이 압도되었습니다.

동산 무덤 앞에 서서 구주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불멸의 몸으로 나타나셨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곰곰이 생각할 때 제 가슴은 기쁨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께서 영화로운 속죄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으로 제 영혼이 가득 참을 느꼈습니다. 찰스 가브리엘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에 놀라며 주 내리신 큰 은혜에 나 당황하네 이 죄인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큰 사실을 알 때 맘 심히 떨리네 오 나를 사랑하여 죽으신 그 일 놀라운 일일세 주님의 업적은 훌륭하셔라’. …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계획이 운영되는 조건을 성취하시려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음을 간증드립니다. 속죄는 우리를 위한 그분의 커다란 사랑을 나타냅니다.⁴



구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 슬픔, 고통을 직접 짊어지셨다.

유월절을 지키고자 모였을 때 예수와 그의 사도들은 그분이 마지막 만찬을 함께 들면서 시작하신 성찬의 상징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끝까지 선생님이셨던 그분은 희생양을 주제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될 것이며, 그들은 목자 잃은 양같이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26:31 참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마태복음 26:32).

그 이후 여러 시간 동안 그분은 핏방울을 흘렸으며, 그분의 율법의 관리자로 자처하는 바로 그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받고 도적의 무리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물몬경에서 베냐민 왕은 이같이 예언했습니다. “그는 죽음에 이르는 것을 제외하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과 육신의 고통, 주림, 갈증과 피로를 겪으리니, 이는 보라, 피가 모든 땀구멍에서 나오이라, 그의 백성의 사악함과 가증함으로 인한 그의 고뇌가 그처럼 크리라. …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시나니, 이는 … 구원이 사람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모든 일 이후에도 그들은 그를 사람이라 생각

하여, 그가 귀신 들렸다 말할 것이요, 그를 채찍질 할 것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모사이야서 3:7, 9)

우리는 주님께서 어느 정도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 준 선지자 엘마에게 감사드립니다. “그가 나아가사,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리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그가 사망을 짊어지시리니, 이는 그의 백성을 결박하는 사망의 줄을 푸시려 함이요, 또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리니, 육체를 따라,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좇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심이니라.”(엘마서 7:11~12)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육신을 십자가에서 떼어 빌린 무덤에 급히 누웠을 때, 죄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회개하는 모든 인간의 죄와 유혹만이 아니라 온갖 병고와 슬픔과 고통까지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따르는 고난을 겪는 것처럼 그분은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상의 모든 고난에서 떼어내는 그의 자비와 능력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이러한 것을 겪으셨습니다.⁵

우리는 그릇된 선택, 잘못된 선택, 해를 끼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자비가 큰 힘과 영광을 갖게 됩니다. … 그는 우리가 하는 잘못된 선택을 중재하기 위해 속죄를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앞에서의 우리의 대변자로서, 우리가 자유를 행사하는 데 있어 자주 보게 되는 잘못과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를 이미 치르셨습니다. 이러한 구속으로 인한 온전한 혜택을 받으려면 우리는 그분의 은사를 받아들이고, 그러한 잘못을 회개하고 그분의 계명을 따라야 합니다. 그 제안은 항상 유효하며 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고 가장 비참한 실수를 했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고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⁶

3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성지에서의 마지막 장면이 벌어지던 시대로 되돌아가 봅시다. 우리 주님의 지상 생활의 끝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분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

를 살리셨으며 그분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언을 포함해 경전을 해석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삼일에 살아나리라”(마태복음 20:18~19) …

삼 일째 되는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생명이 끊긴 그분의 육신이 누워 있던 무덤으로 왔습니다.[마태복음 28:1; 또한 마가복음 16:1; 누가복음 24:10 참조] 그보다 앞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마태복음 27:64)라고 전하지 않도록 빌라도에게 가서 무덤의 입구에 보초를 둘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힘센 두 천사가 무덤 입구에서 돌을 굴렸고 보초들은 그것을 보자 겁에 질려 달아났습니다.

무덤에 온 여인들은 무덤이 열리고 텅 빈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은 남아 있다가 인간이 귀로 들어 본 가장 큰 소식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마태복음 28:6).⁷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에 대한 교리는 기독교 경전에 있는 어떤 교리보다도 모든 인간에게 더욱 중요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모든 인간, 즉 이제까지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한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간에게도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교리에서 부활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인 중요성과 영원한 위대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식했다면 니파이의 동생 야곱과 같이 그 훌륭함에 경탄했을 것이며, 이 신성한 은사를 받지 못했다면 당했을 상황에 놀라 떨어졌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썼습니다.

“오 하나님의 지혜 그의 자비와 은혜여! 이는 보라, 만일 육체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진대, 우리의 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타락하여 악마가 된 저 천사에게 복종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것임이라.”(니파이후서 9:8)

분명히 부활은 모든 기독교인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구주께서 행하신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참으로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바울의 말씀을 빌려 봅시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고린도전서 15:13~15, 17).⁸

부활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혜로운 말씀이나, 외견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의 연속, 즉 궁극적인 승리가 없는 말씀과 기적의 연속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궁극적인 기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죽은 사람이 불멸로 다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불멸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그분의 육체적, 영적인 죽음을 극복한 승리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입으로 말해야 할 좋은 소식입니다.

영원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고린도전서 15:23 참조) 이 위대한 사건에 대한 증인들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선택된 증인들 중에는 주님의 사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거룩한 사도의 직분에 부름받은 것은 세상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종교의 기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간증, 즉 그분은 돌아가셨고, 매장되었으며, 삼 일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간증입니다. 우리 종교에 관한 다른 모든 것은 단지 그것에 부속되어 있을 뿐입니다.”(*History of the Church*, 3:30) …

그리스도는 사도들을 가르치실 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마가복음 8:31) 알렸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셋째 날에 그분은 온 인류의 구주이며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속죄의 희생을 통해 모든 사람은 무덤에서 구원을 받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사도들의 간증이 되어 왔습니다. 이 간증에 저의 증언을 … 더해 드립니다.⁹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직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요한복음 20:1~18 참조)

4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다윗 군데의 특별한 상처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과 함께 걷고 말하고 식사도 하셨습니다. 마치 부활한 육신은 사실상 만질 수 있는 살

과 뼈의 육신이라고 확실히 증거해 주시는 듯했습니다. 후에 그분은 니파 이인들에게 나타나셨고 경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내게로 나아와서 너희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고, 또 내 손과 내 발의 못 자국을 만져 보아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온 땅의 하나님이며,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였음을 알지어다.

이에 … 무리가 나아갔느니라. 그리고 그들의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았느니라. 또 그의 손과 그의 발의 못 자국을 만져 보았으니, 그들이 이를 행하되 하나씩 나아가 이윽고 그들이 모두 나아가기까지 그리하였느니라. 또한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손으로 만져 보았으며, 그가 선지자들이 오시리라고 기록한 그이심을 분명히 알고 증거하였느니라.”(제3니파이 11:14~15)

온 세상 사람들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증거]한 이 예수를 구하여”(이더서 12:41) 그분의 거룩하심에 대해 영적인 증거를 갖는 것은 모두의 책임이요 기쁨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겸손히 구하며 아버지와 부활하신 아들에 대한 증거를 갖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요 축복입니다.¹⁰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분]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았던 사람들의 간증은 결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적어도 열 번 또는 열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동산에서 막다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에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도마가 없을 때 사도들에게 또 그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그들에게, 갈릴리 바다에서 사도들에게, 산에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한 번, 주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승천하실 때에도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¹¹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도록 부름받고 성임된 저는 그분이 살아 계심을 이 부활 절기에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영화로운 불멸의 살과 뼈의 육신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구주이시며, 세상의 빛과 생명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분은 부활하신 몸으로 마리아와 베드로와 바울과 그 밖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니파이인들에게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소년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우리 경륜의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¹²

우리는 죽음에서 일어나서 영생을 갖게 될 것이다.

부활절은 모든 인류에게 무상으로 주어진 불멸의 은사와 생명의 회복과 모든 고통의 치유를 경축하는 행사입니다. 모든 인간이 성장과 발전을 위한 영원한 계획의 일부로 죽더라도 우리 모두는 시편 작가의 이런 말씀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시편 30:5).

모든 세대의 의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질문을 제기한 사람은 바로 욥이었습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욥기 14:14). 그리스도의 대답은 바로 이 시간까지도 울려 내려옵니다.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요한복음 14:19).¹³

죽을 때 영과 육이 분리됩니다. 부활은 영과 육을 다시 결합하는 것이며, 육체는 살과 뼈로 되어 있지만 피 대신에 영으로 소생된 몸인 영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 후에 영에 의해 소생된 우리 육신은 불멸이 되어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리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고린도전서 15:44, 50 참조) 육의 몸은 살과 피이지만, 피 대신에 영에 의해 소생되면 그것은 왕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그럴 것입니다. ...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주 오래 전에 그 부활절기에 서한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간증했듯이, 저는 우리가 구주의 속죄 희생과 부활 덕분에 필멸의 죽음에서 일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될 것이라는 간증을 더해 드립니다. 저는 다음 말씀을 듣게 될 모든 사람들을 향해 팔을 활짝 펼치신 주님을 마음 속으로 그려 봅니다.

“...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한복음 11:25~26).¹⁴

그리스도의 부활은 불멸의 축복과 영생의 가능성을 가져다줍니다. 그의 빈 무덤은 온 세상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누가복음 24:6)라고 알려 줍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시련받을 때 필요한, 그리

고 때로는 슬픔으로 가득한 생활에서 우리를 지탱시켜 주는 데 필요한 모든 희망과 확신과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¹⁵

학습 및 교수 제안

질문

- 속죄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는가?(1편 참조) 이런 사랑의 은사에 대해 어떻게 감사를 나타낼 수 있는가?(교리와 성약 42:29 참조)
- 2편을 복습하면서, 속죄가 우리를 축복하는 많은 방법을 찾아본다. 헌터 회장의 가르침과 경전의 사용은 속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강화시켜 주는가? 어떤 경험이 속죄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강화시켜 주었는가? 시련을 겪을 때 속죄의 권능이 여러분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는가?
- 부활에 대한 헌터 회장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3편 참조) 부활의 중요성을 어떻게 더 잘 이해할 수 있는가?
- 헌터 회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많은 증인들을 자세히 설명한 4편을 복습한다. 이런 증인들의 간증이 왜 중요한가?
- 부활은 “우리가 시련받을 때 필요한, 그리고 때로는 슬픔으로 가득한 생활에서 우리를 지탱시켜 주는 데 필요한 모든 희망과 확신과 믿음”을 제공한다는 헌터 회장의 가르침을 생각해 본다. 부활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희망과 위안의 근원이 되는가? 부활에 대한 간증이 어떻게 여러분 생활을 풍성하게 했는가?

관련 성구

요한복음 10:17~18; 니파이후서 2:6~9, 22~27; 9:19~25; 제3니파이 27:13~16; 교리와 성약 18:10~16; 19:15~20; 모세서 6:59~60

학습을 위한 도움말

“구주를 믿는 여러분의 신앙을 강화하[는] ... 학습 활동을 계획한다”(나의 복음을 전파하라[2004], 22쪽) 예를 들어 공부할 때 이렇게 자문해 볼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이해를 키우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가르침이 더욱 구주와 같이 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주

1. Eleanor Knowles, *Howard W. Hunter*(1994), 88; 또한 86-87 참조.
2. Conference Report, Oct. 1968, 139.
3. “부활의 증거”, *성도의 벗*, 1983년 7월호, 26~27쪽.
4. “The Atonement of Jesus Christ”(선교부 회장 세미나에서 하신 말씀, 1988년 6월 24일), 2-3, 7,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또한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ed. ClydeJ. Williams(1997), 8-9 참조.
5.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성도의 벗*, 1988년 7월호, 18~19쪽.
6. “선택의 금실”, *성도의 벗*, 1990년 1월호, 22~23쪽.
7.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18, 20쪽.
8.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18쪽.
9. “부활에 대한 사도의 증거”, *성도의 벗*, 1986년 7월호, 16~17쪽.
10.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20쪽.
11. Conference Report, Apr. 1963, 106.
12.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20쪽.
13. “부활에 대한 사도의 증거”, 16쪽.
14. Conference Report, Apr. 1969, 138-39.
15. “부활에 대한 사도의 증거”, 16쪽.



살아 계신 선지자를 통해 계속되는 계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사람, 즉 하나님의
살아 계신 선지자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생애에서

1994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교회 회장으로 지지받은 뒤에 하워드 더블유 헌터는 자신의 성스러운 책임에 대한 느낌을 이렇게 전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님의 서거를 슬퍼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나왔습니다. 저의 마음은 사랑하는 친구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작고에 대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주어진 새로운 책임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이 높고 성스러운 부름을 감당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늘에 계시 아버지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진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 경륜의 시대에 열세 분이 맡아 오셨던 이 부름을 맡기에 합당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장막 저편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그분들만은 제가 이 거룩한 부름을 받아들이면서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께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온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헌터 회장은 교회를 사람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감리하도록 부른 사람을 준비시키고 영감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끄신다는 확신에서 힘을 얻고 재확신하게 되었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이 사업이 인간의 사업이 아닌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저의 확고한 간증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제게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은 말씀과 행위로 이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저는 그분의 교회를 잠시 동안 관리하도록 친히 쓰시는 도구로 부름받은 것을 말할 수 없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서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은 후기 성도들에게 교회 회장을 따를 것을 권고했다.

가 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도 닥쳐 올 부름의 짐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책임을 짊어지면서, 저는 제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의 손길을 보내 주셨음을 인정합니다. 그분은 여러 번 저의 생명을 살려 주셨고 저의 기력을 회복하여 주셨으며, 죽음의 문턱에서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일정 기간 동안 이 세상에서 성역을 베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때때로 그분이 왜 저의 생명을 살려 주셨는지 의아해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 의문을 제쳐놓고 여러분과 저, 이렇게 우리 모두가 이 생애 동안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교회 회원 여러분들께서 신앙을 갖고 기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제가 십이사도의 일원으로 지지된 지 35년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준비되어 왔습니다. ... 이제 저의 걸음은 느리지만, 마음은 맑고 영은 젊습니다. ...

전임 회장님들이 그랬듯이, 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잘 인도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이 부름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가며 ‘여호와와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시편 28:7)라는 말씀을 바칩니다.”¹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가르침

1

각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그분의 대변자로 세우셨다.

구약전서를 읽어 보면 선지자로 불렸던 과거 시대의 위인들이 남긴 기록들이 보입니다. 신약전서에는 다른 것들 중에서도 훗날 경륜의 시대에서 선지자로 지명되었던 사람들의 기록과 가르침,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서쪽 지역에서 음성을 높이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불의에 맞서고, 복음 원리를 가르쳤던 선지자들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 모두는 자기 증거를 남기셨습니다.

선지자는 주님께서 자신의 자녀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해 부르고 일으켜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는 신권을 받고 권세로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교사이며 복음의 수호자입니다. 선지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증거합니다. 선지자는 장래에 일어날 일을 예

고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그들이 맡은 가장 중요한 책임은 아닙니다. 물론 이런 일이 선지자의 권세에 대한 어떤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각 경륜의 시대에는 의로운 지도력이 필요했으며, 하나님은 선지자들이 이 필멸의 세상에 태어나기 오래 전에 이런 목적을 위해 그들을 택하셨습니다.[예레미야 1:5; 아브라함서 3:23 참조]²

거룩한 기록에 있는 주님의 계시를 연구해 보면 어느 시대에도 끊임없는 계시가 선지자들과 교회를 인도해 주었다는 확증을 얻게 됩니다. 지속적인 계시가 없었다면, 노아는 지구를 휩쓴 홍수에 대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란으로부터 약속된 땅 헤브론으로 인도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계시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속박에서 해방시켜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선지자들은 받은 계시를 통해 선교 사업을 인도하고, 솔로몬 성전을 다시 건립하게 하며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이방인의 관습이 침투하는 것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남아 있는 열한 명의 사도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태복음 28:20)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배도할 때까지 계시로써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³

바로 오늘을 포함해 역사를 내리 살펴보면 교회에는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머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며, 그분이 선지자를 이끄십니다. … 그의 보좌들과 십이사도 평의회 회원들도 … 또한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입니다. … 교회 회원들은 불확실한 나팔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면 그들 지도자들의 음성을 믿을 수 있습니다.⁴



오늘날 하나님은 살아 계신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자녀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마지막 날에 생길 특별한 표적이 계시록을 쓴 사도에게 시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요한계시록 14:6) …

우리는 이미 하늘의 사자가 우리 시대에 나타나서 그릇된 가르침과 관습에 의하여 없어진 하늘의 권세를 가져다주고 진리를 회복하였다는 것은 온 세상에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고 오늘날 살아 계신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그분의 모든 자녀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항상 그분의 종들과 함께하시며 전 세계에서 그분의 교회의 모든 일을 관리하신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계시가 선교 사업과 성전 건립과 신권 역원의 부름을 관리하며,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이 승영에 이르지 못하게 할 사회악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를 통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날이 속히 오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평화가 땅에서 거두어지고 악마가 자신의 영토를 다스릴 힘을 가지게 될 그 시각은 아직 아니나 가까웠도다.

그리고 또한 주도 자기 성도를 다스릴 권능을 가지게 될 것이요, 그들 가운데서 다스릴 것이며”(교리와 성약 1:35~36).

구주께서는 오늘날 지속적인 계시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치하십니다. 저는 주님이 오늘날 그분의 종들과 함께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시리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우리의 이해력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계시는 고대에만 주어졌다고 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사 어느 시대에나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시며 역사적으로 이 시기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⁵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과 뜻을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늘이라는 상류에서부터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에게까지 끊임없이 흘러드는 계시라는 냇물이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죽은 이후에도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계속되어 왔습니다.⁶

3

영적인 기근의 이 시대에 우리는 선지자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영적 풍요를 찾을 수 있다.

기근은 구약 시대에 흔한 재앙 중 하나였으며 사람들은 농작물 재배의 실패와 기근의 파괴적인 결과를 잘 알았습니다. 아모스는 영적인 기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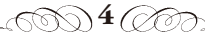
대해 예견함으로써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양식이 없어 주립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와 말씀 듣지 못한 기갈이라”[아모스 8:11] ...

이 시대에 개인이나 종교 단체들이 자신의 종교적 의문과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겪는 혼란과 좌절에 대한 보고는 아모스의 이런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사람이 ... 여호와와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아모스 8:12].

그들은 주님께서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신대로 계시의 반석 위에 쌓지 않고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 애씁니다.[마태복음 16:17~18 참조] ...

... 세상이 겪고 있는 혼란과 좌절은 교회의 충실한 회원들에게는 그리 혼란하지 않습니다. ... 신앙이 있고 믿겠다는 의지를 지닌 사람들에게는 믿을 만한 음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아모스가 설명한 기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기근으로 보이는 것들 속에서도 영적인 풍요를 찾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 이 후기에 복음이 충만하게 회복되었으며, 오늘날 지상에는 듣고자 하는 사람들과 신앙을 지닌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뜻을 말해 주는 선지자가 계시다는 것이 저의 겸손한 간증입니다.⁷



살아 계신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는 잘못되지 않을 것이다.

과거 경륜의 시대와 시기에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지자는 당시에 살아서 그들 시대에 주님의 뜻을 가르치고 계시해 주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과거의 각각의 경륜의 시대에 주님께서 그 특정한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분의 대변자로서, 또 그 시대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위해 선지자들을 일으켜 세워 오셨습니다.

우리의 지도자와 우리의 교사는 현재 살아 계신 선지자입니다. 현재 세상에서 우리가 취할 방향은 그분에게서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구석에서 그를 주님의 선지자로 지지하는 우리는 신성한 인도의 이런 근원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

태초부터 오늘날까지의 선지자들을 우리 기억 속에서 다 헤아려 보면, 우리는 살아 계신 선지자의 영향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커다란 축복

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꺼이 주님의 선지자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는 점을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⁸

오직 교회 회장만이 온 교회를 위한 계시를 받거나 또는 경전이나 교회의 교리에 대해 공식적인 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 회장] 이외에는 아무도 이 교회에서 계명들과 계시들을 받도록 임명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모세처럼 그러한 것들을 받음이니라.”(교리와 성약 28:2)⁹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를 교육할 때 주는 조언과 권고, 가르침을 따른다면, 우리 자신의 구원과 승영에 필요한 중요한 것들에서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¹⁰

교회를 다스리는 놀라운 체계를 세우게 한 계시들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성임되고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으로 성별된 사람은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됩니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신권의 열쇠를 갖도록 부름받고 성임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의식을 집행하며, 교리를 가르치고 이와 같은 관행을 세우고 유지하는 권능과 책임을 갖게 됩니다.

교회 회장이 병이 나거나 그의 직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와 함께 제일회장단 정원회를 구성하는 두 보좌가 제일회장단의 일을 수행합니다. 어떠한 중요한 문제나 정책이나 프로그램이나 교리는 제일회장단 보좌와 십이사도 정원회가 함께 평의회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려합니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관여한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결정도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같은 영감받은 모형에 따라, 교회는 어떠한 방해도 없이 전진해 나갑니다. 교회를 통치하고 예언적인 은사를 행사하는 것은 언제나 신권의 모든 열쇠를 갖고 수행하는 사도들의 권세에 속하게 됩니다.¹¹

5

연차 대회에서 우리는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에게서 영감에 찬 권고를 받는다.

저는 대회 말씀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제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축



“대회 기간은 ... 지식과 간증이 커지고 굳어지는 영적 부흥의 시기입니다.”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가? 그 답은 우리가 선지자요 선견자요 계시자로 지지하는 분들과 총관리 역원들에게서 받은 가르침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영감으로 전한 그분들의 말씀을 연구하고, 자주 그 말씀들을 참고합니다. 주님은 이 대회에서 성도들에게 그분의 뜻을 계시해 주셨습니다.¹²

많은 영감받은 권고가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교회의 총관리 역원들을 통해 연차 대회에서 주어집니다. 우리의 현대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교회 잡지 연차 대회 특집호를 읽는 것을 우리의 개인적인 연구에서 중요하고도 정기적인 부분으로 삼으라고 권고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연차 대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교리와 성약의 보충판 내지 확장판이 됩니다.¹³

대회 기간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충실한 자는 축복받게 된다는 지식과 간증이 커지고 굳어지는 영적 부흥의 시기입니다. 또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는 결의를 지닌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아들이라는 지식이 깊이 자리 잡는 시기입니다.

다. 또한 지도자들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영감적인 지식을 주는 시기이며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시기이며, 더 훌륭한 남편과 아내가 되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며, 더 순종하는 아들과 딸이 되며, 더 나은 친구와 이웃이 되겠다는 결심을 새로이 하는 때입니다. ...

오늘 이곳 [연차 대회]에서 만난 우리는 구주의 복음에 대한 특별하고도 귀중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를 처음으로 알게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계시를 받는 하나님의 살아 계신 선지자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세상에 선포하는 것에 큰 놀라움을 표시합니다.¹⁴

학습 및 교수 제언

질문

- 1편에 있는 헌터 회장의 가르침을 복습한다. 하나님께서는 왜 각 경륜의 시대에 선지자를 주셨는가? 선지자의 역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는 자녀들이 선지자에 대한 간증을 얻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 살아 계신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는가?(2편 참조) 하나님에게서 나와 그분의 살아 계신 선지자에게까지 흐르는 “끊임없이 흐르는 계시의 넷물”이 있다는 것은 왜 중요한가?
- 우리가 “영적인 기근”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3편 참조) 살아 계신 선지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 헌터 회장은 “오직 교회 회장만이 온 교회를 위한 계시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4편)라고 가르친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왜 도움이 되는가? 우리가 선지자를 따를 때 “우리는 잘못되지 않을 것”이라고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 여러분 생활에서 연차 대회의 중요성을 생각해 본다.(5편 참조) 연차 대회의 어떤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었는가? 어떻게 연차 대회가 여러분 생활과 가정에서 더 강력한 영향을 발휘하게 할 수 있는가?

관련 성구

아모스 3:7; 마태복음 10:41; 누가복음 1:68~70; 조셉 스미스 역, 베드로후서 1:20~21; 모사이야서 8:15~18; 교리와 성약 1:14~16, 37~38; 21:1, 4~6; 43:2~6; 107:91~92

교사를 위한 도움말

다른 종교를 지닌 사람들이 본 장의 주제에 대해 지닐 수도 있는 질문 몇 가지를 반 전체가 칠판에 적는다. 반원들에게 본 장을 복습하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또 찾은 것을 나눠 달라고 권유한다.

주

1.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7~8쪽.
2. Conference Report, Oct. 1963, 99.
3. “누구든지 더하거나 제하여 버릴 수 없음”, *성도의 벗*, 1981년 10월호, 97쪽.
4. “Spiritual Famine,” *Ensign*, Jan. 1973, 65.
5. “누구든지 더하거나 제하여 버릴 수 없음”, 97~98쪽.
6.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ed. Clyde J. Williams(1997), 196.
7. “Spiritual Famine,” 64-65.
8. Conference Report, Oct. 1963, 101.
9.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225.
10.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223.
11.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7쪽. 헌터 회장은 교회 회장으로 있을 때 이 중요한 원리들을 말씀했다.
12.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십시오”, *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87쪽.
13.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212.
14. “대회가 열릴 때면”, *성도의 벗*, 1982년 4월호, 17~18쪽.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함

“우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권유하며,
... 영혼을 구하는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생애에서

1979년에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하워드 더블유 헌터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가까운 장래에 우리가 이 경륜의 시대, 또는 과거 경륜의 시대에서 이제껏 일어났던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서 가장 큰 진전을 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뒤를 돌아다 보면서 누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사도행전 6:7)라고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¹

헌터 장로가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는 정치적 제약 때문에 동유럽 대부분의 나라와 소련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 후 10년 이내에 그러한 제약들이 많이 해제되기 시작했다. 1989년과 1990년에는 거의 30년 동안 동서독을 갈라놓고 있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렸다. 헌터 회장은 그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었는데,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던 그런 역사적 사건과 다른 변화들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표현했다.

“최근에 많은 시선들이 베를린 장벽에 집중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그 장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기뻐했는데, 그것은 새로 찾은 자유를 나타냅니다. ... 지구촌을 휩쓰는 화해의 정신을 이해하고, 또 거기에 복음의 맥락에서 의미를 부여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 봐야 합니다. 바로 이런 모든 것이 신성한 계획과 신성한 일정표에 따라 정치적 장벽을 제거하고,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기회를 만들어 주시려는 주님의 손길이 아닌가?”²

헌터 회장은 이런 변화들은 교회 회원들에게 중요한 책임을 준다고 느꼈다. 더 많은 국가들이 선교 사업에 대한 문을 열 때, 복음을 온 세상에 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한 신앙입니다.”

하는 책임을 성취하려면 더 많은 선교사들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씀했다.³

국적이나 신념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다가서려는 헌터 회장의 열망은 중동에서 일할 때에 분명히 나타났다. 제일회장단은 예루살렘에서 처리해야 할 중요한 임무를 그에게 맡겼는데, 거기에는 올슨 하이드 기념 동산과 브리검 영 대학교 근동 연구 예루살렘 센터의 건축을 감독하는 일도 있었다. 비록 그 지역에서 전도가 허락되어 있지 않았지만, 헌터 회장은 함께 일했던 사람들, 즉 유대인과 아랍인들 사이에서 굳건한 우정 관계를 쌓았다. 그는 이렇게 말씀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목적은 최고의 사랑과 단합과 형제애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⁴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일할 때 헌터 회장의 메시지는 늘 같았다. “우리는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나 국적도 이등 시민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메시지를 상세히 알아보고 우리의 우정을 받아들이기를 권유합니다.”⁵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가르침



회복된 복음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의식은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한 신앙입니다. 복음은 제한적이거나 편향적이지도 않으며 역사나 유행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진수는 보편적이며 영원히 참됩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이며, 지상의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들의 근본적인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회복되었습니다. 즉 태초부터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형제애를 돈독히 하고 진리를 보존하며 영혼을 구하기 위해 회복되었습니다. ...

복음 메시지에서 보면 온 인류는 한 분의 하나님에게서 이어 내려온 한 가족입니다. 모든 사람은 혈연적으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온 인류와 그들 상호간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메시지는 인종과 언어와 경제, 정치, 교육 또는 문화적인 배경 등의 차이를 근거로 한 모든 편향적인 전통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삶과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성한 혈통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로서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들입니다.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제한적이고 편향적인 선입관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주된 성품 중 하나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열망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타내 보여야 하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가족만 축복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폭을 전 세계로 넓혀 온 인류를 축복할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 330쪽] …

회복된 복음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에 바탕을 둔 만인을 위한 성스러운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가 1978년 2월 15일에 제일회장단이 발표한 성명에 다음과 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고대와 현대의 계시에 근거하여 모든 사람은 육신의 조상을 통해 연결된 관계로서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아버지의 영의 자녀로서 서로 형제요 자매라는 기독교 교리를 기쁘게 가르치고 전파합니다.”[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제일회장단의 성명, 1978년 2월 15일]

후기 성도는 우리와 신앙이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문자 그대로 우리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인 우리의 형제와 자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끝에 가서는 모두 하나님에게 연결됩니다.⁶

2

교회는 모든 나라에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는 모든 나라에 대해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태복음 28:19~20). 주님의 입에서 나온 이 말씀에는 아무런 국경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어느 민족이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느 한 나라를 다른 나라보다 편애하지 않습니다. 훈계는 분명합니다. “모든 나라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

주님의 교회에 속한 회원으로서 우리는 개인적인 편견을 넘어 우리 시선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지고의 진리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국적의 사람들을 다른 국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대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형제 자매들에게 심한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

성품과 습성과 영적 특징이 다른 아들을 여럿 둔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한 아들을 다른 아들보다 덜 사랑하겠습니까? 아마도 영적으로 제일 뒤떨어진 아들은 다른 아들보다도 아버지의 관심과 기도, 기원을 더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아버지가 다른 아들을 덜 사랑한다는 뜻입니까? 그의 소생 중에서 한 나라 사람을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독점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니파이의 다음과 같은 도전적인 질문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민족이 하나 이상 있음을 알지 못하느냐?”(니파이후서 29:7) …

다양한 국적을 지닌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말씀하셨으며, 하늘의 사자가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과 뜻을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밝혀 주셨다는 것을 엄숙히 증거하고 간증드립니다. …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모든 민족과 문화, 모든 국적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주의 신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 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⁷

형제애를 키우고 계시된 진리를 가르치고자 하는 겸손한 노력으로, 우리는 온 세상의 백성들에게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님이 아름답게 표현하신 다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지닌 진리와 덕을 빼앗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서 결점을 찾거나 당신을 비판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 당신에게 있는 모든 훌륭한 것들을 간직하는 가운데 당신이 더욱 행복해지고 하나님

아버지 면전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훌륭한 것을 더 많이 가져다드리게 해 주십시오.”⁸

우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권유하며, 영생으로 통하는 좁은 길을 따라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침례의 물로 데려가는, 영혼을 구하는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복음은 세상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합니다.⁹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는 모든 진리를 함께 가져오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지상의 모든 사람들 속에서 사랑과 이해의 영역을 넓히려 노력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독교 세계 내에서뿐만 아니라 온 인류 속에서 평화와 행복을 이룩하려고 노력합니다. …

조셉 [스미스]가 도구가 되어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이제 세계적인 종교인데, 이는 단순히 교회 회원을 이제 세계 어디서나 찾을 수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교회가 모든 진리를 수용하고 온 인류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회복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 우리는 이런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보냅니다.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진리의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자신의 종을 계속해서 보내 영원한 복음을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들에게 전파하시는 그분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여러분 앞에 차려 놓은 만찬에 와서 즐기십시오. 그것을 주신 선한 목자를 따르는 우리와 합류하십시오.¹⁰

3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 간증할 의무가 있다.

속죄가 선교 사업과 어떤 관계가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속죄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복리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물론경에 나오는 예들은 이런 원리를 잘 설명해 줍니다. 리하이가 속죄를 취하는 것을 상징하는 나무 열매를 취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가족들도 역시 그 열매를 먹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나니”(니파이전서 8:12) 이노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개심을 경험하고



“우리는 ... 영혼을 구하는 사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용서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형제 니파이인들의 복리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느끼기 시작하였느니라.”(이노스서 1:9) 그런 다음 그는 니파이인들에게는 양속이었던 레이맨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외에도 모사이야의 네 아들, 즉 암몬과 아론, 움너와 힘나이가 속죄를 통해 죄를 용서받은 후 여러 해 동안 레이맨인들 사이에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데려오기 위해 수고했던 예가 있습니다. 기록은 그들이 어느 사람의 영혼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고 전합니다.(모사이야서 28:3 참조)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겠다는 소망을 지닌 성약을 맺은 사람들의 승고한 예는 엘마 이세의 모범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간증을 여러분께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

“... 또한 그때로부터 참으로 지금까지, 내가 쉬지 않고 수고해 온 것은, 사람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며, 내가 맛본 심히 큰 기쁨을 그들도 맛보게 하며, 그들도 역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성신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고자 함이라.”[엘마서 36:24; 또한 엘마서 36:12~23 참조]

한 사람의 개인적인 개심을 잘 나타내는 지표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소망의 크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께서서는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 선교사가 되라는 의무를 주셨습니다.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올 때 맺는 성약을 생각해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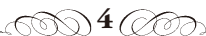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무리 안으로 들어와, 그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기 원하며 기꺼이 서로의 짐을 져 가볍게 하고자 하며,

참으로 또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슬퍼하고, 또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참으로 죽을 때까지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너희가 있게 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너희가 하나님께 구속을 받고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아 영생을 얻고자 한즉”(모사이야서 18:8~9)

우리는 죽는 날까지 언제 또 어디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겠다고 성약하는 성찬식 동안에 그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

선교사 봉사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받드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입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마음의 뜻을 다하여 그분의 이름을 받들기를 원하면,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피조물에게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름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8:28 참조) …

속죄를 취했던 사람들은 주님과 구주에 대해 충실히 간증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라는 권유는 구주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에 대한 우리의 큰 사랑을 나타냅니다.¹¹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복음을 나누는 일을 막는 모든 장애를 이겨 낼 수 있다.

동유럽 그리고 … 세상의 다른 많은 곳에서 장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신성한 책임을 성취하기 위해 더 많은 선교사들의 필요성이 분명히 커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선교사에 대한 필요성을 충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날의 이 위대한 선교 사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새로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아마도 우리 중 어떤 이들은(특히 가족을 양

육한 나이 든 세대는) 우리가 마음에 쌓아 놓은 “장벽”을 무너뜨릴 필요는 없는지 결정하기 위해 진지하고 정직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부부와 독신들이 선교 사업을 나가는 것을 막는 “편안의 장벽”은 어떻습니까? 일부 회원들이 선교 사업을 나가는 능력을 막는 부채라는 “재정적 장벽” 또는 “손자녀 장벽”, “건강 장벽”, “자신감 부족 장벽”, “자기만족 장벽”, “범법 장벽”, 또는 두려움이나 의심, 자기 도취라는 장벽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도움으로 자신이 이런 장벽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잠시라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앞선 경륜의 시대와는 달리 이 마지막 시기에 태어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생에서 이보다 더 큰 부름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만든 장벽 뒤에 숨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것이 될 수 있는 축복을 자진해서 차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현대의 계시에서 이런 큰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보라, 밭은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음이라. 또 바라보라, 자기 힘을 다하여 낫을 휘두르는 자, 그는 곳간에 쌓아 두는 자니, 멸망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에 구원을 가져오느니라.”(교리와 성약 4:4)

같은 계시에서 주님은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성품을 계속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장벽의 거대한 문 앞에서 서 있을 때 우리의 약점과 상황에 대해 아주 잘 아시는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받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라.”(교리와 성약 4:7)는 단순한 약속을 믿고 우리 할 일을 다한다면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신성한 도움이 찾아올 것이라고 우리를 안심시켜 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장벽 때문에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축복을 가로막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¹²

주님은 이 세상에서 성역을 베푸는 동안 한 가지 외침을 계속해서 주셨는데, 그것은 권유와 명령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태복음 4:19) …

이전의 선지자들은 유능하고 합당한 모든 젊은이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해야 한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유능하고 성숙한 부부들이 선교사로 봉사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

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누가복음 10:2) ¹³

학습 및 교수 제언

질문

-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리를 근거로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헌터 회장의 가르침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다.(1편 참조)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 각 사람이 문자 그대로 우리 형제 또는 자매라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에 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에 대해 2편에 있는 헌터 회장의 가르침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그들과 복음을 나누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속죄가 선교 사업과 어떤 관계가 있어야 합니까?”라는 헌터 회장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고 싶은가?(3편 참조) 다른 사람들과 복음을 나누겠다는 소망을 어떻게 더 키울 수 있는가?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눴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과 복음을 나눴을 때 어떤 축복이 왔는가?
- 4편을 공부한 뒤에 선교 사업의 축복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장벽들”을 생각해 본다. 이런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을 토론한다.

관련 성구

아모스 9:9; 니파이후서 2:6~8; 모사이야서 28:1~3; 앨마서 26:37; 교리와 성약 18:10~16; 58:64; 68:8; 88:81; 90:11; 123:12; 조셉 스미스-마태 1:31

교사를 위한 도움말

“성신은 여러분이 가르치는 반원 가운데 한 명이나 그 이상에게 다른 사람들이 들을 필요가 있는 영감에 찬 생각을 나누라고 속삭일 수도 있다. 여러분이 특정한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도록 영의 속삭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을 자진해서 발표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도 부탁할 수 있는 강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999], 63쪽)

주

1. "All Are Alike unto God," *Ensign*, June 1979, 74.
2. "Walls of the Mind," *Ensign*, Sept. 1990, 9-10.
3. "Walls of the Mind," 10 참조.
4. "All Are Alike unto God," 74.
5. "All Are Alike unto God," 74.
6. "복음-온 세상의 신앙", *성도의 벗*, 1992년 1월호, 20~22쪽.
7. "All Are Alike unto God," 72-74.
8. "복음-온 세상의 신앙", 22쪽; 조지 앨버트 스미스의 말씀을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지 앨버트 스미스(2011), 152쪽에서 찾을 수 있다.
9.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십시오", *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88쪽.
10. "Come to the God of All Truth," *Ensign*, Sept. 1994, 73.
11. "The Atonement of Jesus Christ"(선교부 회장 세미나에서 하신 말씀, 1988년 6월 24일), 4-7,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또한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ed. Clyde J. Williams(1997), 248-49 참조.
12. "Walls of the Mind," 10.
13.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십시오", 88쪽.



“십일조를 내면 신앙이 강화되고, 영성과 영적 능력이 커지고, 간증이 굳건해집니다.”



십일조의 법

“십일조의 법에 대한 간증은 그것에 따라 생활할 때 옵니다.”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생애에서

하워드 더블유 헌터와 클레어 제프스가 결혼하기 얼마 전에 하워드는 성전 추천서를 발급받기 위해 감독에게 갔다. 그는 접견 동안에 감독이 그의 수입으로 아내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지 물었을 때 깜짝 놀랐다. 하워드는 이렇게 회상했다. “제가 얼마나 버는지 대답했을 때, 감독님은 제가 낸 십일조 금액을 보고는 제가 아내를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하워드는 완전한 십일조를 내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십일조를 완전히 내지 않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부모님과 함께 살던 시절 부친께서 교회 회원이 아니셨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십일조 얘기를 한번도 한 적이 없었고 저 역시 그 중요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워드는 감독과 얘기를 계속 해 나가면서 감독이 “친절한 방법으로 ... 그 율법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으며, 이후로 완전한 십일조를 내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하자 감독이 접견을 계속해 추천서를 작성하고 서명해 걱정을 덜어 주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워드가 이 경험에 대해 클레어에게 말할 때, 그는 그녀가 항상 완전한 십일조를 내 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우리는 결혼 생활 내내 십일조를 실천하고 또한 십일조를 제일 먼저 생각하기로 결심했습니다.”라고 말했다.¹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가르침

1

십일조의 법에 대한 주님의 정의는 단순하다.

[십일조의] 법은 간단히 “그들의 모든 수익의 십분의 일”(교리와 성약 119:4)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이익, 보수, 증가분을 뜻합니다. 고용된 사람은 임금,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이익, 재배하고 생산하는 사람은 증가분, 또는 기타 다른 수입원이 있는 사람은 소득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율법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영원한” 항구적인 율법이라고 말씀했습니다.²

주님의 모든 계명 및 율법과 마찬가지로 [십일조의 법]은 아주 적은 신앙이 있기만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은 사실상 “소수점을 찍어 한 자리만 옮기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일조의 법입니다. 것처럼 간단합니다.³

2

십일조의 법은 태초부터 존재했으며 오늘날에도 계속된다.

성경에서 “십일조”라는 단어는 구약전서의 첫째 책에서 처음으로 분명하게 언급되었습니다. 아브람이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멜기세덱이 그를 축복하고 아브람은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창세기 14:20)

같은 책에서 몇 장 뒤로 가면 야곱은 베엘에서 이런 서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창세기 28:20~22].

세 번째 언급은 레위 율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십분의 일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십분의 일은 여호와와 것이니 여호와와 성물이라”(레위기 27:30).

레위 율법 아래에서는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 십일조를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그에 대한 보답으로 주님이 아래와 같이 모세에게 지시한 주님의 말씀에 나타난대로 그들이 받은 것에서 십일조를 내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입으로 준 십일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민수기 18:26).

이것은 십일조의 법이 레위 율법의 일부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십일조를 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 주며, 심지어는 레위인들조차도 자신이 받은 십일조에 대해 십일조를 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십일조의 법이 레위인의 관습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지만, 역사는 도리어 그것이 오래 전부터 보편적인 율법이었으며 지금도 그러하다고 확인해 줍니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에서 기본적인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존재해 왔으며 고대 애굽과 바벨론에서도 볼 수 있으며, 성경 역사 내내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아모스 4:4 참조]가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축하는 책임을 맡았던 느헤미야[느헤미야 10:37~38; 12:44; 13:5, 12 참조]가 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 얼마 후에 말라기는 신앙을 다시 쌓고 나라의 분위기를 일신하는 더 큰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허울만 종교적이었던 사람들의 탐욕에 맞서 행동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면서 그는 하나님에게 죄를 범했다고 그들을 비난하며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라기 3:8~10). …

말라기의 말씀은 태초부터 존재했던 이 율법이 폐지되었던 적이 없었고 밝히면서 십일조의 법을 반복하는 것으로 구약전서를 끝냅니다. 그러므로 신앙 시대는 이런 권고 아래 시작되었습니다. …

이 경륜의 시대가 회복되고 오래지 않아 주님은 이 율법을 정의하며 후기 선지자를 통해 그의 백성에게 이런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한 후에, 이같이 십일조를 바친 자들은 해마다 그들의 모든 수익의 십분의 일을 바칠지니, 이는 나의 거룩한 신권을 위하여 영원토록 그들에게 항구적인 율법이 되리라. 주가 이르노라.”(교리와 성약 119:4)⁴

3

우리는 십일조를 낼 때 기증도 하고 우리 의무도 다할 수 있다.

십일조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그분의 율법이지만, 내는 것은 전적으로 자발적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것은 안식일의 율법이나 그분의 다른 율법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특정 율법 또는 모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자발적이지만, 내지 않겠다고 거부한다고 해서 그 율법이 폐지되거나 철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십일조가 자발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기증입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내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증은 보상이 따르지 않는 금전 또는 재산의 자발적인 이전입니다. 그것은 무상으로 이뤄집니다. 어느 누구도 기증할 책임은 없습니다. 만일 십일조가 기증이라면,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자신이 원할 때 기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기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리를 지나며 동전 하나를 던져 주는 걸인과 하나님 아버지를 같은 부류에 넣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일조의 법을 제정하셨으며, 그것은 그분의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것은 부채가 됩니다. 자신이 부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십일조를 내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도 부채를 지고 있지 않은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태복음 6:33).

우리는 동시에 동쪽과 서쪽으로 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는 없습니다. 십일조의 법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 율법에 순종하려고 진정으로 노력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어떤 대가가 따릅니다. 어떤 복음의 율법이나 거기에 있는 원리에 따라 생활하려면 실천과 생각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

우리는 십일조를 낼 때 기증도 하고 우리 의무도 다하는 것입니다.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주님께 하는 일입니다. 기증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우리 이웃에게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하는 전도, 교회가 가르치는 프로그램, 훌륭한 교육 체계, 예배의 집을 세우는 건축 프로그램 등 이 모든 것을 세심하게 잘 살펴보면, 십일조를 내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커다란 축복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십일조를 통해 복음의 축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⁵

4

주님께 바치는 헌물은 이를 바치는 사람에게 충분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사무엘하 24장 18~25절에서 다윗이 값을 치르지 않은 것은 주님께 제물로 드리려 하지 않았다는 글을 읽습니다. 그는 재물을 바치는 사람 자신에게 가치가 없는 재물이라면, 주님께 드리는 제물로 맞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말했지만[사도행전 20:35 참조] 자신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을 때에만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주님의 가르침과 맞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마태복음 16:24).

희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십일조의 법을 따르려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희생이 따르지 않는 것은 주님께 제물로 바치려 하지 않았던 다윗의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십일조를 내지 않는 사람들은 십일조의 법에 담긴 커다란 도덕적 원리들을 간과하는 것이며, 이 율법에 대한 이해와 생각이 부족한 것입니다.⁶

5

십일조를 내면 커다란 축복이 온다.

주님께서 [십일조의] 법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법을 따를 때 우리는 번성하지만, 우리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길을 찾아 살려고 할 때, 실패를 경험합니다. 교회 여기저기를 여행하며 십일조를 낸 결과를 보면서, 저는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커다란 축복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⁷



“십일조를 내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커다란 축복입니다.”

정직한 십일조를 내십시오. 주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고대 선지자들부터 현재의 충실한 이들까지 실시해 온 이 영원한 율법은 우리가 생활에서 주님을 최우선시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초기 성도들의 경우처럼 우리는 가정이나 생활을 희생하라는 요청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이기심을 이겨 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일조를 별만큼 재산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일조를 냅니다.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말라기 3:10) 충실한 이들에게 축복을 내려부으실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⁸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원리를 따르며, 이 일부를 십일조라 부릅니다. 십일조는 … 전적으로 자발적입니다. 우리는 십일조를 낼 수도 있고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축복을 받습니다.⁹

메리 필딩 스미스는 불굴의 개척자 어머니로, 선지자의 형이었던 축복사 하이럼 스미스의 아내요 미망인이었습니다. … 어느 봄날 가족이 땅에

감자를 저장해 둔 곳을 열자, 그녀는 아들들에게 가장 좋은 감자 한 무더기를 십일조 사무실로 가져가라고 시켰습니다.

그녀는 사무실 계단에서 서기 한 사람을 만났는데, 소년들이 감자를 내리기 시작하자 그가 [제지했습니다]. 그 서기는 그녀의 시련과 희생을 분명히 기억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미스 여사님, 여사님이 십일조를 내야 하다니 참 민망합니다.” 그는 그런 처지에서 십일조를 낸다고 잔소리를 했으며, 그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일 뿐만 아니라, 신중하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

키 작은 그 미망인은 몸을 꼳꼳이 세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윌리엄,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제가 축복을 받는 것을 방해하고 싶은 건가요? 제가 십일조를 바치지 않으면 그분이 제게서 축복을 거두워 가실 거예요. 제가 십일조를 바치는 이유는 십일조가 하나님의 율법이기도 하지만 십일조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십일조와 다른 계명들을 지키면 제가 잘되고, 우리 가족을 잘 부양할 수 있으리라 믿어요.”(Joseph Fielding Smith, *Life of Joseph F. Smith* [Salt Lake City, 1938], 158-59.)¹⁰

십일조의 원리는 수학적이고 기계적으로 지키는 율법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영적인 면에서 생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약초를 십일조로 바치던 바리새인들을 나무라셨습니다.[마태복음 23:23 참조]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완전한 자유와 신앙으로 십일조를 낸다면, 그분과의 거리가 줄어들고 그분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해집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의 속박에서 풀려나며, 영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 갖습니다.

십일조를 내면 신앙이 강화되고, 영성과 영적 능력이 커지고, 간증이 굳건해집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만족감이 듭니다. 십일조는 십일조를 사용하는 목적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데서 오는 축복을 가져다줍니다. 우리는 이런 축복을 스스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십일조를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십일조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증하느냐, 또 주님에 대한 우리 책무를 어떻게 충족하느냐에 영원한 중요성이 있습니다.

십일조의 법에 대한 간증은 그것에 따라 생활할 때 옵니다.¹¹

학습 및 교수 제언

질문

- 1편에서 십일조의 법에 대한 정의를 복습한다. 십일조란 무엇인가? 십일조의 법이 지닌 간결성에 대해 헌터 회장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 십일조의 역사에 대한 헌터 회장의 가르침에서 어떤 통찰을 얻었는가?(2편 참조) 십일조의 법이 “오래전부터 보편적인 율법이었으며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헌터 회장이 원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우리가 십일조를 낼 때 어떻게 “기증도 하고 또한 의무를 다할 수도” 있게 되는가?(3편 참조) 십일조를 내면 어떻게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보일 수 있는가? 십일조를 내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
- 주님께 바치는 헌물은 왜 이를 바치는 사람에게 가치가 있어야 하는가?(4편 참조) 십일조를 내는 데 따르는 어려움이나 내키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 십일조를 내면 받을 수 있다고 헌터 회장이 말한 많은 축복을 복습해 본다.(5편 참조) 여러분 생활에서 이런 축복을 어떻게 본 적이 있는가?

관련 성구

앨마서 13:15; 교리와 성약 64:23; 104:14~18; 119편; 120편; 경전 안내서, “십일조”

학습을 위한 도움말

처음 본 장을 읽을 때,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신속하게 읽거나 머리글을 살펴볼 수도 있다. 그런 다음 본문을 몇 번 더 읽으면서 좀 더 천천히 읽고 깊이 있게 공부한다. 또한 학습 질문들을 옆두에 두고 각 편을 읽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할 때 더 깊은 통찰과 적용 방법을 알 수도 있다.

주

1. Eleanor Knowles, *Howard W. Hunter*(1994), 80-81.
2.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ed. ClydeJ. Williams(1997), 105: 또한 Conference Report, Apr. 1964, 35 참조.
3.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105.
4. Conference Report, Apr. 1964, 33-35.
5. Conference Report, Apr. 1964, 35-36.
6.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106; 또한 Conference Report, Apr. 1964, 33 참조.
7.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105.
8.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105.
9. “Dedication of Goteborg Chapel”(스웨덴 예테보리에서 하신 말씀, 1967년 9월 10일), 1,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10. *Howard W. Hunter, That We Might Have Joy*(1994), 136-37.
11. Conference Report, Apr. 1964, 36.



“우리는 여러분이 개인으로서 또 가족으로서 경전을 매일 읽고 연구하기를 바랍니다.”



경전-가장 유익한 공부

“우리 각 사람이 거룩한 경전을 끊임없이 공부해서
 ...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더 가까이 ...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생애에서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은 경전을 무척 사랑했고 전념하여 연구하는 학생이었다. 이런 사랑과 연구는 그의 가르침에 반영되었는데, 그 가르침에는 표준 경전에서 가져온 이야기들과 성구들로 가득했다. 복음 원리를 가르칠 때, 특히 연차 대회에서 말할 때에는 경전에서 적어도 이야기 하나를 선택해서 상세하게 들려주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 헌신적이 되는 것에 대해 가르칠 때에는 구약전서에서 그런 헌신을 보여 주었던 여호수아 이야기 또는 사드락과 메삭, 아벳 느고의 이야기나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19장 참조) 봉사에 대해 가르칠 때에는 갈채를 거의 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봉사가 어떻게 그와 달리 눈에 띄었던 다른 사람들의 봉사에 “못지 않았”던가를 보여 주기 위해 물문경에서 그 예를 들었다.(23장 참조) 불안한 시기에 내적 평안을 갖는 방법에 대해 가르칠 때에는 물 위를 걷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해 경전에 나오는 많은 성구를 역시 활용했다.(2장 참조) 성찬에 대해 가르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전후 관계를 설명했다.(15장 참조)

헌터 회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경전의 중요성을 알았다. 따라서 그는 구주의 성역과 십자가에 달리심, 부활에 대해 경전에 있는 기사를 이용해 자주 가르쳤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다.

“저는 전념하여 경전을 연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큰 지식을 알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신약과 구약으로 된 성경 외에도,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선지자를 통해 계시해 주신 경전으로, 그리스도의 다른 증인이 되는 물몬경과 교리와 성약과 값진 진주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경전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압니다. 이런 경전은 예수가 그리스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합니다.”¹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가르침

1

경전 공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공부이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위대하신 여호와, 세상의 구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간증이 모든 진리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경전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거룩한 책들 하나하나에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지니라는 호소가 있습니다. 이 책들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는 외침이 있습니다.²

우리가 경전을 읽고 연구하라는 지도자의 충고를 따를 때, 여러 가지 유익과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공부입니다. …

경전에는 하나님께서 몸소 계시하신 기록이 들어 있으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쳐 주고 그분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시켜 주는 경전을 읽는 것보다 더 유용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시간은 바쁜 사람들에게 늘 귀중합니다. 우리가 별로 가치가 없는 사소한 것을 읽거나 보는 일에 시간을 낭비한다면, 귀중한 시간을 도둑맞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³

우리는 여러분이 개인으로서 또 가족으로서 경전을 매일 읽고 연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음과 같은 명령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너희가 [경전]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경전]을 연구하거니와 이 [경전]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요한복음 5:39). 여러분이 계시된 말씀을 읽을 때, 영이 여러분 가정과 생활 속에 임할 것입니다.⁴

우리 교회에는 경전에 통달하고, 성구들을 전후 참조하고 표시하며, 경전 안내서를 활용해 공과와 말씀을 준비하고, 지도와 성서 사전 및 이 훌륭한 표준 경전에 포함되어 있는 기타 보조 자료들을 완전히 숙지한 여성과 남성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빠르게 숙달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이 분명히 그곳에 있습니다. 분명히 경전의 빛은 “이미 희어져 추수[할]” (교리와 성약 4:4 참조) 때입니다. …

이 경륜의 시대에서나, 분명히 어느 경륜의 시대에서도 경전, 즉 하나님의 영속적이고 깨우쳐 주는 말씀이 그것을 찾게 될 모든 남자와 여자, 어린 아이들이 사용하기에 이처럼 쉽고 도움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역사에서 가장 읽기 편하고 접하기 좋은 형태로 평회원들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전을 읽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⁵



경전 공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복음의 율법에 순종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율법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경전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찾고 연구할 때 가장 잘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시하신 것에 익숙해집니다.

신앙개조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계시하신 모든 것과, 현재 계시하시는 모든 것을 믿으며, 앞으로도 그분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많은 위대하고도 중대한 것들을 계시하실 것을 믿는다.” (신앙개조 제9조)

하나님의 뜻이 경전에 계시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진리를 찾으려면 경전을 읽으라는 명을 받았습시다. 주님은 이런 진리를 확인하는 방법을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네게 한 가지 명령을 주노니, 너는 기록된 것에 의지하라. 이는 그 가운데 나의 교회와 나의 복음과 나의 반석의 기초에 관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음이니라.”(교리와 성약 18:3~4)

바울은 그의 훌륭한 친구인 디모데에게 경전을 읽을 것을 당부하면서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경전]을 알았나니 [경전]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런 다음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모든 [경전]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디모데후서 3:15~16) …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경전과, 고대나 현대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읽을 것을 매우 강조해 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자녀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경전을 읽으라는 당부를 해 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보여 주신 모범의 결과로 경전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밤에서 경전을 공부하고 있으며, 어떤 가족은 아침 시간에 함께 경전을 읽습니다. … 이것이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을 배우는 방법입니다.⁶

경전에서 제시하는 순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분의 면전으로 갈 수 있다는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너희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노니, … 영생의 말씀에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조심하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함이니라.

이는 주의 말씀은 진리이며, 무엇이든지 진리인 것은 빛이요, 무엇이든지 빛인 것은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까닭이니라. …

그리고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마다 하나님 곧 아버지께로 나아오느니라.”(교리와 성약 84:43~45, 47)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어 승영에 이르게 해 주는 훌륭한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러 주심이니라.”(니파이후서 32:3)⁷

저는 우리가 생활에서 실천하고 또 모든 결정과 모든 행위를 측정하는 표준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근심과 어려움이 있을 때, 경전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용하여 그것들에 맞서십시오.⁸



“경전 공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공부이다.”

3

경전을 이해하려면 집중하고 지속적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공부가 필요하다.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현재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전을 상고하는 데 쓰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을 권합니다.

주님의 종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여러분이 다음과 같이 행하도록 권유드립니다.

1. 교회 회원으로서 경전을 매일 읽고,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2. 정기적으로 가족 경전 읽기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중에서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을 치하하며 아직 시작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지체없이 시작하기를 촉구합니다. ...

우리 각자가 거룩한 경전을 끊임없이 공부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더 지니려고, 또 영으로 더 충만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더 가까이 가겠다는 확고한 결심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⁹

독서하는 습관은 매우 다양합니다. 책을 빨리 읽는 사람, 느리게 읽는 사람도 있고, 시간 나는 대로 톱툰이 조금씩 읽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다 읽을 때까지 쉬지 않고 단번에 읽어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경전을 참으로 이해하려면 그냥 읽어 보거나 정독하는 것으로 끝나기보다는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매일 경전을 연구하는 사람은 하루에 상당히 많은 양을 읽고 며칠씩 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앞서게 됩니다. 매일 연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규칙적인 시간을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경전에 대한 이해의 문을 여는 데 기도보다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찾고자 하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누가복음 11:9)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받아들이고자 준비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우리가 이해하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 고 그리스도께서 확신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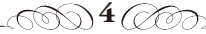
연구하는 데 가장 좋은 시간으로는 밤에 충분히 휴식을 취함으로써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씻어버린 아침 시간을 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루의 일을 끝내고 걱정거리를 한옆으로 치워 놓은 한밤의 조용한 시간에 읽기를 즐기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여 경전을 공부함으로써 오는 평온한 마음으로 하루 일을 마치게 됩니다.

하루 중 어떤 시간을 정하느냐 하는 것보다는 공부할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 놓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시간 정도로 시간을 낼 수 있다면 아주 이상적이겠지만, 매일 30분만 규칙적으로 시간을 낸다 해도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5분은 비교적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시간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주제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전을 읽는 동안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공부하기를 선호하지만, 여럿이 함께 공부하면 더 이로울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들을 곁에 불러 모으고, 경전을 한 페이지씩 함께 읽어 나가며,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이야기와 생각을 자유롭게 토론한다면, 가족이 모두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흔히 청소년과 어린이들도 기본적인 종교 문학을 놀라울 정도로 잘 이해합니다.

우리는 닥치는 대로 마구 읽어 나갈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매일 또는 매주 일정한 양의 페이지나 몇 장을 계획해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읽는 사람이 즐겁게 읽어 나가지만 한다면 재미있게 잘 해 나갈 수도 있지만, 그다지 의미 있는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매일 일정한 장수를 정해서 읽기보다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정전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때로는 단 한 구절을 공부하는 데 그 시간을 다 소비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¹⁰



야이로에 관해 경전에 있는 짧은 기사를 깊이 생각해 보면 아주 깊은 이해와 의미를 얻는다.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과 가르침을 빨리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이야기는 단순히 전개되어 갑니다. 구주께서는 별로 단어를 많이 사용해 가르치지 않지만,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의 뜻이 너무 분명하므로, 함께 모이게 되면 그것은 독자들에게 명백한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그러나 몇 마디의 단순한 낱말에 표현된 깊은 의미를 생각하는 데 여러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구주의 생애에는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각기 말한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을 마가가 단 두 절과 뒤이어 네 마디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보라,] 회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마가복음 5:22~24).

이 이야기를 읽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30초 밖에 안 됩니다. 단순하고 짧은 구절입니다. 그림을 보듯이 분명하며 어린아이라도 무리없이 반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들여 생각해 보면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

… 예수와 그와 함께 한 일행이 갈릴리 바다를 다시 건너가시자, 가버나움 바닷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라,] … 회당장 중의 하나[가 왔습니다.]” 그 당시 규모가 큰 회당은 여러 장로들이 회당장 한 명의 지시를 받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당장은 유대인들이 존경하면서 우러러 보는, 신분과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이 회당장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마가는 “야이로라 하는 이”라는 말로 그를 밝혀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 외에는 경전의 어디를 보아도 이 사람이나 그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그는 예수와 잠시 만남으로 인해 그에 대한 기억은 역사에 길이 남아 있습니다. 구주께서 영향을 미쳐 생각과 행동에 변화를 가져와 새롭고 더욱 훌륭한 삶으로 이끌지 않았다면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을 많은 사람들의 생활이 기억 속에 살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회당장이라는 높은 신분과 명성을 지닌 사람이 예수의 발 아래 즉, 병고치는 은사를 갖고 있다는 선생의 발 아래 엎드리는 일은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학식 있고 지체가 높은 다른 많은 사람들도 예수를 보았으나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장벽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야이로가]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이 말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의 절대적인 필요를 위해서 인간이 그리스도에게 나아올 때 흔히 일어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내 어린 딸”이라고 말하는 야이로의 떨리는 목소리는 회당에서 높은 신분을 지닌 이 사람이 구주 앞에서 무릎을 꿇은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영혼에 동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어 그의 신앙을 알 수 있는 말이 뒤따릅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것은 비통에 젖은 아버지의 신앙에서 나온 말일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손을 얹으시는 것은 무엇이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께서 부부에게 손을 얹으시면, 그들은 곧 새로운 삶을 얻습니다. 예수께서 가족에게 손을 얹으시면, 가족은 생명을 받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라는 말이 따릅니다. 이 일이 그 날의 일정에 계획되어 있던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구주는 다시 바닷물을 건너 그의 가르침을 받고자 군중들이 기다리고 있던 바닷가로 오셨던 것입니다. … 예수는 한 아버지의 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그 청을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야이로에게 내일쯤 그의 딸을 보아 주겠노라고 할 수도 있었으나, “이에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우리가 구주의 발자취를 따른다면, 너무 바빠서 이웃 사람의 요구 사항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의 뒷 부분은 읽어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자, 예수는 어린 소녀의 손을 잡아 사경에서 살려 내셨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는 구주에게 손을 내미는 모든 사람을 새롭고 더 나은 생활로 들어 올리시고 살려 내십니다.¹¹

5

물몬경과 교리와 성약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데려다준다.

물몬경

주님께서 우리가 이 신성한 사업을 성취하도록 돕기 위해 제공하신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라는 부제가 붙은 물몬경입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님은] 이 성스러운 경전의 내용을 읽고 따르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직설적으로 권고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책의 위대한 사명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며 그 외의 다른 모든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성도의 빛, 1986년 7월호, 108쪽) 우리는 형제 자매 여러분께서 물몬경과 다른 경전을 정기적으로 읽고 또 부름을 수행할 때 그것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영을 먹이시기를 바랍니다.¹²

물몬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이 기록을 읽기를 권유드립니다. 이 책은 오늘날 존재하는 가장 괄목할 만한 경전입니다. 이 경전을 주의 깊게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이렇게 할 때 모로나이가 약속한대로 하나님께서 그 참됨에 대한 증거를 여러분께 주실 것입니다.(모로나이사서 10:4 참조)¹³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상에 회복되었다는 간증을 얻게 된 것은 몰몬경을 읽고 연구하고 또 그 내용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확인하려 했기 때문입니다.¹⁴

몰몬경을 읽는 것은 여러분의 생활에 깊은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하여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며, 또한 그들은 그분의 복음의 가르침에 맞게 살고자 하는 더 큰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강한 간증을 얻게 될 것입니다.¹⁵

교리와 성약

교리와 성약은 독특한 책입니다. 이것은 지상에서 유일한 창조주께서 직접 쓰신 서문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더욱이 이 경전에는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기존의 다른 어느 경전에서보다도 더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고대 문서를 번역한 것이 아니라 현대에 기원을 둔 경전입니다. 우리 시대를 위한 계시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직면했던 질문과 걱정거리, 어려움들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온 계시 중에서 신성한 영감으로 선정된 독특한 계시들입니다. 여기에는 실제 인물들과 관련된 실제 생활의 문제들에 대한 신성한 응답들이 들어 있습니다. ...

교리와 성약을 읽음으로써 여러분이 경전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교리와 성약 18:33~36 참조] ... 일깨워 주는 그 음성은 대체로 “생각”으로서 여러분 정신 속으로 또 “느낌”으로서 여러분 마음 속으로 옵니다.(교리와 성약 8:1~3 참조) 그 증거의 약속이 ... 그런 증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모든 합당한 남자와 여자, 어린이들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런 성스러운 계시를 읽고,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겠다고 굳게 결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¹⁶

학습 및 교수 제언

질문

- 어떤 경험이 경전 공부에 “가장 유익한 공부”라는 것을 아는 데 도움이 되었는가?(1편 참조) “경전을 완전히 숙지한 여성과 남성”이 되겠다는 결심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가?
- 경전 공부는 우리가 더 순종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2편 참조)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러”(니파이후서 32:3) 준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 경전 공부 방법에 대한 헌터 회장의 권고에서 어떤 면이 도움이 될 수 있는가?(3편 참조) 경전을 꾸준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는 것이 어떻게 축복이 되었는가?
- 구주께서 아이로의 딸을 고치신 것에 대한 헌터 회장의 말씀에서 어떤 통찰을 얻을 수 있는가?(4편 참조) 단 몇 구절만이라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경전 공부를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가?
-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은 여러분이 구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5편 참조) 이런 성스러운 경전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친 다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경전에 대한 여러분의 간증을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생각해 본다.

관련 성구

여호수아 1:8; 잠언 30:5; 니파이전서 15:23~24; 니파이후서 3:12; 엘마서 31:5; 37:44; 힐라맨서 3:29~30; 교리와 성약 98:11

학습을 위한 도움말

“읽고, 연구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경전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경전을 연구하면서 일정한 유형과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면 영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경전을 주의 깊게 읽고 연구한 후 생각하고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헨리 비 아이어링, “영을 동반하여 봉사하십시오”,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60쪽)

주

1. “경전 읽기”, *성도의 벗*, 1980년 3월호, 96쪽.
2.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ed. Clyde J. Williams(1997), 50.
3. “경전 읽기”, 94쪽.
4.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53-54.
5.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51.
6. “Obedience”(하와이 지역 대회에서 하신 말씀, 1978년 6월 18일), 3-5,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마지막 단락은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52쪽에도 있다.
7. “Eternal Investments”(교회 교육 기구 종교 교육자들에게 하신 말씀, 1989년 2월 10일), 3; si.lds.org.
8. “Fear Not, Little Flock”(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하신 말씀, 1989년 3월 14일), 2; speeches.byu.edu.
9.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51-52.
10. “경전 읽기”, 94쪽.
11. “경전 읽기”, 95~96쪽.
12. “The Mission of the Church”(지역 대표 세미나에서 하신 말씀, 1990년 3월 30일), 2.
13.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54.
14. “The Pillars of Our Faith,” *Ensign*, Sept. 1994, 54.
15. “부활의 증거”, *성도의 벗*, 1983년 7월호, 26쪽.
16.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55-56.



진정한 위대함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작은 일에 충실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할 때, 우리는 진정한 위대함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생애에서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진정한 위대함은 세상적인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즉 다른 사람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잃는 것을 포함한 봉사와 희생의, 수만 가지의 작은 행위”에서 옵니다.¹ 헌터 회장은 이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생을 살았다. 다른 사람의 주목이나 환호를 구하기보다는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일상적인 봉사와 희생을 자주 행했다.

헌터 회장의 비교적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봉사의 한 예로는 10년 이상 쇠약해지는 건강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아내를 돌본 일을 들 수 있다. 1970년대 초부터 클레어 헌터는 심한 두통과 기억 상실을 겪기 시작했다. 그녀는 후에 몇 차례 가벼운 뇌졸중을 겪었고 이로 인해 말하거나 손을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녀를 지속적으로 돌봐줄 필요가 있게 되었을 때 헌터 회장은 사도로서의 책임을 수행하면서도 할 수 있는 한 아내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낮에는 누군가에게 의뢰해서 클레어 곁에 있게 했지만 밤에는 자신이 돌봐주었다.

1981년에 있는 뇌출혈로 클레어는 걷거나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터 회장은 때때로 그녀를 휠체어에서 일으켜 꼭 안고 그들이 수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춤을 추기도 했다.

클레어가 두 번째 뇌출혈을 겪었을 때, 의사들이 그녀를 요양원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해서, 그녀는 인생의 마지막 18개월을 그곳에서 보냈다. 그 기간 동안에도 헌터 회장은 교회 임무로 여행을 갔을 때를 제외하고는 매일 그녀를 보러 갔다. 헌터 회장은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에는 공항에서 바로 그녀에게로 갔다. 그녀는 대부분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헌터 회장을



하워드와 클레어 헌터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녀가 편안한지 확인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는 후에 이렇게 말씀했다. 헌터 회장이 “10년 이상의 세월 동안 건강이 좋지 않은 아내 클레어를 사랑으로 돌봐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에서 본, 한 여자에 대한 한 남자의 가장 숭고한 헌신이었습니다.”²

헌터 회장이 돌아가신 후 *Ensign*에 실린 전기는 진정한 위대함에 대한 그의 가르침을 인용하고 그 가르침이 어떻게 그의 삶을 인도했는지 요약해 놓았다.

“헌터 회장은 겸손해서 자신이 위대한지를 알기 위해 남과 비교해 보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는 자신이 정의한 위대함을 이룬 사람이었다. 그의 위대함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그가 열심히 일하고, 실패해도 다시 시도하고, 이웃을 돕겠다는 중요한 결심을 했을 때였으며, 그때는 그가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였다. 그러한 속성은 다방면에 노력을 기울여 성공한 그의 놀라운 능력에 잘 반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음악, 법, 사업, 국제 관계, 목공예 등이 있으며, 특히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마태복음 25:21]이 된 것이 있다. …

“그는 학생으로, 젊은 아버지로, 헌신적인 감독으로, 그리고 열정적인 사도로 일했던 것같이 제14대 교회 회장으로 비이기적이고도 자연스럽게 주님의 목적을 달성했다.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이 알았듯이, 주님의 포도원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기에, 주님은 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것을 요구하셨다. 이 요구를 헌터 회장은 진정한 위대함으로, 그리고 그가 끝까지 섬겼던 구주의 모범에 계속 주의를 기울임으로 달성했다.”³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가르침

1

**위대함에 대한 세상적인 정의는 종종 우리를 오도하며,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비교로 이끌 수 있다.**

많은 후기 성도들은 행복해하며 인생이 가져다주는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불행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우려됩니다. 우리들 중에는 자신이 남들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있습니다. 자신은 의롭게 생활해 왔으나, 세상적으로나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루어 낸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특히 염려스럽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생에서 어떤 위대한 것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인간의 내부에는 하늘 본향에 대한 강한 그리움이 내재해 있다고 피력한 바 있습니다.(히브리서 11:13~16; 교리와 성약 45:11~14 참조)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면 참으로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배우는 시기부터 복음의 기본 원리를 좀 더 충만히 배우는 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온전해지도록 노력하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성취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세상의 비현실적인 기대로 인해 위대함의 정의가 변질될 때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참으로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뉠대로의 위대함을 숭배하며 그 나뉠대로 영웅을 만들어 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18세부터 24세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한 최근 조사에서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강하고 독립적이며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인물을 선호하며, 멋지고 “호화로운” 삶의 형태를 추구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1950년대에는 영웅이라고 하면 윈스턴 처칠, 앨버트 슈바이처, 해리 트루먼 대통령, 엘리자베스 여왕 그리고 청각 및 시각을 잃은, 작가이며 강사였던 헬렌 켈러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역사를 이루는 데 도움을 주었거나 자신의 영감적인 삶으로 주목받았던 영웅들입니다. 오늘날의 최고 영웅 열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배우나 연예인들을 꼽는데, 이것은 우리 태도가 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U.S. News & World Report*, 22 Apr. 1985, pp. 44-48 참조)

세상적인 영웅들은 대중들의 마음에서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자나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기록을 갱신한 운동 선수들, 놀랍고도 새로운 장치, 기계, 처리 과정을 개발한 과학자들, 그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인명을 구한 의사들의 이야기를 매일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놀라운 재능을 타고난 음악가들과 연예인, 그리고 특출하게 재능을 지닌 예술가, 설계사 및 건축가

들을 보게 됩니다. 완전한 치아와 흠없는 미모를 갖추고 유행하는 옷을 입고, “성공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의 사진이 실린 잡지, 광고판, 텔레비전 광고들이 우리 앞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위대함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정의를 접하게 되므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 또는 그들의 걸음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비교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비교하는 일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비교하는 것이 유익할 수도 있고, 우리가 훌륭한 것을 많이 이루고 우리 삶을 향상하도록 동기부여를 해 줄 수도 있지만, 흔히 그렇듯이, 불공정하고 부당하게 비교하여, 이루지 못했다거나 불충분하다거나 실패했다고 느끼게 됨으로써 우리는 불행하게 됩니다. 때때로 이러한 느낌으로 인해 우리는 잘못 생각하여 실패감에 사로잡히게 되어 참된 위대성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 삶의 여러 면을 무시하게 됩니다.⁴

2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작은 일에 충실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할 때, 우리는 진정한 위대함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1905년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은 참된 위대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아주 심오한 말씀을 했습니다.

“비범하고 놀라우며, 평범하지 않은 것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역사를 만들 수는 있어도, 그것들이 실제 삶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공동 운명으로 성임하여 주신 일을 잘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위대함이라 하겠습니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서 성공하는 것이 장군이나 정치가로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Juvenile Instructor*, 15 Dec. 1905, p. 752)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공동 운명”으로 성임하여 주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분명히 이 말에는 우리가 훌륭한 아버지나 훌륭한 어머니가 되고, 훌륭한 아들과 딸이 되며, 훌륭한 학생이나 이웃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사항이 포함됩니다.

…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작은 일에 끊임없이 노력할 때, 우리는 진정한 위대함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다른 사람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거나 잃는 것을 포함한 봉사과 희생의, 수



“진정한 위대함은 주는 것 즉 다른 사람과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잃는 것을 포함한 봉사와 희생의, 수만 가지의 작은 행위와 일에서 옵니다.”

만 가지의 작은 행위와 일입니다. 그것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복음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것에는 또한 다른 사람들을 신앙과 우정으로 하나님 왕국에 데려오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것은 흔히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⁵

3

선지자 조셉은 매일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

조셉 스미스는 일반적으로 장군, 시장, 건축가, 편집장 또는 대통령 후보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를 회복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랑에 헌신하고 주님의 사업을 추진시켜 나간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은 매일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작은 일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열

세 살 난 소년인 라이먼 오 리틀필드는 미주리로 간 시온 진영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후에 선지자가 삶에서 보여 준, 작지만 개인적으로 의미가 깊은 이 사건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 여정은 모든 사람들에게 극히 힘든 것이었습니다. 신체적인 고난을 받는 것 외에도,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가는 형제들이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저는 어느 날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진영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 저는 길가에 주저앉아 곰곰이 생각해 보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진영 가운데에서도 가장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저를 보더니, 산적해 있는 다른 일거리들을 제쳐 놓고 제게 위안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손을 제 머리 위에 얹으며 ‘네 자리가 없는 모양이구나, 그렇지? 없다면 하나 만들어야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일은 저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겨 주었으며, 오랜 세월이 흐르고 더 힘든 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George Q. Cannon, *Life of Joseph Smith the Prophet*, Salt Lake City: Deseret Book Co., 1986, p. 344)

또 한 번은 일리노이의 칼린 주지사가 아담스 카운티의 보안관 토머스 킹과 다른 몇몇 사람들을 보내 선지자를 체포하여 미주리 주의 보그스 주지사의 특사에게 넘겨주게 했습니다. 그런데 킹 보안관이 심하게 앓게 되자, 선지자는 그를 나무에 있는 그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나흘간 친형제같이 간호해 주었습니다.(같은 책, 372쪽) 선지자는 자주 작지만 친절하고 뜻 깊은 봉사 행위를 했습니다.

나무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상점 개설에 대하여 조지 큐 캐넌 장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선지자는 상업이나 사업 면에 주저하지 않고 매진했습니다. 그가 설파한 복음은 현실적인 구원과 영적인 승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꺼이 자기가 해야 할 노동의 몫을 맡아 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같은 책, 385쪽)

선지자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 상점은 언제나 사람이 많아서, 저는 온종일 카운터 뒤에 서서, 다른 판매원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상품을 나르며, 설탕이나 당밀이나 건포도같은 것이 부족하여 성탄절이나 새해에 만찬없이 지내야 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제가 승영할 수 있으리라 소망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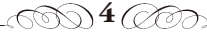


“선지자 조셉은 매일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돌보아 주는 조그만 일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면서 성도들을 위해 일을 하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통해 제 자신도 기분이 좋았습니다.”(같은 책, 386쪽)

이 장면에 대해 조지 큐 캐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장면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기초를 놓기 위해, 그리고 그 교회의 선지자와 회장으로 택하신 사람이 종처럼 형제 자매를 시중드는 것에 기쁨과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 조셉은 매일매일 ‘이들 중 가장 작은 자’에게 친절과 관심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을 섬겼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충애를 받고 있다고 느끼며 살았습니다.”(같은 책, 386쪽)⁶



진정한 위대함은 인생의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그리고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방법으로 자주 봉사하는 데서 오게 된다.

훌륭한 장로 정원희 서기와 상호부조회 교사 또는 사랑하는 이웃 사람이나 귀 기울여 주는 친구가 된다는 것은 바로 진정한 위대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의 투쟁에서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며, 다른 사람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되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참을성 있게 견디어 낸다는 것이야말로 진정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에서 어떤 위대한 것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위대한 것을 이룬 사람들도 많고 위대한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위대함을 이루도록 격려하며 또한 동시에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길 권유합니다. 위대함에 대한 세상적인 허상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않도록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유혹에 빠져 자신의 영혼을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명성은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선조들이 품은 참되신 신앙 순교자들의 생명 바치신 진리”에 충실한 것입니다.(찬송가 1985, 141쪽)

우리들 중에는 위대하지만, 알려지지 않고, 잊힌 영웅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말없이 끊임없이 행하고 계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있어야 할 곳에 있어 기꺼이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남편이 일하거나 학교에 있는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몇 시간이고 몇 날 밤이고 지켜서 돌보는 어머니의 강한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헌혈해 주며 노인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도 이에 포함됩니다. 자신이 지닌 신권과 교회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집에 정기적으로 편지를 써서 부모님의 사랑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는 학생들도 이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한 다른 사람들이 신앙을 발전시키는 것을 돕고 복음대로 생활하려는 사람들, 즉 다른 사람들의 삶을 물질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으로 일으켜 세우고 영향을 미치려고 활발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직하고 온유하며 매일의 임무를 열심히 행하며, 또한 구주의 종이요 그의 양의 목자가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처럼 많은 기회를 가져다주고 우리 생활에 아름다움과 교양과 질서를 제공해 준 세상의 위대한 업적을 과소평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인생에서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들에 더 분명하게 집중하도록 노력하기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주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마태복음 23:11)⁷

5

진정한 위대함은 작은, 그리고 때론 평범한 행동을 오랜 기간 동안 하는 것을 요구한다.

우리 모두는 거의 즉시, 즉 거의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되거나 성공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큰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성공이 즉시 위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위대함을 이루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입니다. 때론 실패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항상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진정한 위대함은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작고 때론 평범하고 일반적인 일들을 오랜 기간 동안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64:33)

진정한 위대함은 우연이나 한 번의 노력 또는 성취로 주어지는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위대함은 성품을 발전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선과 악 사이에서 매일매일 수없이 되풀이되는 올바른 선택으로 이루어지는데,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이 같은 작은 선택이 서로 묶여져 우리의 가치를 뚜렷하게 보여 주게 됩니다”(성도의 벗, 1981년 4월호, 32쪽) 그러한 선택은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 주게 됩니다.⁸

6

종종 일상적인 임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친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평가해 볼 때에는, 우리가 성취해 낸 것만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상황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르고 독특한 존재이며, 인생의 출발점이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각자 독특한 여러 가지 재능과 숨씨를 지니고 있습니다. 누구나 스스로 감당해야 할 어

려움과 제약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과 자신이 성취한 것을 평가할 때 단지 성취한 것의 규모나 크기 또는 개수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일했던 상황과 우리의 노력이 다른 사람에게 미친 영향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평가할 때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부분은 다른 사람의 삶에 미친 우리의 영향으로, 이것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이 왜 그렇게 높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행하는 일상적인 일들인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위대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대비됩니다.⁹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성임하신 일을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위대해질 수 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추구하기를 원하시는 위대함은 복음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위대하게 만들어 줄, 작고 간단한 일을 할 기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위한 봉사와 희생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조언은 오직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없이, 그러나 여러 뜻깊은 방법으로 주님의 사업을 행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이 되고 힘이 되며, 민족의 지주가 되시는 분들에게 우리의 존경심을 표합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견딘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간증에 담대하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위대함을 이룰 것이며,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거하게 될 것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은 “진실한 삶을 진실하지 않은 삶으로 바꾸려 애쓰지 않도록 합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Juvenile Instructor*, 15 Dec. 1905, p. 753) 하나님께서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성임해 주신 일들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아무리 하찮고 무의미하게 본다 해도, 결국은 진정한 위대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임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특히 우리 삶에서 행복하지 않고 어떤 형태의 위대함도 이루지 못했다고 느낀다면 사도 바울의 다음 말씀을 기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린도후서 4:17~18).

작은 일들이 뜻깊은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낸 많은 헌금보다는 과부의 적은 돈을, 그리고 막강한 블레셋 군대의 힘보다는 다윗의 용기와 확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공통된 운명”으로 성임하신 그러한 매일매일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 결코 기운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¹⁰

학습 및 교수 제언

질문

- 무엇이 진정한 위대함인가에 대해 왜 우리는 종종 혼란스러워 하는가?(1편 참조) 위대함에 대한 세상의 정의로 인해 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가?
- 진정한 위대함에 대한 헌터 회장의 정의는 세상의 정의와 어떻게 다른가?(2편 참조) 이 진정한 위대함의 정의는 어떻게 여러분이 생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좀 더 많은 시간과 주의를 기울이면 좋을 만한 몇 가지 구체적인 “작은 일들”을 신중히 생각해 본다.
- 3편에 나와 있는 조셉 스미스의 작은 봉사 행위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는가? 여러분에게 축복을 가져다준 작은 봉사 행위는 무엇인가?
- 4편에서 진정한 위대함을 이루는 예들을 복습한다. 사람들이 이런 방법으로 진정한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을 어떻게 본 적이 있는가?
- 진정한 위대함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5편에 있는 가르침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친 일상적인 일”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예를 본 적이 있는가?(6편 참조)
- 7편에 있는 헌터 회장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해 본다. 봉사와 희생이 어떻게 진정한 위대함으로 이끄는가? “예수님에 대한 간증에 담대한” 것이 어떻게 진정한 위대함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가?

관련 성구

사무엘상 16:7; 디모데전서 4:12; 모사이야서 2:17; 엘마서 17:24~25; 37:6; 모로나이서 10:32; 교리와 성약 12:8; 59:23; 76:5~6; 88:125

교사를 위한 도움말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을 준비할 때, 여러분은 특정한 원리들을 강조하도록 인도될 수 있을 것이다. 특정한 아이디어를 가르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될 수도 있을 것이며, 생활의 단순한 활동에서 사례, 소재, 영감을 주는 이야기 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수업에 도움을 줄 특별한 사람을 초대하겠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개인적인 경험담이 떠오를 수도 있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 48쪽)

주

1. “진정한 위대함” 성도의 벗, 1988년 2월호, 21쪽.
2. James E. Faust, “Howard W. Hunter: Man of God,” *Ensign*, Apr. 1995, 28.
3. “President Howard W. Hunter: The Lord’s ‘Good and Faithful Servant,’” *Ensign*, Apr. 1995, 9, 16.
4. “진정한 위대함”, 70쪽.
5. “진정한 위대함”, 70~71쪽.
6. “진정한 위대함”, 71쪽.
7. “진정한 위대함”, 71~72쪽.
8. “진정한 위대함”, 72쪽.
9. “진정한 위대함”, 72쪽.
10. “진정한 위대함”, 72쪽.



“우리 모두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 그 비유의 메시지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십시오

“저활동 회원에게 손을 내밀어 여러분과 여러분이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임할 기쁨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생애에서

하워드 더블유 헌터는 교회 회장이 된 다음 날, 활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교회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랑 어린 초대를 보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혹은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난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다시 돌아오십시오. 마음의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며, 두려워하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곁에 서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드리겠습니다. 온갖 잘못된 정보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모든 진리의 하나님께, 그리고 지속적인 계시가 있는 교회로 오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우리 곁에 서십시오. 계속 나아가십시오. 믿으십시오. 모든 것이 좋아지고 잘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여러분 앞에 주어지는 축복을 흠족히 취하시고 그 축복을 주신 선한 목자를 따르도록 노력하십시오. 소망을 갖고, 신앙을 행사하고,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주고받으십시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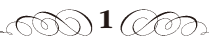
몇 달 후 교회 회장으로서 처음으로 참석한 연차 대회에서 헌터 회장은 계속 이것을 강조하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을 전했다. “돌아오십시오.” 그는 반복해서 말했다. “와서 나를 따르라’는 [구주]의 권고를 그대로 따르십시오. 그분이야말로 유일하게 분명한 길이시며 세상의 빛이십니다.”²

헌터 회장은 생애 동안 많은 교회 회원들이 다시 활동화되는 데 많은 공헌을 했다. 그는 갓 성인이 되었을 때 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했다.

“감독님은 교회에서 자기가 가장 나이 많은 집사일 거라고 자랑하듯 말하는 한 형제님의 와드 교사로 저를 지명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의 가

정 복음 교육과 같은 와드 복음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님의 문제는 일요일에 골프 치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매달 그 형제님 내외를 만나 보았지만, 그분들에게서 눈에 띄는 변화를 보지 못해 저는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저는 그 형제님에게 딱 맞는 어떤 말을 했고, 형제님은 그것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성약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침례 성약이 형제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형제님의 태도가 바뀌었고, 그분은 처음으로 진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그 형제님은 공과반에 참석했고, 골프를 포기했으며, 아내를 성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³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가르침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라고 가르친다.

제일회장단은 교회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초대를 했습니다.

“한때는 활동적인 회원이었다가 비판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 분들에게 우리는 말씀드립니다. 돌아오십시오. 돌아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고 성도들과 함께 사랑스럽고 만족스러운 우정의 열매를 다시 맛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교회로 돌아가기를 바라면서도 그 일을 실행하는 데에는 어색함을 느끼고 있으리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도움을 주고자 하는 손길을 찾게 되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Ensign, Mar. 1986, p. 88)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보내신 초청에 관해 선지자 엘마가 물몬경에서 언급한 것과 비슷한, [제일회장단의] 이 관대한 초대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엘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그는 만인에게 초청을 보내시나니, 이는 자비의 팔이 그들을 향하여 퍼져 있음이라, 그가 이르시되,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참으로 그가 이르시되, 내게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게 되리니, 참으로 너희가 생명의 떡과 물을 마음껏 먹고 마시게 되리라.

참으로 내게 와서 의의 일에서 결실을 거두라.”(엘마서 5:33~35)

우리 모두는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시작되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누가복음 15:4~6] …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조셉 스미스 역 성경에서 한 구절을 크게 수정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들에 가서 잃어버린 것을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조셉 스미스 역, 누가복음 15:4; 강조체 추가)

그 번역은 목자가 안전한 무리를 두고 들에 가서, 즉 잃어버린 자를 찾아 세상에 가는 것을 제안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잃어버려진 것입니까? 바로, 보호와 안전이 있는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 비유의 메시지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⁴

2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부목자가 되어 고통을 겪고 있거나 길을 잃은 사람들을 구하길 바라신다.

들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아흔아홉 마리를 두고 들에 나가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고, 제일회장단은 한때는 활동적이었다가 비판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초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혼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실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활동이 저조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돌아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라는 초대를 그들이 받아들일 때 여러분과 여러분이 도움을 준 사람들이 느낄 기쁨을 경험해 보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부목자가 되어 고통을 겪고 있거나 길을 잃은 사람들을 구하길 바라십니다. 방법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참여하고 영감을 구한다면, 여러분의 지역, 스테이크 및 워드에서 기울인 노력에 따른 결과로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몇몇 스테이크들은 이 요청에 응하여 놀라운 성공을 이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사에는 구주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들어라 오늘도 내게
간절히 하시는 말
나의 품 안에서 떠난
양 찾지 않겠느냐?

자주 부르는 다음 찬송가는 우리가 이에 어떻게 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크고도 넓으신 사랑
베풀어 주시어서
당신의 해매는 양을
찾아가게 하소서
(찬송가 1985, 144장)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⁵

길을 잃은 자, 고집 센 자, 그리고 길에서 벗어난 자를 찾아나서는 것은 주님의 사업입니다. 엘마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청하는 말은 우리의 거룩한 임무를 잘 상기시켜 줍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을 다시 주께로 인도함에 있어 성공을 거두게 해 주시겠나이까.

주여 보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은 귀하며”(엘마서 31:34~35).⁶

3

**우리의 원대한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수년 동안 교회는 저활동된 사람들을 활동화시키기 위해 지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이 승영의 의식을 받는 것을 보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을 때, 저는 보좌들과 함께 감독들에게 교회 안에서 더 발전했으면 하는 네다섯 쌍의 부부를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몇몇은 저활동이었고 다른 몇몇은 새로운 개종자들이었으나 그들은 영적으로 발전하겠다는 동기 부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스테이크 교실에 모아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성전을 강조하기보다는 하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신중한 선택 과정이 있었기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고, 이들 중 대부분의 부부가 활동화되고 성전에 갔습니다.

또 다른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 한 와드에는 모임에 전혀 참석하지 않는 형제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다소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가정 복음 교사를 그 집에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감독은 이 형제에게 다가가 구주와의 관계를 더 넓히고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형제는 감독에게 비회원인 아내의 문제를 설명했고, 감독은 아내에게 같은 방법으로 말하면서 주님과 그의 관계를 더 넓힐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후기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알고 기뻐했으며, 적대감을 다소 누그러뜨렸습니다.

즉각적인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지만, 그 가정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부부에게 주님과 그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이윽고, 아내는 친절해졌고, 마침내 남편과 함께 고등평의원이 가르치는 스테이크 공과에 참석하는 데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침례 시에 맞는 성약과 다른 성약들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교회 회원이 되었으며, 남편은 건설적인 신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

저는 몰몬경 표제지에서 그 거룩한 책의 목적 중의 하나를 설명한 이 말에 감명을 받습니다. “그들로[후기 이스라엘의 자손] 주님의 성약을 알게 하며”(강조체 추가) 우리 스테이크 회장단이 저활동 회원들에게 강조해야겠다고 느낌을 받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주님과 맺은 성약의 중요성을 근거로 그들의 흥미를 끌려고 했고, 침례 성약의 중요성과 그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결합시켜 줄 수 있는 다른 성약들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쳤습니다.⁷

지역의 단위 조직 차원에서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교회의 모든 목적은 개인들이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자격을 갖추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을 다시 주께로 인도함에 있어 성공을 거두게 해 주시겠나이까. 주여 보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은 귀하며”(엘마서 31:34~35)

다. 그것은 성전에서 의식을 받고 성약을 맺음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⁸

우리는 온 인류가 복음의 의식과 구원 성약을 알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 사업을 통해서 비회원을 그러한 길로 인도하고, 우정 증진과 활동화 노력을 통해서 저활동 회원을 활동화시킵니다. 또 활동 회원들은 교회 참여와 봉사를 통해서, 회장 너머 돌아가신 분들은 죽은 자를 위한 구속 사업을 통해서 그러한 목표를 이루고 있습니다.⁹

우리는 교회 각 개별 회원을 위한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복음의 의식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약을 맺어서 그분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대한 목적입니다. 의식과 성약은 우리를 그분의 면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 줄 신성한 본질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

그 목적, 즉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도록 권할 것을 명심하십시오. ...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으로 그분께 나아갈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분의 신성과 권능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의식과 성령으로 각 개인은 깨끗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¹⁰

학습 및 교수 제언

질문

- 헌터 회장은 모든 교회 회원에게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읽고 또 읽으라고 권유했다.(1편; 누가복음 15:4~7 참조) 그 비유와 1편에 있는 다른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은 무슨 메시지를 받는가? 이 가르침이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 어떻게 여러분에게 지침이 될 수 있는지 고려해 본다.
- 주님의 부목자로서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2편 참조) 우리는 사람들이 교회 활동으로 돌아오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힘들어하거나 길을 잃었을” 때 손을 내밀어 준 누군가를 통해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 지인의 경험을 나누어도 좋다.
- 3편에 언급된 헌터 회장의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성약을 강조하는 것이 어떻게 교회 회원들이 활동화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관련 성구

에스겔 34:1~16; 누가복음 15:11~32; 요한복음 10:1~16, 26~28; 13:35; 요한1서 1:7; 모사이야서 18:8~10; 힐라맨서 6:3; 제3니파이 18:32; 모로나이서 6:4~6; 교리와 성약 38:24

학습을 위한 도움말

원리란 결정과 행동을 인도하는 진리이다. “경전을 읽을 때, 이렇게 자문해 본다. ‘이 구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경전 원리는 무엇인가? 이것을 나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999], 17쪽)

주

1. Jay M. Todd, “President Howard W. Hunter: Fourteenth President of the Church,” *Ensign*, July 1994, 5.
2.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7쪽.
3. “Make Us Thy True Undershepherds,” *Ensign*, Sept. 1986, 9.
4. “Make Us Thy True Undershepherds,” 7-8.
5. “Make Us Thy True Undershepherds,” 9.
6. “The Mission of the Church”(1990년 지역 대표 세미나에서 전한 말씀), 4.
7. “Make Us Thy True Undershepherds,” 8-9.
8.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ed. Clyde J. Williams(1997), 218.
9.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245-46.
10.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218.



애리조나 메사 성전은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이 1953년에 부모에게 인봉된 곳이다.



성전-우리가 교회 회원임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상징

“저는 모든 교회 회원들이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되기를 마음속 깊이 소망합니다.”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생애에서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어머니는 평생 동안 충실한 교회 회원이었지만 아버지는 하워드가 19세가 되기까지 침례를 받지 않았다. 수 년 후, 하워드가 캘리포니아 스테이크 회장이 되었을 때 그곳 스테이크 회원들은 성전 사업을 하기 위해 애리조나 메사까지 여행했다. 의식이 시작되기 전에 성전 회장이 헌터 회장에게 예배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날은 헌터 회장의 46세 생일이기도 했다. 그 경험을 그는 후에 이렇게 기록했다.

“회원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흰옷을 입고 예배당에 들어오셨다. 어머니는 얼마 전부터 성전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셨지만 아버지가 성전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나는 가슴 깊이 감동이 밀려와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피어스 회장[성전 회장]님이 내 옆에 와서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날 아침 성전에 도착해서, 성전 회장님에게 그들이 성전에 온 것을 나에게 말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부모님은 아들의 생일에 깜짝 선물을 해 주고 싶었던 것이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생일이었다. 왜냐하면 그날 부모님은 엔다우먼트를 받으셨고, 그 뒤에 내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두 분이 부부 인봉을 받으셨으며, 그다음으로는 나도 우리 부모님에게 인봉되었기 때문이다.”¹

40여 년이 지난 후 하워드 더블유 헌터가 교회 회장으로 처음 공식적인 말씀을 전했을 때 그의 주요 메시지는 교회 회원들이 더 큰 헌신으로 성전 축복을 추구하라는 것이었다.² 그는 그 메시지를 교회 회장으로 봉사하는 내내 계속 강조했다. 1994년 6월 나부 성전 부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했다.

“이달 초에 저는 봉사를 시작하면서, 좀 더 많은 교회 회원들이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시대에 그랬듯이, 합당하고 엔다우먼트를 받은 회원들은 온 세상에 왕국을 건설하는 열쇠가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다는 것은 확실히 우리의 생활이 주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삶에서 그분의 인도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³

몇 달 후 1995년 1월에 헌터 회장의 마지막 공식 행사는 유타 바운티폴 성전 헌납식이었다. 헌납 기도에서 그는 성전 축복이 성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기를 간구했다.

“당신께서 이를 받아 주시고 당신의 축복이 함께 늘 거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겸손하게 기도드리나이다. 여기에서 의식을 수행하는 모두에게 당신의 영이 임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모든 방마다 거룩함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청결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지니기를 바라옵나이다. 그들이 신앙을 강화하고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며, 화평의 영을 지니고 돌아가기를 바라옵나이다. ...

이 집의 장엄함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특별히 자신의 거룩한 의식을 위해서나 휘장 너머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의식을 수행하고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당신의 신성한 사랑과 자비를 느끼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전서 시편의 저자가 말했듯이, 그들이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라고 말하는 특권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이 성스러운 건물을 헌납하며 저희의 생명도 당신과 당신의 사업에 재헌납드리옵나이다.”⁴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가르침

1

우리는 성전을 교회 회원임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상징으로 삼을 것을 권고받았다.

이 성스러운 부름[교회 회장]을 받았을 때, 저는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주님의 성전을 교회 회원임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상징으로서, 그리고 가장 성스러운 성약을 위한 영적인 장소로 삼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제가 성전을 생각할 때면, 이러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심오한 진리들이 밝혀지는 가르침의 장소이다. 성전은 우리의 마음을 영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고 세상의 근심을 떨쳐 버릴 수 있는 평안의 장소이다.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성약을 맺는 곳이며, 우리가 항상 충실하다면, 영원한 약속이 주어진다.”(*The Priesthood and You*, Melchizedek Priesthood Lessons—1966, Salt Lake Cit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1966, p. 293)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계시들을 통해, 성전을 교회 회원을 위한 중요한 상징으로 만드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커틀랜드 성도들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그들에게 주신 권고에 언급된 태도와 의로운 행동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너희 자신을 조직하라.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집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교리와 성약 88:119) 이러한 태도와 행동이 우리 각자가 되고자 소망하고 구하는 것을 참으로 잘 반영하고 있습니까? …

정말로 성전이 우리에게 하나의 상징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그것을 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분의 가르침과 모범을 우리를 위한 최고의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되고 평생토록 변함없이 충실하게 생활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행동과 믿음에 관한 유일하고 성스러운 표준을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든지 시장에 있든지, 학생이든지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된 사람이든지, 모든 일을 완전히 혼자 하고 있든지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든지, 우리의 나아갈 길은 분명할 것이며 우리의 표준도 명확할 것입니다.

자신이 세운 원리를 지키고 자신의 신념에 충실하게 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개인 생활에서, 우리 가족 및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고 영향을 주는 모든 장소에서 참된 원리에 헌신하는 것, 그 헌신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의 원리들에 진심으로 헌신하고 영원토록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원리에 충실하고 참되면, 우리는 언제나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될 것이며, 주님

의 거룩한 성전은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 주는 중요한 상징이 될 것입니다.⁵

2

우리 각자는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저는 모든 교회 회원이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되기를 마음속 깊이 소망합니다. 모든 성인 회원이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하게 되고, 또 소지한다면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 개인이나 가족을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것들입니다.⁶

우리 하늘 아버지는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깨끗하고 세상의 죄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나를 위하여 집 한 채를 짓고 어떠한 부정한 것도 그 안에 들어움을 용납하지 아니하여 그 집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는 만큼 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 것이요 … 그러나 그 집이 더럽혀지면, 나는 그 안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요, 나의 영광도 그 곳에 있지 아니하리니”(교리와 성약 97:15, 17).

전에는 교회 회장이 모든 성전 추천서에 각각 서명을 했었다는 것을 알면 흥미로운 것입니다. 그것은 초기 회장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합당성에 대해 얼마나 강하게 느끼셨는지를 보여 줍니다. 하지만 1891년부터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이 그 책임을 받았고, 그들은 성전 추천서를 받을 자격을 결정하는 여러분의 합당성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전 추천서를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어야 합니다. 이 일이 그분들의 거룩하고 신성한 사업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쌓기 위해 매일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느끼는 영은 바로 여러분에게 그분들의 실재성을 간증해 주는 성신입니다. 나중에 성전에서 여러분은 계시된 가르침과 의식을 통해 신화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총관리 역원들과 지역 역원들을 지지해야 합니다. 그 지도자들의 이름이 제시될 때 여러분이 팔을 직각으로 올리는 것은 그들의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은 여러분이 성전 추천서를 받을 자격과 관련된 합당성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책임과 그들이 여러분에게 주는 권고의 말씀과 관련하여 그들을 지지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리하도록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표시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들 및 다른 직원들을 총관리 직원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감리 역원의 지시를 따르겠다는 다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감독, 스테이크 회장 및 다른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충성심을 느껴야 합니다. 권세를 받은 사람들을 지지하지 못하는 것은 성전 봉사와 상충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순결의 법은 남편이나 아내 이외 누구와도 성적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도덕적 순결을 더럽히기 위한 사탄의 유혹에 대비해 조심하십시오.

가족 관계의 어떤 면에서도 교회의 가르침과 위배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청소년 여러분] 의로움 가운데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십시오. 부모님들은 가족 관계에서 복음의 가르침과 일치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 결코 가족을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하는 모든 거래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후기 성도로서 절대로 누군가를 속이거나 부정직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성약을 어길 때 우리의 기본적인 고결성을 잃을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하게 되려면, 성찬식, 신권회 및 다른 모임에 참석하는 것과 같은 교회에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또한 복음의 계명, 율법 및 규칙에 순종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부름 및 다른 책임을 받아들이는 법을 ...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와드와 지부에서 활동적인 참여자가 되고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온전한 십일조를 내고 지혜의 말씀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크게 중요한 이 두 가지 계명은 우리의 개인적인 합당성을 증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충실하게 십일조를 바치고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대체로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는 것과 연관된 다른 문제에서도 충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랫동안 보아 왔습니다.

이것들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문제들입니다.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 어느 곳보다도 가장 거룩하게 거행되는 의식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의식들은 영원한 것들과 관련된 것입니다.⁷

3

성전 사업을 행하는 것은 개인 및 가족에게 큰 축복을 가져다준다.

자신의 축복을 위해 성전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지닌다는 것은 얼마나 영화로운 일입니까? 자신의 축복을 위해 성전으로 간 다음에, 우리보다 앞서 돌아가신 사람들을 위해 성전 사업을 행하는 것은 얼마나 영화로운 특권입니까? 성전 사업은 이타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성전 사업을 행할 때마다 우리에게도 축복이 돌아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의욕적으로 성전에 참여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에 우리가 놀라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

돌아가신 친족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성전 예배를 통해 개인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즉 거룩하고 성결한 성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신성함과 안전을 누리기 위해 우리 모두 성전으로 갑시다. 성전에 참여함에 따라 우

리는 더욱더 충만하고 심오하게 인생의 목적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전 예배와 성전 성약, 그리고 성전 결혼을 함으로써 성전을 우리의 궁극적인 지상 목표로 삼고, 필멸의 생에서 최고의 경험을 하는 곳으로 만듭시다.⁸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성전에서 다음의 몇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시에 순응하여 자신을 위한 의식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인봉 의식을 함으로써 가족을 축복하고 또한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대신 행해 줌으로써 다른 사람과 축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각을 고양하고, 주님과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신권을 영예롭게 해야 하며,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⁹

성전에 참석할 때 우리는 개인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성전에 참석함으로써 우리의 생활이 얼마나 축복받는지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존 에이 윌소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사업은 … 우리의 영적인 지식과 힘을 지속해 나아갈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 우리는 성전 안에서 영원에 관한 위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과 끝이 없는 무한한 시간을 봅니다. 그리고 영생의 드라마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런 다음, 저는 우주의 여러 사물 한 가운데에 있는 저의 위치, 즉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에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을 분명하게 봅니다. 사소한 일들로 압박받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위대한 것들에 대한 비전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는 제가 속한 곳에서 저 자신의 위치를 더 잘 정할 수 있으며, 제 삶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의무를 더 잘 평가하고, 검토하고, 분리하고, 조직할 수 있습니다.” (Conference Report, Apr. 1922, pp. 97-98)¹⁰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계시를 받아 커틀랜드 성전을 헌납하며 드렸던 그 위대한 기도의 훌륭한 가르침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도는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도록 주님께서 주신 신권의 권능을 통해 개인에게, 가족에게, 백성에게 계속해서 응답되고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이제,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당신께 비옵나니, 당신의 은혜로써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도우사, … 또 당신 보시기에 우리가 합당한 자로 발견되도록 이루어지게 하사, 우리에게 주신 계시 가운데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인 우리에게 맺으신 그 약속의 성취를 확실히 얻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영광이 당신의 백성 위에 ... 머물게 하시고, ...

또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는 당신께 비옵나니, 당신의 종들이 당신의 권능으로 무장하여 이 집에서 나아가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이 그들 위에 있게 하시며, 당신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있게 하시며, 당신의 천사들이 그들을 돌보게 하시고”[교리와 성약 109:10~12, 22].¹¹

성전 참석은 영성을 키워 줍니다. 우리 영성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가장 훌륭한 교회 프로그램은 성전 참석입니다. 이것은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의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합니다.(말라기 4:6) 이것은 가족의 결속과 단합을 증진시켜 줍니다.¹²

4

서둘러 성전으로 갑시다.

우리가 성전에서 느낀 영적인 느낌들을 자녀와 함께 나눕시다. 그리고 주님의 집의 목적에 대해 우리가 적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열심히, 또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가르칩시다. 성전 사진을 자녀가 볼 수 있도록 집 안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주님의 집의 목적을 가르치십시오. 자녀가 성전에 가기 위한 준비를 어릴 때부터 하도록, 또한 그러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선교사들을 준비시켜 합당하게 성전에 가고 그 경험인 선교사 부름을 받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집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가르치며 간구합시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결혼하고, 또 어떤 권세로 남편과 아내가 되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과거에 우리가 강조했던 것보다 더욱더 강력하게 다시 이야기합시다.¹³

우리의 청소년들이 합당하게 성전에 가서 생전에 침례를 받을 기회를 갖지 못했던 이들을 위해 대리 침례를 받을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합당한 상태에서 성전에 참석하여 주님과 개인적으로 성약을 맺고 부부 인봉과 가족 인봉을 받을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합당하게 성전에 가서 이미 사망한 사람들, 바로 자신을 대신해 누군가 의식을 받아 주길 애타게 기다려 온 많은 이들을 위해 그와 같은 구원의 의식을 받을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¹⁴

자신의 성전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지 않은 분들에게 겸손하게 권유하건대, 주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을 향해 노력하십시오. 자신의 성약에 충실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나의 백성이 내 음성과 내 백성을 인도하도록 내가 임명한 나의 종들의 음성을 들으면,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자리에서 옮겨지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124:45) ... 정기적으로 성전에 참석한다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성, 남편 또는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가족 관계가 축복받고 강화될 것임을 약속합니다.”¹⁵

성전에 자주 참석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시간과 재정과 개인 사정이 허락하는 한 자주 성전에 갑시다. 돌아가신 친족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성전 예배를 통해 개인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즉 거룩하고 성결한 성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신성함과 안전을 누리기 위해 성전으로 갑시다. 성전은 아름다운 장소요, 계시의 장소이며, 평화의 장소입니다. 성전은 주님의 집입니다. 성전은 주님께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은 우리에게도 거룩한 곳이어야 합니다.¹⁶

학습 및 교수 제언

질문

- 1편에 있는 헌터 회장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해 본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성전을 [우리가] 교회 회원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으로” 세울 수 있는가?
- 2편에 언급된 대로 성전 추천서를 받기 위한 요구 사항을 복습한다. 이러한 요구 사항대로 생활하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해 주는가?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 왜 “깨끗하고 세상의 죄에 속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 요구되는가?
- 성전 사업을 수행하는 축복에 관한 헌터 회장의 가르침을 복습한다.(3편 참조) 성전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해 주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성전 축복으로부터 좀 더 충만하게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성전에서 영적인 힘이나 인도를 느낀 때에 대해 나눠 줄 수 있는가? 아직 성전에 간 적이 없다면 어떻게 그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본다.
- 어린이와 청소년이 성전에 대해 배우고 사랑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4편 참조) 어린이와 청소년이 주님의 집에서 결혼하려는 소망을 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시간과 재정과 개인 사정이 허락하는 한 자주” 성전에 가는 것은 왜 중요한가?

관련 성구

시편 55:14; 이사야 2:2~3; 교리와 성약 97:12~17; 110:6~10; 124:39~41; 138:53~54; Bible Dictionary, "Temple"

교사를 위한 도움말

“공과에는 주어진 시간 내에 가르치기에는 좀 많은 양의 자료가 담겨 있을 때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반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자료를 선정해야 한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 98쪽)

주

1. Eleanor Knowles, *Howard W. Hunter*, (1994), 135.
2. Jay M. Todd, "President Howard W. Hunter: Fourteenth President of the Church," *Ensign*, July 1994, 4-5 참조.
3. "The Temple of Nauvoo," *Ensign*, Sept. 1994, 62-63.
4. Text of the Bountiful Utah Temple dedicatory prayer, "'Magnificent Edifice' Consecrated to [the] Lord," *Church News*, Jan. 14, 1995, 4.
5. "우리가 교회 회원임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상징", *성도의 빛*, 1994년 11월호, 4, 6쪽.
6.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성도의 빛*, 1995년 1월호, 7쪽.
7. "Your Temple Recommend," *New Era*, Apr. 1995, 6-9.
8. "성전 참여를 권유받는 사람들", *성도의 빛*, 1995년 5월호, 5쪽.
9.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ed. Clyde J. Williams(1997), 240.
10.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도의 빛*, 1995년 7월호, 86쪽.
11. "우리가 교회 회원임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상징", 4쪽.
12.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239-40.
13. "성전 의식 참여를 권고받는 사람들", 5쪽.
14. "우리가 교회 회원임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상징", 6쪽.
15.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240-41.
16. "우리가 교회 회원임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상징", 6쪽.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을 서두름

“우리가 가족 역사 연구와 성전 사업을 하라는 계명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분명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생애에서

가족 역사는 항상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에게 중요했다. 헌터 회장은 어린 소년이었을 때부터 조상에 관한 이야기에 큰 흥미를 갖고 들었다. 나이가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가족 역사를 연구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다.¹ 1972년 교회 지명을 받고 유럽에 있었을 때 그는 아내 클레어와 함께 자신의 조상이 살았던 덴마크에 있는 여러 곳을 방문했다. 한 마을에서 그들은 헌터 회장의 고조부인 라스무센이 기독교도가 되고 가족이 예배를 본 교회를 찾았다. 이 경험으로 헌터 회장은 외가족 조상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깊어졌다. 그는 다른 조상들이 살았던 노르웨이와 스코틀랜드의 여러 곳에도 이와 같은 방문을 했다.²

헌터 회장의 아들인 리처드는 가족 역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회상했다.

“아버지는 온 생애 동안 열성적인 조사자이셨습니다. 변호사 일을 하시면서 자주 시간을 내셔서 로스앤젤레스 공공 도서관에 가서서 광범위한 계보 구역에서 조사를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조사한 것과 가족 그룹 시트, 가계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록하신 역사 설명서들을 장부에 보관하셨습니다.

“때때로 저는 아버지와 지명받은 여러 대회에 함께 갈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많은 장부들을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스테이크 대회가 끝나면 이렇게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이] 친척 집에 잠시 들르자꾸나. 확인해 볼 날 짜들이 있다.’ 우리는 그 친척 집으로 갔습니다. 아버지는 장부들을 트렁크에서 꺼내셨고 식탁은 곧 가족 그룹 시트들로 뒤덮였습니다.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부모인 존 윌리엄(윌) 헌터와 벨리 마리 라스무센 헌터

“가족의 일원 중에 자신이 조사한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하고 싶은 사람은 아버지에게 전화하거나 편지를 써서 사실을 확인했는데, 그것은 아버지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 주시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정말 엄청난습니다.”³

한번은 헌터 회장이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하고 있었을 때 가정 복음 교사가 방문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장로님께 우리가 준비한 가족 그룹 시트를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 오늘 저녁 장로님의 것을 볼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방문할 때 그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에게 참으로 흥미로운 제안이었습니다.” 헌터 회장은 말했다. “나는 한 달 동안 가정 복음 교사들의 방문을 준비했습니다.”⁴

하워드 더블유 헌터는 1964년부터 1972년까지 유타 계보 협회를 관장했다.(19쪽 참조) 1994년에 헌터 회장에게 경의를 표하고 계보 협회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모임에서 헌터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내일이면 87세 생일을 맞이하는 이 저녁에 저는 주님께서 성전과 가족 역사 사업을 증진시키는 데에서 이루신 방법을 경이롭게 돌아봅니다. 제가 유타 계보 협회 회장이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사업이 빨리 진척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 세계에 걸쳐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복음이 나아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성전이 온 세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엘리야의 영이 많은 회원의 마음을 움직여, 회원들이 놀라운 속도로 가족 역사와 성전 의식 사업을 행하고 있습니다.”⁵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가르침

1

성전은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과 승영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 세워졌다.

성전은 주님과 거룩한 신권의 가장 고귀하고 신성한 의식을 받는 사람들이 가장 밀접하게 영적인 교통을 하는 신성한 곳입니다. 지상의 것을 하늘의 것과 맺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 하나님의 위대한 가족은 복음의 구원 의식을 통하여 하나가 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의식과 산 자를 위한 의식을 집행하는 것이 성전의 목적입니다.⁶

후기 성도들이 세상에 선포하는 복음은 이 경륜의 시대에 지상에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이 복음은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의 구원과 승영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을 직접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필수 요건들 중 하나가 바로 다른 장소에서는 집행될 수 없는 의식들을 집행하기 위해 성전을 건립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성전을 구경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오는 방문객들에게 이러한 점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받게 되는 질문은 “성전에서는 어떤 의식이 집행되니까?”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침례

이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는 종종 제일 먼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로 알려진 의식을 설명하여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5)고 말씀하셨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죽게 되면 주님의 면전에서 그 즉시 우리의 상태가 영원히 결정된다고 믿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많은 사람들이 침례 의식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따라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기회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공의로우신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정답은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입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구주의 말씀은 침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에게도 침례가 행하여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후기의 선지자들은 침례가 살아 있는 사람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 있는 지상에서의 의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만이 이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떻게 죽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를 주제로 하여 고린도 지방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고린도전서 15:29)⁷

침례를 받지 못하고 이 지상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라 하여 영원히 그러한 기회를 잃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살아 있는 사람이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베푸는 것이 부당합니까?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사업의 가장 훌륭한 모범을 보이신 분은 구주 자신일 것입니다. 그는 속죄를 행하여 자신을 희생하셨고 모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 자신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를 위해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생전에 의식을 받지 못한 자를 위하여 의식을 행할 수 있습니다.⁸

엔다우먼트

우리의 성전에서 집행되는 또 다른 의식으로 엔다우먼트가 있습니다. 이 의식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련의 가르침이고, 두 번째는 엔다우먼트를 받는 사람이 맺는 약속, 즉 성약으로서, 의롭게 생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순종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엔다우먼트는 살아 있는 성도와 사망한 성도 모두에게 위대한 축복을 주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 또한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 집행되는 의식으로, 이미 침례가 행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행해집니다.

해의 왕국의 결혼

또 다른 의식으로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영원히 인봉되는 해의 왕국의 결혼 의식입니다. 우리는 일반 결혼이 죽음과 함께 끝을 맺지만, 성전에서 집행되는 영원한 결혼은 영원히 지속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결혼 이후에 남편과 아내에게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그 부모들에게 영원히 인봉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인봉되기 전에 자녀들이 태어났다면, 이들을 그 부모에게 영원히 인봉할 수 있는 성전 인봉 의식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대리도 이미 돌아가신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인봉될 수도 있습니다. …

이 모든 신권 성전 의식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들의 구원과 승영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⁹



가족 역사 사업의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성전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참으로 장막 이편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수행해야 할 위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 우리는 성전을 세우는 일이 우리 자신과 인류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임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우리의 책임 또한 명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승영에 필요한 신권 성전 의식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후

생전에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 일을 행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단계는 자신의 조상들의 이름을 찾기 위한 가족 역사 탐구이며, 두 번째 단계는 살아 있는 사람들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기회를 그들에게 주기 위하여 성전 의식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을 방문하는 데 제한이 있는 회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 역사 탐구를 하며 다른 사람에 의해 성전 의식 사업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어떤 회원들은 성전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들 자신의 가족 계보에 대한 가족 역사 탐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가운데 성스러운 봉사를 하고 있기는 하나, 후기의 선지자들이 성스럽게 지시한 것과는 달리 자신의 죽은 친족들을 찾지 아니함으로써 축복을 잃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러한 상황과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이 떠오릅니다. 금식 간증 모임이 끝날 즈음, 감독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사람들이 해 주신 간증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영적인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가 주님의 율법에 따라 금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음식과 음료를 취하지 않고 금식을 한다는 점과, 이를 통해 우리보다 불우한 처지의 사람들을 위해 헌금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 중의 어떤 분도 축복의 반만을 가지고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족 역사 조사를 하고 나서 자신들이 찾은 이름을 위해 성전 의식 사업을 행하는 분들은 반쪽만이 아닌 온전한 축복을 받는 더욱 큰 기쁨을 누리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후기 성도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찾아 그들이 영의 세계에 있는 영옥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성전으로 가 의식을 집행하여 주기를 약속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이 가득한 이 중요한 일을 행하여 기쁨을 얻어야 합니다.”¹⁰

가족 역사 사업의 목적은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성전 축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참여하여 죽은 자를 위한 사업을 수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강한 유대감을 가질 수 있고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계획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될



“진실로 성전에서 행해지는 사업과 견줄 수 있는 사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것입니다. 진실로 성전에서 행해지는 사업과 견줄 수 있는 사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¹¹

3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을 서두르는 일에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사업을 행할 때 다음과 같이 선언하신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의 영감어린 조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통해 속박의 굴레가 풀리고, 그들을 둘러싼 어둠이 걷히고 빛이 그들 위에 비칠 것이며, 그들의 자녀가 이곳에서 자신들을 위해 행한 것에 대해 영의 세계에서 듣고 기뻐할 것입니다.”[1916년 10월 대회 보고, 6쪽에서]¹²

이 거룩한 사업[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은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가슴과 마음 속에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는 총관리 역원들을 대신해서 장막 너머에 계신 분들을 위한 구원 의식을 베푸는 데 크게 기여한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전 세계에서 이 사업을 증진시키고 집행하고 있는 자원 봉사자 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토록 훌륭하게 수행하고 계신 모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최대의 책임은 죽은 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475쪽] 그는 또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은 친척들을 위한 그 일을 게을리하는 성도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위태롭게 합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472쪽]

브리검 영 회장은 이 중요한 계시에 대해 이해를 같이 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구주의 사업이 주님의 임무 영역 내에서 중요하듯이 우리 임무 영역에서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 없이 완전하게 될 수 없으며, 우리도 그들 없이는 완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마치고 이제는 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는데 이것은 인간이 지상에서 집행했던 가장 위대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Discourses of Brigham Young*, sel. John A. Widtsoe, Salt Lake City: Deseret Book Co., 1941, p. 406)

조셉 스미스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를 인도해 온 모든 선지자는 이 같은 고귀한 진리를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교회는 이 경륜의 시대가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지상에서 언제 살았든지간에 그들을 위한 구원과 승영 사업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경륜의 시대에 지상에서 그분의 대리인이 되도록 지명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자손에 속합니다. 후기에 시온 산의 구주가 되는 거룩한 권세가 우리 손에 놓여 있습니다.[오바다 1:21]

성전과 가족 역사 사업과 관련하여 들려드리고 싶은 최우선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서둘러 행해야 합니다.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며, 그것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작년[1993년]에 우리는 약 5백25만 명을 위해 성전 대리 엔다우먼트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에 약 5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우리 앞에 놓인 일이 헛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을 헛된 노력이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족 역사 연구와 성전 사업을 하라는 계명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분명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위대한 성전 사업과 그것을 지원하는 모든 사업은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을 서두르는 일에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성전의 일과 내가 너희에게 지정해 준 모든 일을 계속하고 그치지 말라. 그리고 너희 부지런함과 너희 불굴의 정신과 인내심과 너희 일을 배가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결단코 너희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127:4)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말씀으로 격려를 드립니다. “형제들아, 이 위대한 대업에 우리가 나아가지 아니하겠느냐? 전진하고 물러서지 말라. 형제들아, 용기를 내라.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가자. 너희 마음으로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땅은 소리를 발하여 노래할지어다. 죽은 자들은 세상에 있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그 옥에서 구속할 수 있도록 제정하신 임마누엘 왕에게 영원한 찬양의 노래를 부를지어다. 이는 옥에 갇힌 자들이 놓여날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128:22)

저는 이 사업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헌신적으로 우리 역할을 다할 때 주님께서 이 사업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실 것을 압니다. 우리가 우리 시대에 완수해야 할 이 위대한 사업에 기여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¹³

학습 및 교수 제안

질문

- 1편에 있는 첫 문장을 깊이 생각해 본다. 성전에서 집행되는 의식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 편의 어떤 내용이 성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목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 여러분은 어떻게 가족 역사 조사와 성전 사업에서 “축복을 반만 받는” 경험을 했는가?(2편 참조) 우리는 어떻게 자녀와 다른 가족 구성원을 이 중요한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는가?
- 3편의 헌터 회장의 가르침을 복습하면서 주님께서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고려해 본다. 주님께서 오늘날 어떻게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을 서두르고 계신가? 우리는 어떻게 이 사업에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가?

관련 성구

이사야 42:6~7; 말라기 4:5~6; 베드로전서 3:18~20; 4:6; 교리와 성약 2편; 110:12~15; 124:28~30; 128:15~18; 138:57~59

학습을 위한 도움말

선지자의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그 가르침이 여러분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 [1999년], 170쪽 참조) 공부하면서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서 염려, 의문 및 어려움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자문해 본다.

주

1. Eleanor Knowles, *Howard W. Hunter*(1994), 186 참조.
2. Francis M. Gibbons, *Howard W. Hunter: Man of Thought and Independence, Prophet of God*(2011), 16-18 참조.
3. Unpublished manuscript by Richard A. Hunter.
4. Knowles, *Howard W. Hunter*, 192.
5. "We Have a Work to Do," *Ensign*, Mar. 1995, 64.
6. "우리가 교회 회원임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상징", *성도의 빛*, 1994년 11월호, 4쪽.
7. "성전 의식 참여를 권고받는 사람들", *리아호나*, 2004년 3월호, 40쪽.
8. "선지자 엘리야", *성도의 빛*, 1972년 6월호, 6쪽.
9. "성전 의식 참여를 권고받는 사람들", 43쪽.
10. "성전 의식 참여를 권고받는 사람들", 43쪽.
11. "We Have a Work to Do," 65.
12. Text of the Bountiful Utah Temple dedicatory prayer, in "'Magnificent Edifice' Consecrated to [the] Lord," *Church News*, Jan. 14, 1995, 4.
13. "We Have a Work to Do," 64-65.



주님의 만찬인 성찬

“떡을 떼고 잔을 들어 이를 축복하시면서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과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줄 하나님의
양으로서의 자신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생애에서

하워드 더블유 헌터는 활동적인 후기 성도 어머니와 그 당시 어느 교회에도 속하지 않았던 훌륭한 아버지 사이에서 자랐다. 그의 아버지는 가족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으며, 자신도 때때로 가족과 함께 성찬식에 참석하기도 했지만, 자녀들이 8세가 되었을 때, 그들이 침례받을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자녀들이 더 나이가 들 때까지는 그런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느꼈다. 하워드는 12세가 되었을 때 아직 침례를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아론 신권을 받지도, 집사에 성임될 수도 없었다. 청남들과 활동에 참여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 성찬을 전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워드는 크게 실망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저는 성찬식에 다른 소년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찬을 전달할 시간이 되면 저는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성찬을 전달하고 싶었지만 침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¹

열두 번째 생일이 지나고 거의 5개월이 지났을 때, 하워드는 침례 허락을 받기 위해 아버지를 설득했다. 침례를 받은 후에 곧 하워드는 집사에 성임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으로 성찬을 전달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두렵긴 했지만 저는 성찬을 전달할 수 있다는 특권에 마음이 설렘니다. 모임이 끝난 후에 감독님은 성찬을 잘 전달했다며 칭찬을 해주셨습니다.”²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로 하워드 더블유 헌터는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다른 총관리 직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성찬 의식에 참여했다. 십이사도 정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누가복음 22:19)

원회에서 헌터 장로와 함께 봉사했던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는 헌터 장로의 성찬 축복 기도문을 들었던 경험을 이렇게 표현했다.

“저는 우리가 성전에서 가졌던 성찬식에서 하워드 더블유 헌터 장로님이 성찬 축복을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모든 교회의 아론 신권 청소년들도 가질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입니다. 그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성찬을 축복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저의 영혼에 깊은 영성을 느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명료하고 의미 깊었으며 서두르지도, 빨리 읽지도 않았습시다. 그는 모든 사도의 대변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습니다.”³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의 거룩한 상징물에 대해 헌터 회장이 온 생애 동안 보였던 경건함을 잘 묘사해 준다.

이 장에 실린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헌터 회장이 성찬과 고대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구주께서 자신의 사도들과 유월절 음식을 나누며 성찬 의식을 소개하신 것을 되새기는 방식으로 교회 회원들이 성찬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음을 알 수 있다.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가르침

1

유월절은 사망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유월절]은 전통적인 모세 율법을 받기 전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경축하기 위한 유대인의 가장 오래된 축제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돌아온 것과 그에 앞서 애굽에서 받은 큰 고통을 모든 세대에게 상기시켜 주며, 종속과 예속의 상태에서 자유와 구원의 상태로 풀려난 사람들의 이주를 기념합니다. 유월절은 자연계가 잠에서 깨어나 생명을 얻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구약의 봄철 축제입니다.

유월절은 기독교계에서 부활절을 지키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유월절 [과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은사와 그에 포함된 희생을 증언합니다. 이 두 가지 위대한 종교적인 기념 행사는 사망이 우리를 “뛰어넘을”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며, 무덤이 승리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시면서 여호와께서는 몸소 시내산의 불붙은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출애굽기 3:7, 10)

바로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재난이 애굽에 임하였으나 여전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었습니다.]”(출애굽기 9:35)

바로가 거절하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멧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출애굽기 11:5).

애굽인들에게 가해진 최후의 가장 무서운 이 형벌에 대한 보호 조치로, 주님은 이스라엘 자녀들은 누구나 흠 없는 양 한 마리씩을 취하도록 모세에게 이르셨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와의 유월절이니라 ...

이 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출애굽기 12:7~8, 11, 26~27).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아귀와 애굽인의 장자에게 임한 사망에서 탈출한 후, 마침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 쳤고 그 달 십사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여호수아 5:10). 그 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요셉과 마리아와 어린 소년 예수도 그러하였습니다.⁴

2

구주께서는 유월절을 기념하는 축제 기간에 성찬 의식을 제정하셨다.

요한복음에 분명히 밝혀 있듯이,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지상 성역에서 획기적인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성역 기간 중 첫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은 성전 문에서 환전상과 동물 파는 사람들을 내쫓아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알리셨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은 떡과 생선으로 기적을 베푸시어 자신의 능력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여기서 후에 다락방에서 더욱 큰 의미를 띠게 될 상징을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한복음 6:35).

물론 그것은 이러한 고대의 축하 행사를 완전히 표현하게 될 마지막 유월절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 성역 마지막 주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 특별한 유월절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마태복음 26:1~2).

어떤 사태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를 분명히 아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르시어 집 주인에게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누가복음 22:11)라고 물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탄생 때의 외로움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망 시에 반복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탄생하실 때에도 지상에서 보내는 마지막 시간에도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마태복음 8:20 참조]

마침내, 거의 1500년의 전통을 지켜 온 유월절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앉아 이 고대 축일의 전통 음식인 희생양과 빵과 포도주를 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대의 축복에 대한 더 새롭고 거룩한 의미를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떡을 떼고 잔을 들어 이를 축복하시면서 그분은 영적인 양식과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줄 하나님의 양으로서의 자신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둥글고 넓적한 무교병 하나를 들어 축복하신 후,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누가복음 22:19)

주님은 잔이 가득 차자 그것을 들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시라고 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누가복음 22:20)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린도전서 11:26)

고기나 풀보다는 떡과 포도주가 위대한 어린 양의 살과 피의 상징물, 즉 그분을 영원히 기념하여 경건하게 먹고 마시는 상징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인상적인 방법으로, 구주는 주님의 만찬, 즉 성찬으로 현재 알려진 의식을 제정하셨습니다. 겐세마네에서 고난을 겪고 갈보리에서 희생을 치르며 동산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고대의 율법을 완성시키고 새로운 경륜의 시대의 문을 열어 희생의 율법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인간은 더는 그들의 가족에서 처음 난 양을 바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장자가 “무한하고 영원한 희생물”로 자신을 바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속죄와 부활의 장엄함이며, 죽음을 넘어서신 것일 뿐만 아니라 무한한 희생을 통한 영생의 은사입니다.⁵

고대의 보호 성약(유월절 음식)을 지키는 가운데 예수께서 새로운 안전 성약의 상징물, 곧 자신의 살과 피의 상징물을 제정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적절한 일입니까? 떡을 떼고 잔을 들어 이를 축복하시면서 그분은 영적인 양식과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줄 하나님의 양으로서의 자신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⁶

3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맺은 성약을 새롭게 하는 기회이다.

얼마 전에 저는 ... 제가 속해 있는 와드의 성찬식에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찬송을 부르는 동안 제사들이 성찬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기도 들으시고
은혜 내려 주소서
우리 성찬 취할 때
주님 사랑에 편히 쉬리
[찬송가, 114장]

한 제사는 준비된 떡을 축복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당신 아들의 몸을 기억하여 먹게 하시옵고,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또한 저희가 기꺼이 당신 아들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가 저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자 함을 증거하게 하시오며” (교리와 성약 20:77). 집사들은 예배당 전체에 나뉘어 떼어진 빵을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한 소년이 우리가 앉은 좌석으로 와서 하얀 성찬기를 저에게 내밀었고 저는 성찬을 취했습니다. 저도 역시 헌터 자매가 성찬을 취할 때 그것을 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헌터 자매는 다음 사람이 성찬

을 들 수 있도록 그것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성찬기를 옆으로 돌리면서 사람들은 성찬을 취했습니다.

저는 거의 2천 년 전에 예수께서 배신당하신 저녁에 일어났던 일을 생각했습니다. … 주의 만찬, 즉 성찬은 [동물] 희생을 대신하는데, 이것을 취하는 자들은 모두 주께서 자기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끝까지 충실하겠다고 성약을 맺은 것을 기억하도록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생각하면서 저는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에 보낸 서한에 쓴 훈계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린도전서 11:27~29).

저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저는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 더 상위에 두고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가?” 그리고 저는 반성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주님과 성약을 맺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중대한 의무이며, 성찬을 취함으로써 그 성약을 새롭게 하는 것은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성찬이 집행될 동안 잠시 깊은 명상에 잠기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자기 성찰과 자기 통찰, 즉 반성과 결심의 시간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제사가 무릎을 꿇고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흘리신, 당신 아들의 피를 기억하여 … 마시게 하시옵고 … 또한 저희가 항상 그를 기억함을 증거하게 하시옵고, 그리하여 저희가 그의 영광 함께 하도록 하시옵소서”(교리와 성약 20:79).

조용한 명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끔 어린아이의 울음 소리로 정적이 깨지기는 했습니다만, 그 아이의 어머니는 금세 아이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이 성스러운 의식이 집행될 동안 정적을 깨뜨리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음뿐이었습니다. 어린이의 울음 소리는 주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어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마친 그분의 생애 초기에는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속에서 자랐습니다.

소년들의 성찬 전달이 끝나고 이어서 격려와 지시의 말씀이 있었고, 또한 폐회 찬송과 기도로 “세상 근심 일 없[는]” 성스러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은밀한 기도”, 찬송가, 78장 참조] 집으로 오는 길에 … 만일 모든 사람이 침례의 목적을 이해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며, 그 의식에서 맺은 성약에 따라 주님을 섬기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또한 안식일에 성찬식에 참석하여 그분을 섬기며 끝까지 충실하겠다는 성약을 새롭게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

우리가 성찬식에 참석하여 성찬을 취했기 때문에 그날이 더욱 뜻있는 하루가 되었으며,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이유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더욱 온전히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나의 거룩한 날에 기도의 집에 가서 네 성찬을 바칠지이다.

이는 진실로 이 날은 네 일을 쉬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네 헌신을 바치도록 너희에게 정해진 날임이니라.”(교리와 성약 59:9~10)⁷

학습 및 교수 제언

질문

- 고대 이스라엘의 유월절에 대한 헌터 회장의 가르침을 복습한다.(1편 참조) 우리는 유월절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유월절은 어떻게 부활절을 지키는 것과 연결이 되는가?
- 성찬을 제정하신 구주에 대한 헌터 회장의 말씀을 복습한다.(2편 참조) 이것은 왜 여러분에게 중요한가? 어떤 면에서 성찬이 우리에게 “안전의 성약”이 되는가?
- 3편에 나오는 성찬을 취하는 것에 대한 헌터 회장의 말씀에서 어떤 것을 느꼈는가? 성찬이 좀 더 의미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성찬을 취하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는가?

관련 성구

고린도전서 5:7~8; 11:23~29; 제3니파이 18:3~14; 20:8~9; 모로나이서 6:5~6; 교리와 성약 20:75~79; 27:1~2

교사를 위한 도움말

“우리가 복음을 가르칠 때, 우리는 성신이 진정한 교사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한다. 우리를 통해 성신이 가르치고, 간증하며, 위안을 주고, 영감을 줄 수 있도록, 도구로서 봉사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특권이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 41쪽)

주

1. Gerry Avant, “Elder Hunter—Packed Away Musician’s Career for Marriage,” *Church News*, May 19, 1985, 4.
2. J. M. Heslop, “He Found Pleasure in Work,” *Church News*, Nov. 16, 1974, 4.
3. 데이비드 비 헤이트, “성찬”, *성도의 벗* 1983년 7월호, 16쪽.
4.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그리스도”, *성도의 벗* 1985년 7월호, 21~22쪽.
5.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그리스도”, 22~23쪽.
6. “마지막 순간”, *성도의 벗* 1974년 12월호, 32쪽.
7. “성찬에 대한 명상”, *성도의 벗* 1977년 10월호, 25~26쪽.



“결혼-영원한 동반자 관계”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동반자 관계는 결혼 안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계속되며 영원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생애에서

스무 살 때 하워드 더블유 헌터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교회 무도회에 참석했다가 그곳에서 클레어 제프스를 만나게 되었는데, 당시 그녀는 하워드의 친구와 데이트 중이었다. 무도회를 마친 후 몇몇 젊은이들은 바닷가로 산책을 갔다. 그곳에서 하워드는 벡타이를 잃어버렸는데, 그때 클레어가 자진해서 바닷가를 함께 걸으며 벡타이 찾는 것을 도와주었다. 하워드는 후에 이렇게 말했다. “다음 번에 나갔을 때는 제가 클레어를 데리고 갔고 제 친구는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¹

이듬해에 그들은 진지하게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고, 만난 지 3년 가까이 되어 가던 어느 봄날 저녁에 하워드는 클레어를 데리고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전망대로 갔다. “우리는 태평양에서 밀려온 파도가 보름달 밝은 빛 아래에서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워드는 이렇게 기술했다. 그날 저녁에 하워드는 청혼을 했고, 클레어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장래 계획을 이야기했고 ... 그날 저녁에 많은 결정을 내렸으며 우리의 삶에 관련된 몇 가지를 분명하게 다짐했습니다.”²

하워드와 클레어는 1931년 6월 10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결혼 후 52년 동안 아들들을 키우며 교회에서 봉사하고, 여러 어려움을 신앙으로 이겨 내면서 그들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졌다.

가족들은 두 사람이 행복한 부부임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 하워드의 장손자인 로버트 헌터는 이렇게 말했다. “헌터 할아버지를 떠올리면 저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많은 남편의 모범을 생각하게 됩니다. ... 두 분이 사랑으로 단단히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정말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³



“성전에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의식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을 함께하는 남편과 아내의 인봉입니다.”

헌터 자매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심각한 건강 문제로 10년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헌터 회장은 옆에서 그녀를 간호하며 아내를 향한 깊은 사랑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클레어는 1983년 10월 9일에 숨을 거두었고, 이는 헌터 회장에게 “치명적”인 일이었다. ⁴ 그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날 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기록했다. “집이 을씨년스러워 보인다. 걷는 곳마다 모든 것에서 그녀가 생각난다.”⁵

헌터 회장은 거의 7년간을 혼자 지낸 후 1990년 4월에 아이니스 스텐튼과 재혼했다. 결혼 의식은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집행으로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치러졌다. 아이니스는 헌터 회장이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또 교회 회장으로 봉사하는 동안 큰 위안과 힘이 되어 주었다. 그녀는 전 세계 성도를 만나기 위한 많은 순방 길에 헌터 회장과 동행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는 아이니스가 헌터 회장에게 축복이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클레어]가 세상을 떠난 후 아이니스와 결혼하기 전까지 그분은 수년 동안 외로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두 사람은 참으로 수많은 행복한 추억과 경험을 함께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이니스 자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아이니스 자매님이 그분과 함께 해 주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돌봐주신 일에 대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전합니다. 자매님은 그분의 생애와 성역의 황금기에 그분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주셨습니다.”⁶

하워드 터블유 헌터의 가르침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며 그것은 영원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결혼을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마태복음 19:5).⁷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동반자 관계는 결혼 안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계속되며 영원한 의미가 있습니다.⁸

기본적으로 구원의 계획을 잘 아는 신권 소유자는 결혼을 성스러운 특권과 임무로 간주합니다. 남자도 여자도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남성은 여성 없이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짝이 없이는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고린도전서 11:11; 모세서 3:18 참조) 남녀간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49:15~17 참조) 새롭고도 영원한 결혼 성약을 통해서만 그들은 영원한 축복의 충만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131:1~4; 132:15~19 참조)⁹

결혼은 때때로 하나님과의 동반자 관계로 언급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동반자 관계가 강하고 활발하면, 남자와 여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며, 영원한 성공을 가져다줄 감미로움과 애정이 가정에 깃들게 될 것입니다.¹⁰

첫 번째 결혼은 주님께서 집행하셨습니다. 그 의식이 거행되었을 당시 이생만을 위한 결혼 같은 것은 없었고, 따라서 그것은 영원한 결혼이었습니다. 그 의식은 죽음을 겪지 않을 한 쌍을 위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건 하에서는 결혼 관계가 결코 끝날 수가 없었습니다. 타락하게 된 우리의 첫 번째 부모는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사망을 겪게 되었지만, 그들은 부활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들의 영원한 결혼이 끝나게 된다는 말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¹¹

성전에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의식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을 함께하는 남편과 아내의 인봉입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성전 결혼보다 낮은 수준의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¹²

침례가 주님의 계명이듯이 성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가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 필수적이듯이 성전 결혼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승영에 이르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운명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성전 결혼 없이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 못한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의 침례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권한을 받은 사람이 침수로써 행하는 그분의 침례 방식이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결혼 방식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는 그분의 결혼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 결혼입니다.¹³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존재의 이유와 승영과 영생으로 이르는 길을 찾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성시하는 결혼은 바로 영원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따르고자 한다면 의식은 영원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진리가 우리에게 밝혀지고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¹⁴

2

누구와 결혼할지 결정할 때 인내하고,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도록 합당하게 준비한다.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가장 커다란 결정은 ... 인생에 영원한 영향을 미치는 그 결정은 바로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삶에서 내리는 어떤 결정보다도 더 중요하리라는 데에 여러분도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일이나 직업, 또는 여러분이 하려는 그 어떤 일도 영원한 가치만큼 중요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 [결혼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에게 영원을 걸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¹⁵

사전에 적절하게 숙고하고 영감을 받는 과정 없이 결혼에 돌입하지는 마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 주님께 기도으로써 인도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도움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준비하십시오.¹⁶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은 구혼과 결혼, 가정을 이루는 일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미래 배우자의 이름을 니파이의 시현이나 계시의 책에서 찾을 수 없을 것이며, 천사나 감독님이 여러분에게 말해 주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여러분 스스로 해야만 합니다. 신앙을 갖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없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여러분이 가진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십시오. 결혼에 대해 너무 많이 걱정을 하는 것은 결혼을 할 가능성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지나친 걱정을 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충실하고 온전히 생활하십시오.¹⁷

약속된 축복을 기다리는 동안 발전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전진을 중단하는 것은 일종의 퇴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발전을 위시하여 훌륭한 대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십시오.¹⁸

3

결혼하지 않았어도 합당하다면, 어떠한 축복도 거부당하지 않는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기혼자나 독신 또는 어느 그룹이나 개인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개인을 구원하고 승영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구원의 의식과 성약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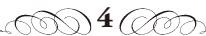
합당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결혼과 영원한 가족의 축복을 포함하여 어떠한 축복도 거부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세상 저편에 가서야 그러한 축복이 실현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

이제 권고와 사랑의 말씀을 몇 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미혼 남성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안정된 직업이 없거나 재정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혼을 늦추지 마십시오. … 신권 소유자로서 여러분은 영원한 동반자를 구하는 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미혼 여성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염려하고 계신다는 약속을 늘 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충실하다면 모든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독신으로 지내거나 가족이 없이 생활하는 시간은 순간에 지나지 않으며, 영원은 긴 시간입니다. 벤슨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은 오직 사람만이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원한 면을 마음속에 갖고 계십니다.”(성도의 빛, 1988년 11월호, 110쪽) 여러분의 생애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활동들로 가득 채우십시오.

이혼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실망이나 실패의 느낌으로 여러분의 결혼관이나 인생관을 부정적으로 물들이지 마십시오. 결혼에 대한 신념을 잃지 마십시오. 또 괴로움 때문에 영혼이 병 들거나, 자기 자신과, 여러분이 현재 사랑하고 있는 사람과, 사랑했던 사람을 파멸로 이끌지 않도록 하십시오.²⁰



성공적인 결혼에는 복음 원리대로 살려는 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

[결혼 생활]은 … 배우려는 의지를 갖고 하는 학습 행동입니다. 직감이나 아닌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이 성공을 결정짓습니다. 친절과 참된 애정, 그리고 서로의 행복과 복리에 대한 배려가 동기를 부여해 주는 힘입니다.



“약속된 축복을 기다리는 동안 … 자신의 발전을 위시하여
훌륭한 대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결혼 전에 우리는 인생을 자신의 관점에서 보았지만 결혼 후에는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확신과 사랑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희생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행복하고 성공적인 결혼은 대체로 얼마나 잘 맞는 사람과 결혼하느냐보다는 얼마나 잘 맞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문제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높은 이혼율을 보여 주는 통계는 배우자를 택할 때 현명하지 못했음을 보여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면 이혼이라는 특정한 문제는 해소될 수 있었겠지만, 분명히 또 다른 문제가 그 자리를 대신했을 것입니다. 현명하게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성공적인 결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자신의 책임을 온전히 다하려고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성공에 이르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²¹

합당한 부부가 해의 왕국에서 승영을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원히 함께 인봉된 남녀는 각각 개인적으로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영원한 결혼은 개인적으로 물과 영으로 침례를 받고, 개인적으로 성전에 가서 각자의 엔다우먼트를 받으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반려자에게 충성을 약속하는 결혼 성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든 것을 행하면서 개인적으로 맺은 성약을 지켜 온 합당한 남녀에게 성립됩니다.²²

복음 원리대로 생활할 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 두 사람이 복음 원리대로 생활할 때, 결혼은 달콤하고 행복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²³

5

남편과 아내는 결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불완전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인내

대부분의 배우자는 불완전합니다. ... 리처드 엘 에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누구나 완전한 사람과는 잘 지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임무는 불완전한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다.”[Richard Evans' Quote Book(1971), 165] 우리는 결혼에서 완전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완전함을 추구하며, 또 완전함을 찾길 바라며 여행하고 있지만, 이해하고 최선을 다하여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으며 친절하며”(고린도전서 13:4 참조) 그런 종류의 사랑, 즉 가볍게 여겨지지 않으며, 쾌락으로 끝나지도 않고, 일회용 플라스틱처럼 버려지지 않으면서도, 함께 하나가 되어 인생의 모든 소소한 어려움에 맞서는 그런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궁극적인 행복입니다.²⁴

마음으로 하나가 됨

분명 가장 행복한 결혼이란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내 고통이 상대방의 고통이고, 내 성취가 상대방의 성취이며, 내 염려가 상대방의 염려인 그런 결혼입니다. “여기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건 무엇일까?” 하고 묻는 이 세상 속에서, 마음과 영혼과 육신이 하나가 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어려워 보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이 배우자에 대해 진실된 감정을 품기보다는 그저 자랑할 만한 소유물 정도로 생각합니다.²⁵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정결함

신권을 소유한 남성은 아내에게 도덕적으로 완전히 정결함을 보여 주고 아내가 남편의 정조를 의심할 이유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은 온 마음을 다해 아내를 사랑하여 결합하며 다른 아무와도 결합하지 말아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42:22~26 참조)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아무와도 결합하지 말라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나 모든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렇게 될 때 남편과 아내는 각기 배우자의 삶에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되며, 사회 생활, 직장 생활, 정치 생활, 기타 다른 어떤 이해 관계나 사람이나 사물 등이 배우자를 우선할 수 없게 된다.”(용서가 낳는 기적, 266쪽)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결혼 외의 어떠한 성관계도 금하시며, 그분의 교회도 그러한 행위를 묵과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간음하면 아내가 상심하게 됩니다. 그는 또 아내와 자녀들의 신임을 상실하게 됩니다.(야곱서 2:35 참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의 결혼 성약을 충실하게 지키십시오. 외설물, 다른 상대에게 관심을 보이는 일, 건전하지 못한 상상들은 인간의 인격을 부식시키고 행복한 결혼 생활의 기초를 위태롭게 합니다. 그것은 결혼 생활의 융화와 신뢰를 파괴합니다. (건전하지 못한) 생각을 억제하지 못한 사람이나 마음에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이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을 부인하는 것이며, 그는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42:23; 63:16 참조)²⁶

친밀함 중에 보이는 온화함과 존경심

남편과 아내 사이의 다정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압제적이거나 합당치 못한 행위를 하지 마십시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것은 영화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몸이 되라고 하셨으며,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하셨습니다.(모세서 2:28; 3:24 참조)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자신을 바치신 것과 같은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에베소서 5:25~31 참조)

이기심은 제외하고, 온화함과 존경이 아내와 남편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데 지침이 되는 원리여야 합니다. 각 배우자는 서로의 필요 사항과 소망에 대해 사려깊고 민감해야 합니다. 주님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친밀한 관계에서 압제적이고 무례하고 절제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아내를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학대하거나 천대하는 사람은 중대한 죄를 짓는 것이며, 심각하고 진실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서로의 차이는 사랑과 친절과 상호 화해의 정신으로 풀어 나가야 합니다. 남편은 언제나 아내



남편과 아내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면 영원한 성공을 가져다줄 감미로움과 애정이 가정에 깃들게 될 것입니다.

에게 사랑과 친절로 말하고, 가장 큰 존경심으로 대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은 부드러운 꽃과 같은 것이며, 끊임없이 사랑과 애정의 표현으로 키워져야 합니다.²⁷

주의 깊게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들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만 하면 많은 문제가 순식간에 해소되고, 많은 어려운 상황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귀 기울여 들을 때에는 교훈을 배우지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에는 배움을 얻지 못합니다. 결혼 생활에서도 기꺼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 물론 말을 할 필요도 있지만, 이해력을 충분히 키워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관점이 무엇인지 들어야만 합니다. 경청은 자주 변화를 가져옵니다.²⁸

이타심

이기심이라는 모래에 기초를 둔 우정은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매력에만 기초를 두고, 더 깊은 사랑과 충실함의 기초가 없다면 결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²⁹

결혼한 분들은 여러분을 주님의 집 제단으로 인도해 준 사랑의 감정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랑이 식었거나 이기심 또는 범법으로 성전에서 맺은 결혼 성약을 잊었거나 가벼이 여기는 많은 사람에 대해 알게 될 때 우리는 슬픔을 느낍니다. 남편과 아내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기를 간청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가장 큰 바람은 각 가정에서 서로 사랑을 표하고, 서로 공경하며, 결혼의 유대를 강화하려 함께 노력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³⁰

학습 및 교수 제언

질문

- 1편에서 헌터 회장은 결혼이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며 영원하도록 예정되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것을 아는 것은 배우자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결혼이 “하나님과의 동반자 관계”라는 말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 자녀와 청소년이 성전 결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는가?
- 누구와 결혼할지 결정하는 것에 대한 헌터 회장의 조언을 공부할 때 어떤 생각과 느낌을 받았는가?(2편 참조)
- 3편에 있는 헌터 회장의 약속과 조언은 결혼하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지 기혼자나 독신들의 교회가 아니다”라는 헌터 회장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 결혼 생활은 배워가며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는 헌터 회장의 말씀은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는가?(4편 참조) 여러분은 복음 원리대로 생활하는 것이 결혼 생활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을 언제 보았는가? 여러분이 기혼자라면, 배우자에게 사랑을 좀 더 충분히 보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려해 본다.
- 5편에 있는 헌터 회장의 조언을 깊이 생각해 본다. 서로의 불완전함으로 부부는 어떻게 더 큰 인내심을 키울 수 있는가? 부부가 더욱더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가? 부부는 생각, 말, 행동을 통해 어떻게 결혼 생활에서 정결함을 보일 수 있는가?

관련 성구

창세기 2:18, 21~24; 야곱서 2:27, 31~33; 제4니파이 1:11; 교리와 성약 42:22; 모세서 3:19~24; 또한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참조

학습을 위한 도움말

“여러분의 복음 공부는 성신을 통해 배울 때 가장 효과적이다. 복음 공부를 할 때는 성신이 여러분의 공부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항상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나의 복음을 전파하라[2004년], 18쪽)

주

1. Eleanor Knowles, *Howard W. Hunter*(1994), 72.
2. Eleanor Knowles, *Howard W. Hunter*, 79-80.
3. 단 엘 서얼,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성도의 빛*, 1987년 4월호, 19~24쪽.
4. Gordon B. Hinckley, “A Prophet Polished and Refined,” *Ensign*, Apr. 1995, 34.
5. Knowles, *Howard W. Hunter*, 270; 또한 264, 267, 269 참조.
6. James E. Faust, “Howard W. Hunter: Man of God,” *Ensign*, Apr. 1995, 28.
7.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ed. Clyde J. Williams(1997), 137.
8.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130.
9. 하워드 더블유 헌터, “의로운 남편과 아버지가 됨”, *성도의 빛*, 1995년 1월호, 49쪽.
10.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130.
11.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132.
12.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130.
13.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131-32.
14. “Divine Creation of Women”(address given at the Australia Area Conference, Adelaide, Australia, Nov. 30, 1979), 7,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15.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141-42.
16. “만인을 위한 교회”, *성도의 빛*, 1990년 8월호, 42쪽.
17. “Fear Not, Little Flock”(address given at Brigham Young University, Mar. 14, 1989), 4; speeches.byu.edu.
18. “만인을 위한 교회”, 42쪽.
19. “만인을 위한 교회”, 41쪽.
20. “만인을 위한 교회” 41~42쪽.
21.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129-30.
22. “만인을 위한 교회”, 41쪽.
23.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137.
24.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135-36.
25.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137.
26. “의로운 남편과 아버지가 됨”, 49쪽.
27. “의로운 남편과 아버지가 됨”, 50쪽.
28.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129.
29. Conference Report, Oct. 1967, 12.
30.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130-31.



가족을 지키고 보호하십시오

“가정은 일상이 반복되는 평범한 곳으로 보일 수 있지만 가정에서 이룩하는 성공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생애에서

사랑이 많고 근면한 가정에서 자란 하워드 더블유 헌터는 집에서 부모님을 보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는 종종 희생이 요구된다는 것을 배웠다. 그는 결혼하기 직전에 자신이 꾸릴 가정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 희생을 감행했다.

하워드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사랑을 키워 왔다. 먼저 그는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배우고 다른 많은 악기들을 독학으로 익혔다. 십 대 때에는 헌터스 크루네이더스라는 이름의 밴드를 만들어 아이다호 주 보이시 지역의 무도회나 기타 행사에서 연주 활동을 했다. 19세가 되었을 때 그의 밴드는 아시아 여행을 하는 유람선에서 2달 동안 연주를 하도록 고용되기도 했다.¹

유람선에서 돌아온 해에 하워드는 남 캘리포니아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여러 밴드에서 연주 활동을 했다. 하워드는 캘리포니아에서 클레어 제프스를 만나 1931년 봄에 청혼한다. 결혼하기 4일 전에 그는 자신의 밴드와 함께 연주를 한 후, 악기를 싸서 넣고는 다시는 음악가로서 연주 활동에 나서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무도회와 파티를 위해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매력적이고 수입도 좋았다.” 하지만 음악인의 삶은 하워드가 꿈꿔 오던 가족 생활과는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이 일부 있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결정으로 제가 즐기던 어떤 것을 잃었지만 그 결정을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²

하워드와 클레어는 하워드 윌리엄(빌리)과 존, 리처드까지 세 아들을 낳는 축복을 받았다. 하지만 슬프게도 빌리는 유아였을 때 세상을 떠났다. 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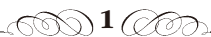
가족은 “인생에서의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선한다.”

과 리처드가 성장하면서 헌터 가족은 아주 친밀한 가족이 되었다. 하워드는 변호사 업무와 교회 부름으로 일정이 빡빡했지만, 그와 클레어는 가족을 늘 우선시했다. 교회에서 월요일 저녁을 가정의 밤으로 지정하기 오래 전부터 헌터 가족은 그날을 복음을 가르치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놀이를 하며 함께 외출을 하는 날로 정해 두고 있었다. 공과는 자주 아이들이 맡아 진행했다.

하워드와 아들들은 모형 기차와 같이 함께 재미를 공유할 만한 것들을 해 나갔다. 그들은 조립 용품으로 기차를 만들고, 합판에다 철도 선로가 있는 정교한 기차길도 만들었다. 그는 이렇게 회상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서던 퍼시픽 레일로드의 알람브라 역 근처 철도 구역에 가서 철도 조차장과 장비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었습니다.”³

마침내 헌터 회장과 자매는 18명의 손자를 둔 대가족이 되었다. 날을 잡아 자녀와 손자들을 방문하는 것 외에도, 헌터 회장은 교회 업무로 캘리포니아를 경유할 때 시간을 내어 짧은 만남을 할 때도 많았다. 종종 손이 자녀들을 데리고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할아버지를 만나게 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헌터 회장을 “공항에 사시는 할아버지”로 부르기도 했다.⁴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가르침



가족은 사회와 교회, 영원에 걸쳐 가장 중요한 단위이다.

가족은 현세와 영원을 두고 가장 중요한 단위이며, 따라서 인생에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선합니다.⁵

교회는 한 사회의 기반이 되는 가족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가정 생활의 형태는 창세 전부터 계속되어 왔으며, 이는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편과 아내인 부모에게서 자녀들이 태어나도록 마련되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여호와와의 기업”(시편 127:3)으로서 맞이할 신성한 의무와 특권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경고한 바와 같이 가정이 붕괴되고 있음을 보고 한탄합니다. 세상의 의회와 그들의 결정은 그들이 가정을 주님께서 계시한 대로 정의할 때에만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



교회 회장으로 지지받은 다음 날인 1994년 10월 2일에 헌터 회장이
아들과 손자녀를 포함한 그의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다.

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시편 127:1)⁶

개인과 가족의 복리를 추구할 때 교회의 기본 단위는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족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가족을 아버지, 어머니, 자녀라는 전통적인 형태로 한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족이란 자녀가 없는 남편과 아내, 자녀가 있는 편부모, 그리고 혼자 사는 독신으로도 구성됩니다. ... 이러한 모든 가족도 신권의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때로는 이와 같이 전통적인 구조에서 벗어난 가족들이 가장 주의 깊은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각 가정에는 그들을 돌보고 헌신하는 가정 복음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⁷

2

**부모는 가정에서 지도력을 행사하는 일에서 동반자이며,
자녀를 보호하고 사랑하는 중대한 의무가 있다.**

부모의 책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노력에 따라 우리 자신과 우리가 양육하는 자녀들은 영원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되는 모든 사람은 자녀를 하나님 아버지께 데려가기 위해 보호하고 사랑하고 도와줄

중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주님께서 이러한 책임을 소홀히 한 부모를 죄 없다 하시지 않을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⁸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은 보살피도록 그들에게 맡겨진 자녀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잠언에는 부모들에게 주는 다음과 같은 권고가 나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언 22:6)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훈련은 부모의 모범으로부터 옵니다. 부모는 어린 자녀가 따를 수 있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의로운 원리를 가르치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가족 생활에 기도가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존중하는 가정에서는 위대한 힘이 나옵니다.⁹

가족을 효과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 많은 시간 동안 자녀와 좋은 시간을 함께해야 합니다. 가정을 다스리고 가르치는 일을 … 사회나 학교, 심지어 교회에 맡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¹⁰

신권을 소유한 남성은 가족이 하나님에게서 성임된 것으로 여깁니다. 가족에 대한 여러분의 지도력은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책임입니다. …

신권을 소유한 사람은 가족이 교회에 참석하도록 인도해서, 그들이 복음을 알 수 있게, 그리고 성약과 의식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가정에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내와 함께 가정에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임무는 매일 경전 공부를 하고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영적인 생활에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신권과 성전 성약을 굳게 지키고 영예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하십시오.¹¹

신권을 소유한 사람은 모성애에 대해 존경심을 느낍니다. 어머니들은 “사람의 영혼을 낳[을] 수 있는 거룩한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로써 나의 아버지의 일이 계속되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되시느니라.”(교리와 성약 132:63)

… 동반자 없이는 신권의 운명을 이룰 수 없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킬 수 없습니다. 어머니들은 신권 소유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이러한 생명의 은사에 대해 신권 소유자들은 자신의 자녀와 자녀의 어머니를 무한히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가진, 유일하고도 거룩한 역할과,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영예롭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녀와 손자녀를 이 지상에 빛과 진리로 데려오라는 신성한 계명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모세서 2:28; 교리와 성약 93:40 참조) 사랑하는 동반자로서 자녀를 돌보는 일을 함께 하십시오. 가정을 꾸려 나가는 아내를 도우십시오. 자녀를 가르치고, 훈육하는 일을 도우십시오.

여러분은 아내를 향한 공경과 존경을 정기적으로 아내와 자녀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 참으로,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중의 하나는 그들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¹²

신권을 소유한 사람은 자신의 아내를 가정과 가족을 인도하는 일에서, 그와 관련된 모든 결정을 함께 완전히 알고, 그 결정에 완전히 참여하는 동반자로서 인식합니다. 교회와 가정에는 반드시 관리 역원이 있어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107:21 참조) 하나님께서는 신권을 소유한 사람에게 가정을 감리하는 책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모세서 4:22 참조) 주님은 아내가 남자를 위한 내조자(내조자라는 말에는 동등한 관계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즉 완전한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동등하고 필수적인 반려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의롭게 감리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가 책임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가족의 모든 문제에서 함께 그 문제를 알고 함께 해결 방법을 모색하여 행해야 합니다. 남자가 독자적으로 아내의 조언과 느낌을 고려하지 않고 가족을 다스리는 것은 의롭지 못한 통치 행위입니다.¹³

형제 여러분, 신권은 오직 의로운 권세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사랑하는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녀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으십시오. 의로운 아버지는 자녀의 사회적, 교육적, 영적인 활동과 책임과 관련된 일들에 시간을 들여 자녀와 함께하며 자녀들을 보호합니다. 자녀에게 사랑과 애정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은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 주십시오.¹⁴

3

우리의 가정은 사랑의 장소이자 기도의 장소, 복음을 가르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가정은 사랑과 성실성과 강한 원리들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에 대해, 자녀에게, 그리고 도덕적인 면에서 변함없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각각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노력하며, 조금 더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여 주는 원리들을 가정에서 적용하려 노력하는 그러한 가정은 분명히 가장 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더욱더 복음대로 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충실하게 헌신해야 하는 곳은 가정입니다. 어린이는 가정이 안전하다고, 또 자신에게는 바깥 세상의 위험과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장소가 있다고 느낄 권리가 있습니다. 가족의 단합과 성실함은 이러한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행복한 관계를 이루면서 함께 이상적인 가정 생활을 이루기 위해 행복하게 일하고, 자녀를 진지하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아끼며, 가족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는 부모가 필요합니다.¹⁵

가정의 밤이 교회 공식 프로그램으로 처음 소개되었을 때 제일회장단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이 [가정의 밤을 하라는] 이 권고에 순종한다면 큰 축복을 받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가정에 사랑과 부모에 대한 순종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청소년의 마음속에 신앙이 증가할 것이며, 그들을 공격하는 악한 영향력과 유혹을 이겨 낼 힘을 얻을 것입니다.” 가정의 밤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월요일 저녁은 가정의 밤을 위해 예약해 두어야 합니다. 현지 지도자들은 가정의 밤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회 건물과 시설물의 문을 닫아 월요일 저녁에 어떠한 와드나 스테이크 활동도 계획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가정의 밤에서 중요하게 강조될 사항은 가족들이 함께하며 복음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복음과 기도할 것과 안식일을 지킬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님께서 권고하셨음을 모두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경전은 복음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¹⁶

가족이 함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자녀의 복리를 간구하는 부모의 기도를 듣는 자녀들의 삶에는 얼마나 훌륭한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그런 의로운 부모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자녀들은 분명히 악의 영향력으로부터 더 훌륭히 보호될 것입니다.¹⁷

부모와 자녀가 서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가족 평의회”라고 알려진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이 평의회는 부모가 소집하여 진행하며 가족 구성원 모두 참석하게 됩니다. 가족평의회를 옹으로써, 가족의 유대가 강화되고, 자녀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되며, 부모가 자신들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가족 모임은 가정에서, 그리고 깨끗한 삶을 사는 일에서 서로에 대한 상호 존경을 가르치고, 이기심을 없애 주고, 황금률[마태복음 7:12 참조]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모임에서 가족들은 친절과 정직에 대해 배울 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 드리는 법과 가족 기도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서로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족의 참된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가족 문제가 찾아오기 마련인데,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는 노력에서 하나가 되고 강해질 때 현대의 많은 문제가 사라지게 됩니다.¹⁸

[형제 여러분] 정기적으로 가정의 밤을 하고, 가족 기도를 하고, 영적인 말씀을 하고, 경전을 읽으며, 그 밖의 것들을 가르치는 시간을 보냄으로써 가족에게 복음을 가르치라는 임무를 신중하게 받아들이십시오. 특별히 선교 사업과 성전 결혼을 위한 준비를 강조하십시오. 가정의 축복사로서, 가족을 위해 적절한 의식을 행하고 아내와 자녀에게 축복을 줌으로써 신권을 행사하십시오. 형제 여러분, 자신의 구원 다음으로 여러분의 아내와 자녀의 구원만큼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¹⁹

4

성공적인 부모는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고, 관심을 보이고, 가르치고, 자녀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준다.

총관리 직원들은 세계 곳곳에서 성실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가족을 복음 안에서 양육하는 교회 회원들을 만나고 친분을 나누는 특권을 누립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들이 오랫동안 부모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 온 것을 회상하며 큰 위안과 축복을 받습니다. 확실히 우리는 누구나 그와 같은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주 기도하면서 가능한 한 자녀에게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혹은 이 세상에서 죄의식을 느끼거나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며 살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그들의 자녀들이 제멋대로 나가 울타리 밖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우리는 성실한 부모들이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거의 모두 실수를 범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부모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영의 자녀를 젊고 경험이 없는 부모에게 맡기실 때 잘못된 판단과 실수가 따르리라는 것을 아십니다. ...

우리 각자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각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인생의 경주를 시작했듯이, 또한 우리 각자가 각기 다른 장점과 약점과 재능을 갖고 있듯이, 모든 자녀는 자신만의 특별한 성품을 축복받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른 사람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성공을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인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자녀가 모든 분야에서 특출하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을 내릴 때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

성공적인 부모는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고, 관심을 보이고, 가르치고, 자녀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줍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여전히 빗나가고, 세상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면,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성공적인 부모입니다. 어떠한 부모나 어떠한 환경하에서도 다루기 힘든 아이들은 태어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실상 자녀에게 최선을 다한 후, 계속해서 신앙을 가져야 하는 때에, 너무 자학하고, 그러한 느낌으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부모님들이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합니다.²⁰

[빗나간 자녀가 있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혼자만 그런 경우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첫째 부모인 아담과 이브도 몇몇 자녀들이 영생의 가르침을 거역하는 것을 보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모세서 5:27 참조) 몇 세기 후,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창세기 37:1~8 참조) 엘마란 이름의 아들이 있었던 위대한 선지자 엘마는 그의 아들이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과 합세하여 불화를 일으키고 사악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여 주님께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모사이아서 27:14 참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많은 영의 자녀들을 잃으셨기에 여러분의 심정을 이해하십니다. ...

빗나간 아들딸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완전히 버린 자식이라고 생각했던 자녀가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기도하면서 가능한 한 자녀에게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노력이 성공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과 희생, 근심과 염려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때때로 자녀 때문에 부모는 마음에 고통을 느낄 수도 있으나 그들이 자녀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쳤다면, 궁극적인 책임은 자녀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어떠한 슬픔이나 걱정이나 고통이나 번민이 닥쳐온다 해도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삼을 방법을 찾으십시오. 즉, 다른 사람들이 같은 문제점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거나 비슷한 경우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이해하고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한 선한 일과 옳은 일에 긍지를 느끼고, 그런 일들을 우리의 생활에서 거부하고 몰아 내며, 주님께 용서와 힘과 위안을 간구하며 앞으로 나아갑시다.²¹

5

우리 가정은 복음 원리대로 생활하고 주님의 영이 머물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

가족을 의로움으로 양육하려고 노력할 때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제자들은 거룩한 곳에 서서 율기우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45:32)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이 성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또한 우리가 생활하는 가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가족 기도와 경전 읽기, 가정의 밤을 권유하고 참여시키며 가족을 의로움으로 인도하기 위해 부지런히 힘쓰고, 복음의 가르침대로 생활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지지한다면, 의로운 자손을 양육하는 일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사악해져 가는 세상에서 우리 각자가 “거룩한 곳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가르침에 참되고 충실하도록 다짐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²²

가정에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 부모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신권을 소유한 남편은 아내를 자녀 앞에서 가장 존중해야 하며,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은 가장 훌륭하게 복음 원리대로 생활할 수 있고 주님의 영이 거할 수 있는 신성한 곳이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아버지나 성공적인 어머니가 되는 것은 사업이나 정부 또는 세상적인 일에서 지도력을 발휘하거나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일입니다. 가정은 일상이 반복되는 평범한 곳으로 보일 수 있지만 가정에서 이룩하는 성공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²³

학습 및 교수 제언

질문

- 1편에 있는 헌터 회장의 가르침을 복습하면서 가족의 중요성을 생각해 본다. 가족에 대한 교회의 책임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가족을 보호하고 강화할 수 있는가?
- 가정에서 지도력을 행사할 때 부모가 동반자로서 임해야 한다는 헌터 회장의 가르침을 숙고해 본다.(2편 참조) 이 가르침은 어떻게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에 어떻게 “영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지 고려해 본다.
- 3편에서 헌터 회장은 강한 가족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 조언한다. 우리는 어떻게 “가족의 단합과 성실함”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 가정의 밤은 어떻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축복이 되었는가? 가족 경전 읽기와 가족 기도는 어떻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축복이 되었는가?
- 4편에 있는 헌터 회장의 가르침은 빛나간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부모들은 어떻게 그것을 전화위복이 되게 할 수 있는가? 부모와 조부모, 청소년 지도자 및 다른 사람들은 빛나간 자녀들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5편을 읽은 후, 가정을 “거룩한 곳”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헌터 회장의 가르침을 되새겨본다. 이렇게 하는 데에서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리 가정이 거룩한 곳이 되도록 우리는 어떻게 노력할 수 있는가?

관련 성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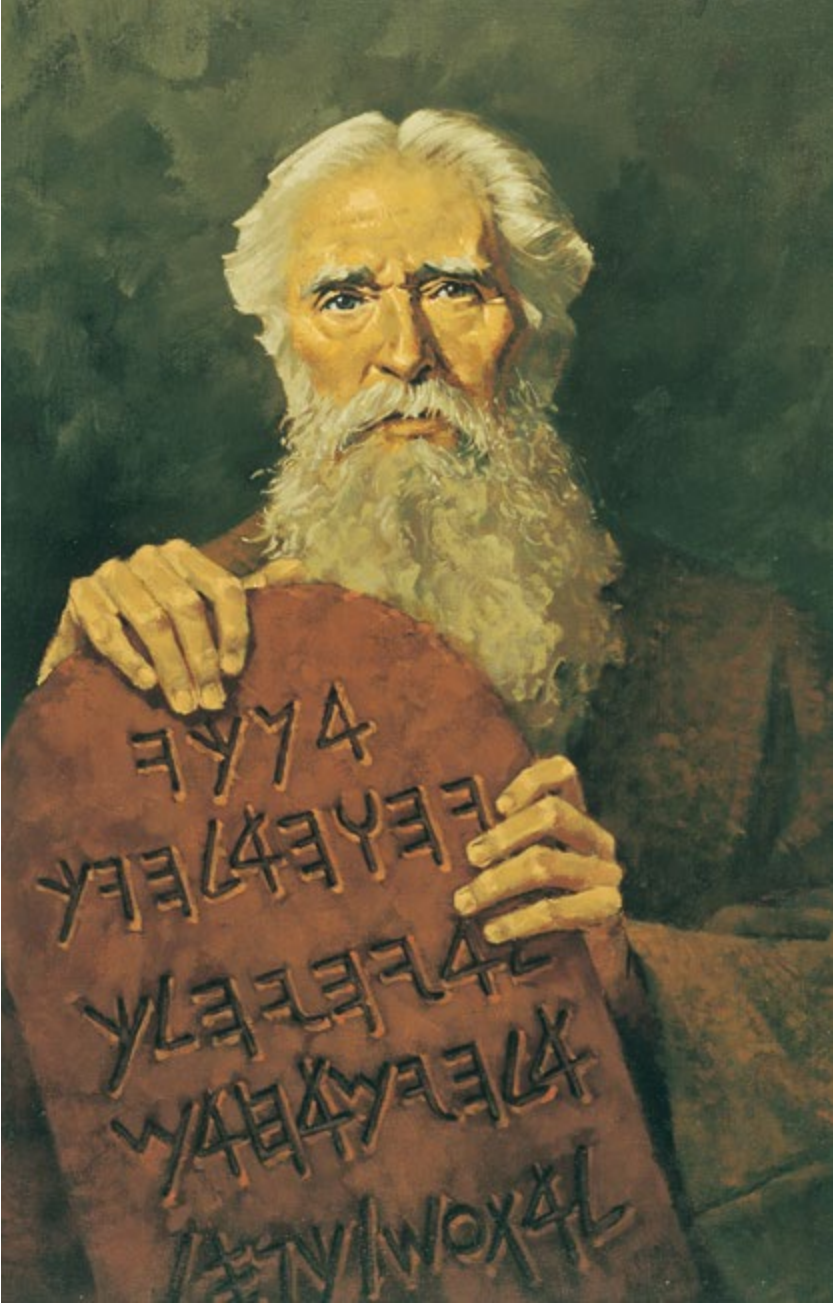
출애굽기 20:12; 신명기 6:4~7; 시편 127:3~5; 에베소서 6:1~4; 이노스서 1:1~3; 모사이야서 4:14~15; 엘마서 56:45~48; 제3니파이 18:21; 교리와 성약 68:25~28; 93:40; 121:41~46

교사를 위한 도움말

반원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 이 장의 한 편을 가정의 밤에서 가르칠 준비를 해 보라고 한다. 우리는 어떻게 그 가르침을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연관이 있도록 만들 수 있을까? 몇몇 반원에게 그들의 계획을 발표해 달라고 한다.

주

1. Eleanor Knowles, *Howard W. Hunter*(1994), 46-48 참조.
2. Knowles, *Howard W. Hunter*, 81.
3. Knowles, *Howard W. Hunter*, 109.
4. Knowles, *Howard W. Hunter*, 252; 또한 251 참조.
5. 하워드 더블유 헌터, “의로운 남편과 아버지가 됨”, *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50쪽.
6. 하워드 더블유 헌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7쪽.
7.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ed. Clyde J. Williams(1997), 144.
8.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 *성도의 벗*, 1984년 1월호, 94쪽.
9. Conference Report, Apr. 1960, 125.
10. “의로운 남편과 아버지가 됨”, 50쪽.
11. “의로운 남편과 아버지가 됨”, 50, 51쪽.
12. “의로운 남편과 아버지가 됨”, 50쪽.
13. “의로운 남편과 아버지가 됨”, 50~51쪽.
14. “의로운 남편과 아버지가 됨”, 51쪽.
15. “하나님의 증인이 됨”, *성도의 벗*, 1990년 7월호, 68~70쪽.
16. 제일회장단 서한, 1994년 8월 30일(하워드 더블유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17. Mike Cannon, “‘Be More Fully Converted.’ Prophet Says,” *Church News*, Sept. 24, 1994, 4; 또한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37 참조.
18. Conference Report, Apr. 1960, 125~126.
19. “의로운 남편과 아버지가 됨”, 51쪽.
20.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 94쪽.
21.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 94, 95쪽.
22.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155.
23.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156.



십계명에는 다음과 같은 권고가 포함되어 있다.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출애굽기 20:16)



우리는 정직함을 믿는다

“주님과 함께하고 성신의 영을 동반하려면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이웃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생애에서

캘리포니아의 히스트 캐슬을 관람하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헌터 회장 부부와 또 다른 부부는 차를 몰고 조그만 가게로 갔다. 그들이 가게를 둘러 보는 동안 “헌터 장로님은 카운터로 가서 캔디를 세서 점원에게 10페니를 지불했습니다.” 두 부부는 차로 돌아가 관람하러 성으로 가기 위해 운전하기 시작했다. 가는 동안 “헌터 장로님은 캔디를 사람들에게 차례로 나눠 주고, 다시 돌리며 나눠 주다가 자신이 계산을 잘못했음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캔디가 자신이 지불한 10개 대신에 11개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수를 쉽게 간과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1페니에 불과했지만, 그 일을 해결해야 하다 보니, 관람을 하려면 조금 서둘러야 했습니다. 누가 그 차이를 알거나 상관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에 대해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차를 돌려서 가게를 향해 돌아왔습니다. … 그는 다른 종업원에게 문제를 설명하고, 자신의 잘못에 용서를 구하고, 그 놀란 점원에게 1페니를 더 지불했습니다.”¹

하워드 더블유 헌터에게는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정직해야 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는 아들들에게 모범으로 고결성을 가르쳤다. “저는 사람들이 제 아버지에게 대해 말한 것으로 인해 정직과 고결성이 무엇인가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리처드 헌터는 말했다. 한번은 리처드가 아버지와 함께 복잡한 프로젝트를 토론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임에 갔었다. 휴식하러 밖에 나왔을 때 리처드와 그 모임에 있던 한 사람이 모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리처드는 막대한 양의 법적 서류 작업을 해야 하니까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면 아마도 오래 기다려야만 할 거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사람은 하워드 터블유 헌터는 자신이 하겠다고 한 일은 무엇이든지 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는 서류 작업을 마치기도 전에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하며 리처드의 말을 정정해 주었다.²

1962년에 헌터 회장은 교회 청소년에게 연설하면서 정직함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확신을 표명했다.

“행복한 삶은 우리가 정직하기만 하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데이트에 관한 것이든, 학교 숙제나, 함께 노는 아이들 또는 교회 참석에 관한 것이든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독님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그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에 대해 진실을 말하고, 정직한 십일조를 바치며, 깨끗하고 순수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학교 생활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교실이든 교정에서든 어떤 종류의 활동에서도 결코 속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을 지불하는 데 정직해야 합니다. 그것이 경기장이나 영화관 입장권이든 파티에서 우리에게 해당하는 비용을 내는 것이든 간에 항상 정직하게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는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그들을 결코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속이거나 유혹에 빠트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정직해야 합니다.”³

하워드 터블유 헌터의 가르침



주님은 우리에게 정직하도록 권고하신다.

경전은 정직하라는 권고로 가득 차 있고 우리가 정직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계명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 형으로 되어 있는 계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출애굽기 20:15~17 참조] …

더 일반적인 부정직의 예를 몇 가지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둑질 빈집 털이, 강도, 소매치기, 물건 훔치기, 자동차 절도 등 기타 수많은 도둑질에 대한 기사가 없는 신문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배당에서조차 좀도둑질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2. 속이기 신문에는 증권 거래와 사업 거래에서의 사기 매매, 투자 사기 그리고 대중의 주의를 요하는 기타 사기 행위들에 관한 유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학교 과제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3. **지혜의 말씀 표준을 어김** 이것은 교회 표준입니다. 세상의 표준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주제에 관해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4. **교통 법규를 어김**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와 정부에서 규정한 법을 어기면서 정직할 수는 없습니다.⁴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출애굽기 20:16). 원래 이 계명은 재판 과정에서의 거짓 증언에 관한 것이지만 거짓된 모든 말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 신체 또는 인격을 손상시키려는 의도로 하는 거짓말은 어떤 것이든 이 율법의 의도와 의미에 반하는 것입니다. 같은 손상을 초래하는 진리 은폐도 이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출애굽기 20:17]. 탐낸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바라고,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소망은 계명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법적으로 그것을 취하려는 소망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행동을 할 때가 아니라 마음을 두기 시작할 때 선이나 악이 시작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⁵

주님은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악한 계교를 피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미워하십니다.[잠언 6:16~19 참조] 후기 성도인 우리가 주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얼마나 자주 부정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⁶

2

우리는 작은 일상사에서 정직을 키워야 한다.

우리가 구주와의 관계에서 민감해지려면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서 정직해야만 합니다.⁷

우리가 성취하고 성공하려고 노력할 때 너무 많은 시간을 복잡한 일을 생각하고 연구하는 데 쓰느라 작고 단순한 일에는 거의 시간을 쓰지 못합니다. 이 작고 단순한 일들이 사실상 우리를 세우는 기초이며 이것이 없이

는 강한 기초를 만들 수 없습니다. 구조물이 하늘까지 치솟아 있으면 우리는 그 위상과 높이로 인해 그 구조물을 경이롭게 쳐다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초가 암석이나 강철과 콘크리트에 정착되어 있지 않다면 그 구조물은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본성은 그러한 기초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정직의 원리에 여러분의 주의를 모으고 싶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높고 숭고한 정직의 원리를 믿고 있지만 기꺼이 엄격하게 정직해지려는 사람은 적습니까?

수년 전에 예배당 입구와 현관에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하십시오”라고 제목을 붙인 포스터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삶에서 일어나는 사소하고 평범한 일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정직이라는 원리는 바로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큰 일에 부정직하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여기지만 그러한 것들이 덜 중요한 것이라면 변명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제가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했을 때 우리 스테이크에 있었던 한 청년을 기억합니다. 그는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 영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무리들과 여행을 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는 경범죄로 체포되었습니다. 하루는 경찰서에서 그가 신호 위반으로 구속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속도 위반으로 잡혔는데 이전에도 여러 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로 선교 사업을 나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는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았고 열아홉 살이 되었을 때 선교사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가 귀환했을 때 그와 나눈 이야기를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세계 선교 지역에 있을 때 작은 일을 어기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빚어진 문제들에 대해 자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이든 사회에서 부여한 법이든 법을 어기는 것에는 행복이나 기쁨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⁸

3

우리는 개인적인 거래나 사업상의 거래에서 정직하고 공정함으로써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다.

종교는 우리 일상 생활, 우리 사업, 매매, 건설, 교통, 제조, 무역이나 직업, 또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요일 예배에서 하듯이 같은 방법으로 우리 사업상의 거래에서 정직하고 공정함으로써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참된 원리는 사업 및 우리 일상사와 분리되거나 동떨어질 수 없습니다.⁹

종교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면, 그 의미는 우리 생활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종교를 일요일에 한 시간 동안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종교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종교가 우리 개인 생활이나 우리 가족 생활, 우리 사업 생활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깃들지 않는다면 종교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으며 높은 곳에 두고 오직 때때로 예배드리는 우상이 될 것입니다.¹⁰

우리가 정직에 관한 한 다른 사람들 모두를 믿을 수 있다면 온 세상에 얼마나 큰 변화가 오겠습니까? 사람들은 개인적인 거래나 사업상 거래에서 서로 완전한 신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근로자와 관리자 사이에 불신이 없을 것입니다. 관공서나 정부가 하는 일에 고결성이 있을 것이고 나라들은 이 세상에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혼란보다는 평화 속에 존속하게 될 것입니다. ...

사업 상 거래에서 기회만 된다면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업 세계에서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모든 이득을 취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그런 거래는 큰 규모의 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원리로 보면 점원이 실수로 1 페니를 더 지불해 주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돌려주지 않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속임입니다.¹¹

저는 “명예로운 고용”의 정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명예로운 고용은 정직한 고용입니다. 정당한 가치가 주어지고 사취, 속임 또는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양질의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주, 고객, 손님 또는 환자가 기대한 것 이상을 받는 것입니다. 명예로운 고용은 도덕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공익이나 도덕성을 약화시킬 어떤 일에도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음주 운전, 마약 또는 도박에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욘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욘기 27:5)

명예로운 고용은 유용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¹²

4

**고결함은 우리를 악에서 보호해 주고, 성공하도록
돕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 줄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악의 유혹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고결성의 보호가 없다면 온갖 종류의 죄와 잘못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욘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결성으로 보호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나의 호흠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욘기 27:3~4, 6)

얼마나 영감어린 말입니까 그는 자신의 강함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이 빠지게 되는 사소한 유혹들을 염려하지 않았습시다. 욕은 자신의 삶에서 사탄이 없앨 수 없는 힘과 자신감을 키웠습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보는 것도 흥미롭습시다. “그와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욥기 2:3)

이 위대한 고결성의 자질은 우리에게 온전히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정부, 종교, 산업 및 우리 개인 생활에서 우리가 지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범죄, 이혼, 가난, 고통의 큰 재앙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성공하게 되고 다음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위대한 성취 중의 하나는 우리 자신 속에 정직과 진정한 고결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건전해지고, 정신적으로 진지해지고, 도덕적으로 정직해지고, 개인적으로 항상 하나님께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결성은 거의 모든 성공에 이르는 문을 열어 줄 황금 열쇠입니다.¹³

5

참된 기쁨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에게 정직함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다음과 같은 경전 참조 성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다”[니파이후서 2:25] 정직함으로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주님의 동반하심과 성신의 영을 갖게 됩니다. 정직이라는 규범을 어김으로써 이 두 가지 위대한 축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사람이 주님의 동반하심과 성신의 영을 지닐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행위는 없으며, 듣지 못할 말도 없으며, 하나님께 알려지지 않고 사람의 마음 속에 품을 수 있는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을 감출 수 있는 어둠은 없습니다. 우리는 행하기 전에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정직한 행위를 할 때 혼자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방에 혼자 있을지라도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할 때 아무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고 성신의 영을 동반하려면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이웃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기쁨을 가져다줍니다.¹⁴

주님은 우리의 마음 속 깊은 생각을 아십니다.[교리와 성약 6:16 참조] 그분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분을 만나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생의 기록을 자랑스러워 하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그 기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든 행위, 모든 생각이 그 기록의 일부가 됩니다. 그것을 자랑스러워 하겠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즉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정직했다면 우리는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

정직한 분들은 축복을 받습니다. ...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축복받습니다.

그들은 자유롭고, 행복하고, 당당하게 걷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존경과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권유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길은 곧고 깨끗하고 올바르고 정직한 길입니다. 충만한 행복의 삶에 이르도록 그분을 따릅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¹⁵

학습 및 교수 제언

질문

- 헌터 회장이 1편에서 밝히신 부정직의 예를 복습해 본다. 그런 부정직한 행위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런 결과는 주님께서 정직함에 대해 왜 그토록 많이 강조를 하셨는지에 관해 무엇을 가르쳐 줄 수 있는가?
- 작은 일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정직한 것에 대한 헌터 회장의 가르침을 숙고해 본다.(2편 참조) 우리는 왜 “작은 일”에서 정직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작은 부정직한 행위가 사소한 일에 불과하다고 변명하려는 유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 헌터 회장은 종교를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행하는 모든 것의 일부로 만들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3편 참조) 우리는 어떻게 이 편에 있는 가르침대로 좀 더 잘 생활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가정에서 정직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가?
- 4편에서 헌터 회장은 고결성을 지니고 생활함으로써 오는 여러 축복을 언급하고 있다. 사람은 어떻게 고결성을 키울 수 있는가? 주님의 표준에 참되게 생활했을 때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
- 정직함은 어떻게 기쁨을 가져다주는가?(5편 참조) 정직함은 우리가 성신의 동반을 가져오는 데 왜 필요한가? 정직함은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가?

관련 성구

욥기 27:5; 31:5~6; 시편 15편; 잠언 20:7; 엘마서 53:20~21; 교리와 성약 10:25~28; 42:20~21, 27; 51:9; 124:15; 136:20, 25~26; 신앙개조 13조

학습을 위한 도움말

읽으면서 “한 구절에 담겨 있는 개념을 구별하기 위해 단어나 구에 밑줄을 긋고 표시한다 경전의 여백에 여러분이 공부하는 구절의 뜻을 분명하게 해 주는 참조 성구를 적는다.”(나의 복음을 전파하라[2004], 23쪽)

주

1. Doug Brinley, “President Hunter Taught Value of a Penny’s Worth of Integrity,” *Church News*, Dec. 3, 1994, 11; 또한 “Loved by All Who Knew Him: Stories from Members,” *Ensign*, Apr. 1995, 19–20 참조.
2. Don L. Searle, “President Howard W. Hunter, Acting President of the Quorum of the Twelve Apostles,” *Ensign*, Apr. 1986, 24 참조.
3. “We Believe in Being Honest”(1962년 4월 10일 청소년 영적 모임 시리즈에서 주어진 말씀 원고), 8–9,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4. “Basic Concepts of Honesty,” *New Era*, Feb. 1978, 4–5.
5. Conference Report, Apr. 1965, 57–58; 또한 “And God Spake All These Words,” *Improvement Era*, June 1965, 511–12 참조.
6. “We Believe in Being Honest,” 8.
7. “Basic Concepts of Honesty,” 5.
8. “Basic Concepts of Honesty,” 4–5.
9. Conference Report, Oct. 1961, 108.
10.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ed. Clyde J. Williams(1997), 261–62.
11.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90–91.
12. “Prepare for Honorable Employment,” *Ensign*, Nov. 1975, 122–23.
13.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92.
14. “Basic Concepts of Honesty,” 5.
15.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88.



우리의 “온전한 언약”과 “완전한 헌신”을 보여 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

“성공적인 삶에는 … 헌신, 즉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서 우리가 참되다고 알고 있는 원리에 온 마음을 다하고, 그 원리를 깊이 지지하며, 영원히 소중하게 간직할 그런 헌신이 요구됩니다.”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생애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부름받았을 때, 하워드 더블유 헌터는 이렇게 선언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이 부름을 받아들입니다. … 저는 제 인생과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이 봉사를 위해 기꺼이 바칠 것입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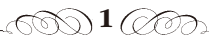
헌터 장로는 그의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 사도로 성임받은 후 그는 교회와 사업과 관련해 맡은 일들을 마무리하고 솔트레이크시티로 이사할 준비를 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돌아갔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고 특히 법률 관련 업무를 그만두는 것은 헌터 장로와 자매에게 어려운 일이었다. 변호사로서의 경력을 마치면서 그는 이렇게 적었다.

“오늘 나는 사무실에서 내가 할 대부분의 일을 마쳤다. 대부분의 미결 사안을 끝냈다. 나는 오늘 사무실에 혼자 있으면서 이제 내 변호사 업무도 끝났음을 깨닫는다. 나는 여러 파일에 기록을 하고 책상에 두었다. … 사무실을 떠나면서 섭섭함을 느꼈다. 나는 변호사 업무를 좋아했으며 그건 지난 수년간 나의 생활이었다. 그러나 이런 섭섭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받은 위대한 부름에 따를 수 있어서 기쁘고 행복하다.”²

헌터 장로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항상 쉽지만은 않다.”³는 것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았다. 헌신에 관하여 그는 이렇게 적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는지, 그리고 봉사하라는 부름에 왜 순종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변호사 업무를 참으로 좋아했지만 나에게 주어진 이 부름에

비교하자면 직업이나 금전적 이익 추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것이다.”⁴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가르침



하나님 아버지는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신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수많은 아름다움을 생각하면, 그에 보답하기 위해 시간이나 돈이나 기타 자원을 헌납하도록 요청받으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가치 있고 필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헌납으로는 충분치 못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은 단순한 기부 이상의 완전한 헌납, 완전한 헌신, 즉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 활동에 대한 헌신은 항상 강조되어야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헌신의 의미가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헌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 사회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우리 개개인의 품행, 개인적인 고결성, 충실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

잠시 경전에서 그러한 훌륭한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경전에 나오는 세 젊은이는 원리에 충실하고 고결성을 지킨다면 생명을 잃게 될 것이 명백했음에도 원리에 충실했으며 고결성을 지켰습니다.

주전 586년 경에 바벨론의 왕인 느브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정복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녀들의 자질과 총명함에 매우 감동되어 그들 중 몇 명을 궁전으로 데려왔습니다.

느브갓네살이 금 신상을 만들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경배하라고 명했을 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난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세 젊은이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명령을 조용히 거절했습니다. 이에 왕은 “노하고 분하여” 그들을 끌고 오라고 명했습니다.(다니엘 3:13) 그는 그들에게 정해진 시간에 금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면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만하여 이렇게 물었습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다니엘 3:15].

세 젊은이는 공손히, 그러나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를 죽이겠다고 위협한다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어떤 이유로 우리를 불에서 구해 주시지 않으시더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다니엘 3:17~18].

물론 느부갓네살의 진노는 더 커졌고, 풀무 하나를 평상시 온도보다 일곱 배나 더 올리라고 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용감한 젊은이들을 옷을 입은 채로 그대로 풀무 안으로 던지라고 명했습니다. 참으로 왕의 명령이 엄했고, 풀무는 몹시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메고 온 병사들은 그 포로들을 앞으로 집어 던지다가 풀무의 불꽃에 타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위대한 기적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충실한 이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세 젊은이는 풀무 가운데서 조용히 걸어 다녔으며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란 왕이 그들을 풀무에서 불러내었을 때, 그들의 옷은 조금도 더럽혀지지 않았으며, 살갓도 타지 않았고 머리카락 한 올도 그슬리지 않았습니다. 이 용감하고 결의가 굳은 젊은이들에게서는 연기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도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다니엘 3:28, 30].

원리에 충실하고 신념에 따라 고결성과 신앙을 지니고 생활하는 능력, 그것이 중요하며, 그것이 기부와 헌신의 차이입니다. 우리 개인 생활에서, 우리 가족 및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고 영향을 주는 모든 장소에서 참된 원리에 헌신하는 것, 바로 그 헌신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

성공적인 삶, 선한 삶, 의로운 기독교인의 삶은, 비록 기부하는 모든 것이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기부하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을 요구합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헌신, 즉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서 우리가 참되다고 알고 있는 원리에 온 마음을 다하고, 그 원리를 깊이 지지하며, 영원히 소중하게 간직할 그런 헌신이 요구됩니다. ...

우리가 우리의 원리에 참되고 충실하며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고자 굳게 결심한다면, 어떠한 왕이나 경쟁이나 불타는 풀무에도 우리는 약해 질 수 없을 것입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번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모사이야서 18:9)⁵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결정하든, 그에 상관없이, 주님께 순종하겠다고 언약한다.

여호수아가 그들 앞에 놓인 여리고 성을 멸망시키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그 성의 견고한 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적인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튼튼한 장벽이었습니다. 적어도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방법은 알지 못하였으나 결과를 확신한 여호수아는 주의 사자가 전해 준 지시대로 행했습니다. 그는 온전한 순종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지시받은 대로 정확하게 행하는 데 신경을 썼습니다. 그 지시가 이상하게 여겨졌지만, 결과를 믿는 신앙으로 그는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 결과로,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주님의 계명과 지시를 따르겠다고 약속한 다른 많은 선지자들의 인도를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일련의 많은 기적 중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주님의 지시를 정확하게 이행했습니다. 경전에는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여호수아 6:20)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의 전쟁에서 휴식을 취할 때, 당시에 몹시 연로했던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함께 불러 모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별사에서 그는 그들이 승리한 것은 주님이 그들 편에 서서 싸워 주신 덕분임을 상기시키고, 하지만 이제라도 주님을 섬기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아브라함이 ... 지시를 받은 후 주저함이나 흔들림 없이 지시받은 대로 행했을 때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군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훌륭한 이 지도자는 언약을 강조했으며 스스로도 자신과 가족을 위해 언약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여호수아 24:15)

이 훌륭한 말씀은 인간으로서, 주님의 소망에 따르는 선지자로서, 그의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 여호수아의 온전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전에 수 없이 그의 순종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결정하던 그것에 상관없이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주님을 섬기겠다는 자신의 결정은 그들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와 무관하며, 그들의 행동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주의 뜻대로 행하겠다고 그의 언약은 그들이나 혹은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행위 때문에 변경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일에서 매우 강했으며, 주님의 계명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순종하겠다고 언약했습니다.⁶

3

지금 바로 엄격한 순종의 길을 택하겠다고 결심한다.

경전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읽고 공부함으로써 주님의 뜻과 복음 율법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왜 순종이 하늘의 첫 번째 율법이라 자주 언급되는지, 또 왜 우리의 구원에 순종이 필수적인지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장 큰 시험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기꺼이 온전하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인생에는 확고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⁷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권고에 순종하겠다는 확고부동한 결정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구약전서에 나오는 여러 위대한 선지자들의 경험은 분명히 우리에게 엄격한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외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지시를 받고서 주저함이나 흔들림 없이 지시받은 대로 행했을 때,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경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창세기 22:2)

그다음 구절은 간단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창세기 22:3).

수년 후에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떠나겠느냐는 제의를 받았을 때, 종의 임무가 주님의 축복을 받았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기에 간단하게 “가겠나이다”(창세기 24:58)라고 대답했습니다.

한 세대가 지난 후,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그것은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일한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나, 그는 라헬과 레아를 양 떼가 놀고 있는 벌판으로 불러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설명했습니다. 라헬[과 레아]의 대답은 간단하고 직설적이었으며 [그들의] 결심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창세기 31:16).

경전에는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본보기들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아브라함, 리브가, 라헬

[과 레아]처럼 옹하기를 택한다면 우리의 대답은 간단히 주님이 명하신 일을 하겠나이다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주님을 섬기기로 결심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일요일 아침, 생활의 복잡한 일들과 유혹이 어느 정도 없어지고 여유를 갖고 영원한 관점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생애에서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 무엇일까를 더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침의 햇살 속에서 우리는 바로 지금, 밤의 어둠이 찾아오고 유혹의 폭풍이 닥칠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행하겠다고 지금 결심할 수 있는 힘을 지니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하기를 기도합니다.⁸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할 필요가 있다.

주님은 군중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태복음 7:21).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주님께서 “단지 사람이 내 권세를 인정한다거나 내 신성에 대해 믿는다거나 내 가르침과 나의 속죄 회생을 믿는 신앙을 표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 가장 높은 승영의 단계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라고 구체적으로 덧붙이셨는데, 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포도원에서 가지치기를 하며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모든 자연은 이와 같은 원리를 보여 줍니다. “일하지” 않는 꿀벌은 곧 벌집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제가 길이나 개미가 모여 있는 곳의 바쁜 개미들을 관찰했을 때, 개미들이 단지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암탉은 단지 울어 대기만 해서는 알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껍어 있는 웅덩이는 녹조가 끼고 거품이 쌓여 질병을 유발하는 늪지이지만, 바위를 넘어 바람을 타고 계곡으로 흘러내리는 깨끗한 산의 시냇물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기초 없이 지은 집에 대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할 때, 쉽고 편한 기초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혼자로도 충분하다는, 알파하고 신중하지 못한 생각은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마태복음 7:26~27] 날씨가 좋을 때에는 그의 어리석음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젠가는 홍수가 나고 급작스럽게 진흙탕 물이 쏟아지고 예측하지 못한 유혹이 닥칠 것입니다. 단지 말뿐이고 굳건한 기초가 없다면 도덕적 근간이 통째로 허물어지게 될 것입니다.⁹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야고보서 1:27).

다시 말해서, 종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는 신앙 고백, 신학 이상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형제를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

우리는 안식일에 예배할 때 종교인이 될 수 있으며, 다른 6일 동안은 우리가 하는 일들에서 종교인다울 수 있습니다. ... 모든 생각에서, 우리가 하는 말에서, 행동과 행위, 우리 이웃을 대하는 일에서, 사업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사에서 우리의 종교적인 믿음과 일치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린도전서 10:31). 우리는 주 중 일상사에서는 종교를 배제하고 이를 안식일에만 국한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울의 권고를 따르려 한다면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¹⁰

5

“살아 있는 회원”은 완전한 헌신을 하려고 노력한다.

주님은 교리와 성약 서문에서 이 교회가 온 땅 위에서 “유일[하고] 참된 살아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나 주는 이 교회를 매우 기쁘게 여기노라. 이는 교회 전체를 말하는 것이요, 개개인에 대하여서가 아니니”(교리와 성약 1:30).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다음과 같은, 영원한 중대성을 띠는 질문이 솟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조직으로서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개인적으로 참되고 살아 있는 회원일까?

“나는 참되고 살아 있는 회원인가?”라는 이 질문으로 저는 우리가 과연 주님과 맺은 성약을 지키는 일에 깊이, 또 완전하게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묻고 싶습니다. 나는 복음대로 생활하고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행하는 사람이 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믿는 종교에 따라 생활하는가? 나는 참되게 남을 것인가? 나는 사탄의 유혹에 대항하여 굳건하게 버티는가? ...

“나는 살아 있는 회원인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자신의 헌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늘 사랑하리라는 의미이며, 그와 더불어 우리가 누구이며, 또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을 우리의 행동이 반영하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걸으면서 매일 기독교인답게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 있는 회원은 완전히 헌신하고자 열심히 애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

살아 있는 회원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자신의 의무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살아 있는 여정의 첫 단계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을 하나님과 천사들과 하늘에 알리는 표적입니다. ...

살아 있는 회원은 내면의 생명을 깨어나게 해 주는 영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런 회원은 끊임없이 영의 인도를 간구합니다. 힘을 주시도록 간구하고 난관을 극복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세상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무한한 것을 향해 있습니다.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 영적인 개선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살아 있는 회원은 자신의 생명과 발전이 어떤 근원에서 오는가를 알고 자신의 생활에 그리스도를 우선으로 삼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요구와 필요와 욕구에 맞춰 줄 것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은 그런 그릇된 의지를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생명의 핵심적인 역할은 하나님께 예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요구대로 하나님이 행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대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리하여 살아 있는 회원으로서 계속해서 발전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

살아 있는 회원은 일단 개심하고 나면, 자신의 형제 자매를 강화하라는 계명을 성취합니다.[누가복음 22:32 참조] 그들은 자신의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며, 결코 이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

살아 있는 회원은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자신의 뜻과 의지에 따라 선하고 고귀한 일을 많이 성취하고자 열심히 노력합니다.[교리와 성약 58:27 참조] ...

살아 있는 회원은 서로 사랑합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아버지를 여인 자녀와 과부를 방문할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킬 것입니다.[야고보서 1:27 참조] ...

우리는 이 교회가 참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라는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답해야 할 질문은 나는 헌신적이고, 참되며, 살아 있는 회원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건하게 서고 이 교회의 참되고 살아 있는 회원이 되어, 교리와 성약에 나오는 “시온 산에,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거룩한 하늘의 처소,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에 이른 자”(교리와 성약 76:66) 중에 속하게 되리라는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¹¹

학습 및 교수 제언

질문

- “기부”와 “온전한 헌신” 사이의 차이에 대해 헌터 회장의 가르침을 다시 살펴본다.(1편 참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때 우리 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 2편에 있는 여호수아에 대한 헌터 회장의 말씀을 복습한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는 것에 대한 이 말씀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언약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이러한 언약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 3편에 있는 경전 이야기를 복습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친, 순종에 대한 다른 경전의 예에는 무엇이 있는가? 왜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권고에 순종하겠다는 확고부동한 ... 결정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가?

- 4편에 있는 헌터 회장의 가르침을 숙고해 본다. 왜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종교대로 생활하는 것에 대한 헌터 회장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 5편에서 “살아 있는 회원”에 대한 모든 설명을 복습한다. “살아 있는 회원”의 이러한 자질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어떻게 더 나은 교회의 “참되고 살아 있는 회원”이 될 수 있을지 숙고해 본다.

관련 성구

사무엘상 15:22~23; 시편 1:1~3; 야고보서 2:14~26; 니파이후서 32:9; 욥나이사서 1:26; 모사이야서 2:41; 엘마서 37:35~37; 제3니파이 18:15, 18~20; 교리와 성약 58:26~29; 97:8; 아브라함서 3:24~26

교사를 위한 도움말

이 장에 있는 인용문 중 몇 가지를 함께 읽는다. 각 인용문을 읽은 다음, 반원들에게 인용문의 가르침과 연관되는 경험이나 경전의 예를 나누어 달라고 요청한다.

주

1. Conference Report, Oct. 1959, 121.
2. Eleanor Knowles, *Howard W. Hunter*(1994), 153.
3. “문을 여는 것과 닫는 것”, *성도의 벗* 1988년 1월호, 62쪽.
4. Knowles, *Howard W. Hunter*, 151.
5. “하나님의 증인이 됨”, *성도의 벗*, 1990년 7월호, 68~70쪽.
6. “하나님과의 언약”, *성도의 벗*, 1983년 1월호, 85~87쪽.
7. “Obedience”(address given at the Hawaii Area Conference, June 18, 1978), 5,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8. “하나님과의 언약”, 85쪽.
9. Conference Report, Oct. 1967, 11, 12~13.
10.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ed. Clyde J. Williams(1997), 111-12.
11. “나는 살아 있는 회원입니까?” *성도의 벗*, 1987년 7월호, 17~19쪽.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교훈을 가르치셨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이기적인 봉사를 계속해서 보여 주셨다. 모든 사람은 그분의 사랑의 수혜자였다”



구주의 사랑의 길을 걸음

“동정심의 시금석이 사도 정신의 척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우리 사랑의 척도입니다.”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생애에서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구주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과 봉사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 우리는 그분이 주신 대로 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¹ 특히 헌터 회장은 교회 회원들에게 매일 매일의 생활에서 구주의 사랑의 모범을 따르도록 권유했다.

사랑의 행위는 하워드 더블유 헌터가 변호사로서 법조계에 몸담고 있을 때 그가 어떤 변호사인지를 나타내 주는 한 측면이었다. 동료 변호사는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무료 법률 상담을 하느라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 이는 그가 단지 청구서를 보낼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 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고 있는지를 더 염려했던 변호사이며, 조언자이자 안내자 그리고 친구였습니다.”²

사랑은 또한 헌터 회장의 교회 봉사의 특징이었다. 헌터 회장이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교사였다고 말한 한 여성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저는 항상 이분이 다른 사람들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이해하려고 귀 기울여 듣고, 그들과 자신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사랑을 보이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분의 큰 기쁨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분은 세계 이러한 미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서 오는 기쁨을 느끼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³

캘리포니아의 헌터 회장의 스테이크에서 온 다른 여성은 이렇게 존경을 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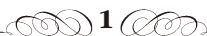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님은 수년 전에 우리 가족이 패서디나 스테이크에 살 때 우리 스테이크 회장이셨습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

니께서 언니와 저를 키우셨습니다. 우리는 방대한 지역을 담당하는 스테이크에서 눈에 띄는 가족이 아니었지만 헌터 회장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에 대한 가장 인상깊은 기억은 제가 자존감을 갖게 해 준 것입니다. 매번 스테이크 대회가 끝나면 우리는 그분과 악수를 나누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분은 항상 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션스 자매님, 어떻게 지내세요? 베틀과 캐롤린은 잘 지내나요?’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는 것은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우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 복리를 염려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기억은 아직도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 줍니다.”⁴

한번은 헌터 회장이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우리의 사명이 봉사하고 구원하며, 북돋아 주고 높여 주는 것이라고 느낍니다.”⁵ 십이사도 정원회에 있는 형제들의 평을 들어 보면 헌터 회장이 그 사명을 얼마나 잘 성취했는지를 알 수 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보고했다. “그분은 사람들을 편하게 느끼게 해 주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그분과 함께 여행하면, 그분은 모든 사람이 보살핌을 받고 있는지, 불편해하거나 소외되고 있거나 않은지 항상 살핍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보고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민감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애로운 마음과 용서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복음과 인류와 인간 본성에 아주 관심이 많은 분입니다.”⁶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가르침



두 가지 큰 계명이 우리의 사도 정신을 평가하는 주님의 시금석이다.

고대에는 시금석이라고 불리는 매끄러운 검은 빛깔의 규산석으로 금의 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금을 시금석에 문지르면 표면에 줄무늬나 자국이 생겼습니다. 금세공인은 이 자국을 색채 분류표 상에 있는 어떤 색깔과 맞추어 보았습니다. 구리나 비금속의 양이 많을 때는 그 자국은 더 빨간색을 띠고 금의 비율이 많을수록 더 노란색을 띠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주 정확하게 금의 순도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금의 순도를 시험하기 위해 시금석을 이용하는 방법은 대부분의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 신속하고 만족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순도에 의문을 품은 금세공인은 불을 이용하는 과정을 도입함으로써 더 정확한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시금석을 마련해 놓으셨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충실성을 나타내며 앞으로 있을 불의 시험을 견디어 낼, 우리의 내적인 사도 정신에 대한 외적인 측정인 것입니다.

한때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을 때 어떤 율법사가 그에게 다가와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위대한 선생님이셨던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에 정통했던 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 사람은 단호하게 두 가지 큰 계명으로 요약해서 답변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리스도는 동의하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누가복음 10:25~28)

우리가 추구하는 영생, 곧 하나님과 같은 생은 두 가지 계명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태복음 22:40).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함께하는 것이며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의미로 보면, 그 두 가지는 동의어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각자가 지키며 생활할 수 있는 계명들입니다.

율법사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주님의 시금석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는 또 다른 경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40). 그분은 우리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며 봉사하는가에 따라 그분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측정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시금석에 우리는 어떤 종류의 자국을 남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좋은 이웃입니까? 그 시험은 우리가 24캐럿의 금임을 보여 줘니까? 아니면 황철광의 흔적을 보여 줘니까?⁷

2

구주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다.

주님께 그와 같이 단순한 질문을 함으로써 자신을 변명하려 했던 것처럼 그 율법사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라고 더 여쭙어 봄으로써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누가복음 10:29)

우리 모두는 그 질문에 영원히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주의 답변에, 가장 값 지고 가장 높이 평가되는 비유의 말씀이 들어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우리 모두가 여러 번 되풀이해서 읽어 보고 들어 본 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누가복음 10:3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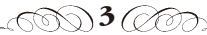
이에 예수님께서서 율법사에게 물으시되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누가복음 10:36) 거기서 주님께서서는 기독교 신앙의 시금석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는 그 시금석 위에 우리의 자국을 재 보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 모두 다음과 같이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체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신명기 22:4) 그리고 소 한 마리도 그럴진대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곤경에 처해 있는 형제를 기꺼이 도와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제임스 이 탈매지 장로님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구실을 찾기

는 쉽습니다. 마치 길가에서 자라는 잡초처럼 아주 쉽게 그리고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예수 그리스도, 437쪽)

사마리아인은 우리에게 참된 기독교인의 사랑의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는 동정심을 갖고 강도들에 의해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가서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봐 주고 그 비용을 지불하고 그를 간호하는 데 필요한 더 많은 것을 제공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웃을 사랑한 한 이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옛 격언에 “자신만을 위해 짐을 싸는 사람은 작은 꾸러미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작은 꾸러미를 크게 만드는 확실한 방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이웃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친구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이웃을 만들어 놓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에는 경계선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편협한 애착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마태복음 5:46)⁸



우리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조셉 스미스는 *Messenger and Advocate*[메신저 및 주창자]에 발표된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되기 위해 서로 서로 사랑하라는 주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성도들이 모두 자신의 형제들에게 아낌없이 주어야 한다는 것, 즉 항상 그들을 사랑하고 또 언제나 그들을 돕는 것은 일종의 의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되기 위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을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곤경에 처해 있는 아버지 없는 아이들과 미망인들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그러한 미덕들이 참된 종교의 큰 원천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예수님의 자녀들을 돌보이게 하는 모든 훌륭한 자질들을 더함으로써 우리들의 신앙을 강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기도의 시기에 간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으며 그러한 보상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에 처해서도 충실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위안입니까!



주님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우리가 우리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봉사하고 있는가로 측정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저로 하여금 의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이와 같은 보상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History of the Church[교회 역사], 2:229)

이 두 가지 미덕 즉 사랑과 봉사는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고 우리 생활에서 화평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월라드 리차즈 장로님은 확실히 가슴 속에 그런 미덕을 품고 계셨습니다. 카테지 감옥에서 조셉과 하이럼이 순교하던 날 오후에 간수는 그들에게 감방 안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조셉은 리차즈 장로를 돌아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우리가 감방 안으로 들어간다면 형제님도 함께 가지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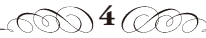
리차즈 장로님의 대답은 사랑의 답변이었습니다. “조셉 형제님, 형제님은 저에게 함께 강을 건너자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님은 제게 카테지로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님은 함께 감옥에 가자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제님은 제가 형제님을 이제 저버릴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제가 하려는 바를 말씀드리지요. 만약 형제님이 ‘반역죄’로 교수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제가 형제님을 대신해서 교수형을 받고 형제님은 자유의 몸이 되게 하겠습니다.”

조셉은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감격해서 감정이 북받쳤을 것입니다.

그말에 리차즈 장로님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B. H. Roberts, *A Comprehensive History of the Church*, 2:283 참조)

리차즈 장로가 받은 시험은 우리들 대부분이 직면하게 되는 시험보다 훨씬 큰 시험으로, 시금석의 시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불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요청받는다면 우리는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우리의 이웃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동정심의 시금석은 우리 사도 정신의 척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우리 사랑의 척도입니다. 우리는 순금의 자국을 남기겠습니까? 아니면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피하여 지나가겠습니까?



우리는 좀 더 단호하게 예수님이 보여 주신 사랑의 길을 걸을 필요가 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비극적인 순교를 당하기 바로 1년 전 나부의 후기 성도들에게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고 키우려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하며 우리의 친구는 물론 원수까지도 사랑하여야 합니다. ... 기독교인은 서로 논쟁하고 다투기를 그쳐야 하며 서로 단합하고 우정을 돈독히 하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History of the Church*, 5:498-99)

그것은 이전에도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훌륭한 권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가까운 이웃이든 먼 곳에 사는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평화를 알게 될 유일한 길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좀 더 친절하고 좀 더 온유하며 좀 더 관용을 베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노하기는 더디하고 돕는 것은 더 빨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정의 손을 내밀되 보복의 손은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 곧 거짓 없는 사랑과 동정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하며 필요하면 고통을 나눠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모임에서 우리는 종종 수전 에반스 맥클라우드가 작사한 아름다운 찬송가를 부릅니다. 제가 그 찬송가의 가사를 몇 줄 읽어 드리겠습니다.

구주여, 나 주 사랑하는 것 배우게 하소서
주께서 보여 주신 길 걸어가며
잠시 멈추어 다른 사람을 돕고 들어 올리게 하소서
제 힘보다 큰 힘 찾게 하소서 ...

온전히 살지도 못하면서
비판하는 나는 누구오니이까?
조용한 가슴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슬픔이 숨었나이다. ...

내 형제 지키는 자가 되리이다
다른 이를 안위할 방법을 배우리이다
상처받은 자 지친 자에게
부드러운 마음 보이고
내 형제 지키는 자 되리이다
주여, 정령 주를 따르리이다
(Hymns, 1985, no. 220)

우리는 더 강한 결심과 더 큰 사랑으로 예수님이 보여 주신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잠시 멈추어 다른 사람을 돕고 들어 올”릴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힘보다 큰 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를 안위할 방법”을 배우기 위해 더 노력한다면 “상처받은 자와 지친 자”를 감동시키고 모든 사람에게 “[더] 부드러운 마음”을 보이기 위해 그 방법을 사용할 기회가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¹⁰

5

사랑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며 결코 시들지 않을 것이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한복음 13:34~35) 우리가 인류라는 가족에 속한 형제 자매들에 대해 가져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 대해 가지신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라고 불립니다.(모로나이사서 7:47)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고통과 희생을 암시해 주는 사랑입니다. 또한 이것은 인간의 영혼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절정이요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표현입니다.

… 사랑은 모든 거룩한 미덕을 내포하고 있으며, 구원의 계획의 처음과 마지막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다른 미덕이 실족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은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거룩한 성품 중에서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크신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억압받는 사람, 과부, 어린아이, 농부와 어부, 양과 염소를 치는 자들, 낮은 사람과 외국인, 부유한 자,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자, 또한 비우호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 굶주린 자, 불우한 자, 병든 자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분은 절름발이, 소경, 귀머거리, 그 밖의 지체 장애자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신병이나 정서적 질병을 일으키게 한 귀신과 악령을 쫓아내셨으며, 죄의 짐을 짊어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의 교훈을 가르쳐 주셨으며 반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기심 없는 봉사를 베푸는 것을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모두가 그분의 사랑을 받았습니. 모든 사람은 “서로 같은 특권을 가졌나니 아무도 금지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니파이후서 26:28) 이러한 것은 모두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의 표현이며 본보기입니다.

만일 전 세계의 남녀가 친절하고 온유하며 겸손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푼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상당히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질시와 교만이 없는 사랑이며, 어떤 보상도 구하지 않으므로 비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은 악이나 악의를 묵인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편협이나 증오나 폭력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롱이나 야비함이나 학대나 배척도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교적 신념이나 인종, 국적, 재정 상태, 교육 또는 문화에 관계없이 기독교인의 사랑으로 각양 각색의 사람들이 함께 살도록 권장해 줍니다.

구주께서는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으며 또한 자신이 “사랑의 피로”(교리와 성약 88:125) 몸을 돌려 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내면의 느낌을 승화시키고,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자신이 믿고 마음속으로 느끼는 것과 자신의 행동과 모습이 일치되게 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 합니다.¹¹

6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좋은 길”이다.

젊은 베른 크롤리 형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나부의 초기 성도들에게 가르친 중요한 교훈에서 무엇인가를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도 좋은 교훈입니다.

부친이 병에 걸리자, 15세에 불과한 베른 크롤리는 집안 소유의 폐차 부속품점을 경영해야 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가끔 어떤 고객들은 이 소년을 속이기도 했으며, 부속품이 밤 사이에 가게에서 없어지곤 했습니다. 베른은 화가 났으며 범인을 잡아서 본때를 보여 주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부친이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한 후에 베른은 어느날 밤 마감 시간에 폐차 부속품점을 돌며 살피고 있었습니다. 날이 거의 어두웠습니다. 부속품점의 한쪽 먼 구석에서 그는 어떤 사람이 큰 기계 하나를 뒷담을 향해 옮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육상 선수처럼 달려가 어린 도둑 한 명을 잡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주먹으로 그 도둑 소년을 한 방 쳐서 분을 풀 다음, 바로 앞에 있는 사무실로 끌고가 경찰을 불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도둑을 잡았으니 복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베른의 부친이 나타나 그의 약한 손을 아들의 어깨에 올려 놓으며, “베른, 네가 약간 화가 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문제는 내가 처리하마”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부친은 물건을 훔치려 하던 소년에게 걸어가서 팔로 그 소년의 어깨를 감싸며 잠시 똑바로 그 소년을 쳐다 본 후 “얘야, 왜 이런 짓을 하지? 왜 그 트랜스미션을 훔치려 했니?” 그리고 나서 부친 크롤리씨는 그 소년의 어깨를 팔로 감싼 채 사무실을 향해 걸어가면서 소년의 자동차에 생긴 문제에 대해 물어 보았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부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네 클러치가 고장이구나. 그게 네 문제로구나.”

한편 베른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개의 클러치에 신경 쓰실 건 뭐람” 하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을 불러 넘겨주면 될 텐데.” 그러나 그의 부친은 말을 계속했습니다. “베른, 이 아이에게 클러치를 주어라. 버려진 베어링도 가져다 주렴. 그리고 압력판도 갖다 주렴. 그러면 될 거다.” 부친은 물건을 훔치려고 했던 젊은이에게 모든 부속품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들

을 가져라. 그리고 이 트랜스미션도 가져라. 훔쳐서는 안 된다. 부탁을 하거라. 어떤 문제도 해결책이 있단다. 사람들은 기꺼이 돕고 싶어 한단다.”

베른 크롤리 형제는 그날 영원히 잊지 못할 사랑에 관한 교훈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 소년은 폐차장 부품점으로 자주 왔습니다. 자발적으로 매달마다 빅 크롤리가 준 트랜스미션을 포함한 모든 부속품에 대한 값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그는 베른에게 베른의 부친이 왜 자기의 행동에 대해 그렇게 대했는지 물었습니다. 베른은 그에게 후기 성도의 믿음에 대해 약간 말했으며, 부친이 주님과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를 말해 주었습니다. 결국 도둑질을 하려던 이 소년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베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졌던 느낌과 제가 취했던 행동을 지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어렸거든요. 또 제가 도둑을 잡았어요. 저는 가장 혹독한 벌을 주려 했지요. 그러나 저의 부친은 제게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방법? 더 좋은 방법? 더 차원이 높은 방법? 더 훌륭한 방법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교훈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로나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더 나은 세상 ... [을] 바랄 것이요. ...

“그의 아들의 은사로써 하나님은 더욱 좋은 길을 예비하셨고”(이더서 12:4, 11)¹²

학습 및 교수 제언

질문

- 헌터 회장이 두 가지 큰 계명을 “주님의 시금석”이라고 언급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1편 참조) 1편 끝에서 헌터 회장이 질문한 것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생각해 본다.
- 헌터 회장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 한 말씀을 복습한다.(2편 참조)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관해 이 가르침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사랑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가?

- 3편에서 헌터 회장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봉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도움이 필요했을 때 여러분을 사랑하고 도와준 사람으로 인해 어떻게 축복을 받았었는가?
- 사랑에 대한 구주의 모범을 따르는 것에 관한 헌터 회장의 가르침을 숙고해 본다.(4편 참조) 다른 사람에 대한 더 큰 사랑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우리가 사랑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5편에서 헌터 회장은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보여 주셨던 몇 가지 방법을 되새기고 있다. 여러분의 삶에서 구주의 사랑을 느낀 적은 언제인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행사”했을 때 어떤 축복이 주어졌는가?
- 헌터 회장이 들려준 베른 크롤리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6편 참조) “분노와 복수심”의 감정을 사랑의 감정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어떤 경험을 통해 사랑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배웠는가?

관련 성구

마태복음 25:31~46; 고린도전서 13장; 에베소서 4:29~32; 요한1서 4:20; 모사이야서 4:13~27; 엘마서 34:28~29; 이더서 12:33~34; 모로나이서 7:45~48; 교리와 성약 121:45~46

학습을 위한 도움말

“여러분이 배운 것에 따라 행동할 때 여러분의 이해는 증가되고 지속될 것이다.(요한복음 7:17 참조)”(나의 복음을 전파하라[2004], 19) 가르침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책임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자문해 볼 것을 고려해 본다.

주

1. “The Gifts of Christmas,” <i>Ensign</i> , Dec. 2002, 18.	6. Knowles, <i>Howard W. Hunter</i> , 185.
2. John S. Welch, Eleanor Knowles, <i>Howard W. Hunter</i> (1994), 119.	7. “주님의 시금석”, 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43쪽.
3. Betty C. McEwan, “My Most Influential Teacher,” <i>Church News</i> , June 21, 1980, 2.	8. “주님의 시금석”, 43~44쪽.
4. Carolyn Sessions Allen, “Loved by All Who Knew Him: Stories from Members,” <i>Ensign</i> , Apr. 1995, 20.	9. “주님의 시금석”, 44쪽.
5. Thomas S. Monson, “President Howard W. Hunter: A Man for All Seasons,” 33.	10. “제일 좋은 길”, 성도의 빛, 1992년 7월호, 61쪽.
	11. “제일 좋은 길”, 61~62쪽.
	12. “제일 좋은 길”, 62쪽.



신앙과 간증

“인생의 가장 큰 성취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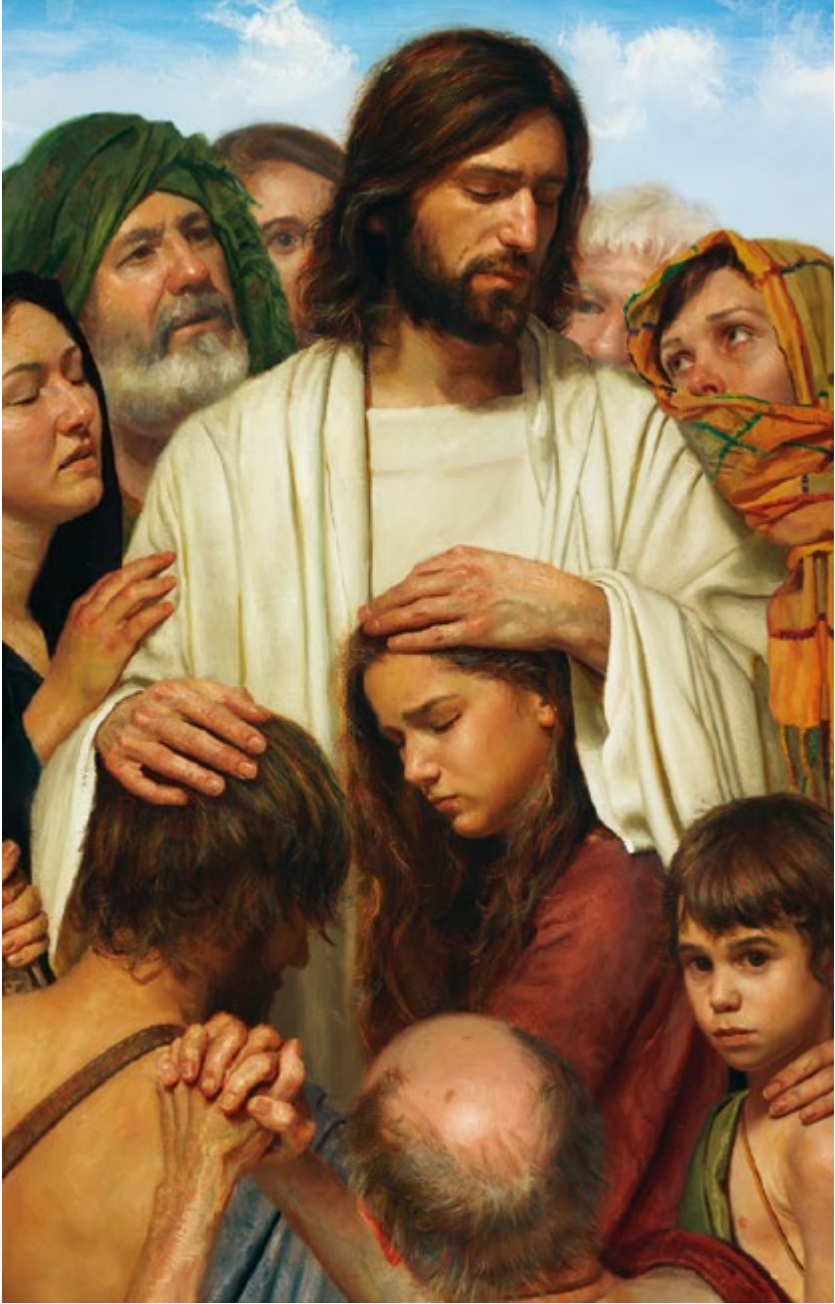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생애에서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은 아이다호 주, 보이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는 동안 일찍부터 간증을 키우기 시작했다. 당시 부친은 교회 회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복음 안에서 그를 키웠다. 헌터 회장은 이렇게 회상했다. “어머님의 무릎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어머님의 무릎에서 간증을 얻었습니다.”¹

해가 거듭될수록 하워드의 간증은 커졌다. 20대에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 있을 때, 그는 진지한 복음 공부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렇게 적었다. “지금까지 살면서 교회 공과에 대부분 참석해 왔지만, 처음으로 복음에 대해 눈을 뜬 것은 애덤스 와드에서 피터 에이클레이튼 형제님이 가르친 주일학교에서였습니다. 그는 풍부한 지식과 젊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과를 공부했고, 그가 과외로 주는 읽기 숙제를 했으며, 주어진 주제에 대해 말하는 것에 참여했습니다. ... 저는 이 기간을 제 인생에서 복음 진리가 펼쳐지기 시작한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전에도 복음에 대한 간증은 늘 갖고 있었지만, 이때 갑자기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²

여러 해가 지난 후, 헌터 회장은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가 창조된 원리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밝혀지고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간증이 우리 영혼에 들어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라는 것, 곧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것, 그분이 실존한다는 것, 우리가 문자 그대로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의심 없이 알게 되는 때입니다.”³

헌터 회장의 신앙과 간증에 관해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가장 큰 탐구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분의 실재성과 개인적 특성을 알아내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지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헌터 회장님에게는 … 강력한 신앙의 힘이 있었습니다. 신성한 것과 영원한 것에 대한 지식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 [그분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큰 확신을 가지고 인류의 구속주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간증의 음성을 높였습니다.”⁴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가르침

1

신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생의 가장 큰 성취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가치있는 다른 성취들처럼 이것은 처음에는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에 대해 신앙을 갖고 믿는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성취입니다.⁵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향할 때, 사람은 영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이 변화는 사람을 평범한 상태에서 들어 올려 고귀하고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갖게 해 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위대한 법칙 중 하나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신앙이 갖고 있는 영적인 힘입니다.⁶

가장 큰 탐구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실재성과 개인적 특성을 알아내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지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식을 탐구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

과학적인 진리의 지식을 찾든가 하나님을 발견하든가 간에 우리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출발점이 됩니다. 신앙은 여러 가지 말로 정의가 되어 왔으나 히브리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뜻 깊은 말로 그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믿음[신앙]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히브리서 11:1). 다른 말로 하면, 신앙으로 우리는 바라는 바에 대해 확신하게 되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 열심히 하나님을 간구하는 사람은 그를 보지는 못하나 신앙으로 그가 실존해 계심을 알게 됩

니다. 그것은 바라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신앙은 확신을 주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 줍니다.

히브리서 저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신앙]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브리서 11:3). 여기서 신앙이란 말은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거나 확신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를 만들어 낼 수는 없으나 신앙이란 이 세상의 기이한 모든 현상이나 모든 자연 속의 현상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줍니다. …

저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의 영의 자녀입니다. 그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우주를 다스리는 영원한 율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인간이 연구를 계속함에 따라 이러한 율법이 하나씩 발견되나 이것은 항상 존재해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⁷

2

하나님의 실재성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충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그분의 뜻대로 행하고 이해력을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실재성을 알기 위해서는, 탐구 과정에서 그분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 길은 위로 이끄는 길이며, 신앙과 노력이 필요하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실재성을 스스로 알기 위한 고된 일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대신 전혀 힘이 들지 않는 반대 방향을 택해 그분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자들의 불확실한 길을 따라갑니다. …

… 때때로 신앙은 어떤 것을 지식화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할 때 참되다고 믿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탐구해야 하며 이런 훈계를 따라야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태복음 7:7~8) …

기꺼이 땀가를 치르지 않으면 값진 것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학자는 학자로서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학식 있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학자가 공부와 노력을 기꺼이 하지 않으면서, 학문 같은 것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 이에 못지 않게 어리석

은 일이, 사람이 단지 하나님을 구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 개인이 하나님의 실재성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구주께서 친히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선언하신 계명과 교리대로 생활해야만 합니다. … 기꺼이 탐구하고, 적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들에게는 하나님의 실재성에 대한 지식이 찾아올 것입니다.

개인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길을 이해할 때, 우주의 그 어느 것도 우연히 생기지 않았으며, 모든 것이 신성하게 예정된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지식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얼마나 큰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가 얻은 이런 이해력은 세상적인 지식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날들이 오고 가며 계절이 각각 자체의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세상의 아름다움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우주의 질서는 더욱 의미 깊어지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은 더욱 더 타당해집니다.⁸

그리스도께서는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한복음 7:17). 주님께서서는 또한 아버지의 뜻과 위대한 계명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태복음 22:37).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아버지를 증거하는 주님 사업의 신성함에 대한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깨닫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야고보의 말씀은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 설명해 줍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야고보서 1:5).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이 과학과 같은 사실적 지식은 아닌 듯합니다. 그보다는 인간이 기도하라는 이 훈계를 따를 때 그들의 질문에 답해 주기 위해 위에서 오는 계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공식과 이를 이룰 수 있는 도구인 신앙, 사랑,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은 인간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인간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이루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일은 쉽지 않으며 매우 힘든 일입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상은 클 것이요, 그들의 영광은 영원하리로다.”(교리와 성약 76:6)⁹

3

우리는 보기 위해서 믿어야 한다.**도마는 믿기 전에 보기를 원했습니다.**

부활하신 날 저녁에 예수께서는 닫혀 있는 방에 나타나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못이 박혔던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 주셨습니다. 십이사도 중의 하나인 도마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도들이 그에게 자기들은 주님을 보았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했습니다. … 도마는 회의적이었고,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요한복음 8:25).

… 어떤 면에서 도마는 우리 시대의 생각을 대변해 줍니다. 그는 주님과 함께 했었고 신앙과 의심에 관한 그분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볼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 믿기 위해 만지거나 보아야만 한다면 신앙이 의심보다 우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도마는 기꺼이 신앙을 행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원했습니다. 신앙이 아닌 지식을 원했던 것입니다. 지식은 과거와 연관됩니다. 과거의 경험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않은 미지의 세계인 미래와 연관됩니다.

우리는 도마를 주님과 함께 여행하고 대화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분이 선택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내심으로 우리는 도마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는 식의 말을 하기보다는 보이지 않은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미래를 향했었기를 소망해 봅니다. …

신앙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일주일 후에 예루살렘의 같은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으나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요한복음 20:26~27) …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요한복음 20:29).

이 사건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훈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도마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고 말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라고 답하셨습니다. …

신앙의 대표적인 사례는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히브리서 11:1).

이 말씀은 온전한 지식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란 미래의 것들에 대한 확신 또는 자신감을 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존재하지만 신앙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거나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들에 대해 확신을 줍니다.

도마는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는 과거를 바라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신앙이 부족하거나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과거에 삽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는 것입니다. 확신과 자신감을 주는 변치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주를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시력을 얻은 사건에 대해 나옵니다. 안식일이었고, 예수님이 그 맹인을 보았을 때 성전 근처에 계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제자들이 그분께 이렇게 여쭙었습니다.

“선생이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니이까 그의 부모 때문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요한복음 9:2~5).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셨습니다.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만약 도마였다면, 명한대로 갔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그 더러운 못에 고여 있는 물에 씻는 것이 뭐가 좋겠습니까?” 또는 “진흙과 섞인 침 속에 무슨 약효가 있습니까?” 이 의문들이 타당해 보일 수도 있으나 만약 그 맹인이 의심하고 의문을 품었다면, 계속 맹인으로 머물렀을 것입니다. 신앙을 갖고 그는 믿었으며 지시받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는 가서 못에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맹인은 믿었으므로 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도마는 볼 수 있을 때까지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세상은 도마 같은 사람들로 가득차 있지만, 그 예루살렘의 맹인과 같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 선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면서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매일 만납니다. … 일부는 믿고, 신앙을 지니며, 침례를 받습니다. 보거나 만질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실증적이고 구체적이며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는 그 신앙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셉 스미스가 아버지와 아들의 방문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다면 침례를 받을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도 실증적이고 구체적이며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러한 증거를 신앙이 대신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던 주님께서 도마 앞에 서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요한복음 20:29).

신앙을 통해 믿는 자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예수께서 세상의 구주이시고, 신앙을 통해 믿는 자들은 보게 될 것이라는 수천 명의 선교사들의 간증에 저의 간증을 보탭니다.¹⁰

4

우리의 신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개인적인 간증으로 이어진다.

어렸을 때 우리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린 소년은 아버지가 붙잡아 줄테니 염려 말라고 말하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것입니다. 그 어린 소년은 아버지가 그를 떨어지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들에 대해 의문과 의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저는 정직한 의심이 마음에 들어와 그 의심을 해소하는 데 큰 갈등을 겪고 있는 청남 청년들에 대해 동정심을 갖습니다. 이 의심들은 도덕적, 영적, 정신적 노력을 기울여 진리를 알고자 하는 정직한 소망을 갖는다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 고민으로 인해 그들은 갈등에서 벗어나 더 확고하고, 더 강하고, 더 큰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 의심과 갈등을 거쳐 간증으로 성숙되는 굳건하고 확고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¹¹

학생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 과학 실습실에서 실험을 하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들이 신앙, 기도, 용서, 겸손과 사랑을 가지고 이와 똑같이 한다면, 이 원리들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얻을 것입니다.¹²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히 믿는 복음이 아니라 행동 계획입니다. … 그분은 내 복음을 “지켜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아름다운 구조와 모습에 주목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서, 행하고, 보고, 느끼고, 주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행함은 개인적 간증의 주요 토대 중의 하나입니다. 가장 확고한 간증은 직접적인 개인적 경험에서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교리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리고 개인적인 간증의 열쇠를 덧붙이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한복음 7:16~17).

구주께서 하신 이 선언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들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 행하려 하면 … 알리라!” 요한은 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그의 [서한]에서 그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



“맹인은 믿었으므로 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게 말했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요한1서 2:6).

말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그 뜻하는 것이 일상 생활에서 역동적 행위로 나타날 때까지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행위로 나타내진 것은 개인적 간증의 가장 좋은 근원이 됩니다. 사람은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 형제님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형제님을 믿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원리대로 직접 살아 봤기 때문에, 개인적 경험을 통해 이 원리가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원리의 영향을 느끼고 그 실질적 유용성을 시험했기 때문에 이 원리가 좋다는 것을 압니다. 이 원리가 참되다는 것을 제 스스로의 지식으로 간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에서 이런 간증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최근에 한 젊은 여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복음에 대한 간증이 없어요.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복음의 가르침을 받아들입니다. 가르침들이 제 삶에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알아요.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효과가 발휘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주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셔서 제게 간증을 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거예요!” 이 젊은 여성이 원하는 것은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자신의 삶을 넓혀 주고 향상시켜 주는 복음의 기적을 이미 보았습니다. 주님은 그녀의 기도에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이 여성은 이미 간증이 있었으나, 그것이 간증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¹³

그리스도의 성임된 사도이자 특별한 증인으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엄숙하게 간증드립니다. … 저는 성신의 권능을 통하여 간증합니다. 저는 마치 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실재하심을 압니다. 또한 신앙을 가지고 듣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저의 간증이 참됨을 확인해 주실 것을 압니다.¹⁴

학습 및 교수 제언

질문

- 헌터 회장은 “인생의 가장 큰 성취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가르쳤다.(1편) 이 진리 탐구를 성취하는데 있어서 신앙의 역할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어떤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는가?
- 헌터 회장은 하나님의 실재성에 대한 지식을 얻는 일에 대해 “그 일은 쉽지 않으며 매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그 지식을 얻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데 계명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
- 3편에서 헌터 회장은 도마와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을 대조하여 우리가 믿는다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가르침을 주었다. 이 이야기에 대한 헌터 회장의 통찰을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 신앙을 행사하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이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가?

- 우리의 신앙에 따라 행하는 것이 간증을 얻는 열쇠라고 한 헌터 회장의 가르침을 복습한다.(4편 참조) 여러분이 신앙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신앙이 어떻게 의심을 극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에 따라 행한 것이 여러분의 간증을 어떻게 강화시켜 주었는가?

관련 성구

요한복음 17:3; 히브리서 11:1~6; 열마서 5:45~48; 30:40~41; 32:26~43; 이더서 12:4, 6~22; 모로나이서 10:4~5; 교리와 성약 42:61

교사를 위한 도움말

“반원들에게 경전과 후기 선지자들의 가르침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한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년], 62쪽)

주

1. J. M. Heslop, “He Found Pleasure in Work,” *Church News*, Nov. 16, 1974, 4, 12.
2. Eleanor Knowles, *Howard W. Hunter*(1994), 70~71.
3.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ed. Clyde J. Williams(1997), 48
4. Gordon B. Hinckley, “A Prophet Polished and Refined,” *Ensign*, Apr. 1995, 35.
5. “Faith as the Foundation of Accomplishment,” *Instructor*, Feb. 1960, 43.
6. Conference Report, Apr. 1960, 124~25.
7. “하나님을 알라”, *성도의 빛*, 1975년 4월호, 43~45쪽.
8. Conference Report, Apr. 1970, 7~10.
9. “하나님을 알라”, 45쪽.
10. Conference Report, Oct. 1962, 22~24.
11. “Secretly a Disciple?” *Improvement Era*, Dec. 1960, 948.
12.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48.
13. Conference Report, Apr. 1967, 115~16.
14. “사도의 그리스도 증거”, *성도의 빛*, 1984년 8월호, 25쪽.



복음을 가르침

“가르치는 목적은 …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생애에서

1972년 4월 연차 대회에서,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하워드 더블유 헌터 장로는, 한 모임의 마지막 연사였다. 그는 말씀을 준비했으나, 그 말씀을 전할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지 않았다. 헌터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나머지 시간을 보니 제가 준비해 온 원고를 안주머니에 넣어야겠습니다. 하지만 잠시 시간을 내서 제가 소년 시절에 체험했던 인상적인 사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청소년을 헌신적으로 맡아서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이 이야기를 들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마침 저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커튼이 열린 틈으로 잔디밭에 내려앉은 새 두 마리를 보았습니다. 한 마리는 좀 큰 것이었고 다른 한 마리는 방금 새 둥지에서 나온 것 같은 작은 새였습니다. 저는 큰 새가 잔디밭 위를 쾅쾅 쾅쾅 뛰어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놈은 잔디밭에 머리를 깊숙이 박았습니다. 그러더니 커다란 벌레 한 마리를 입에 물고 똑바로 서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새는 작은 입을 있는대로 벌렸습니다. 그 큰 새는 작은 벌레를 한 번에 삼켰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큰 새가 나뭇가지 위로 날아가 앉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나뭇가지의 썩은 부분을 한참 뒤지더니 커다란 풍뎅이를 한 마리 잡아 갖고 나타났습니다. 작은 새는 다시 부리를 벌리고 기다렸지만 큰 새는 그 풍뎅이를 한 입에 삼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작은 새의 불평의 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가정에서의 부모의 가르침을 지원한다.

큰 새는 어디론가 날아가 다시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은 새를 주시해 보았습니다. 잠시 후에 작은 새는 잔디 위를 돌아다니며 발로 헤치더니 큰 벌레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맡아 가르치시는 선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빌겠습니다.”

헌터 장로의 이 간략한 메시지는 나중에 “선생님”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¹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은 교회에서 선한 가르침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했다. 그는 새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모범으로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과 같이 교사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의 삶을 더 효과적으로 축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리들을 제시했다. 그는 종종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말하며, 자라나는 세대를 가르치는 그들의 신성한 책임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러한 모임 중 하나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지금 지상에서 선택된 영들이 제 앞에 있는 것을 봅니다. … 저는 [교사 여러분] 각자가 직장에서 주어진 일을 하고 계신 모습을 그려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땅을 갈거나 일구지 않아서 병충해를 입는 열매가 그중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최대한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 땅 전체를 잘 일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와드와 스테이크 내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그들은 하나님 눈에 선택된 영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달리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고 이 복음을 새로 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 대한 여러분의 책임은 참으로 막중합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마음과 신뢰를 얻는다면, 그들의 삶은 유연해져서 쉽게 구부러지고 쉽게 모양을 형성할 수 있으며, 쉽게 인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목자’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

이 얼마나 큰 도전이며, 이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 일이며, 이 얼마나 신성한 책임입니까! …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시는 양을 먹이는 일을 다시 시작할 때 여러분은 사려깊어야 하고, 세심하게 배려해야 하며, 친절하고 부드러워야 하며, 청결한 마음과 주님이 가지셨던 이타적인 사랑을 가져야 하고, 겸손해야 하며,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²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가르침

1

다른 사람들이 경전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가르칠 때 경전을 사용하기를 권고하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여러분의 학생들도 경전을 활용하고 경전에 친숙하게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경전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라며, 또한 여러분이 그 말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학생들이 경전의 힘과 진리에 대해 확신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실제로 경전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는 확신을 갖기 바라며, 그들이 경전을 공부할 때 그들의 문제들과 기도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와 같은 확신을 학생들에게 심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경전을 신뢰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매일 매시간 보여 줌으로써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경전에는 많은 답, 사실상 대부분의 인생 문제에 대한 답이 있다는 신뢰를 그들에게 보여 주십시오. 따라서 가르칠 때, 경전에서 가르치십시오.

“경전에 대한 확신”이란 말에 내재된 [두 번째] 의미는 학생들이 확신을 가지고 경전을 읽어 나가며 필수 성구들과 가르침,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그들에게 표준 경전을 철저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생들 중 아무도 경전을 잘 몰라서 적절한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 못하여 필요한 도움과 인도를 받지 못한 채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부끄러워하며 교실을 나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젊은이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종류의 확신을 모두 가질 수 있도록 성경,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를 충분히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종종 교회의 젊은이들이 표준 경전을 익히지 않는다면 교회 밖의 젊은이들과 매우 비슷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선지자 조셉이 리버티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 쓴 구절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는 아직도 땅에는 모든 교파와 당파와 종파 가운데, 미혹하려고 엮으려 기다리는 사람들의 간교한 계교로 눈이 멀게 된 자들과 다만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 자들이 많음이니라”(교리와 성약 123:12; 강조체 추가).

우리는 교회의 [교사]로서 우리 회원들과 젊은이들이 표준 경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어, 또한 그러한 진리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해 경전의 진리로부터 격리되어 선하고 훌륭하고 의로운 젊은이들이 눈먼 상태의 불행한 범주에 속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³

2

영으로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이 가르칠 때 주님의 영이 함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생활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영의 느낌을 말살하고 우리가 영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가득한 세상적인 요소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이 젊은이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야 합니다. 그들이 확신과 화평을 주는 주님의 영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

이 경륜의 시대에 받은 가장 기본적인 계시 중 하나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은 신앙의 기도로써 너희에게 주어지리니, 만일 너희가 영을 받지 아니하거든 가르치지 말지니라.”(교리와 성약 42:14)

저는 이 구절이 영의 인도 없이는 가르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가르칠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을 배우는 일은 가르치고 확인해 주는 주님의 영의 임재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도 이에 동의한 것 같습니다. “모든 회원은 성신의 권능과 영향으로 복음을 가르쳐야 하며, 성신이 없이는 그 누구도 복음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332쪽]

... 강렬한 감정에 젖거나 눈물을 펄펄 쏟는 것을 영이 임재하는 것으로 여기는 모습을 볼 때면 걱정이 앞섭니다. 분명 주님의 영은 눈물을 포함하여 강한 감정을 불러오기도 합니다만, 그러한 외적인 표시가 영의 임재 그 자체와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많은 훌륭한 형제들을 지켜보았으며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진귀한 영적 경험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은 모두 달랐으나, 각각 나름대로 특별했으며, 그러한 신성한 순간들은 눈물을 동반하기도 하고 동반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종종 그렇기는 하지만, 때로는 그러한 경험들이 완전한 침묵을 동반합니다. 어떤 때는 기쁨을 동반합니

다. 그러한 경험들은 항상 마음을 크게 일깨워 주는 진리와 계시를 동반합니다.

학생들에게 복음 진리를 힘 있게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그들에게 영적 경험을 하게 해 줄 수 있는 길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십시오.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흘리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진리라면 그리고 그것을 순전하게 정직한 확신을 갖고 말한다면, 그 학생들은 진리의 영을 느낄 것이며, 영감과 계시가 마음 속에 들어온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을 발전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순전하게 확신으로 가르친 하나님 말씀의 힘으로 간증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진리를 듣고, 교리에 귀 기울이며, 영의 증거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오게 하십시오. 복음 원리들만 가르치고, 순수한 마음으로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영이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뿐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정신과 마음을 꿰뚫을 것입니다.⁴

3

학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구하라고 권유하십시오.

... 학생들이 복음보다도 교사인 여러분에게 더 충성하게 되면 어떤 잠재적인 위험이 있을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학생들 스스로 경전을 탐구하도록 권유해야 하며, 단지 여러분이 해석하고 제시하는 대로만 받아들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학생들에게 여러분의 개인적 견해가 아닌 주님의 영에 의지하도록 권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직접 나아가도록 학생들에게 권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학생들 곁에 항상 있어 주지는 못합니다. ...

우리의 가장 큰 임무는 이 학생들이 평생 지닐 수 있는 지식의 기초를 주는 것이며, 그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중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학생들의 충성심이 경전과 주님과 회복된 복음의 교리에 있게 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고 참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향하게 하십시오. ... 그들이 홀로 서야만 할 때가 왔을 때 그들을 지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들이 자신의 교사인 여러분에게서 뭔가 개인적이고 특별한 것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지혜 줄 선물을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훌륭한 미래 세대들로 인해 교회 전체가 축복받을 것입니다.⁵

4

개별적으로 다가가십시오.

저는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개별적으로 대하신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단체로 많은 것을 합니다. 교회가 잘 운영될 수 있게 일정 크기의 조직들을 형성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많은 일들은, 사실 가장 중요한 일들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유아 축복을 쌍둥이나 세 쌍둥이라도 한 번에 한 명씩 합니다. 어린이들을 침례하고 확인하는 것도 한 번에 한 명씩 합니다. 성찬을 취하고, 신권에 성임되고, 성전 의식을 받는 것도 개별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개개인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관계를 발전시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여러분 교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늘은 각 개인, 모든 개개인에게 중점을 둡니다.

니파이인들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게로 나아와서 너희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고, 또 내 손과 내 발의 못 자국을 만져 보아 …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무리가 나아갔느니라. 그리고 그들의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았느니라. 그들이 이를 행하되 *하나씩* 나아가 이윽고 그들이 모두 나아가기까지 그리하였느니라. 또한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손으로 만져 보았으며 … 분명히 알고 증거하였느니라.”(제3니파이 11:14~15, 강조체 추가)

이렇게 하기 위해 시간은 걸렸지만, 각 개인이 자신의 눈과 손으로 직접 재확인하고 *개인적인* 증거를 얻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니파이인 어린아이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들의 어린 아이들을 *하나씩*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시더라.”(제3니파이 17:21; 강조체 추가)

몇몇 학생들에게는 그들이 바라는 것과 필요로 하는 것 모두에 대해 개인적인 관심을 보여 주는 것이 어렵겠지만, 그들을 개별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교사인 여러분에게서 뭔가 개인적이고 특별한 것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느 학생에게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알기 위해 기도하고, 영의 속삭임이 올 때 항상 민감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 가장 훌륭한 가르침은 일대일 가르침이며 종종 교실 밖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

각 학생을 개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노력할 때, 여러분은 분명히 다른 학생들보다 잘 못하는 학생들도 있고, 아예 참석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잃어버린 양들을 우리 안으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큼을 기억하[십시오].” (교리와 성약 18:10) 우리 구주께서 우리 개개인을 위해 헤아릴 수 없는 값을 치르셨으므로, 그분의 일을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속죄의 선물이 우리가 책임 지고 있는 모든 청남 청녀에게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그들을 여러분의 반에 활동적으로 남아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 모를 학생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시고,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 필요하다면, 밖으로 나가십시오. 많은 경우에 엽서나 전화, 또는 집으로 직접 방문하면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막 빗나가기 시작한 젊은이에게 보여 주는 개인적인 관심은 나중에 그 개인을 활동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쏟을 수많은 시간, 참으로 수년에 걸친 노력을 절약시켜 줄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강한 사람을 더 한층 견고하게 만들고 저 활동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강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십시오.⁶



모범으로 가르치십시오.

[교사인] 우리가 합당한 모범을 보이고, 부지런하고 방심하지 않는 삶을 살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와드와 스테이크와 교회 지도자들을 존중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아이에게 잘못을 저지를 빌미를 줄 수 있는 부적절한 말이 우리 입에서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한다면, 어린이들은 그대로 따를 허가증을 갖게 됩니다.

모범은 훈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옳은 일을 하라고 설득하려면 스스로 먼저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좋은 훈계를 좋기 때문에 몸소 실천하고, 다른 사람의 불의한 행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말만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 어린이들은 그들이 신뢰하는 사람들을 흉내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뢰가 클수록, 좋게든 나쁘게든 더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선한 성도라면 누구나 진실된 선행을 볼 때마다 그것을 존경하고 모든 선한 모범을 흉내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⁷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계명대로 살고 주님의 계명을 옹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로 가르침의 영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영을 얻고 주님 앞에서 순종의 길을 걸으며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될 것이며, 그들은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⁸

모든 교사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 그리고 조셉 스미스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나타나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 지식과 간증을 가져야 할



효과적인 복음 가르침은 “인간의 영혼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주지 없이 분명히 표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⁹

6

학생들이 기적적인 마음의 변화를 체험하도록 돕는 주님의 도구가 되십시오.

교사가 주님께서서 의도하신 대로 일할 때,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교회의 기적은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는 병 고침이 아니며, 절름발이가 걷고, 맹인이 앞을 보며, 귀머거리가 듣고, 병들어 누워 있는 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교회와 하나님 왕국의 큰 기적은 인간의 영혼의 변화입니다. 스테이크와 선교부들을 순회하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누군가가 진리의 원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생기는 인간 영혼의 변화입니다.

엘마는 그의 시대에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또 이제 보라, 나의 교회의 형제 [자매]들아,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너희는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났느냐? 너희는 너희의 얼굴에 그의 형상을 지녀 보았느냐? 너희는 너희의 마음에 이 크나큰 변화를 경험하였느냐?”(엘마서 5:14) 이것이 가르치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영을 구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 마음을 선한 것으로 채워 준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자녀들의 마음속에 선해지려는 소망, 의로워지려는 소망,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소망,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걸으려는 소망을 심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 큰 변화를 가져오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교사로서 큰 기적을 성취한 것입니다. 참으로 그것은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은 아십니다. ...

교회 회원들의 삶을 되살아나게 하는 영의 권능에 대해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주님 앞에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쉼 없이 일해 여러분께 맡겨진 일을 성취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¹⁰

학습 및 교수 제언

질문

주: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의 관점에서 다음 질문들을 토론해도 좋다.

- 헌터 회장은 학생들이 “경전에 대한 확신”을 얻게 도우라고 교사들에게 권고했다.(1편) 경전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때는 언제인가? 경전에서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던 때는 언제인가? 집에 있는 가족을 포함해 다른 사람들이 경전을 사랑하고 그 권능으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 2편에서 영으로 가르치는 것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대해 어떤 경험을 했는가? 영으로 가르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교사는 학생들이 교사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고 경전과 복음에 충성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3편 참조) 교사는 학생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교사는 학생들이 “홀로 서야만 하는 때가 올 때” 강건하게 남아 있을 수 있게 복음에 뿌리를 내리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 각 개인의 중요성에 관한 헌터 회장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한다.(4편 참조)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그들을 개인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간증을 발전시키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교사

로서 여러분이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다가가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한다.

- 헌터 회장은 모범으로 가르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5편 참조) 우리의 모범이 우리가 하는 말보다 더 강력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은 교사의 훌륭한 모범을 통해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어떻게 부모의 모범이 자녀들을 가르치는가?
- 헌터 회장이 6편에서 설명한 “큰 기적”을 여러분은 교사로서 또는 학생으로서 언제 경험했는가? 여러분의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친 교사들에 대해 생각해 본다. 그들의 어떤 면이 효과적인 영향을 주었는가? 우리는 가정에서든, 교실에서든, 또는 기타 다른 곳에서 어떻게 더 큰 권능으로 가르칠 수 있는가?

관련 성구

요한복음 21:15~17; 고린도전서 12:28; 디모데후서 3:14~17; 니파이후서 33:1; 엘마서 17:2~3; 31:5; 교리와 성약 11:21~22; 50:17~22; 88:77~80

교사를 위한 도움말

이 장 마지막에 나오는 질문들이나 이 장과 연관된 기타 다른 질문들을 다른 종이에 적는다. 반원들에게 질문을 골라 그에 대한 답이 되는 가르침을 이 장에서 찾게 한다. 그들이 찾은 것을 나눠 달라고 한다.

주

1. “선생님”, 성도의 벗, 1973년 2월호, 17쪽.	6. “Eternal Investments,” 4-5.
2. <i>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i> , ed. Clyde J. Williams(1997), 210-11.	7. “Formula for a Great Teacher”(address given at Primary conference, Apr. 1965), 3-4,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3. “Eternal Investments”(address to CES religious educators, Feb. 10, 1989), 2; si.lds.org.	8. “Formula for a Great Teacher,” 1.
4. “Eternal Investments,” 3-4.	9. <i>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i> , 188.
5. “Eternal Investments,” 2-3.	10. “Formula for a Great Teacher,” 4-6.



“봉사함이 … 못지 아니하였나니”

“우리들 대부분은 세간의 관심 밖에서 우리 일을 묵묵히 하는 조용하고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신이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대단한 사람들보다 ‘봉사함이 … 못지 [않습니다.]’”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생애에서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은 헌신적인 지도자요 사랑받는 선지자로서뿐만 아니라 조용히 봉사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봉사 자체가 중요하지, 그것이 알려지느냐, 알려지지 않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 장로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님은 성격이 온유하신 [분입니다.] … 이집트에서 그분과 함께 하루종일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지치도록 일한 뒤 하루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아침에 깨어 보니 그분은 말없이 저의 구두를 닦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남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그 일을 끝내기를 바라셨던가 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헌터 회장이 겸손하게 봉사하는 모습을 두 사람 모두 사도로 부름받기 몇 년 전인 1956년에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성전이 헌납될 때 처음 보게 되었다. 몬슨 회장은 이렇게 회상했다.

“헌터 회장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그분이 캘리포니아 패서디나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하며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성전의 헌납을 위해 지역 차원의 준비를 하는 책임을 맡았을 때였습니다. 입장권을 인쇄하는 것은 제 특권이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대단히 컸습니다. 저는 입장권과 관련된 부분만 보았습니다. 색깔로 구분되어 있었고, 복잡하게 분류되어 있었으며,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조직적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이목이나 관심을 받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삶을 바꾸는 봉사를 행한다.

자신이 이 기념비적인 행사를 이끈 원동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후하게 공을 돌렸고 자신의 이름이 과도하게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²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는 이렇게 관찰했다. “그분은 이기심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식견이 많은 분이었지만, 형제님들 가운데 앉아서 말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표출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³

눈에 띄지 않거나 칭송받지 못해도 모든 봉사 행위가 하나님 눈에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헌터 회장은 이해했다. 헌터 회장이 사망하기 몇 주 전에, 한 친구가 이렇게 물었다. “사랑하는 회장님, 무엇이 가장 고귀한 직책 또는 부름입니까, 사랑받고 신뢰받는 친구라는 직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직책입니까?” 이 질문을 듣고, “회장님은 조용히 몇 분간 깊이 생각하시더니, 천천히 친구의 손을 잡고 그를 향해 머리를 돌리고,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둘 다 신성한 신뢰의 부름입니다.’”⁴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가르침

1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봉사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칭송을 받는 사람들보다 그 “봉사함이 … 못지 [않다.]”

젊고 용감한 모로나이 장군에 대해 경전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과거에나, 현재에나, 장차 언제까지나 모로나이와 같을진대, 보라, 지옥의 권세들이 영원토록 흔들렸을 것이요, 참으로 악마가 결단코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리라.”(엘마서 48:17)

유명하고 위대한 남자에게 이것은 얼마나 훌륭한 칭찬입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칭찬으로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두 구절 뒤에는 모로나이보다는 눈에 덜 띄는 활약을 한 힐라맨과 그의 형제들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이제 보라, 힐라맨과 그의 형제들도 백성에게 봉사함이 모로나이 못지 아니하였나니”(엘마서 48:19).

힐라맨은 모로나이처럼 눈에 띄거나 두드러지지 않는 않았지만 모로나이 못지 않게 봉사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도 모로나이 못지 않게 도움이 되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모로나이 장군의 생애를 공부함으로써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신앙, 봉사, 헌신, 결심 등 기타 많은 신실한 성품을 보여 주는 훌륭한 모범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훌륭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세상의 이목이나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경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봉사함이 … 못지 아니[한]” 사람들을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매일 하루 종일 동료들의 찬사를 받는 모로나이처럼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세간의 관심 밖에서 우리 일을 묵묵히 하는 조용하고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신이 외롭고, 두려움 많고,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대단한 사람들보다 “봉사함이 … 못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군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합당한 후기 성도 가정에서 조용히 이름 없이,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베푸는 훌륭한 봉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만 명에게 봉사하고 축복이 되는 일이지만 그들의 이름이 공개적으로 칭송되거나 전국 방송에 나가지는 않을 복음 교리반 교사, 초등학교 음악 지도자, 스카우트 지도자, 상호부조회 가정 방문 교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수만 명이 있기에 매일 우리는 기회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경전에 나와 있듯이 그들은 신문 일면을 장식하는 사람들의 삶보다 “봉사함이 … 못지” 않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세상의 이목은 너무 자주 여러 사람보다 한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개인들이 그들의 동료들 가운데서 선발되어 영웅으로 떠오르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러한 이목의 집중은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칭찬하거나 기억하는 한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러한 인정을 받을 만하지 못한 것이나 심지어 잘못된 가치를 칭송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웅과 모범들을 현명하게 선택해야 하며,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지만 우리 시대의 모로나이보다 “봉사함이 … 못지 아니[한]” 수많은 시민들과 친구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⁵

2

경전에는 다른 사람의 그늘에서 봉사하며 중요한 공헌을 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아마도 여러분은 저처럼, 경전에서 세상의 각광을 받지는 못했지만 진실로 영웅적이었던 것을 역사가 증명한 흥미로운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니파이의 이야기를 읽은 많은 사람들이 리하이의 또 한 명의 용감한 아들인 샘을 놓치기는 쉽습니다. 니파이는 몰몬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샘은 어떻습니까? 샘의 이름이 몰몬경에 언급된 것은 단지 열 번에 그칩니다. 리하이는 그의 후손들에게 권고하고 축복하면서, 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와 네 자손이 복이 있도다. 이는 네가 네 아우 니파이처럼 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임이라. 또 네 자손은 그의 자손과 함께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너는 참으로 너의 아우와 같을 것이며, 네 자손은 그의 자손과 같을 것이요, 너는 네 모든 날 동안 복을 받으리라.”(니파이후서 4:11)

샘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자신보다 더 칭송받는 아우를 지지하고 돕는 것이었으며, 그는 결국 니파이와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된 축복과 똑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니파이에게 약속된 것 중에 아무것도 충실한 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이 없지만, 샘의 봉사와 공헌에 대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는 바는 거의 없습니다. 그는 살아 있을 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영원을 놓고 볼때 성공한 지도자요 승리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게 공헌합니다. 이스마엘은 니파이의 가족과 함께 여행하며 개인적으로 큰 희생을 치렀고, “많은 고난과 굶주림과 목마름과 피로함을”(니파이전서 16:35) 겪었습니다. 이 온갖 고난을 겪는 중에 그는 광야에서 숨졌습니다. 힘든 시간과 조건 속에서 그가 치른 희생을 우리는 이해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좀더 깊은 통찰과 이해가 있다면, 광야에서 그의 딸들이 슬퍼한 것처럼, 이 사람이 내어준 것, 오늘날 우리가 몰몬경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사람이 포기한 것에 대해 우리도 애도할 것입니다.

“봉사함이 … 못지 않[은]” 그러한 남녀들의 이름과 기억들이 몰몬경에 무수히 많습니다. 어머니 새라이아, 레이맨인 왕비의 하녀였던 에이비시

등 수많은 인물들이 각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는 공헌을 했습니다.

제이라헤틀라 땅을 다스렸고 유명한 베냐민 왕의 아버지였던 모사이야 왕의 생애를 다룬 구절은 단지 열두 구절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가 백성들에게 베푼 봉사는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많은 가르침과 예언”으로 인도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였습니다]”(욘나아서 1:13). 립하이, 앰올레크, 그리고 부당하게 비난받았을 때 다시 비난으로 응수하지 않은 고귀한 영혼의 소유자인 페이호랜은 각광 받는 다른 사람의 그늘에서 비이기적으로 봉사한 사람의 또 다른 예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병사 티앤크, 개다이애틀톤의 도전이 있을 때 회개 하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친 대판사 레이코니우스, 거의 언급되지 않은 선교사 옴너와 힘나이는 모두 그들의 동료보다 “봉사함이 … 못지 아니” 하였으나 경전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엘마의 충실한 아들인 시블론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장차 지도자가 될 힐라맨과 범법을 저지른 코리애틀 이야기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의인이라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고”(엘마서 63:2)라고 묘사된 것은 중요합니다. 힐라맨서에 언급된 위대한 선지자 니파이에게는 리하이라는 아우가 있었으며 그에 대해서는 지나가며 살짝 언급된 것이 전부이지만 “의에 관한 것으로는 조금도 [니파이]에게 뒤지지 아니하였더라.”[힐라맨서 11:19; 또한 18절 참조]고 설명된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⁶

3

우리가 비록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일지라도, 왕국에서 큰 봉사를 할 수 있다.

물론 우리 경륜의 시대에도 이같이 봉사하는 사람들의 예가 많이 있습니다. 올리버 그랜저는 이 후기에 조용하게 지지한 사람들 중 하나로 주님께서 교리와 성약 117편에서 기억하신 인물입니다. 올리버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하지 않으므로 제가 이 초기의 충직한 일꾼을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올리버 그랜저는 조셉 스미스보다 열한 살 많았으며, 선지자처럼 뉴욕주 출신입니다. 그는 서른 세 살 때 극심한 추위에 노출되어 시력을 많이 잃었습니다. 제한된 시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임 선교사로 세 번이나 봉



에이비시(왼쪽)가 레이맨인 왕후의 손을 만지자, 왕후가 땅에서 일어났다.(엘마서 19:15~29 참조)

사했습니다. 커틀랜드 성전에서도 봉사했으며 커틀랜드 고등 평의원으로도 봉사했습니다.

성도들 대부분이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추방당했을 때, 교회는 아직 다 갠지 못한 빛이 있었습니다. 올리버는 조셉 스미스와 제일회장단을 대표해 커틀랜드로 돌아가 교회 일을 정리하라는 지명을 받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 교리와 성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나의 교회의 제일회장단의 빛 갠 일에 힘써 싸우라.”(교리와 성약 117: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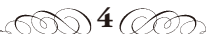
그는 관련된 채권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이 임무를 처리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이렇게 썼습니다. “파웨스트로 떠난 사람들이 끝내지 못한 일을 처리하고 약속을 이행하여 그들의 정직성을 지킬 수 있도록 수고

한 올리버 그랜저의 일 처리 능력은 참으로 칭찬할 만하며, 그는 가장 존경스럽고 가장 감사할 인물이라 할 만하다.”(Horace Kingsbury, as cited in Joseph Smith, *History of the Church*, 3:174)

올리버가 커틀랜드에 있는 동안, 불만을 품은 교회 회원들을 포함해 일부 사람들이 거짓 혐의를 퍼뜨려 제일 회장단에 대한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들의 정직성에 의문을 불러일으키고자 애쓰고 있었습니다. 올리버는 진정으로 충실하게 봉사해 “제일 회장단의 빛을 갠았습니다.” … 주님은 올리버 그랜저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대대로 영원무궁토록 거룩한 기념으로 간직되리라.”(교리와 성약 117:12) “내가 나의 종 올리버를 들어 올리리니, 그의 영혼이 고결함으로, 그를 위해 위대한 이름을 지상과 나의 백성들 가운데 가져오리라.”(*History of the Church*, 3:350)

1841년에 그가 사망했을 때, 커틀랜드 지역에 남은 성도들이 별로 없었고 성도들의 친구들은 더 적었지만, 인근 도시에서 온 수많은 군중이 올리버 그랜저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올리버 그랜저는 오늘날 교회의 다른 초기 지도자들만큼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국에 베푼 봉사를 생각하면 그는 위대하고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주님을 제외하고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그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할 것이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⁷



니파이는 자신의 힘과 축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훌륭한 모범을 보여 준다.

우리는 항상 주목을 받는 것이 특별한 일이라는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적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명예를 탐하게 되어 조용히 베푼 봉사의 중요성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동안의 인기로 집중해서는 안 되며, 비록 6시 뉴스에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을 불러오는, 진실하지만 종종 알려지지 않는 봉사를 추구해야지, 세간의 관심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 박수와 관심은 우리 중 가장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영적인 취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인기가 생겨 주목받게 된다면, 경전에 나오는 명성을 얻은 인물들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니파이가 그러한 모범적인 인물 중의 한 명입니다. 가족과 함께 광야 여행을 모두 마친 후에도 그의 태도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내가 기뻐하기를 원할 때에 나의 마음은 나의 죄로 인하여 신음하는 도다. 그러할지라도 나는 내가 누구를 의뢰하여 왔는지 아노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셨나니, 그는 나를 인도하사 광야에서 나의 고난을 지나게 하셨으며, 큰 깊음의 물 위에서 나를 보전하셨도다.

그는 그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사 참으로 나의 육체가 소멸되기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는 나의 원수들을 파하사, 그들로 내 앞에서 크게 떨게 하셨도다.”(니파이후서 4:19~22)

세상의 각광은 니파이가 자신의 힘과 축복의 근원이 누구인지 못 보게 만들지 못했습니다.⁸

5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를 이해하면, 어디에서 봉사하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세상의 관심과 이목을 받는 시기에 우리가 이런 질문에 답하는 것 또한 유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봉사하는가?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를 이해하면, 어디에서 봉사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이 르우벤 클라크 회장은 이 중요한 원리를 자신의 삶을 통해 가르쳤습니다. 1951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이 돌아가신 후에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이 교회 회장으로 지지받았습니다. 그때까지 클라크 회장은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 그리고 이어서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의 제1보좌로 봉사했었습니다. 맥케이 회장은 그분들의 제2보좌였습니다.

대회 마지막 모임에서 교회 업무를 처리하고 있을 때, 스티븐 엘 리차즈 형제가 제일회장단 제1보좌로 부름받고 지지받았습니다. 이어서 제이 르우벤 클라크 회장이 제2보좌로 지지받았습니다. 그 밖의 교회 지도자들을 지지한 후, 맥케이 회장은 그의 보좌들을 그 순서대로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게 된 주된 이유는 [십이사도] 평의회 of 성임 서열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분은 교회의 그 감리 조직에서 자신의 서열대로 앉아 계시며, 앞으로도 새로운 제일회장단 정원회는 그와 같은 성임 서열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Conference Report, 9 April 1951, p. 151)

이윽고 클라크 회장은 맥케이 회장의 뒤를 이어 말씀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때 그가 한 말씀은 짧지만 매우 설득력 있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주님께 봉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봉사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봉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우리는 합당하게 부름받은 직책을 받아들이며, 직책을 구하지도 거절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맥케이 회장님과 리차즈 회장님께 약속드립니다. 제게 맡겨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 그분들이 제게 수행할 권한을 주는 한, 제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제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 온전히 충성스럽게 헌신적으로 봉사하겠습니다.(같은 책, 154쪽)

클라크 회장이 가르친 교훈은 미드 맥과이어가 지은 이 시에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었으며, 이 시는 여러 차례 인용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어디에서 일하오리까?”
나의 사랑은 한없이 따스하게 흘러 넘쳤다.
그러자 그분은 아주 작은 곳을 지목하셨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위해 그곳을 돌보아 다오.”
나는 얼른 대답했다. “안 됩니다. 그곳은 안 됩니다!
왜 그곳입니까, 제가 일을 아무리 잘해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작은 곳은 제가 일할 곳이 아닙니다.”
그러자 그분이 하신 말씀은 강경하지 않았다.
그분은 친절하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아, 내 아들이야, 네 마음을 들여다보아라.
너는 그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해 일하는 것이냐?
나사렛은 작은 곳이었다.
갈릴리도 그러했다.”

[Best-Loved Poems of the LDS People, comp. Jack M. Lyon and others(1996), 152 참조]

베냐민 왕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섬기며 내 날을 보내었다고 너희에게 말하였다 하여, 내가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다만 하나님을 섬겨 왔을 따름임이니라. 그리고 보라, 내가 이러한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함은 너희로 지혜를 배우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임을 너희로 배우게 하려 함이니라.(모사이야서 2:16~17)⁹

6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경계하는 가운데 충실하고 조용하게 봉사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이 길을 찾도록 돕는 것이 관심사인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멈춰 서서 보고 들으라고 경고하는 철로 건널목 표지판이 우리의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살면서 서둘러야 할 때 멈춰 서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려깊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그들의 필요 사항을 채워 주기 위해 항상 노력하십시오. 우리가 작게나마 그들의 성공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바람과 문제들을 알아보십시오.¹⁰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는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 주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잃는 자들은 찾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우리의 생애를 다 소모하고 소진해야’(교리와 성약 123:13) 한다고 말씀했습니다.”(성도의 빛, 1990년 1월호, 6쪽)

여러분이 하는 일 대부분이 여러분을 그리 유명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고 느낀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살았던 가장 훌륭한 사람들 또한 대부분 그리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충실히 또 조용하게 봉사하고 성장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경계하십시오.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의 “관심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이 길을 찾도록 돕는 것일”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
시리라”(마태복음 6:1~4).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항상 그렇게 갚으시기를 간구합니다.¹¹

학습 및 교수 제언

질문

- 헌터 회장은 힐라맨과 그의 형제들이 모로나이 장군보다 “봉사함이 ... 못지 아니” 한 것을 강조함으로써 무엇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고자 하는가?(1편 참조)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 2편에 나오는 경전의 예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이 예들이 우리가 봉사할 때 느끼는 감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칭찬을 구하지 않고 조용히 봉사한 다른 사람들 덕분에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 우리는 헌터 회장이 말씀한 올리버 그랜저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3편 참조) 왜 우리가 봉사할 때 인정받는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가?
- “인기의 각광”이나 명성은 어떻게 위험할 수 있는가?(4편 참조) 니파이의 모범은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방법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 5편에 나오는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회장의 말씀을 복습한다. 클라크 회장의 태도와 말씀에서 어떤 감명을 받았는가? “나는 왜 봉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을 생각해 본다. 우리가 어떤 직책에서 봉사하든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
- 6편에서 헌터 회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잃는 자들은 찾게 될 것”(마태복음 10:39; 16:25 참조)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전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은 이 말씀이 왜 옳다고 느끼는가? 봉사가 여러분에게 어떤 행복을 가져다주었는가?

관련 성구

마태복음 6:2~7, 24; 20:25~28; 야고보서 1:27; 교리와 성약 76:5~7; 121:34~37

학습을 위한 도움말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함께 나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사고는 더욱 선명해질 수 있으며, 기억력도 증가할 것이다.”(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 17쪽)

주

1. Neal A. Maxwell, “Meek and Lowly”(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Oct. 21, 1986), 8; speeches.byu.edu.
2. Thomas S. Monson, “President Howard W. Hunter: A Man for All Seasons,” *Ensign*, Apr. 1995, 31.
3. James E. Faust, “Howard W. Hunter: Man of God,” *Ensign*, Apr. 1995, 27.
4. Jon M. Huntsman Sr., “A Remarkable and Selfless Life,” *Ensign*, Apr. 1995, 24.
5. “No Less Serviceable,” *Ensign*, Apr. 1992, 64–65.
6. “No Less Serviceable,” 65.
7. “No Less Serviceable,” 65–66.
8. “No Less Serviceable,” 66.
9. “No Less Serviceable,” 66–67.
10.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ed. Clyde J. Williams(1997), 267.
11. “No Less Serviceable,” 67.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자 한다면,
그분이 보여 주신 모범대로 똑같이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름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그 대답에 따라 더 큰 용기를 내어 행동해야 합니다.”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생애에서

헌터 회장의 제2보좌로 봉사했던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헌터 회장이 “자신이 섬기는 구주의 모범을 좇아, 자신이 가르치는 대로 살았다.”¹고 말했다.

헌터 회장의 한 절친한 친구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 주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범으로 보이신 특성들은 놀랍도록 이타적인 헌터 회장의 삶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모든 인류를 친구로 여겼습니다.”²

헌터 회장과 30년 이상 가까이 일한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헌터 회장은] 자신이 따라가야 할 길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길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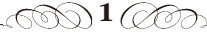
재임 기간 동안 헌터 회장은 교회 회원들에게 구주의 모범을 따르라는 사랑 어린 격려를 계속했다. 교회 회장이 되고 처음으로 한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교회의 모든 회원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모범에, 특히 그분이 보여 주신 사랑과 소망, 동정심에 더 주의를 기울여 생활할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저는 우리가 서로에게 더 친절하고, 더 공손하며, 서로를 더 겸손하게 대하고, 더 인내하고 더욱더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갖고 있으며, 모든 사람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더 철저하게 생활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권유를 할 때, 주님께서 차가운 리버티 감옥 깊숙한 곳에 갇혀 있던 선지자 조셉에게 말씀하셨듯이 ‘설득으로, 오

래 참음으로,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 위선이 없이 그리고 간교함이 없이'(교리와 성약 121:41~42) 해야 합니다.”⁴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완전한 모범을 보여 주셨다.

빛이 된다는 것은 모범을 보이는 것, 즉 다른 사람들의 귀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 훌륭한 모범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우리는 성약을 맺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에 대해, 그분이 가르치신 것들에 대해, 그분이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행하신 것들에 대해 배울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배우고서 그분의 모범을 따르라는 계명을 받았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 주신 모범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그리스도는 전세에서 순종적이고 용감하셨으며, 그렇기에 지상으로 와 살과 뼈의 육신을 받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2. 주님은 해의 왕국의 문을 열기 위해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3. 그분은 신권을 소유하셨고, 구원과 승영을 위한 복음 의식들을 받으셨습니다.

4. 예수께서는 3년 동안 성역을 베푸시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진리를 증거하셨으며, 이생에서는 기쁨과 행복을, 그리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5. 주님은 어린이를 축복하고, 침례와 병 고침, 신권 성임과 같은 의식들을 수행하셨습니다.

6. 그분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의 명으로 맹인이 시력을 얻고, 청각이 없는 사람이 듣기 시작하고, 절름발이가 뛰고, 죽은 사람이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7. 아버지의 생각과 뜻에 따라 예수님은 죄 없는 완벽한 삶을 사셨고, 신성한 속성을 모두 얻으셨습니다.

8. 그분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즉, 영이 인도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모든 걱정을 다스렸고 육욕적인 상태를 초월하셨습니다.

9. 주님은 속죄를 통해 아담의 타락이 초래한 [영적 및 육체적] 사망에서 인간을 구속하셨습니다.

10. 지금은 부활하시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신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얻으셨으며, 아버지의 충만함을 받고 아버지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보여 주신 모범대로 똑같이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⁵

죄를 범할 수도, 유혹에 굴할 수도, 생명과 구원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도 있으셨으나 그분은 끝까지 참되게 남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굴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었다면, 참된 의미의 시험이 될 수도 없고,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승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죄를 지을 능력이 없는 존재라면, 그것은 선택의지 역시 없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선택의지를 수호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만일 하고자 하셨다면 그분은 죄를 지을 수도 있으셨습니다.⁶

예수님은 육신의 생명을 거두는 순간에도 당신 영의 숭고함과 큰 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최후까지 자신의 슬픔이나 고통은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당신을 따르는 이들의 현재와 장래를 염려했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개인적인 안전과 교회의 안전이 오직 그들이 서로 조건없이 사랑하는 데 달려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힘을 그들에게 필요할 것을 해 주시기 위해 온전히 바치셨으며, 그럼으로써 교리로 가르친 바를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사도들에게 위로와 계명과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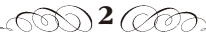
지상에 계시는 동안, 주님은 성지에 있는 양 떼 가운데서 성역을 베푸실 때에나, 부활하신 후 서반구에 흩어진 양 떼에게 성역을 베푸실 때에도 개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군중에 둘러싸여 계셨을 때에도 12년 동안 앓아 온 병에서 고침을 받고자 했던 여인이 당신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누가복음 8:43~48 참조) 또 언젠가 주님은 죄를 지어 고소당한 여인을 정죄하려 한 소견 좁은 무리와 마주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우치고 있음을 아신 듯, 그리스도께서는 개인의 가치를 보는 쪽을 선택하여, 그녀를 보내시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이르셨습니다.(요한복음 8:1~11 참조) 또

한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하나씩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제3니파이 17:21; 강조체 추가)하셨습니다.

셋세마네와 갈보리에서 보낼 고난의 시간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며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도, 구주께서는 헌금함에 동전을 넣는 과부에게 관심을 보이셨습니다.(마가복음 12:41~44 참조) 또, 모여든 사람들 때문에 구주를 볼 수가 없자 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키 작은 삭개오를 바라보기도 하셨습니다.(누가복음 19:1~5 참조)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겪으실 때에도 구주께서는 당신의 고통은 생각지 않고 자신에게 생명을 준 여인이 울고 있는 것을 염려하셨습니다.(요한복음 19:25~27 참조)

우리가 따라야 할, 이 얼마나 훌륭한 모범입니까!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주님은 자신이 큰 슬픔과 고통 중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 주님의 생애는 자신이 무엇을 얻을까를 염려하는 생애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자 다가가는 삶이었습니다.⁸



언제 어느 때나 항상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라.

육신의 인간에게 이제까지 던져진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는 세상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신 다음 질문이었습니다. 구주께서는 신대륙의 제자들에게, 즉 구주께서 그들의 곁을 곧 떠나실 것을 알고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기를 더욱더 열망한 한 무리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답하셨습니다.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제3니파이 27:27)

세상은 우리에게 “내 말대로 하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나 “내 말대로 하라”고 충고해 주는 사람들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대로 하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물론, 인류 역사에서 단 한 분만은 당연하고도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역사를 더듬어 보면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도 흠이나 결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그 의도가 선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완전한 모형이 되거나, 한 점의 오류도 없는 모범을 보일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상이 되시고 “광명한 새벽 별”(요한계시록 22:16)이 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외에 아무런 망설임 없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날 따르라, 내게서 배우라, 내가 행하는 바를 너희가 본 대로 너희도 행하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고 내가 주는 떡을 먹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율법이며, 빛이니 나를 바라보면 너희가 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마태복음 11:29; 16:24; 요한복음 4:13~14; 6:35, 51; 7:37; 13:34; 14:6; 제3니파이 15:9; 27:21 참조)

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외침입니까! 우리가 따를 모범이 부재한 불확실성의 시대에 이 얼마나 확실한 모범입니까? …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 인류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발전하며, 어떻게 더욱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가를 가르치기 위해 의로운 생활과 친절과 자비와 동정의 온전한 모범을 보여 주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평생토록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을 따릅시다. 그분을 우리의 귀감과 지침으로 삼읍시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그 대답에 따라 더 큰 용기를 내어 행동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주께서 아버지의 사업을 행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예수님처럼 됩시다”(어린이 노래책, 34쪽)라고 노래하는 것처럼 그분과 같이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힘이 허락하는 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완전하고 죄 없는 모범이신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⁹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수없이 반복하신 권고인 동시에 막중한 임무 부여의 의미가 되는 부름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에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태복음 4:19)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질문한 젊은 부자에게 예수님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마태복음 19:21)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요한복음 12:26)고 말씀하십니다.¹⁰

주님의 모든 가르침을 탐구하고 그분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 더욱 노력합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 주셨습니다. 그

분은 그분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셨으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베드로후서 1:3~4) 하셨습니다.¹¹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곧 그분의 모범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죄와 단점과 슬픔과 연약함을 대신하여 당하신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우리도 똑같이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하여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위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마십시오. “윗자리”와 “높은 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에 관해 구주께서 주신 권고를 기억하십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마태복음 23:6, 11)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정을 받는 것보다는 의로움에, 지위가 아니라 봉사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매달 자신의 임무를 조용히 수행하는 성실한 가정 방문 교사는,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에서 더 중요한 직책이라 생각되는 직책에 있는 사람들만큼 주님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분들입니다. 눈에 잘 띄고 안 띄고는 그 가치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¹²

3

우리의 구원은 구주를 따르는 우리의 헌신에 달려 있다.

자신을 따르라는 주님의 권유는 다분히 개인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의무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견해의 중간에 영원히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질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태복음 4:15) 우리 자신의 구원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고 그 대답대로 얼마나 실천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태복음 16:16) 라고 계시로 받은 대답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와 동일한 권능에 따라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으며, 저 역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들과 똑같이 대답합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는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라도 대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지체되어 영원히 돌이키지 못하게 되기 전에 올바르게 대답을 하고 그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이실진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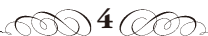
구주의 모범에 따라 생활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베드로에게 주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 내 양을 먹이라”(요한복음 21:15~17)는 그분의 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권유를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그분의 지고한 희생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충만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100:2 참조] 그리스도의 이러한 권유는 부적절하거나 비현실적이거나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한 개인을 따르다 함은 그 사람을 면밀히 주시하거나 그의 말을 경청하고, 그를 지도자로 받아들여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그의 생각을 지지하고 찬성하며, 그를 귀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베드로전서 2:21). 그리스도의 교리에 부합되지 않는 가르침이 헛되듯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지 않는 생활은 잘못된 것이기에, 그 고매한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

의로움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족 생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리를 따를 책임이 있으며 이를 자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68:25~28 참조] 종교는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 복음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동기를 부여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좀 더 구주를 닦기를 원한다면, 그분이 보이신 위대한 모범을 따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크나큰 과제가 됩니다.¹³

주님을 따라 생활하며 그분의 가르침과 모범을 자신의 가장 훌륭한 원형으로 삼을 때, 우리는 인생의 모든 면에서 일관되고 충실해지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가지 거룩한 행실 및 신념의 표준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에 있든지 시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학교를 떠난 지 오래 됐든지, 혼자 행동하든지,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행동하든지 간에 우리의 길은 분명하고 우리의 표준은 명확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 엘마의 말씀대로 “죽을 때까지 어느 때에나 무슨 일에나, [우리가] 있게 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다고]”(모사야서 18:9) 결정하게 됩니다.¹⁴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위한 방을 만들어야 한다.

베들레헴의 그날 밤에 여관에는 그분을 위한 방이 없었으며, 비단 그날 밤뿐만이 아니라 33년 동안의 지상 생활 동안 그분을 위한 방이 없었습니다. 헤롯은 병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헤롯의 소유지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었고, 그래서 그분의 부모는 그분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주님이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그분의 가르침을 받을 마음의 방, 그분이 가르친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방을 만들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분이 베푸신 기적과 축복을 위한 방, 그분이 말씀한 거룩한 진리를 위한 방, 그분의 사랑 또는 신앙을 위한 방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마태복음 8:20).

이천 년이 지난 우리 시대에도 베들레헴에서 그날 밤 한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이 없어요, 없어.”(누가복음 2:7 참조) 우리는 선물을 받을 방을 만들지만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분을 위한 방은 때때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의 상업성과 심지어 안식일에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방은 있지만, 예배를 위한 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다른 것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방이 없는 것입니다.¹⁵

성탄절의 불빛들은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 인간의 삶을 밝혀 주는 세상의 빛이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앨마서 38:9; 교리와 성약 10:70 참조] 진실로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지침이자 귀감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분의 탄생 전날,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에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누가복음 2:14) 인간이 그분의 모범을 따른다면, 이 세상은 평화와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¹⁶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으로서 오늘날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개인 생활에서 우리 주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우리의 말과 행동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에서 지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죄 없는 분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¹⁷

학습 및 교수 제언

질문

- 1편에 있는, 구주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신 여러 가지 모범을 복습한다. 구주의 모범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 우리는 그분이 지상 생활의 마지막 시간에 보여 준 모범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 헌터 회장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고, 그 대답에 따라 더 큰 용기를 내어 행동[하라고]”(2편) 권고했다. 어떻게 하면 더 큰 용기를 내어 구주의 모범을 따를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우리는 가정에서 이 원리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
- 3편에 나오는 가르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구주의 가르침과 모범의 영향이 없었다면, 여러분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졌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종교를 더욱더 우리 생활의 일부로 만들 수 있는가?
- 구주를 위한 “방이 없는” 것에 대해 헌터 회장이 한 말을 깊이 생각해 본다.(4편)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서 구주를 위한 방을 더 만들 수 있는가? 그분을 위한 방을 더 많이 만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관련 성구

마태복음 16:24~27; 요한복음 10:27~28; 14:12~15; 베드로전서 2:21~25; 제3니파이 31:12~13; 제3니파이 12:48; 18:16; 27:20~22; 교리와 성약 19:23~24

교사를 위한 도움말

각 사람에게 찬송가를 나눠 준다. 이 장에서 읽은 특정 구절들과 연관된 찬송가를 찾아서 나누어 달라고 권유한다.

참고

1. Thomas S. Monson, "President Howard W. Hunter: A Man for All Seasons," *Ensign*, Apr. 1995, 33.
2. Jon M. Huntsman Sr., "A Remarkable and Selfless Life," *Ensign*, Apr. 1995, 24.
3. Francis M. Gibbons, *Howard W. Hunter: Man of Thought and Independence, Prophet of God*(2011), 152.
4. Jay M. Todd, "President Howard W. Hunter: Fourteenth President of the Church," *Ensign*, July 1994, 4-5.
5.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ed. Clyde J. Williams(1997), 40-41.
6. "그리스도의 시험", *성도의 벗*, 1977년 2월호, 17~18쪽.
7. "마지막 순간", *성도의 벗*, 1974년 12월호, 32쪽.
8. "만인을 위한 교회", *성도의 벗*, 1990년 8월호, 43~44쪽.
9.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성도의 벗*, 1994년 7월호, 64쪽; 또한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권유하심", *성도의 벗*, 1994년 10월호, 6쪽;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십시오", *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87쪽 참조
10. "사도의 그리스도 증거", *성도의 벗*, 1984년 8월호, 22쪽.
11.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8쪽
12. "교회의 여성들에게", *성도의 벗*, 1993년 1월호, 96쪽.
13. "주님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권유하심", 4~5쪽; 또한 "사도의 그리스도 증거", 22~26쪽; Conference Report, Oct. 1961, 109 참조.
14. "하나님의 증인이 됨", *성도의 벗*, 1990년 7월호, 68쪽.
15.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41-42.
16.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44-45.
17.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45.



시각 자료 목록

- 15쪽: 브리검 영 대학교 예루살렘 센터의 사진 © Deseret News
- 36쪽: 잃어버린 양, 텔 파슨
- 39쪽: 해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세부, 제임스 티솅
- 42쪽: 바람에 맞서, 리즈 레몬 스윈들
- 48쪽: 두려움에서 신앙으로, 하워드 라이언
- 54쪽: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제프 하인
- 60쪽: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고치시는 그리스도, 칼 하인리히 블로흐, BYU 미술 박물관 제공
- 65쪽: 리버티 감옥에 있는 조셉 스미스, 그렉 케이 올슨
- 74쪽: 더 소중히 여겨야 할 선물, 월터 레인
- 88쪽: 조셉 스미스 이세, 앨빈 지턴스
- 93쪽: 교회를 조직할 때 계시를 받는 조셉 스미스, 주디스 에이 메어
- 106쪽: 나를 붙들지 말라, 미네르바 케이 타이거트
- 162쪽: 자기 지팡이를 조셉 나이트 일세에게 주는 조셉 스미스, 폴 만
- 168쪽: 잃어버린 양을 안고 오시는 예수님의 세부, 미네르바 케이 타이거트.
- 198쪽: 나를 기념하라의 세부, 월터 레인, © IRI
- 202쪽: 항상 그를 기억하고, 로버트 티 바렛
- 222쪽: Busath Photography
- 232쪽: 입법자 모세, 테드 해닝거
- 238쪽: 읊, 게리 엘 캡
- 247쪽: 제물로 바치기 위해 이삭을 데려가는 아브라함, 텔 파슨, © IRI
- 254쪽: 구주의 겉옷 자락을 만지는 여인, 주디스 에이 메어
- 268쪽: 병자를 고치시는 그리스도, 제프 하인
- 276쪽: 맹인을 고치심, 칼 하인리히 블로흐, 덴마크 힐레뢰드에 있는 프레데릭스보르 국립 역사 박물관 제공. 복사 금지.
- 297쪽: 오, 복되신 예수여, 월터 레인
- 304쪽: 기록할 수 없는 말, 게리 엘 캡
- 311쪽: 내 양을 먹이라, 카밀 코리



색인

ㄱ

가르침

- 교회에서 좋은 -의 중요성, 279~289
- 모범으로 -, 279, 281, 287
- 영으로 -, 283~284

가정 복음 교육, 6~7, 169~170, 189, 222

가정

- 에서의 고결성, 225
- 에서의 신권, 223~224
- 의 성공이 가장 큰 추구가 되어야 함, 230
-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함, 229~230
- 부모가 -에서 모범을 보임, 223
- 부모가 -의 영적인 분위기를 결정함, 223
- 부모는 -을 이끄는 협력자임, 222~224
- 사랑과 기도, 가르침의 장소가 되어야 함, 225~226

가정의 밤, 13~14, 225

가족 역사 사업

- 에 대한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사랑, 187, 189
- 을 서둘러야 함, 31, 193~195
- 의 목적, 192~193
- 씩씩하게 행함, 193~195

가족

- 내에서의 경전 공부, 144~145, 146, 147, 148
- 내에서의 기도, 226
- 평의회, 226

-은 교회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 조직임, 221~222

-은 성전 사업으로 축복 받음, 182~185

-은 이생에서 다른 모든 관심사를 초월함, 221

부모는 -을 같이 이끄는 협력자임, 222~224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사랑해야 함, 222~224

간증

-을 얻는 방법, 269~277

-을 인식함, 277

신앙에 따른 행동은 -으로 이어짐, 276~277

결심

-은 단순한 공헌 이상의 것임, 244~246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을 보임, 246~247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 244~245

살아 있는 회원은 완전한 -을 지니려 노력함, 251~252

아브라함의 -, 248~249

여호수아의 -, 246~247

결혼

- 결정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대한 조언, 210, 211

- 생활에서 하나가 됨, 214

- 생활에서의 사랑, 210, 213~217

- 생활에서의 이타심, 216~217

- 생활에서의 자애, 214

- 생활에서의 정절, 214~215
 - 생활에서의 친밀감, 215~216
 - 생활에서의 행복, 213, 214~217
 - 생활의 끈을 강화함, 214~217
 - 은 배우는 행동임, 213
 - 은 하나님과 협력 관계임, 210
 - 결혼하지 못한 합당한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도 거부되지 않음, 211~213
 - 복음에 따라 살려는 최선의 노력이 필요함, 213
 - 성전 -, 184, 191, 210
 -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며 영원할 것임, 209~210
 - 하워드 더블유 헌터와 이니스 스탠튼의 -, 27~28, 209
 - 하워드 더블유 헌터와 클레어 제프스의 -, 8~9, 24~26, 155, 157, 207, 209, 219, 221
 - 겸손
 - 역경은 우리가 -을 발전시키도록 도울 수 있음, 29, 62, 64, 80
 -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 155, 157, 291, 293
 - 경전
 - 공부는 가장 유익한 공부임, 144~145
 - 공부는 우리가 높은 곳에서 배우도록 도움, 76~79
 - 공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순종하도록 도움, 145~146
 - 공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더 가깝게 데려옴, 151~152
 - 에서 가르침, 284~285
 - 을 이해하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공부해야 함, 147~149
 - 가족 내에서의 - 공부, 144~145, 146, 147, 148
 - 다른 사람들이 경전에 대한 확신을 키우도록 도움, 282~283
 - 심화 학습의 모범, 149~151
 - 고결성
 -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 244~245
 - 성전에 들어갈 때의 -, 182
 - 악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성공하도록 도움, 238~239
 - 욥의 -, 238~239
 -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 12~13, 233~234
 - 교사
 - 개개인에게 다가서도록 노력함, 285~287
 - 교사에게 충성하도록 해서는 안됨, 284~285
 - 모범으로 가르침, 279, 281, 287
 - 영으로 가르침, 283~284
 -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학생들에게 권유함, 284~285
 - 학생들이 경전에 대한 확신을 키우도록 도움, 282~283
 - 학생들이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도록 도움, 288~289
 -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참조
 - 기도
 - 를 통해 지식과 인도를 받음, 79~80, 82~83
 - 에 대한 조셉 스미스의 모범, 76~79
 - 와 경전 공부, 147, 151~152
 - 가정에서의 -, 223, 225~226
 - 하나님을 알게 되는 -, 270~272
 - 항상 -함, 80~82
-
- 노웰, 낸시 (고조 할머니), 87

口

모범

- 으로 가르침, 279, 281, 287
- 부모의 -, 223

몰몬경, 144, 151~152

ㅂ

복음

- 은 행동의 계획임, 276
- 을 가르침, 225~226, 279~289
- 을 나누기 위해 장애를 극복함, 129~130
- 을 온 세상에 전함, 121~130
- 이 충만하게 회복됨, 89, 91, 116, 190
-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임, 124
- 살아 숨쉬는 -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들, 213
- 세상이 -을 필요로 함, 53, 126, 261
- 세상이 평안을 알게 될 유일한 방법임, 52~55, 126, 261
- 영적 성장을 위한 신성한 계획임, 84

복지 프로젝트, 15

봉사

- 기회를 찾음, 310
- 할 때 타인의 칭찬을 조심해야 함, 301~302
- 고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대한 -, 259~261
- 작고 단순한 방법으로 하는 -, 293~298
- 장소가 아니라 이유에 관심을 가져야 함, 299~301, 310
-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 291, 293~298, 301~302
- 참된 위대함을 가져옴, 155, 157, 160, 162~163

- 평안을 가져옴, 54
- 하나님에 대한 우리 헌신의 척도임, 257
- 행복을 가져옴, 301

부모

- 의 협력 관계, 222~224
- 길을 잃은 자녀들의 -, 227~229
- 자녀를 보호하고 사랑해야 함, 222~224
-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함, 222~226, 311

부활, 43, 46, 99, 101, 104~109, 203

브리검 영 대학교 근동 연구 예루살렘 센터, 22~24, 49, 123

ㅅ

사랑

- 은 제자가 되는 시금석임, 256~257, 260~261
- 이 더 탁월한 길임, 263~265
- 가족 안에서의 -, 222~230
- 결혼 생활에서의 -, 210, 213~217
-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 259~261
- 모든 사람을 위한 -, 52~53, 123~125, 256~265
- 사랑하기가 어려운 사람에 대한 -, 258~259
- 또한 자애 참조

선교 사업

- 과 속죄, 127~128
- 에 대한 장애를 극복함, 129~130
- 에서 주님의 손길, 121
- 을 행하는 교회의 사명, 125~126
- 개인적인 책무임, 127~128
- 모든 나라를 위한 것임, 123~127

선지자

- 를 지지함, 181

-를 통한 지속적인 계시, 111~119
 -에게 귀 기울이면 영적 풍성함을 가져옴, 116
 -에게 귀 기울이면 우리가 올바른 길에 있게 해 줌, 116~118
 각 경륜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 92, 113~114
 선견자로서의 -, 92~94
 오늘날 인도를 제공함, 114~115
 진리의 교사임, 92
 태어나기 전에 택함받음, 114

성신
 -으로 가르침, 283~284
 선견자의 영적인 시야를 뜨게 함, 94
 성령을 지니려면 정직해야 함, 239~240
 영적인 지식을 줌, 79~80, 83, 147

성전
 - 결혼, 184, 191, 210
 - 사업을 서둘러야 함, 31, 193~195
 - 의식은 구원에 필수임, 189~190
 -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됨, 1, 3, 184~185, 193~195
 -에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 190~191
 성전 사업의 축복, 182~185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하게 됨, 1, 180~182
 평안의 장소임, 3, 179, 185
 회원 상태의 상징임, 1, 31, 177~180

성지, 21~24, 39~40

성찬
 -을 취함으로써 성약을 새롭게 함, 128, 203~205
 구주께서 제정하심, 102, 201~203
 하워드 더블유 헌터가 -을 전달하고 축복함, 4~5, 197, 199

세미나리 프로그램, 14
 속죄. 예수 그리스도, 속죄 참조

순결, 181

순종
 -과 경전 공부, 145~146
 믿음을 동반해야 함, 249~251
 아브라함의 -, 248~249
 엄격한 길을 선택함, 247~249
 여호수아의 -, 246~247
 타인의 행동과는 관계가 없음, 246~247
 또한 결심 참조

스미스, 조셉
 -가 경험한 역경, 64~65
 -를 통해 교회가 다시 세워짐, 90~91
 -의 생애와 업적, 94~97
 -의 첫번째 시현, 76~79, 89~90
 경전을 찾는 -의 모범, 76~79
 기도에 대한 -의 모범, 76~79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였음, 92~94
 타인을 보살피고 봉사함, 160~162

시련. 역경 참조

신권
 -과 성전, 189~190, 191~192
 가정에서의 -, 223~224, 226
 결혼 생활에서의 -, 214, 229

신앙
 -에 따른 행동은 간증으로 이어짐, 276~277
 구주에 대한 -은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임, 43~44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의 -, 273~274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줌, 272~273
 역경의 시기에 구주에 대한 -, 44~47, 54~58, 66~67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살아 계심을 알게 해 줌, 269~272

십일조
 -를 내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임, 136~137
 -를 내는 축복, 138~139
 -에 대한 주님의 정의, 134
 -의 법은 단순함, 134
 -의 법은 태초부터 존재했음,
 134~136
 -의 용도, 136~137
 선물인 동시에 책무임, 136~137
 하워드 더블유 헌터가 완전한 -를
 내는 사람이 됨, 133

○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참조
 아버지
 -의 책임, 146, 148, 222~224, 226
 또한 가족; 부모 참조
 어머니
 -의 책임, 146, 148, 222~224
 또한 가족; 부모 참조
 역경
 - 동안 낙관적이 됨, 66
 - 속에서 구주를 바라봄, 29, 44~47,
 54~58, 66~67
 - 속에서 버티는 것은 참된 위대함을
 가져옴, 162~163
 속죄는 -과 관련해 우리를 도움,
 44~47, 51~58, 66~67, 103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정화할 수
 있음, 29, 62, 64, 80
 우리의 성장과 경험을 위한 것임,
 64~65
 우리의 진보를 위한 하나님 계획의
 일부임, 62~65
 조셉 스미스가 경험한 -, 64~65
 필멸의 세상에서 필요한 부분임, 45,
 56
 하워드 더블유 헌터가 경험한 -, 29,
 33~34, 99

예루살렘 센터. 브리검 영 대학교 근동
 연구 예루살렘 센터 참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는 계시로 인도됨, 114, 115,
 117~118
 -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다시
 세워졌음, 90~91
 -는 온 나라에 복음을 가르치는
 책임을 갖고 있음, 125~127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 머리이심, 111,
 113

예수 그리스도
 -를 믿는 신앙, 43~47, 54~58, 66~67
 -를 알 필요가 있음, 40~41
 -를 위해 빈 자리를 만듭, 312
 -의 모범과 가르침을 따름, 1,
 32, 43~44, 157, 240, 261~262,
 305~313
 -의 부활, 43, 99, 101, 104~109, 203
 -의 사랑, 101~102, 255, 262~263,
 307~308
 -의 속죄, 43, 99, 101~103, 127~128,
 203
 -의 신성한 사명, 39
 경전 공부는 우리를 -에게 더 가깝게
 데려옴, 151~152
 교사는 학생들이 -를 찾도록 권유함,
 284~285
 교회의 머리이심, 111, 113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그분의
 교회를 다시 세우셨음, 90~91
 성찬을 제정하심, 102, 201~203
 소망과 기쁨의 유일한 근원이심,
 41~42
 십자가에 달리심, 103
 역경 동안 우리를 도와주심, 44~47,
 51~58, 66~67, 103
 우리 생활의 중심을 -에게 둬, 1,
 45~47

우리 죄와 약점, 슬픔, 고통을
 짊어지셨음, 102~103
 유일하게 확실한 길임, 39, 169
 첫번째 시현에서 나타나심, 78,
 89~90
 평안의 유일한 근원이심, 42, 51~58

위대함
 -에 대한 세상의 정가가 종종 우리를
 잘못 이끌, 157~159
 버틸 때 옴, 162~163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보여줌,
 160~162
 오랜 기간에 걸쳐 조금씩 발걸음할
 때 옴, 164
 작은 것에 충실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할 때 옴, 159~160
 종종 눈에 띄지 않게 봉사할 때 옴,
 162~163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정하신 것을
 행할 때 옴, 165~166

유월절, 102, 199~203
 유타 계보 협회, 19, 31, 189

ㅈ

자녀
 -에 대한 부모의 책임, 221~230
 -에게 모범으로 가르침, 279, 281,
 287
 -에게 복음을 가르침, 281
 -에게 성전에 대해 가르침, 184
 길을 잃은 -, 227~229

자애
 결혼 생활에서의 -, 214
 더 단호하게 -를 실천함, 261~262
 세상은 -에서 큰 혜택을 볼 것임, 263
 시들지 않음, 262~263
 신성한 다른 모든 덕성을 포함함,
 262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옴, 53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 255~256
 또한 사랑 참조

저활동 회원
 교회 활동으로 되돌아오도록 권유함,
 31, 169~175
 잃어버린 양을 찾음, 170~175

정직
 -에 대한 주님의 권고, 234~235
 가정에서의 -, 225
 사적 및 공적인 일에서의 -, 237~238
 성전에 들어갈 때의 -, 182
 자신에 대한 -, 236, 239~240
 작고 평범한 것에서 자라남, 235~236
 참된 기쁨을 가져옴, 239~240
 타인에 대한 -, 239~240
 하나님께 -함, 239~240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 12~13,
 233~234
 또한 고결성 참조

조셉 스미스, 스미스, 조셉 참조
 죽은 자를 위한 침례, 184, 190~191

ㅊ

첫번째 시현, 76~79, 89~90

침례
 - 성약, 128, 170, 174
 -의 올바른 형식, 210
 예수님의 -, 306
 하워드 더블유 헌터 부친의 -, 6~7,
 177
 하워드 더블유 헌터의 -, 4~5, 197

표

평안
 구주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에서
 옴, 53
 복음 생활을 통해 자라남, 52~55

- 복음은 세상이 -을 알게 될 유일한 길임, 52~55, 126, 261
 성전은 -의 장소임, 3, 179, 185
 예수는 -의 근원이심, 42, 51~58
 혼란 시기의 -, 56~58
 폴리네시아 문화 센터, 19~20
- ㅎ**
-
- 하나님 아버지
 -께 기도함, 80~83
 -를 찾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성취임, 269~270
 -에 대한 결심, 243~252
 -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면 노력과 순종, 기도가 필요함, 270~272
 -의 사랑, 101~102, 123~125
 교사는 학생들이 -를 찾도록 권유함, 284~285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함, 76
 첫번째 시현에서 나타나심, 89~90
- 행복
 결혼 생활에서의 -, 213, 214
 계명을 지킬 때 옴, 68
 부적절한 비교가 -을 파괴함, 157~159
 어려운 시기의 -, 66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려 노력할 때 옴, 39
 정직할 때 옴, 234, 240
 타인에게 봉사할 때 옴, 301
- 헌터, 벨리 메리 라스무센 (어머니), 3~5, 15~16, 177, 188
 헌터, 도로시 (여동생), 3~6, 16
 헌터, 이니스 버니스 이건 스탠튼 (둘째 부인), 27~28, 209
 헌터, 존 윌리엄 (월) (아버지), 3~4, 6~7, 15~16, 177, 188
 헌터, 클라라 “클레어” 메이 제프스 (첫째 부인), 8~10, 12, 13, 24~26, 49, 133, 155~157, 207, 209, 219, 221
 헌터, 하워드 더블유
 -가 성찬을 전달하고 축복함, 4~5, 197, 199
 -와 브리검 영 대학교 근동 연구 예루살렘 센터, 22~24, 49, 123
 -의 간증, 4, 29, 30, 34, 39, 62, 87, 89, 99, 101, 267, 269
 -의 건강 문제, 23, 25, 27, 33~34
 -의 겸손, 155, 157, 291, 293
 -의 근면, 5, 10, 15
 -의 내적 평안, 28~29, 49, 51, 293
 -의 부모, 3~7, 15~16, 177, 188
 -의 사망, 33~34
 -의 아론 신권 성임, 5, 197
 -의 어린 시절, 4~6
 -의 음악 솜씨, 6, 7, 9, 219
 -의 자애, 5~6, 255~256
 -의 정직, 12~13, 233~234
 -의 출생, 3
 -의 침례, 4~5, 197
 가족 역사에 대한 -의 사랑, 187, 189
 감독으로서 -의 봉사, 10~12
 경전 대한 -의 사랑, 143~144
 교회 역사가로서 -의 봉사, 20~21
 교회 회장이 됨, 29~33, 111, 113
 남편으로서 -, 25~26, 49, 155, 157, 207, 209
 멕시코시티에서 스테이크를 조직함, 24, 32
 변호사로서 -의 사회 경력, 10, 12~13, 18, 34, 243~244, 255
 복음 공부에 대한 -의 사랑, 8, 143, 267
 부모에 대한 -의 인봉, 15~16, 177
 성지에 대한 -의 사랑, 21~24, 39~40

스테인크 회장으로로서 -의 봉사,
13~16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서 -의
봉사, 16~18, 243~244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로서 -의
봉사, 26~29
아버지와 할아버지로서 -, 12, 219,
221
어머니에게서 기도를 배움, 4, 75
완전한 십일조 헌금자가 됨, 133
유타 계보 협회에서 -의 봉사, 19,
31, 189
이글스카우트 상을 받음, 5
이니스 스탠튼과 -의 결혼, 27~28,
209

클레어 제프스와 -의 결혼, 8~9,
24~26, 155, 157, 207, 209, 219,
221
폭파 위협에 대한 -의 반응, 28~29,
49, 51
폴리네시아 문화 센터 회장으로로서
-의 봉사, 19~20
헌터, 하워드 윌리엄 이세 (빌리)(아들),
9~10, 99
후기
충실한 성도는 -의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 68~71
큰 희망과 설렘의 시기임, 70~72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KOREAN



4

02088 61320

0

08861 320